

인천광역시사 ⑩

인천의 관방유적 하

일러두기

1. 편찬 기본 방침

- 2019년 《인천광역시사》 제10호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지향하면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유산인 『인천의 관방유적』을 정리하였다. 1973년부터 진행된 시사편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사(市史)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유구한 인천 역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인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천 역사가 담긴 ‘관방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 이 책은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인 10개 군구의 역사와 변천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체제 및 방법을 포괄하면서 통시대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흥미롭게 문화유산과 인천의 오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격과 판형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013년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업〉 이후 연차사업으로 『인천 체육의 발자취』, 『인천의 지명』, 『인천의 지지(地誌)와 지도(地圖)』, 『인천의 건축』,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등 주제를 달리해서 1~2권의 『시사』를 편찬하고 있다.

2. 집필원칙

-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였다.
- 서술 시기는 전근대부터 개항기까지로 했으나, 편찬과정에서 최근의 발굴 조사 부분 까지를 포함하였다.
- 문장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이외에 인용문은 원문과 설명문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 등을 표시하였다.
- 군구별 관방유적의 위치는 지도에 표시하였다.
- 각주번호는 군구별로 새로 시작하였다.
- 각주에서는 한자를 병기하되 원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하였다.

- 역사용어는 국정교과서의 용례에 따랐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의 명칭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자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 』: 문헌이나 저서명, 「 」: 논문명
 - 《 》: 총서명이나 관보, 〈 〉: 신문, 잡지 기사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3. 내용

- 『인천의 관방유적』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인천의 10개 군구에 위치한 관방유적을 조사·정리하고, 고문헌과 지도, 사진 등 수집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인천광역시사이다.
- 『인천의 관방유적』은 모두 2권(상·하권)으로 구성하였다. 상권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가 포함되었고, 하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록되었다.
- 상권은 인천 역사의 원류인 문학산성과 부평·김포평야 일대에서 관방의 중심인 계양산성의 옛 기록을 정리하고, 최근의 조사·연구된 결과를 반영하여 이들 유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윤요호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영종진, 인천 연안의 방비(防備)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화도진과 연희진 그리고 중심성의 축성까지를 검토하였고, 이후 제물포의 개항으로 관방의 기능이 상실되는 과정까지 서술하였다.
- 하권은 개경과 한양의 중요한 길목인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관방체제를 강도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왕실의 보장처로 인식된 강화도의 성곽과 봉수, 12진보와 54돈대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조선 후기 강화도 중심의 관방체제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동의 관방체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부터 해상 방어의 전진기지로써 중앙군의 군마공급처로 기능했던 옹진군의 군진과 목장의 운영 등도 옛 기록과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1. 강화의 역사지리적 환경	13
1) 강화의 지리적 환경	
2) 강화의 역사 변천 과정	
2. 강화의 성곽	23
1) 강도 이전의 성곽	
(1) 혈구진성 / (2) 삼랑성 / (3) 하음산성 / (4) 고려산성	
2) 강도시대의 산성	
(1) 강화도성	
3) 조선시대의 성곽	
(1) 강화산성 / (2) 강화외성 / (3) 강화전성	
3. 강화의 봉수와 요망대	51
1) 대모성산봉수	
2) 진강산봉수	
3) 망산봉수	
4) 별립산봉수	
5) 송악봉수	
6) 남산봉수	
7) 하음산봉수	
8) 길상산봉수	
9) 동검도봉수	
10) 말도봉수	
11) 불음도봉수	
12) 어류정요망대	
13) 황산도요망대	
14) 주문도요망대	
4. 강화의 마장	64
1) 진강장	
2) 길상장	
3) 북일장	
4) 매음장	
5) 기타	

5. 기타 관방유적	73
1) 갑창성지	
2) 정창성지	
3) 금위영지	
4) 북파루지	
5) 광화문지	
6) 중영지	
7) 진무영지	
8) 연무당지	
9) 훈련도감지	
10) 덕진별관지	
6. 강화도 진보 설치와 현황	80
1) 강화도 진보 설치 과정	
2) 강화의 12진보	
(1) 제물진 / (2) 월곶진 / (3) 승천보 / (4) 철곶보 / (5) 인화보 / (6) 정포보	
(7) 장곶보 / (8) 선두보·화도보 / (9) 초지진 / (10) 덕진진 / (11) 광성보 / (12) 용진진	
7. 강화도 돈대 설치와 현황	105
1) 돈대 설치	
2) 돈대 입지와 현황	
8. 『강도지』와 『강화부지』의 강화 관방	141
1) 『강도지』	
2) 『강화부지』	
9. 교동의 관방체제	191
1) 교동의 방어체제	
2) 교동의 방어체제 변화	
3) 경기수군절도사영의 교동 이설	
10. 교동의 관방유적	219
1) 성곽	
(1) 화개산성 / (2) 고구리 고읍성 / (3) 교동읍성	
2) 봉수	
11.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교동 관방	239

1. 백령도	269
1) 백령진	
2) 진촌리 첨사선정비군	
2. 대청도	282
3. 덕적도	291
4. 장봉도	297
1) 장봉진	
2) 봉화산봉수	
3) 장봉도 목장과 마성	
5. 신도	307
1) 신도 목장과 마성	
6. 자월도·대이작도·소이작도	311
1) 자월도 목장	
2) 자월도 국사봉봉수	
3) 대이작도 부아산봉수	
4) 대이작도 소리산봉수	
7. 영흥도	321
1) 영흥진	
2) 영흥도 목장과 마성	
8.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웅진 관방	331



인천의 관방유적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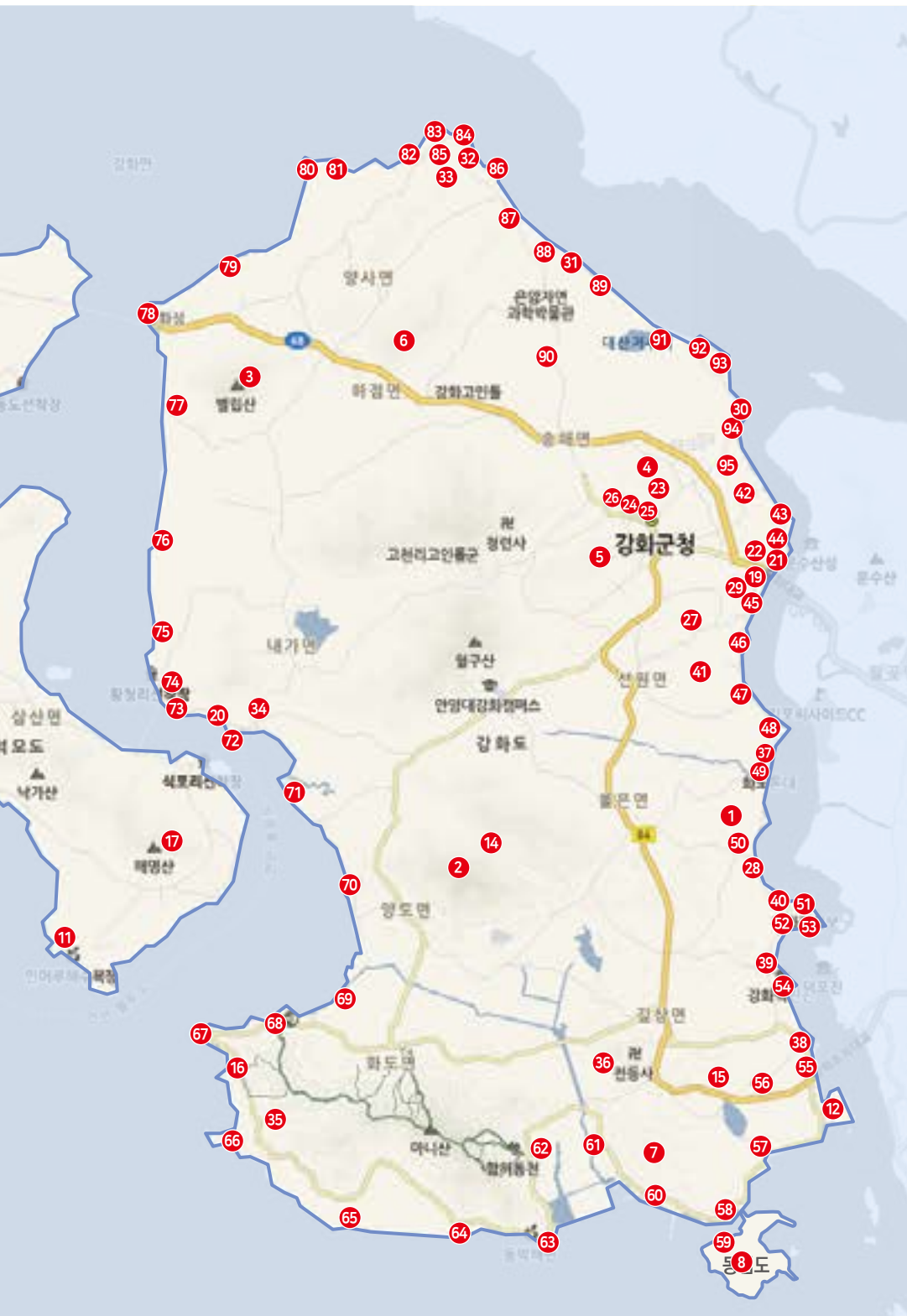


강화군

| 관방유적 위치 |

- | | | | |
|-----------|----------|-------------|--------------|
| 1 대모성산봉수 | 27 훈련도감지 | 53 용두돈대 | 79 광암돈대 |
| 2 진강산봉수 | 28 덕진별관지 | 54 덕진돈대 | 80 구등곶돈대 |
| 3 별립산봉수 | 29 제물진 | 55 초지돈대 | 81 작성돈대 |
| 4 송악봉수 | 30 월곶진 | 56 장자평돈대 | 82 초루돈대 |
| 5 남산봉수 | 31 승천보 | 57 선암돈대 | 83 불장돈대 |
| 6 하음산봉수 | 32 철곶보 | 58 택지돈대 | 84 의두돈대 |
| 7 길상산봉수 | 33 인화보 | 59 동검북돈대 | 85 철북돈대 |
| 8 동검도봉수 | 34 정포보 | 60 후애돈대 | 86 천진돈대 |
| 9 말도봉수 | 35 장곶보 | 61 양암돈대 | 87 석우돈대 |
| 10 불음도봉수 | 36 선두보 | 62 갈곶돈대 | 88 빙천돈대 |
| 11 어류정요망대 | 37 화도보 | 63 분오리돈대 | 89 소우돈대 |
| 12 황산도요망대 | 38 초지진 | 64 송곶돈대 | 90 속룡돈대 |
| 13 주문도요망대 | 39 덕진진 | 65 미루지돈대 | 91 낙성돈대 |
| 14 진강장 | 40 광성보 | 66 북일곶돈대 | 92 적북돈대 |
| 15 길상장 | 41 용진진 | 67 장곶돈대 | 93 휴암돈대 |
| 16 복일장 | 42 망해돈대 | 68 선수(검암)돈대 | 94 월곶돈대 |
| 17 매음장 | 43 제승돈대 | 69 송강돈대 | 95 옥창돈대 |
| 18 주문도 마장 | 44 염주돈대 | 70 굴암돈대 | 96 화개산성 |
| 19 갑창성지 | 45 갑곶돈대 | 71 건평돈대 | 97 고구리 고읍성 |
| 20 정창성지 | 46 가리산돈대 | 72 망양돈대 | 98 교동읍성 |
| 21 금위영지 | 47 좌강돈대 | 73 삼암돈대 | 99 화개산봉수 |
| 22 복파루지 | 48 용당돈대 | 74 석각돈대 | 100 수정산봉수 |
| 23 광화문지 | 49 화도돈대 | 75 계룡돈대 | 101 삼도수군통어영지 |
| 24 중령지 | 50 오두돈대 | 76 망월돈대 | |
| 25 진무영지 | 51 광성돈대 | 77 무태돈대 | |
| 26 연무당지 | 52 손돌목돈대 | 78 인화돈대 | |







강화군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다.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 한반도 중부 주요 하천들의 하구에 위치한 강화도는 서해 연안항로의 경로에 자리하여 각 시대마다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강화도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대몽항쟁기 강화는 39년간 고려의 도읍으로 역할을 하였다. 전란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피난이 아니라 도읍 자체를 옮기는 일은 매우 드문 예

*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로서 이 자체로도 강화도의 역사적 가치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수도 한양의 인후지지(咽喉之地)로서 기능하였던 강화도는 왜란과 호란 등 양란을 겪은 후 왕실과 종묘사직의 보장지처(保障之處)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 청(淸)에 굴복을 경험한 조정은 강화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돈대, 외성 등 다양한 국방유적을 건설하였다. 19세기 강화도는 제국주의 열강과 조우하는 최전선에 자리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198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호 사건 등 프랑스·미국·일본 등과 전투를 한 전장이었다.

시대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강화도에는 많은 국방유적이 남아 있다. 관방(關防)유적이라고도 불리는 국방유적은 국경의 방비를 위해 설치한 성곽(城郭), 봉수(烽燧) 등 군사적 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강화도는 현재도 군사적 요충이기 때문에 발굴 등의 체계적인 학술조사에 제한이 있어 그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강화도 북쪽 민통선 내 국방유적이 안보상의 문제로 접근이 제한되었고, 일부 국방유적은 도로사정 등으로 강화도를 찾는 시민들이 1970년대 재현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을 국방유적 전부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화도의 국방유적의 현황과 그 설치 배경, 그리고 그 기능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의 성격을 가진 자료가 부족한 것도 그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강화도 국방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성곽, 봉수, 마장, 진보와 돈대 등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강화도의 국방유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강화의 역사지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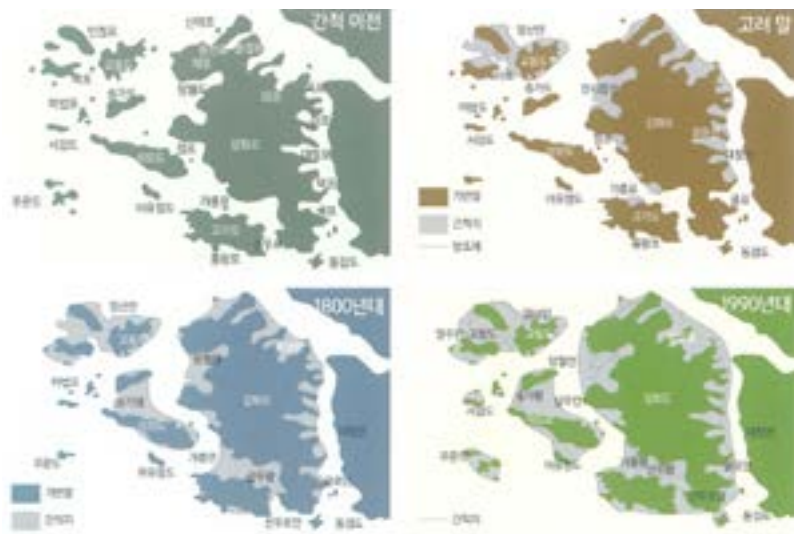
1) 강화의 지리적 환경

강화도는 한강,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에 위치한 섬이다. 한강 및 임진강을 통해 서울 및 경기내륙지역으로 이를 수 있고, 예성강을 통해서 개성과 황해도 내륙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서해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한반도 서해안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더욱이 섬 주변으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외부로부터 침입이 쉽지 않은 군사적 조건도 갖추고 있다. 김포의 서쪽 해안과 강화도의 동쪽 해안이 형성하고 있는 염하(鹽河)는 수심이 얕아 큰 배의 접근이 어렵고 유속이 빨라 작은 배들은 전복되는 천혜의 방어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이 몽골과 항쟁하였던 39년 동안 고려의 수도인 강도(江都)로 존재하게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의 인후지지, 조선 왕실의 보장지처로 기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지도상으로 동경 126° 6′과 동경 126° 32′ 사이, 북위 37° 38′과 북위 37° 51′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도는 남북 28km, 동서 16km이고 섬 둘레는 112km이며, 총 면적이 411.428㎢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본래 강화도는 김포반도와 연결되었던 육지였는데 장기간에 걸친 침식으로 평탄화된 후 침강운동으로 낙조봉, 고려산, 혈구산, 마니산 등을 주봉으로 하는 여러 개의 구릉성 도서(島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한강과 임진강에서 밀려온 토사의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다시 김포반도와 연결되었으나 염하의 침식작용으로 강화해협이 형성되면서 독립된 섬을 이루게 되었다.¹⁾

지형은 전반적으로 서고동저형(西高東底形)을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는 별립산(別立山, 400m), 마니산(摩尼山, 469m), 혈구산(穴口山, 466m), 진강산(鎭江山, 443m), 길상산(吉祥山, 336m) 등의 해발 300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화읍 북쪽의 금동산(114m), 남산(232m)과 동쪽 해안가에 당산(74.2m), 대모산(84.2m) 등 대체로 낮은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산지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해 있다. 강화도에는 50여 개의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18개이며, 나머지는 시내 정도의 규모이다. 주요 하천은 고려산, 혈구산, 퇴모산 등에서 발원하여 고려저수지를 지나 황해로 흘러가는 내가천과 고려산, 노적산, 혈

1) 송중현, 「지형경관으로 본 강화의 풍토」, 『기전문화연구』 제29·30합집, 2002.



강화도 간척사업의 전개

구산 등에서 발원하여 강화읍을 지나 강화해협으로 유입되는 동락천이 있다. 이외에도 오류천·금곡천·덕인천 등은 한강하구로, 삼거천·교황천은 황해로 유입된다.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하천은 발달하기 어려우나, 비교적 산지가 높아서 산간계곡수를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고려저수지, 장흥정수지 등이 곳곳에 축조되어 있다.²⁾

강화도에는 교동도, 석모도를 비롯한 11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서가 부속되어 있다. 부속도서 가운데 교동과 석모도, 주문도, 서검도 또한 본래 여러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2) 강화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상권, 2003.

실시된 간척으로 하나의 섬이 되었다. 본래 강화 본도 역시 3~4개의 큰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도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농토 확장과 방어시설 설치를 위해 해안에 제방을 설치하면서 불규칙한 해안선이 정리되었고, 산지 사이에 펼쳐진 평야지대와 함께 간척지가 농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강화도의 해안 간척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12.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146mm로 내륙지방에 비해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2) 강화의 역사 변천 과정

구석기시대부터 강화도에 사람들이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뚜렷한 유적은 없지만 하점면 장정리와 내가면 오상리에서 뽕석기가 수습되었으며³⁾ 창후리에서 다각면원구가 출토됨⁴⁾에 따라 구석기문화가 강화도에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화도 해안가와 부속 도서에서 조개무지들이 발견되었고 최근 길상면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존재가 확인되면서⁵⁾ 바닷가와 강가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신석기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김석훈, 「선시시대의 강화」, 『신편 강화사』 상권,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

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 창후리 청소년유스호스텔 부지내 발굴조사』, 2008.

5) 경인문화재단연구원, 『강화 덕성리 페르퀀트 조성사업 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2011.

신석기시대 이후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가 강화도의 선사시대를 특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강화도에는 약 157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되어 있는 강화도 고인돌은 탁자식의 비율이 조금 높으며, 대부분 고려산과 별립산을 중심으로 하여 삼거리, 부근리, 망월리, 오상리, 교산리, 고천리 등 강화 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강화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인돌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청동기시대 강화도에 일정 규모의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인돌 이외에도 하점면 삼거리와 신봉리에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가 조사되었고,⁷⁾ 건평리 대화촌 유적, 도장리 유적, 동막리 유적 등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강화 전역에 걸쳐 청동기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강화도가 역사상에 등장하였는데, 갑비고차(甲比古次)라는 지명으로 백제의 경역에 속하였다. 4세기 후반 전개되었던 광개토왕의 남하 이후에는 고구려에 편입되어 혈구군(穴口郡)으로 개칭되었으며 수지현(首知縣)·동음나현(冬音奈縣)·고목근현(高木根縣) 등을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삼한이 일통한 이후에는 신라에 속하였는데 757년(신라 경덕왕16)에 시행된 한화정책에 따른 지방제도의 개편에

6)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강화의 문화유적』, 인천광역시, 2002.

7) 金載元·尹武炳, 「三巨里遺蹟」, 『韓國支石墓聯句』, 1967. ; 중원문화재연구원,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구간내 I 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II』, 2009.

의해 해구군(海口郡)이 설치되었고, 844년(신라 문성왕 6)에 혈구진(穴口鎭)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강화현(江華縣)으로 편성되면서 현재의 강화(江華)라는 지명이 등장하였다. 강화현에는 진강(鎭江)·하음(河陰)·교동(喬桐) 등 3개의 속현(屬縣)과 해녕향(海寧鄉)이 소속되었다. 진강현은 백제의 신지(信知)로 475년(고구려 장수왕 63)에 수지현이 되었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수진현(首鎭縣)이라 개칭하여 해구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진강현으로 고친 후 15세기 중엽까지 강화의 속현으로 있었는데 현의 치소는 진강산의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하음현은 백제의 휴음(休陰)으로 475년(고구려 장수왕 63)에 동음나현이 되었다가, 진강현과 같이 757년에 강음현(江陰縣; 일명 沔陰)이라 고쳐 해구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하음현으로 고쳤는데 치소는 현재 봉천산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교동현은 475년에 고목근현이 되었다가, 757년 교동현으로 고쳐 해구군의 영현이 되었다. 진강·하음현과 함께 고려시대 강화현에 속한 속현으로 있다가 고려 명종대에 독자적인 현으로 독립하였다. 해녕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진강현의 서쪽 5리에 위치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지금의 건평리 일대로 추정된다.

고려의 건국 이후 별다른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강화도는 고려가 몽골의 공격을 받으면서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무신정권

기 고려 조정은 몽골의 1차 침입 이후인 1232년 7월 강화도로 천도(遷都)를 단행하였다. 새로운 도읍지로 강화도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경과 가까운 섬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몽골군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지방과 조운이 편리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몽골과 강화하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간 강화도는 고려의 도읍지가 되어 강도(江都)라 불리었다.

고려의 도읍지가 된 강도에는 천도 직전 궁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관청·사찰 등의 도시 기반시설과 함께 외성(外城)·중성(中城) 등 성곽이 차례로 축조되었다. 『고려사』에 “비록 천도한 초창기이나 구정(毬庭)·궁전(宮殿)·사사(寺社)의 이름이 모두 송도(松都)에 따랐고 팔관(八關)·연등(燃燈)·행향(行香)·도량(道場)이 모두 옛 방식 그대로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개경을 모방하여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1259년 태자가 몽골에 입조하면서 고려는 몽골과 화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강도의 외성과 내성이 파괴되었고,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임연(林衍)이 사망함으로써 고려 조정은 1270년 5월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환도 이후 강화의 각종 시설들은 파괴되었고, 이로써 강화도는 고려의 도읍지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8) 『고려사』권23, 世家高宗 21年 2月 癸未條.

이후 몽골의 반란군 합단(哈丹)의 난을 피해 충렬왕이 강화도로 몽진하기도 하였고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는 강화의 읍치까지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방어기지로써 강화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안동으로 피난하였던 공민왕이 환도하면서 강화도의 용장사(龍藏寺)를 수리하여 머물러 하였고, 흥왕사(興旺寺)를 행궁(行宮)으로 삼아 강화를 보장지처로 활용하려 하였다. 강화도는 1363년(공민왕12) 강화부(江華府)로 승격하였다. 고려시대 강화도는 충정왕(忠定王), 우왕(禔王), 창왕(昌王) 등이 유배되는 등 유배지로서도 기능하였다.

조선이 개창하고 제도가 정비되었던 1413년(태종13)에 강화도는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가 되었다. 여말선초에 왜구의 침탈을 막는 주요한 방어기지로 역할을 하였던 강화도는 세조 때 진관체제가 정비되면서 경기도의 5대 거진(巨鎭) 중 하나가 되었다. 임진년과 정묘년에 발발하였던 양란을 겪으면서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왜란을 겪으면서 왕실과 조정이 피난하는 보장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강화도가 그 대상지로 부각되어 1618년(광해군10)에 강화부(江華府)로 승격하였다. 호란 당시 인조가 3개월간 강화도에 피난하여 위기를 극복한 후 1627년 남한산성과 함께 강화도를 보장처로 설정하면서 강화유수부(江華留守府)로 승격시켰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 몽진하지 못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 후 강화도는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효종 즉위 후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함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고 또한 북벌의 전초기지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단계적으로 12개의 진(鎭)과 보(堡)가 설치되었고, 진·보에는 8개의 포대와 54개의 돈대(墩臺)가 설치되었다. 또한 숙종대에는 강화산성이 개축되고 강화외성을 축조하였다. 아울러 고려시대부터 진행되었던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숙종대에 선두포를 독을 쌓아 막으면서 현재 강화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조대에 이르러 보장처로 기능하였던 강화도를 도읍을 수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자는 논의가 대두되어 정조대에 개성·광주·수원 등과 함께 강화도에 유수부를 설치하는 4도 유수체제가 성립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강화도는 제국주의 열강과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다. 통상을 요구하던 열강들은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도성의 인후지인 강화도가 전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군이 강화에 상륙하여 강화부를 점령한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당시 천총(千摠) 양헌수(梁憲洙)가 이끈 포수들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서양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예였다. 1871년에는 제너럴 셔먼호의 배상을 이유로 미국의 아시아함대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점령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의 함포외교로 개항을 한 일본은 같은 방법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목적으로 1875년 초지

진에서 운요호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빌미로 이듬해에 강화도에서 조일 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됨으로써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화도는 수도 한양을 방위하는 전초기지로서 열강의 침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였으나 결국 국운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주권 회복을 위해 조정은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국과 협의하여 1893년 9월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충제영학당을 갑곶진에 설치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11월 폐쇄되었다.

갑오개혁에 따른 군제개편에 의해 1896년에는 강화지방대가 대대 규모로 설치되어 300명의 병력이 주둔하였고, 1901년 6월에는 지방대대가 진위대로 개편되면서 5개 연대 진위대 중 제1연대의 주력부대인 제1대대 700명이 강화에 증강 배치되어 수도의 방비를 강화하였으나,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모두 혁파되었다.

2. 강화의 성곽

성(城)은 주거, 군사, 정치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방어적 구조물로서 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기에는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흙으로 쌓아 만들었고, 후에 재료에 따라 목책(木柵)·석축(石築)·전축(塼築) 등 축조방식이 다양해졌다. 성은 성곽(城郭)으로도 불리는데, 이중의 벽으로 구성되었다. 안쪽의 것을 성 또는 내성(內城), 바깥쪽의 것을 관 또는 외성(外城)이라 하였다. 삼중의 경우 내성과 외성 사이에 있는 것을 중성(中城)이라 불렀다.

성은 지형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성곽이 나타났는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성(山城)이 발달하였다. 산성은 산세를 따라서 쌓은 성으로 산의 정상부나 경사면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하고, 아군의 방어를 용이하게 하는 건조물이다. 산의 정상부분만 두른 테뫼식과 산의 정상에서 계곡을 포함하는 포곡식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 산성은 삼국시대에 이미 그 전형이 완성되었으며, 일본으로 그 축성방식을 전파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부 이남에만 1,200여 개의 산성 터가 발견되고 있다.

군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강화도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고, 천도 이후에 본격적인 성곽이 조성되었으

며, 양란 이후에는 왕실의 보장처로서 또는 한양의 인후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어적 성곽이 유지되었다.

1) 강도 이전의 성곽

국가체제를 정비한 삼국은 경쟁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특히 한강유역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면서 본격적으로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강화도는 군사·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찍부터 성곽이 축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강화도와 관련한 첫 번째 축성기록은 844년(신라 문성왕 6)의 혈구진(穴口鎭) 설치이다. 그리고 강도시대까지 문헌상에는 축성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강화도의 성곽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고학적으로도 성곽의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성곽은 군사·지리적으로 요충에 설치되고, 후대에 반복적으로 수축하거나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곽의 구조와 축조시기, 사용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와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성곽 관련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강화 천도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곽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강화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곽은 혈구진성, 하음산성, 고려산성, 정족산성, 화개산성 등이다. 혈구진성은 문헌기록이 존재하고 하음산성은 성벽의 축

조방식으로 삼국시대까지 시기를 소급해 볼 수 있으며,⁹⁾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제작된 기와 등이 출토되고 있다.

강화의 삼국~고려시대 성곽

성곽명	소재지	둘레(m)	구조	내용	비고
혈구진성	불은면 삼성리	8,700	석축+토축	통일신라 ~ 고려시대 기와출토	
하음산성	하점면 신봉리	290	석축		
화개산성	교동면 고구리	2,168	석축	고려 ~ 고조선시대 기와출토	향토유적 제30호
고려산성	강화군 강화읍	1,190	석축+토축	통일신라 ~ 고고려시대 기와출토	
정족산성	길상면 온수리	2,300	석축		사적 제130호

자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의 국방유적』, 2011, 32쪽

(1) 혈구진성(穴口鎭城)

혈구산 정상에 포함하는 5개의 산봉우리를 감싸고 남쪽으로 내려와 삼성리 일대를 감싸 안은 형태를 띤 혈구진성의 총길이는 8.7km 정도로 조사되었다.¹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2007년과 201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진성(鎭城)의 구조는 평지 부분이 토루(土壘)로 되어

9) 백종오,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007.

10) 육군박물관, 『강화의 국방유적』, 2000.



강화 혈구진성

있으며 능선에는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루는 폭 6~7m, 높이 1.2~2m 가량이며, 석축은 폭 1~2m, 높이 0.6~0.8m 정도로 산돌을 이용해 4~5단 정도 쌓았다.¹¹⁾

혈구진은 844년 8월에 설치되었으나,¹²⁾ 그 설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782년(선덕왕 3)에 패강진이 설치되었는데, 혈구진이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패강진의 방어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예성강·임진강·한강 등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유역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추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의 마장』, 2007, 43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의 책, 2011, 32쪽.

12) 『삼국사기』 권11, 新羅本紀 11 文聖王 6年 8月.

정된다. 더 나아가 서해 연안항로의 안정성 보장도 그 목적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¹³⁾ 진성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박헌용(朴憲用)이 1932년 편찬한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에 현재의 위치로 비정된 이후 혈구진의 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혈구산 일대의 본성과 남동쪽의 익성으로 구분되는 혈구진성은 안양대학교 좌측의 삼성초등학교가 본성의 동문 터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1.5km 떨어진 불은면과 양도면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가 서문 터로 파악되고 있다. 두 개의 문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북쪽은 산성이고, 남쪽은 평지성이다. 익성은 삼동암리의 야산을 경계로 그 동쪽으로 화도돈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이 위치한 곳은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외포리와 화도방면에 서 바닷물이 들어와 진성의 앞까지 뱃길이 연결되었던 곳으로 교통의 요충이었다.

(2) 삼랑성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해발 222m의 정족산을 포함하는 5개의 봉우리 정상부와 동쪽의 계곡부를 감싸는 포곡식산성이다. 전하기를 단군이 세 아들에게 한 봉우리씩 쌓게 하고 그 곳에 봉하였다고도 하였

13) 박남수, 『통일신라와 후삼국시대의 강화』, 『신편 강화사』, 2003, 110~111쪽.

1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속수증보 강도지』, 2016, 151~152쪽.



삼랑성 남문 종해루

고, 배달국(倍達國) 신하 삼랑(三郎)에게 성을 쌓게 하였다고도 하여 성의 이름을 삼랑성(三郎城)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지형과 관련하여 세 개의 봉우리가 마치 발이 셋 달린 술처럼 마주보고 있어 정족산이라 하였기에 정족산성으로도 불린다. 성의 둘레는 18정(町) 남짓하고 치첩(雉堞)은 705개이며 문은 4곳에 있었다고 전한다.¹⁵⁾ 성의 축조 시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축조방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도시기인 고려 고종 때인 1259년 성 안에 가궐(假闕)을 세웠다는 기록¹⁶⁾ 또한 전한다.

1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앞의 책, 2016, 151·211쪽

16) 『고려사』, 권24, 世家 24 高宗 46年 4月條.

201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전등사의 경역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둘레는 2,300m이고 성벽의 최대 높이는 5.2m, 평균 높이는 3~5m이다.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던 것을 삼국시대에 그 위에 막돌을 맞추어가며 쌓고 성체(城體) 안에는 막돌을 채워 튼튼한 석성(石城)으로 다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계곡부에 동서남북 4개의 문과 4개의 치, 1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남문에는 문루(門樓)가 있었는데, 오래되어 퇴락한 것을 1739년(영조 15) 중수하여 현판을 종해루(宗海樓)라 하였고, 1764년 강화유수 정당(鄭棠)이 중수하여 현판을 직접 써서 내걸었다고 한다.¹⁷⁾ 성의 안에는 삼국시대 사찰인 전등사와 근래에 복원된 정족산사고, 선원보각이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가궐을 지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2010년 발굴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해루 북쪽에는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가 있는데,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에서 160여 명의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이기도 하다. 1964년 사적 제130호로 지정되었다.

(3) 하음산성

하점면의 봉천산 정상과 봉천대를 둘러싸고 있는 총 길이 290m의 소규모 테뢰식 산성이다. 석축의 성벽이 일부 남아있는데, 동·서·북쪽 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남쪽 면은 비교적 완만하다. 남벽은 길이가

1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위의 책, 2016, 211쪽.

20m, 높이 0.8m로 5단 내외로 보충한 흔적이 있고, 서벽은 3~4 곳에서 부분적으로 수직 쌓기를 한 석축이 발견되고 있다. 면석의 크기는 40~60×15~25cm 내외이다.

축조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속수증보강도지』에 ‘고구려 때 쌓은 것으로 하음현이 폐지되었을 때 함께 폐지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⁸⁾ 성곽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산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천산은 남쪽의 고려산과 함께 강화도 서북쪽에서 강도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여 강도 이전에도 주요한 방어시설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고려산성

해발 436.3m의 고려산 정상부와 북쪽 계곡부를 감싸 안고 있는 포곡식 산성인 고려산성은 토석 혼축과 석축이 혼합된 토석성이다.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형상(李衡祥)의 『강도지(江都誌)』에는 고려고성(高麗古城)으로 표기하며 둘레는 19,372척이라고 하였고,¹⁹⁾ 박헌용의 『속수증보강도지』에는 고려산의 동북쪽에 흙으로 쌓은 성으

1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위의 책, 2016, 159쪽.

1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 상, 2015, 232쪽.



하음산성 원경



고려산성

로 산 위에 참호를 만들어 병사를 조련하였고 훈련된 궁마가 외적을 경계하여 대비가 되어 있다고 기록²⁰⁾하고 있는 것에서 고려시대 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성의 둘레는 1,190m로 성곽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계곡 하단부에는 높이 1m 내외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에서는 낮은 단의 석축열과 그 위에 흘러내린 토축이 일부 확인되었다. 성 내부시설로는 고려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오정(五井) 또는 오련지(五蓮池)의 일부로 추정되는 석지(石池)가 정상부에 3곳 남아 있다.

2) 강도시대의 산성

강화도에 성곽의 축조 과정이 문헌기록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시기는 강도시대이다.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1232년(고종 19)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읍 건설을 위하여 궁궐과 관아, 그리고 성곽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궁궐과 관아는 강화도 동북쪽에 자리하였는데 이는 북으로 북산, 남으로 남산, 동으로 견자산, 서로 고려산이 위치하는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서북쪽에 자리한 승천포를 통해 개성과 연결되었고, 동쪽의 갑곶을 통해 내륙

20)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앞의 책, 2016, 158쪽.

과 이어지는 교통상의 요지였다. 강도가 현재의 강화읍 일대에 자리 잡은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 이외에도 개성과 유사한 풍수적 입지조건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강화도의 궁궐, 관아, 성곽의 조성은 개성과 유사한 체제로 이루어졌다. 개성의 성곽 체제가 궁성, 황성, 나성 등 3성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강도 역시 내성, 중성, 외성 등 3개의 성곽이 조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영과 관련한 기록은 없지만 3성을 허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²¹⁾과 함께 후대의 지리지 등에 따르면 3성 체제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성은 3,874척이고 외성은 37,076척이라고 전하고 있고,²²⁾ 중성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기록없이 토축으로 조영되었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²³⁾

개성으로 환도 이후 파괴된 3성은 고려시대 중에는 다시 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1) 『고려사』 권24, 世家 24, 高宗 3, 46年 6月 癸未條.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江華都護府, 古蹟條.

2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44~45쪽.

강도 성곽 관련 기록

문헌	기사 내용
『고려사』(1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3년 강화 外城을 쌓았다. · 1235년 주군의 일품군을 징발하여 강화 沿江堤岸을 加築했다. · 1237년 이 해에 강화외성을 쌓았다. · 1250년 비로서 강도 中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2,960칸이고 대·소문이 모두 17개였다. · 1259년 처음 강도내성을 파괴하니 객사가 심하게 독촉하였다. … · 1259년 客使가 외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외성이 존재하니 어찌 가히 성심으로 복종한다고 하겠는가? … 도방으로 하여금 외성을 파괴하니 ….
『최항묘지명』(1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성으로 皇都를 둘러쌌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외성은 모두 토축으로 외성은 주위가 37,076척이고 내성은 주위가 3,874척이다.
『휴옹집』『해동악부』(17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강도 외성을 설치했는데 沿江環築하였다.
『강도지』(1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 : 주위가 3,874척이며 고종 19년 흙으로 쌓았는데 지금은 기지가 없다. · 중성 : 고려 고종 을사년에 흙으로 쌓았다. 故基가 지금 대문현 및 장령에 있다. · 외성 : 이는 포변장제로 속칭 만리장성인데 주위가 3만7076척이다. 흙으로 쌓았으며 1237년에 또 쌓았다. 이상 세 성은 1259년 훼손되었다.
『여지도서』 『강화부지』(1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송악 동쪽에 있다. 내성과 외성 모두 흙으로 쌓았다. · 규모 : 외성이 3만 7천 76척, 내성이 3천 8백 74척이다. · 특징 : 성문 유지가 남아있다. (성문현, 대문현, 서문동 등 지명이 남아 있다.)
『강화부지』(1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전기에 이르기를 고종이 천도할 때 내 외성을 모두 흙으로 쌓았는데 외성은 주위가 16만 6,0666척이라 하였다. 舊地는 장령의 성문현, 선원의 대문현으로 … 내성은 주위가 3,877척이라 했는데 ….
『대동지지』(1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3년(고종 20)에 내성을 살았으며 지금 기지는 미상이다. · 1237년(고종 24) 흙으로 외성을 쌓았으며 지금 부 남쪽에 故地가 있다. · 1250년(고종 37) 비로소 중성을 쌓았는데 문이 모두 17개다.
『속수증보강도지』(1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성 : 沿江環築이라라. 海東樂府 撤城註에 이르기를 연강환축하되 …, 둘레는 수백리(지금은 수십리)라 하니 … (조선)외성은 … 이는 본시 고려의 구성으로 이조 광해군 10년에 무찰사 沈惇이 토축으로 고치니 …. · 중성 : 토성으로 처음 옥림리 성문현으로부터 … 대문현을 거쳐 … 창성에 이른다.

(1) 강화도성

고려시대 강도의 성곽으로는 강화읍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토축의 강화도성이 유일한 흔적이다. 이 성이 내성, 중성, 외성 중 어느 성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강화읍을 중심으로 환축한 성곽의 구조로 보아 중성으로 알려져 있다. 1250년(고종 37)에 둘레 2,986간, 대·소문 17 개소가 있는 중성을 축성하였다²⁴⁾는 『고려사』의 기록을 비롯하여 강도 성곽에 대한 기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문헌에 나타난 강화도성의 위치와 규모

문헌명	외성		중성		내성	
	위치	둘레	위치	둘레	위치	둘레
『고려사』				2,969간		
『신증동국여지승람』		37,076척				3,874척
『강도지』	포변장제 (浦邊長堤)	37,076척	강화부 남쪽			3,874척
『여지도서』 『강화부지』		37,076척				3,874척
『강화부지』	강화부 남쪽	16,055척				3,874척
『대동지지』	강화부 남쪽				미상	
『속수증보강도지』	환해환축 (環海環築)	수 백리	강화읍 외곽			

출처 : 이희민,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24) 『고려사』 권82, 志35, 兵2, 築堡條.

기존의 통설에 따르면 강화도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강화읍 일대의 산세를 따라 11.3km의 잔존 석벽이 확인된다. 동북쪽을 기점으로 옥림리 옥창돈대 부근에서 출발하여 봉재산을 거쳐 북산으로 연결된다. 북산 능선에 연결된 성벽은 조선 숙종 대에 축성된 강화산성 북벽과 이어지는데, 약 1.3km 가량은 지표에 보이지 않는다. 산성 북서쪽 회절부에서 성벽이 다시 나타나고 진고개와 국화저수지를 거쳐 남산 정상부에 연결된다. 다시 충렬사, 찬우물 고개와 대문고개, 선원사 터 북쪽 능선을 거쳐 신정리까지 이어지는데, 동쪽 해안가에서부터는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도성의 성벽은 대지를 조성하고 기저부의 안팎에 기단 석렬을 설치한 뒤 그 사이를 판축으로 중심 토루를 쌓고, 석렬의 바깥에 기와를 깔 뒤 그 위를 흙으로 덮은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벽 구조는 삼국시대 말부터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토성 축조방식이라 할 수 있다.²⁵⁾

2009년 조사된 옥림리 구간은 약 120m에 걸쳐 성벽 안과 바깥에 너비 4~4.75m의 기단석렬(基壇石列)이 설치되었다. 특히 석렬의 바깥쪽으로 판축을 할 때 판재를 지지하는 나무구멍[永定柱]이 약 4m 간격으로 돌출되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어 4m 단위의 판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중심토루는 사질토와 점질토를 2~5cm 두께로 교대로 쌓아 올렸고, 석렬의 바깥에는 빗물에 의한 기저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25) 이희인, 위의 책, 2017, 12~123쪽.

배수를 위해 폐기된 기와를 쌓아올렸다. 와적에서는 12~13세기로 편년되는 기와가 주로 출토되었다. 2008년 조사된 신정리의 성벽구조는 옥림리 구간과 유사하지만 기단 석렬의 간격이 3~3.4m이고 영정주 초석의 간격도 3.4m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2016년 조사되었던 신정리 구간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²⁶⁾

이상에서 확인되는 11.3km의 강화도성에 동쪽 해안구간인 4.5km를 보태면 전체 둘레는 약 16km에 달한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중성과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외성과 중성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현은 외성의 범위를 북쪽해안 일부와 동쪽해안 전체를 따라 이어진다고 이해하여 승천보에서부터 초지까지 약 23km 이상으로 보았다. 윤용혁은 도읍의 동쪽 해안 일부와 남쪽을 에워싼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이해하여 월곶리에서부터 화도를 거쳐 혈구진까지 이어지는 15km 구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희인은 강도의 해안 외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중성으로 이해하였던 도성이 외성이며, 중성은 도성 안에 있었던 내성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26) 고려 도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 중성유적』, 2011. ;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보고서』, 2010. ; 중원문화재연구원, 『강화 옥림리 유적』, 한문문화재보호재단, 2012. 등을 참조하였다.

27) 강화도성의 성곽 구조에 대한 연구는 김창현, 「고려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연구」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신안식, 「강도 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위상」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 학술발표회 자료집』, 강화문화원, 2009. ; 이희인, 『고려 강화도성』, 해안, 2016. 등을 참조하였다.

강도의 도성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조선시대의 성곽

개성으로 환도한 뒤 파괴되었던 강도의 도성이 언제 다시 축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양란을 겪은 조선의 조정이 강화도를 한양의 방어와 왕실의 보장처로서 인식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궁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서고 외성, 돈대 등의 군사시설이 건설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된 것을 계기로 강화의 군사지휘 체계를 경기수사의 수군 중심에서 강화유수의 육군 중심으로 재편하였고 1656년(효종 7)부터 진(鎭)·보(堡)를 강화도로 이설하기 시작하여 1660년(숙종 1)에 12진보가 설치되었다.

(1) 강화산성

강화산성은 조선시대 강화의 읍성 또는 부성으로서 강화읍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북산과 견자산, 남산을 에워싼 석축의 성곽이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강화지도』에는 관아를 둘러싼 강화부성과 그 외곽으로 북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강화산성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고려시대에 허물어졌던 내성을 1631년(인조 9)에 강화부성으로 개축하였는데,



강화산성

병자호란으로 파괴되었다. 이를 1652년(효종 3)에 일부 개축하였고, 1677년 허질과 1709년부터 다음해까지 박권(朴權)에 의해 개축되었다. 이후 강화부성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1711년 민진원이 성곽을 확장하여 강화산성을 축조하였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강화지도』에 관아를 둘러싼 강화부성과 그 외곽으로 북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강화산성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산성 관련 기록

문헌	기사 내용
『고려사』 「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9년(고종 46) 몽골이 강도의 내성과 외성을 모두 헐어냄.
『여지도서』 「강화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은 당초 석성으로 주위가 1,658보, 동·서·남의 삼문이 있고, 문루가 설치됨. · 1637년(인조 15) 호란으로 헐렸고, 1677년(숙종 3)에 강화유수 허질이 개축하였는데, 전면은 석축으로 후면은 토축으로 함. · 1710년(숙종 36) 강화유수 박권이, 1711년(숙종 37) 강화유수 민진원이 이어서 개축함. 둘레 15리 43보, 성가퀴는 1,813첩, 문루 3곳, 암문 5곳, 수문 2곳을 둠. 성루 9곳에 무기를 배치하고 망루지기를 두어 급료를 줌. · 1735년(영조 11) 상수문 주위가 물에 의해 터지고 무너져 강화유수 원경순이 개축함.
『여지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0년(숙종 36)에 개축함. 둘레가 15리 42보이고 치첩은 1,813, 성문 6개, 정천(井泉)이 19개임.
『대동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석축이었고, 1631년(인조 9)에 개축하였는데 1637년(인조 15)에 병자호란으로 인해 무너짐. · 1652년(효종 3)에 고쳐 쌓고, 1677년(숙종 3)과 1710년(숙종 36)에 다시 개축함, 둘레 15리 343보, 장대는 삼문에 있음. 동쪽에 망한문(望漢門), 남쪽에 안파루(晏波樓), 서쪽에 첨화문(瞻華門), 북쪽에 진송정(鎭松亭)이 있음. 암문은 4곳임.
『속수증보강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고종 때 축조한 내성은 토축으로 규모가 매우 컸으나, 조선초에 쌓은 내성은 상당히 규모가 작았다고 전함. · 내성은 1637년(인조 15)의 난리에 불타 없어졌고, 1652년(효종 3)에 그 일부를 수리했으며, 1677년(숙종 3)에 유수 허질이 앞은 돌로, 뒤는 흙으로 송악 이북에서부터 화산 줄기에 걸쳐 범위를 연장하였다 함. 또 동·서·북쪽 한 모퉁이는 1709년(숙종 35)에 유수 박권이 개축하였고, 동남쪽 한 모퉁이는 1711년(숙종 37)에 유수 민진원이 다 쌓았다고 함.

출처 : 이희인,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현재의 강화산성은 강화읍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은 북산과 견자산을, 서쪽과 남쪽은 고려산 말단부와 남산을 에워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평면은 남북방향이 긴 장방형이고 단면은 남쪽과 북쪽이 높다. 성벽의 둘레는 7,122m이며, 높이는 2~3m 내외이다. 성벽은 토루를 쌓은 뒤 성의 바깥 면은 돌로 쌓고 그 안쪽에 잡석을 채워 넣은 토석혼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성방식으로는 평지는 협축식으로, 능선 구간에는 협축식과 내축식이 혼용되었다. 여장의 경우 복원구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구조가 남아 있지 않으나 성곽의 최상단면까지 남아있는 구간의 경우 여장의 기초석렬이 확인되고 있어 여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 축조된 시설물로는 문루 4개소, 암문 4개소, 장대(將臺) 2개소, 수문 2개소, 치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암문은 1개소만 남아있고, 하수문(下水門)은 복개되어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²⁸⁾

① 문루²⁹⁾

문루(門樓)는 궁문이나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을 가리키는데, 강화산성에는 4개의 문루와 암문, 그리고 수문이 있었다. 동문·서문·남문 등 3곳은 1711년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에 의해 건립

2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55~60쪽.

2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07, 41~43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60~62쪽 참조.

된 것을 1796년(정조 20)에 유수 김이익(金履翼)이 중수하였다. 북문은 본래 암문이었던 것을 1783년(정조 7)에 유수 김노진(金魯鎭)이 문루를 세웠다.

서문은 첨화루(瞻華樓)로 관청리·신문리·국화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개구부는 홍예식(虹蜺式)이고 출입구 좌우측으로 문루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홍예의 높이는 외면이 3.1m, 내면이 3.26m이며, 폭은 외면이 3.1m, 내면이 3.26m이다. 현재의 문루는 1977년 강화전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축된 것으로 콘크리트로 복원된 것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여장은 평여장(平女牆)으로 근총안(近銃眼)과 원총안(遠銃眼)을 설치하였다.

남문은 안파루(晏波樓)로 신문리와 남산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48번 국도가 놓이기 전에는 강화성 안으로 들어오는 주된 통로로 활용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강화행렬도(江華行列圖)』에 보이는 남문은 장방형의 석재를 14단으로 쌓았으며 아래의 4단은 큰 석재를 사용하였고 그 위의 10단은 비교적 작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문은 홍예식이며,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정면은 가운데 칸이 양쪽의 칸보다 넓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성벽에 여장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문루는 1955년 폭우로 허물어진 것을 1975년에 복원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동문은 망한루(望漢樓)로 견자산과 북산을 연결하는 성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병자호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1876년 재건하였으나 다시 무너졌다. 『강화행렬도』에 보이는 동문은 홍예식의 개구부가 있었고 육축 위에 정면 3칸의 문루를 세우고 팔작지붕을 얹었으며, 성벽 위에 평여장을 설치하였다. 최근 발굴조사를 거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루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북문은 진송루(鎭松樓)로 북산의 중앙에 위치하여 성 안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가장 빠른 통로이다. 원래 암문으로 있었던 것을 1783년에 문루를 세운 것인데 후대에 무너졌다. 강화전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루로 복원하였다. 원래 암문이었던 것을 알려주듯 개구부가 홍예가 아닌 평천정으로 되어 있다.

② 암문과 수문³⁰⁾

문헌 기록에는 동·서·남·북 4곳의 암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남쪽의 암문(暗門) 1곳만 확인되고 있다. 이 암문은 소남문(小南門) 또는 남암문(南暗門)으로 불렸으며 비상시 통로로 활용되었다. 남암문은 평거식으로 치석된 장대석을 이용해 축조하였는데, 문의 높이는 외면이 165cm, 내면이 190cm이고 너비는 외면이 136cm, 내면이 188cm로 전체길이는 355cm이다.

30)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62-63쪽 참조.

수문은 2곳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문은 고려산에서 발원하여 강화읍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여 염하(鹽河)로 흘러 들어가는 동락천이 서문의 남쪽 성벽과 남문의 북쪽 성벽과 만나는 지점에 설치되었다. 서쪽 수문의 이름은 상수문(上水門)으로 서문에서 남쪽으로 13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수문(石水門)이라고도 한다. 이 수문은 근래에 복원된 것으로 3개의 홍예와 2개의 교각으로 되어 있으며 수문 위에 여장을 설치하였다. 복원된 수문의 길이는 6.8m이고 높이는 4.3m이며 홍예 수구의 높이와 너비는 모두 3.3m이다.

동쪽 수문의 이름은 하수문(下水門)으로 현재 강화풍물시장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이 1980년대에 들어 복개되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924년에 대홍수로 무너졌던 것을 1970년대에 복원하였는데, 복원된 길이는 15.2m이며 수문의 길이는 10m, 높이는 3.8m, 폭은 4m이었다. 상수문과 같이 3개의 홍예와 2개의 교각으로 이루어졌으나 상부에 여장은 없었다고 전한다.

③ 장대

장대(將臺)는 군사훈련 또는 전쟁 중에 성 안의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하여 장군이 자리하는 누대(樓臺)로 강화산성에는 남장대와 북장대 2곳이 있었다.

남장대(南將臺)는 강화 진무영이 군사를 열병하는 지휘소였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는데, 고지도에는 장인대(丈人臺)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남장대의 규모와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지도에는 정면 3칸 규모로 묘사되어 있다. 남장대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당시 누각이 허물어졌다고 한다. 남장대와 같은 용도로 북장대가 설치되었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 규모와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장대는 2009년 한울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거쳐 복원되었다. 5.8m 규모의 방형 건물로 기단은 장대석으로 축조되었으며, 동편 기단의 동쪽에는 별도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깎은 돌의 단을 덧대었다. 정면과 측면 모두 3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칸을 중심으로 사방이 회랑식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보인다. 회랑을 구성하는 칸의 바닥에는 전돌과 전돌을 고정시키기 위한 강회를 깔았다. 남장대의 서쪽에서 군사시설물로 추정되는 ‘ㄱ’형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남쪽 끝의 칸에서 서쪽으로 한 칸이 덧붙여진 형태를 띠고 있다. 정면 11m, 측면 2.5m, 꺾인 방의 길이는 2.3m 정도의 규모로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부엌·온돌방·마루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장대의 북동쪽에서는 방호벽으로 추정되는 석렬과 재가 노출되어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¹⁾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북장대(北將臺) 터는 북산의 최정상부인 동쪽 봉우리와 북문, 동쪽 봉우리의 중간 지점

31)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산성남장대지유적』, 강화군, 2011.

등 두 곳으로 전해져 왔다.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두 곳 모두 조사하였으나 북장대 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지도에 정면 3칸으로 묘사된 것에서 남장대와 비슷한 규모와 형태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2) 강화외성

강화외성은 강화를 방어하기 위해 염하를 따라 설치된 성곽이다. 내륙으로부터 침범하는 적을 방어할 때 김포의 문수산성(文殊山城)이 1차 방어선이었고 외성이 2차 방어선으로 역할을 하였다. 몽골의 영향으로 파괴되었던 고려의 외성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양란을 겪은 후 강화도가 조선 왕실의 보장처로 인식되고 관방시설의 설치가 논의 되면서 다시 축조되었다.

1618년(광해군 10) 무찰사 심돈이 흙으로 다시 쌓았던 것³²⁾을 1691년(숙종 17) 본격적으로 외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 지속적으로 성벽에 대한 증축과 보수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외성은 강화도 동쪽 염하변의 옥포[玉倉敦]에서부터 초지까지 약 17km에 걸쳐 토성으로 축성되었다. 1718년(숙종 44)에는 붕괴되었던 휴암돈에서 월곶돈까지의 구간을 개축하였다. 영조대에 들어와 수·개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1725년(영조 1)에 갑곶과 월곶 사이의 옥포와 망해돈 앞의 외성 구간을 돌로 개축하였고, 1742년에는 강화유수 김시혁(金始爌)에 의

3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6, 205쪽.



강화외성

해 벽돌로 개축하였다. 그러나 전성은 무너져 1753년(영조 29) 다시 돌로 개축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외성은 영조 이후 붕괴된 전성을 수·개축한 성벽에 해당한다.³³⁾

1872년 제작된 『강화지도』에는 적북돈에서 초지돈까지 외성이 약 23.2km에 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외성의 전 구간에는 총 16개의 돈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구(浦口)에는 각각 관문을 두었는데, 문루가 6개, 암문이 6개, 수문이 17개였다. 배를 댈 수 있었던 포구의 앞에는 문루를 설치하였는데, 월곶진의 조해루(朝海樓), 진해사(鎭海寺)의 복파루(伏波樓), 제물진의 진해루(鎭海樓), 용진진의 참경루(斬鯨樓), 광성보의 안해루(按海樓), 덕진진의 공조루(控潮樓) 등이었다.

3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강화외성지표조사보고서』, 강화군, 2006.

① 진해루

진해루는 통진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갑곶나루와 연결되는 월곶진의 문루이다. 2008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진해루 터는 길이 21m, 폭 5.5m로 강화산성의 동문과 비슷한 규모이다. 개구부는 홍예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계단시설, 문지공석, 문비공석, 정지석, 기단석 등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진해루와 연결되어 있는 외성은 갯벌층을 성토한 후 안팎에 면석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판축으로 축조된 중성과 달라 고려시대 성곽과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⁴⁾

② 조해루

조해루는 외성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문루인데 2010년 발굴조사에서 기단을 포함한 석축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로 문루의 내·외벽의 일부만 확인되었다. 문루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월곶돈대 사이에서 외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외성의 석렬은 폭이 90~120cm이며 가공된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축조하였는데, 내부에는 작은 깎 돌로 채워 넣었다.³⁵⁾

34) 불교문화재연구소, 『강화도 통제영학당지 및 진해루지 유적』, 2008.

35)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 월곶진지』, 2010.

(3) 강화전성

강화전성(江華轉城)은 조선시대 석축으로 개축된 강화외성의 일부분을 다듬은 돌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만든 전축성이다. 숙종대부터 영조대에 걸쳐 수개축(修改築)된 외성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피해가 자주 일어나자 1743년 벽돌로 고쳐 쌓았다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오두돈대 남서쪽 해안을 따라 270m 정도의 전축이 확인되고 있다.

성벽으로부터 약 5m 범위의 갯벌을 정지한 후 외측의 갯벌 경계면에 작은 크기의 석재와 벽돌 파편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외곽의 기반을 다진 후 갯벌 흙에 회를 섞어 더욱 견고하게 다짐층을 조성하였다. 성의 하부는 얇은 판석 형태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에 가까운 40~50cm 크기의 돌을 2~3단을 쌓았다. 그 위에 황토와 회를 섞어 다진 황갈색 다짐토층을 조성한 후 전돌을 한단씩 길이 방향과 마구리 방향으로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8~10단을 쌓아 올렸다. 전돌의 규격은 두께 6~7cm, 길이 39~43cm, 폭 20~25cm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줄눈의 간격은 5~7cm이다. 전축부분의 폭은 1.6m로 확인되었는데 문헌에 나타난 5척[1.5m 이상]과 유사하다. 성벽의 높이는 문헌에는 20척[6m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현재는 전성의 높이가 하부에서 상부면까지 약 2m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 쌓은 외성 위에 쌓은 것



강화전성

으로 전해졌으나 발굴조사에서는 토성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³⁶⁾

남아 있는 전성의 일부 구간은 나무뿌리에 침식당하고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위기에 있다. 강화전성은 1972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 1995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0호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2003년 강화외성 전체가 사적 제452호로 지정될 때 포함되어 사적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36)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외성 내 강화전성(塹城)』, 강화군, 2016.

3. 강화의 봉수와 요망대³⁷⁾

봉수(烽燧)는 횃불[炬]과 연기[煙]를 이용하여 변경이나 해안의 위급한 상황을 인근 군영(軍營), 군진(軍鎭), 그리고 중앙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전통적인 군사·통신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의 봉수제도를 삼국시대부터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송나라 사람 서금(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따르면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黑山島)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홋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호응하여 왕성(王城;開城)까지 갔는데, 그 일이 흑산도에서 시작되었다³⁸⁾고 하였다. 이 기록은 고려시대에는 서해안에서 봉수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고구려와 단교한 백제는 인천의 능허대를 출발하여 산동반도의 등주 등에 이르는 등주항로를 개발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항로의 기본이 유지되어 중국사신들은 흑산도, 부남군도, 고군산군도를 거쳐 덕적군도, 영종도, 강화도를 거쳐 개성에 이르렀을 것이다. 당시 경기만과 강화만의 해안 요충지에 일찍이 설치되어 활용되었던 인천과 강화지역의 봉수 10개소는 평상시에 외국 사신의 길안내를 하기 위하

37) 김주홍, 앞의 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 김주홍·현남주, 「고려-조선시대 강화도의 봉수·요망·현황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강화외성지표조사보고서』, 2006, 410~432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90~92쪽 참조.

38) 서금, 『고려도경』 제35권, 黑山.

여 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⁹⁾

1149년(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曹晉若)이 상주(上奏)하여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올리는[夜火晝烟] 방범으로 1급(急)에서 4급의 봉수의 격식을 정하고 매 소에 방정(防正) 2명과 백정(白丁) 20명씩을 두고 평전(平田) 1결(結)씩을 주어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등 봉수제도가 정비되었다.⁴⁰⁾ 13세기부터 조선 개창 때까지 극심하였던 왜구의 침탈과정에서 인천과 강화지역의 봉수는 해안 방어의 군사·통신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한양으로의 도성 이전과 동북지역의 여진족 공격 등에 의해 봉수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다. 1423년(세종 5) 목멱산(木覓山:남산)에 봉수가 설치됨에 따라 경봉수(京烽燧)로 집결하는 5거제가 운용되는 봉수법(1446)과 운용방법(1447)이 확립되었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설치된 지역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서울 목멱산의 경봉수, 해안이나 변경에 설치한 연변봉수(沿邊烽燧),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내지봉수(內地烽燧)로 나누었으며, 조선후기에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군현(郡縣)에 권설봉수(權設烽燧)도 설치되었다. 봉수의 노선은 5개의 직선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노선에는 보조 노선적인 간선 봉수도 포함되

39) 김주홍, 위의 책, 2003, 113쪽.

40) 『고려사』 권81 志35, 兵1, 毅宗 3年 8月.

었다. 강화의 봉수는 전라도 여수에서 충청도를 거쳐 한양으로 연결되는 제5로(路)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였으며, 교동 수정산봉수는 평안도 의주에서 봉화하여 평안도, 황해도, 무악 서봉수에 4로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였다. 외적의 침입을 받기 쉬운 지리적 특성을 가진 강화도의 봉수는 봉수대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요새로도 역할을 함께 하였다. 연대(煙臺)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참호를 둘러서 파고 참호 바깥으로는 나무말뚝으로 목책을 설치하였다. 연대 위에는 임시가옥을 지어 생활용품과 화도 등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봉수에서 불을 피우는 연료는 이리나 여우의 분뇨를 사용하였던 중국과는 달리 소의 분뇨를 사용하였다.⁴¹⁾

조선시대 강화의 주요 도서에는 권설봉수와 요망대(瞭望臺)가 설치되었는데, 요망대는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흙이나 석재를 쌓아 만든 관망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봉수의 기능도 수행하였기에 큰 범위에서 봉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강화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봉수는 17개소에 이른다.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봉수는 대모성산·진강산·망산덕산·별립산·화개산·송악산 등에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하음산봉수와 남산봉수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노선 변경으로 별립산봉수가 폐지되었고, 조선후기에 송악산봉수도 남산봉수로 대체되었다. 숙종대에는 장봉도, 불음도, 교

4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의 책, 2011, 87~88쪽.

동 망산에 봉수가 신설되었고 주문도에는 요망대가 설치되었다. 19세기에는 이양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어류정과 황산도 요망대를, 동검도에는 봉수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봉수의 노선도 고려시대에는 김포 수안산성 ↔ 대모산 ↔ 진강산 ↔ 망산(덕산) ↔ 화개산·별립산 ↔ 송악 ↔ 김포 남산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별립산봉수가 폐지되고 하음산과 남산에 봉수가 신설되면서 남산(조선후기) ↔ 김포 남산의 순서로 연결되었다. 이외에도 조선후기에 설치된 섬들의 봉수들은 장봉도 ↔ 볼음도 ↔ 말도 ↔ 교동 진망산의 순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⁴²⁾

강화지역의 봉수 현황⁴⁴⁾

봉수명	위치	해발(m)	축조시기	성격	대응봉수(km)	비고
대모산성	불은면 신현리	84.2	고려	연변봉수	김포 수안산(동, 7.5) 진강산(서, 6.75)	
진강산	양도면 도장리	443.1	고려	연변봉수	망산(서, 8) 대모서산(동, 6.75)	
망산(덕산)	내가면 황청리	193	고려	연변봉수	별립산(북, 7.5) 진강산(동, 8) 화개산(서, 9.75)	
별립산	하점면 이강리	399.8	고려	연변봉수	망산(남, 7.5) 송악(동, 9.5)	
송악	강화읍 관청리	120	고려	연변봉수	하음성산(서, 7) 김포 남산(동, 8)	

4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11, 88~89쪽.

봉수명	위치	해발(m)	축조시기	성격	대응봉수(km)	비고
남산	강화읍 신문리	222.5	조선후기	연변봉수	하음성산(서, 7) 김포 남산(동, 8)	송악봉수 대체
하음산	하점면 신봉리	291.1	조선후기	연변봉수	별립산(서, 3.75) 남산(동, 7) 화개산(서, 10.5)	별립산봉수 대체
화개산	교동면 대룡리	250	고려	연변봉수	별립산(동, 7) 망산(남, 9.75) 하음산(동, 10.75)	
수정산	교동면 서한리	100	고려	연변봉수	화개산(동, 4.25) 연안 간월산 (북, 7.5) 연안 각산(북, 7.5)	제4거 노선
진망산 (남산)	교동면 읍내리	53	조선후기	연변봉수	말도, 교동 본영	
길상산	길상면 선두리	210.6	조선후기	권설봉수		위치 불분명
동검도	길상면 동검리		조선후기	권설봉수		위치 불분명
말도	서도면 말도	109.6	조선후기	봉수·요망대	볼음도(서, 5.75) 진망산(동북, 14.75)	
볼음도	서도면 볼음도	82.8	조선후기	봉수·요망대	장봉도(서남, 18.25) 말도(서, 5.75)	
어류정	삼산면 매음리	52	조선말	요망대		석모도
황산도	미상		조선말	요망대		
주문도	서도면 주문도리	46.9	조선말	요망대		

1) 대모성산봉수

불은면 신현리에 소재한 해발 84.2m의 대모산(大母山) 정상에 위치하여 대모성산(大母城山)봉수, 대모성봉수, 대모산봉수로도 불린다. 봉수노선은 동쪽의 김포 수안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서쪽으로 강화 진강산봉수에 보내는 역할을 하였던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⁴³⁾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수안산봉수와 7.5km, 진강산봉수와 6.75km 떨어져 있다. 봉수군 19명, 봉수장(烽燧將) 1인, 감관(監官) 5인, 도감고(都監考) 1인 등 총 26명의 인원이 배속되어 있었다.⁴⁴⁾

산 정상에 1.6m 가량의 흙과 석재를 혼합하여 축조한 연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상부는 삭평되어 원형을 띠고 있으며 주변에 석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연조(煙竈)로 추정되는 원형 석축시설들로 보인다.

2) 진강산봉수

양도면 삼흥리에 소재한 해발 443.1m의 진강산 정상에 있다. 봉수노선은 대모성산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망산봉수로 전하는 기능을 하였던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대응봉수와의 거리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대모성산봉수와 6.75km, 망산봉수와의 8km 떨어져 있다.

43) 『세종실록』 권48, 지리지 京畿 江華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江華都護府 烽燧.; 『여지도서』 江都府誌 江華 烽燧.

44) 『강화부지』 권1, 烽燧.

봉수 인원은 대모성산봉수와 같이 26명이다.

정상부에는 요망대와 건물지, 그리고 4곳의 연조가 남아있다. 요망대는 직경이 동서 4m, 남북 5m, 북쪽 부분의 높이가 약 1.5m 가량 자연적인 바위 암반으로, 상부는 평평하며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다. 요망대 아래 부분에 흙과 석재를 혼합하여 쌓은 원형 구조물이 4곳 있는데, 동쪽으로부터 가장 큰 제1연조는 직경 4m로 지표에서 1m 정도의 높이, 중앙에서 직경 140cm, 깊이 40cm 정도로 원형의 함몰부 흔적이 있다. 1연조에서 5m 거리를 두고 직경 3m, 높이 80cm 가량의 2연조가 있는데, 상부의 원형 함몰부는 1연조와 유사하다. 3연조는 2연조에서 3m의 거리를 두고 직경 2m 가량의 흔적만 보이고, 4연조는 3연조와 5m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흔적만 남아 있다.

3) 망산봉수

내가면 황청리에 소재한 해발 193m의 국수산(國壽山) 정상에 위치하여 망산(望山·綱山)봉수, 덕산(德山)봉수로 불린다.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로 조선전기에는 진강산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별립산봉수로 전하였으나, 조선중기 별립산봉수가 폐지되면서 화개산봉수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바뀌었다. 대응거리는 별립산봉수까지 7.5km, 진강산봉수까지 8km, 화개산봉수까지 9.75km이다. 봉수군으로 16명, 봉수장 1인, 감관, 5인, 도감고 1인 등 23명이 배속되었다.

국수산 정상부에는 남북 직경 8.5m, 동서 직경 8m, 전체 둘레 31.9m 가량으로 높이 1m 내의 정방형 석축 기반부 위에 3.9m 가량의 원추형 석축 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연대의 하단부 능선을 따라 27.5m의 범위에 5개의 원형 석축 연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잔존하고 있다. 각 연조는 직경 3~4m 내외이며 3~7단의 석축이 잔존하며 연조들의 간격은 5~7m이다.

4) 별립산봉수

하점면 후사리·이강리·인화리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399.8m의 별립산(別立山) 정상에 유사시 서해를 통해 강화도 내륙으로 침입·북상하려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강화의 송악봉수로 전보하는 역할을 하였던 최일선의 연변봉수다. 망산봉수와 7.5km, 송악봉수와는 1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별립산봉수는 하음산봉수로 대체되면서 폐쇄되었다.

5) 송악봉수

강화읍 관청리에 소재한 해발 120m의 북산 정상에 위치하며,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다. 송악봉수는 하음산봉수와 8km, 통진의 남산봉수와 8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13세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통진의 남산봉수로 전보하던 체계가 1677년(숙종 3) 강화읍 신문리의 남산 봉수로 이설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북산의 서쪽 봉우리에 토축의 연대 1기가 확

인되고 있는데 남북 장축의 말각장방형으로 높이는 3m 가량 된다.

6) 남산봉수

강화읍 신문리에 소재한 해발 222.5m의 남산 정상에 위치한 남장대 서쪽에 위치하고 1677년에 신설되었다. 남산봉수는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로 서쪽 하음산봉수와 7km, 동쪽 통진 남산봉수와 8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봉수군 20명, 봉수장 1인, 감관 5인, 도감고 1인 등 27명의 봉수군이 배속되었다.

7) 하음산봉수

하점면 신봉리에 소재한 해발 291.1m의 봉천산(奉天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별립산봉수와는 서쪽으로 3.75km 떨어져 있으며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로 하음성산봉수, 봉천산봉수, 봉천대 등으로 불렸다. 송악봉수와는 8km, 남산봉수와는 7km, 화개산봉수와는 10.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봉천산 정상부의 능선에는 흙과 석재를 혼합하여 축조한 5개의 연조가 9~1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남아있다. 3곳의 연조는 윤곽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2곳의 연조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남쪽 두 번째 연조는 남북직경 380cm, 동서직경 250cm, 높이 40cm로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다.

봉천대(奉天臺)는 하늘에 나라의 태평과 백성들의 편안을 기원하던 고려시대 제사유적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봉수대로 전용되어 평상시 항상 1거(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알렸던 연대로 활용되었다. 그 규모는 동서 길이 9m, 남북 길이 8.3m, 높이 5.5m로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의 입방체로 자연석을 35단 내외로 쌓았다.

8) 길상산봉수

길상면 선두리에 소재한 해발 336.1m의 길상산(吉祥山) 정상부의 동쪽 세 번째 봉우리에 위치한다.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남산·하음산·진강산·말도·불음도 등의 봉수와 함께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후 『속수증보강도지』에는 봉수가 설치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연세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원형 함몰부 2곳을 포함한 원형 돌무지 3곳을 확인하였다. 2~3m의 원형돌무지가 약 150cm의 간격을 두고 있어 연조로 추정되고 있다.

9) 동검도봉수

길상면 동검도의 해발 133.7m 지점에 동검도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1872년 제작된 『강화부전도(江華府全圖)』에 길상산봉수의 맞은편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길상산봉수와 함께 열강과의 조우에 대비하는 국방강화책의 일환으로 봉수가 축조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1881년 편찬된 『강화부읍지』에 동검도에 요망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

10) 말도봉수

서도면 말도에 소재한 해발 109.6m의 산 정상에 위치한 말도(末島)봉수는 말도(耑島)봉수, 말질도(末叱島)봉수로도 불렸다. 대응봉수는 볼음도봉수로 5.7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장봉도→볼음도→말질도→진망산으로 연결되는 봉수노선을 설명하며 제5거의 간봉으로 말질도봉수를 언급하고 있음으로 봉수로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지도서』에는 요망장(瞭望將) 1인과 요망군(瞭望軍) 10명이었다고 기록하여 요망대로도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속수증보강도지』에 볼음도·어류정도·황산도 등과 함께 요망대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봉수와 관련 연조 등의 흔적이나 요망대의 석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11) 볼음도봉수

서도면 볼음도의 해발 82.8m의 봉화산에 위치하며, 망도(望島)봉수라고도 불렸다. 볼음도봉수는 유사시 신속한 전보를 위하여 설치된 전초 전보시설로 요망의 기능이 강조된 봉수이다. 말도봉수와 5.75km, 장봉도봉수와 18.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말도봉수와 마찬가지로

1명의 요망장과 10명의 요망군이 배속되었으며, 설치 목적이나 운영은 말도봉수와 동일하다. 육군박물관의 조사에서는 봉화산 정상부에서 연조 2곳이 확인되었는데, 지름이 각각 2.5m, 2.9m이며 하단부에 석축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조는 원형이었으며, 주변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 어류정요망대

삼산면 매음리 해안에 인접한 해발 52m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망장 1인과 요망군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요망대가 들어선 봉우리는 북쪽으로 해발 308.9m의 해명산(海明山)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지만 나머지 세 방향의 시야가 매우 좋다. 따라서 이양선의 출몰을 간망하기 위해 19세기 말을 전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부에 높이 150~200cm, 둘레 30~35cm의 석축연대가 남아 있으며 중앙에는 깊이 60~70cm, 동서직경 350cm, 남북직경 250cm의 원형 또는 방형의 연소실이 확인되었다.

13) 황산도요망대

『속주증보강도지』에는 말도·불음도·어류정과 함께 황산도요망대를 설치하여 요망장 1인과 요망군 10인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14) 주문도요망대

서도면 주문도에 소재한 해발 46.9m의 봉구산(烽丘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주문도는 장봉도와 더불어 강화의 문호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숙종대에 진(鎭)이 설치되고 강화부에서 요망을 관장하였던 곳이다. 불음도가 잘 조망되는 정상에는 10m의 간격을 두고 연조로 추정되는 원형 함몰부가 확인된다. 규모는 서쪽의 것이 높이 1m, 직경 4m이고, 동쪽의 것은 높이 1.8m, 직경 4.2m이다.

4. 강화의 마장

강화도는 제주도와 함께 고려 말부터 마장지(馬場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강화의 마장은 도성인 한양과 근접하여 말의 관리와 운송이 편리하였고, 기후와 지형이 말의 이탈방지와 방목에 유리하여 국가적으로 중시되었다.

강화도는 말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겨울철의 기온이 제주도에 비하여 낮아 겨울을 대비하여 건초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섬의 중심부를 따라 고려산·혈구산·진강산·길상산 등 해발 400m 안팎의 비교적 나지막한 산지들이 이어져 있고, 수초와 물이 풍부하여 목장으로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성인 개성·한양과 인접하여 마필의 공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의 말들은 대부분 국용(國用)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주·은천 등지와 함께 고려 10대 목장으로 불리던 강음장(江陰場)이 강화도에 있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⁵⁾

강화도에 목장이 설치되었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사』의 강음장 관련 기록,⁴⁶⁾ 박헌용의 『속수증보강도지』(1932)의 강음장

4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의 마장』, 2007, 22~23쪽.

46) 『고려사』 兵志 馬場.

이 석모도의 매음장으로 이설되었다는 기록⁴⁷⁾에서 고려시대부터 말목장이 운영되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정확한 설치시기, 마필 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1279년(원종 11) 개성으로 환도하면서 개경에서 가까운 강화도에 국영 말목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고려시대 말에는 매음장에서 국가에서 사용할 말을 관리하고 있었다.⁴⁸⁾

매음장은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대에 호랑이가 매음도의 목장에 들어가 국마(國馬)를 해친 일이 있었는데 강화부사 이정간(李貞幹)이 이를 처리하여 상을 내렸다는 기록⁴⁹⁾에서 조선시대에도 매음장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15년에는 강화도 본섬 안에 새로운 말목장을 확대 개설하는 문제가 호조판서 박신(朴信)과 태종 사이에 논의되었다.⁵⁰⁾

그 내용인즉, 강화도의 입지조건이 말들을 사육하는데 좋고, 제주목장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간섭, 그리고 해로가 험난하여 마필의 운송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강화도에 목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강화도 주민들을 섬 밖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 강화도에 새로운 목장을 건설하였는데, 그 둘레가

4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앞의 책, 2016, 230쪽.

4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의 책, 2007, 51쪽.

49) 『태종실록』 권9, 太宗 5年, 5月 2日 丙申.

50) 『태종실록』 권29, 太宗 15年 正月 21日 庚申.

67,148척에 달하였다.⁵¹⁾

이때 강화도에 신설된 목장은 진강산, 길상산, 북일곶, 신도 등 모두 4곳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17년에는 매음장을 포함하여 5곳의 목장이 운영되었는데, 마필 1,200여 필이 있었으며 목자 1명마다 암말 5필과 숫말 1필을 돌보게 하여 1둔으로 삼았다.⁵²⁾

강화도의 마장에 속한 말이 1423년(세종 5)에 1,642필로 증가하자 1427년(세종 9)에는 진강산과 길상산에 설치되었던 목장을 하나로 합하여 둘레 15,600자의 담을 쌓았다.⁵³⁾

태종대에 시작된 강화도에서의 마장 경영은 매음장 한 곳에서 시작하여 5~6개소로 확대되어 세조대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도성에 가까워 사복시 관리의 왕래와 점고(點考)가 용이하다는 점, 국가위기 시 마필의 수송이 용이하다는 점, 수초가 풍부하다는 점 등 지리적·환경적 입지조건 때문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부터 강화도 마장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양란을 거치면서 경작지가 훼손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간석지를 활용한 해안 언전(堰田)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얇은 구릉에 자리 잡은 강화도 마장을 경작지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결국

5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07, 51~52쪽.

52) 『태종실록』 권33, 太宗 17年 6月 4日 戊子.

53) 『세종실록』 권55, 世宗 14年 2月 5日 甲辰.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건초와 마구의 준비가 어렵고, 경작이 가능한 곳에 말을 방목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마장 운영을 위한 목책 설치 등 공역이 많고 마장 인근의 경작지가 마필에 의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철폐되기 시작하여 정조대에는 40~50필 정도의 마필만 존재하게 되었다. 강화에서 운영되었던 마장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⁵⁴⁾

강화도 마장 관련 기록

시대 및 인용자료	마장 수	마장 명	비고
고려시대 『고려사』	1개(이설)	강음장, 매음장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	3개	진강·길상장, 매음도, 신도	
16세기 초 『신증동국여지승람』	6개	길상산, 주문도, 볼음도, 미법도, 장봉도, 신도	
17세기 말 『강도지』	8개	진강장, 북일장, 매음도, 신도, 금음복도, 장봉도, 주문도, 미법도	
18세기 중엽 『여지도서』	4개	진강장, 북일장, 시도, 매음도	
18세기 말 『강화부지』	4개	진강장, 북일장, 시도, 매음도	
19세기 중엽 『대동지지』	3개	신도, 거도, 동검도	

5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책, 2008.

강화도 마장 유적 현황

구분 마장명	현재길이	형태	마성크기	비고
진강장	3km	토루, 석축 (구간별 혼용)	토루 : 높이 60~100cm, 폭 : 300~400cm 석축 : 높이 50~60cm, 폭 : 150~200cm	추정면적 3.5km ²
길상장	1.3km	토루, 석축 (구간별 혼용)	토루 : 높이 100~150cm, 폭 : 450~600cm 석축 : 높이 40~60cm, 폭 : 80~100cm	
북일장	1.9km	토루, 석축 (구간별 혼용)	토루 : 높이 100~150cm, 폭 : 500cm 석축 : 높이 50cm, 폭 : 100cm	추정면적 0.5km ²
장봉도	0.19km	석축	석축 : 높이 40~60cm, 폭 : 100cm	
매음장	0.29km	석축	석축 : 높이 40~80cm, 폭 : 80cm	
혈구진성	4.3km	토루, 석축 (구간별 혼용)	토루 : 높이 120~200cm, 폭 : 600~700cm 석축 : 높이 60~80cm, 폭 : 100~120cm	추정마장
신도	30m(?)	석축(?)		추정마장
주문도	20m(?)	석축(?)		추정마장

1) 진강장



진강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양도면 삼흥리에 소재한 해발 441m의 진강산(鎭江山) 서북쪽과 해발 320m의 덕정산 동쪽에 걸쳐서 진강장이 설치되었다. 특히 이 마장은 효종대에 명마로 이름났던 벌대총(伐大聰)의 산지이기도 하다. 마장은 진강산과 덕정산 사이에 형성된 넓고 평평한 계곡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감싸 앉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목장의 경계는 대략 3km 정도이며 주변지형을 살펴보았을 때 동쪽 경계를 덕정산 줄기에서 찾는다면 길이는 7km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장의 면적은 3.5㎢로 추정할 수 있다.

마장의 경계는 얇은 토루 또는 막돌을 이용하여 담장과 함께 쌓는 방

석이 혼용되었다. 서쪽 경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축으로 이루어졌다. 석축은 30~70cm 가량의 산돌을 이용하여 막쌓기를 하였다. 능선 하단부나 완만한 경사면처럼 편평한 지형에는 토루를 쌓고, 능선의 경사면은 모두 석축을 하였는데, 토루는 폭 300~400cm, 높이 60~100cm이고, 석축은 폭 150~200cm, 높이 50~60cm 정도이다.

2) 길상장

길상면 장흥리와 초지리에 걸쳐 해발 60~1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성 산지가 이어지는데 이곳에 마장이 있었다고 옛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마장의 경계는 길상배수지 입구에서 서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장흥 제2저수지 부근까지 내려오는데, 지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장흥 제1저수지가 있는 능선 남쪽이 마장의 내부에 해당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대부분의 마장 경계는 토루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구간에서 석축이 확인되었다. 토루의 폭은 450~600cm이며 높이는 100~150cm로 축조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토루의 길이는 약 1.3km이다.

3) 북일장

화도면 내리에 소재한 해발 200m의 상봉(上峰)에 위치하고 있는 북일장은 북쪽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대략적으로 가운데 계곡부를 중심

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마장의 경계는 북쪽을 제외하고 대부분 석축으로 축조되었는데, 북쪽의 토루는 폭 50cm, 높이 10~150cm 내외이고 약 100m가 잔존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조성된 석축의 석렬은 20~50cm 정도의 산돌을 이용하여 폭 100cm, 높이 50cm로 막쌓기를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마장의 경계는 약 1.9km에서 확인되며 주변 지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래 마장은 길이 2.9km, 면적은 0.5km²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매음장

석모도의 주봉인 해발 327m의 해명산(海明山) 남사면 끝자락에 위치하였다. 완만한 경사면이 펼쳐져 있어 능선은 따라 해명산 정상 방면으로 석렬이 이어지고 있다. 석렬의 폭은 80cm, 높이는 40~80cm 내외인데, 30~60cm의 산돌을 이용하여 막쌓기를 하였다. 석렬은 현재 290m 정도만 확인되었다.

5) 기타

(1) 혈구진성

불은면 삼성리에 소재한 해발 466m의 혈구산 정상과 해발 338m의 퇴모산(退帽山) 동쪽 능선을 감싸 안으면서 능선 남쪽의 평지까지 토루와 석렬이 이어져 있는 혈구진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진성(鎭城)

이다. 그런데 석렬의 구조가 마장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주변 하천의 이름이 마장천(馬場川)이라 부르고 있는 것에서 이 지역이 조선시대 마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혈구진성이 마장으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서 진성의 구조는 평지에서는 토루, 능선에서는 석축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루의 폭은 600~700cm, 높이는 120~299cm 가량으로 비교적 큰 규모이다. 석축의 폭은 100~200cm, 높이는 60~80cm 내외로 산돌을 이용해 4~5단으로 쌓았다. 현재 잔존하는 마장의 경계는 4.3km로 조사되었다.

(2) 주문도마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에서 주문도 선착장에서 서도중학교로 넘어가는 고개 좌측 능선의 경사면에서 폭 60~80cm 내외의 석렬을 확인하였다. 주문도에서의 마장 경영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 지역에 말목장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 마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추정 목장지의 석렬 길이는 약 20m 정도다.

5. 기타 관방유적

1) 갑창성지

갑창성(甲倉城)은 『속수증보강도지』에 1684년(숙종 10) 강화유수 윤해가 석축으로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며, 1765년(영조 41) 그 석재로 써 외성을 보충하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성곽의 구조와 치폐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물진·갑곶돈대 등의 중요 시설들이 이 성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물진의 방어를 위한 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옛 강화역사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전체 둘레는 908m로 보고된 바 있다.

2) 정창성지

강화 외포리에 위치하는 정창성(井倉城)은 갑창성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설치되었던 정포보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축조시점과 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1783년에 제작된 『강화부지』 하권 고적 정포성에 ‘예전에는 성이 있었다. 지금은 단지 웅성만이 있을 뿐이고 지금은 진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보아 이 시기에 정창성의 기능은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곽의 둘레는 약 1,090m로 추정되고, 현재는 동벽과 북벽의 토성만이 잔존해 있다. 그리고 『문화

유적총람』에는 ‘1752년(영조 28) 조관빈이 창고를 헐어 그 재목으로 진홀고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정창성은 정포보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시에 진홀고를 방비하고자 축조되었던 시설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금위영지

강화대교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해운사(海雲寺)가 나오는데, 절 앞쪽으로 금위영(禁衛營)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앞으로 강화외성의 여러 문루 중의 하나인 복파루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금위영은 조선후기 국왕의 호위와 도성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軍營)이다. 1682년(숙종 8) 병조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의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만든 것이다. 금위영의 강도유영군은 1698년(숙종 24) 설치되었는데 교련관 중에서 1년씩 윤차(輪差)하여 별관으로 삼고 진해사 승도(僧徒)를 금위영에 속하게 하였다.

4) 복파루지

강화대교 북쪽 해안도로의 옛 진해사 터에 자리한 해운사의 진입로 일대에 복파루(伏波樓)가 있었다고 전한다. 강화외성의 여러 문 중 하나인 복파루는 1679년 금위영에서 만들었으며, 1758년에 한 차례 중수

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5) 광화문지

강화읍내에서 고려궁지를 향해 언덕을 오르면 고려궁지 출입문 인근에 궁의 동문인 광화문(廣化門)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 궁궐은 몽골의 공격을 피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고종 19) 6월에 창건되었다. 『고려사절요』에는 최우(崔瑀)가 이령군(二領軍)을 동원하여 궁궐을 지었다고 하였다.

강도 정부는 1234년 1월부터 개성과 비슷하게 도성·궁궐·각 관청을 건립하였는데, 궁의 뒷산을 송악이라 개칭하고 궁궐의 정문은 승평문(昇平門), 동문은 광화문으로 하였다. 『속수증보강도지』에는 왕부(王府)의 옆문으로 그 방향은 동쪽을 향하였고 웅성(甕城)은 없지만 장식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하였다. 1270년(원종 11)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모두 허물어졌다. 현재는 고려궁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6) 중영지

강화읍내에서 고려궁지를 향해 오르다 보면 좌측에 강화읍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 1871년(고종 8) 유수 김선필(金善弼)이 세웠다는 중영

(中營)이 있었다. 1881년(고종 18) 군제 개편 때 폐지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7) 진무영지

강화읍내에서 고려궁지로 오르는 도로의 입구 좌측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선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진무영(鎭撫營)이 있었다. 진무영은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군영이었다. 1684년(숙종 10) 유수 윤계(尹埜)가 세웠는데, 1870년 연무당 터로 이전될 때까지 활용되었다고 전한다.

8) 연무당지

강화군청에서 송해면 방향으로 48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강화산성의 서문인 첨화루(瞻華樓)가 나오는데 그 남쪽에 연무당(鍊武堂)이 있었다. 연무당은 1864년 세워진 강화읍사무소 자리의 진무영이 1870년(고종 7)에 새로이 이전되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연무당은 큰 활동이 없었다가 외국 선박의 침입이 잦아지자 국방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구를 대폭 강화되었다. 강화유수가 겸임하는 진무사 밑에 정3품의 중군 1인과 상영대솔군관(上營帶率軍官) 3인, 중영대솔군관(中營帶率軍官) 2인을 두었다. 소관부대로는 종전에 경기수영 하에 있던 각 진(鎭)이 이속되었으며, 병력은 포군(砲軍)을 중심으로 하여



연무당 옛터 표지석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재정은 사복시의 세납전(稅納錢)을 비롯하여 많은 재원이 할당되었고, 특히 1871년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로 심도포량미(沁都砲糧米)라는 특별세를 제정하여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연무당은 1874년에 옛 군제로 환원될 때까지 지방군의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현재는 주변이 정리되어 옛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연무당 옛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9) 훈련도감지

선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제259호 선원사지(禪源寺址)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도감말이 있는데, 이곳에 훈련도감(訓練

都監)이 있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에 도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다섯 군영을 오군영(五軍營)이라 하였다. 훈련도감, 어영청(御營廳), 금위영은 도성을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中央軍營)이었으며,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은 도성의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강도지』에는 병자호란 이전에 선원면에 있었는데, 1680년에 이르러 다시 세웠다고 하였다. 운영 규모는 쌀이 550섬, 조가 120섬, 감장이 28옹기, 무명이 282동, 포가 6동, 화약이 37,200근, 대조총 55자루, 대연환 1,500개, 수철환 16,500개, 소연환 407,000여 개, 장전 4,000부, 편전 3,000부, 황촉(黃燭) 10,000냥, 연철(鉛鐵) 13,380근, 신철(薪鐵) 69,300근, 수철대포 645좌, 동대포 10좌 등이라고 하였다.

훈련도감이 강화 선원면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적 주변에는 석축과 기둥초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면석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도감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대규모 공해(公廨) 건축물이 있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융청도 강화 선원면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0) 덕진별관지

광성보에서 오두돈대를 향해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 해안가에 갈대밭이 형성된 곳에 덕진별관(德津別館)이 있었다고 전한다.

『강도지』에 따르면 1866년 덕진에 정사(亭舍)를 지어 임금의 행차에 근심이 없게 하였는데, 이듬해에 왕의 재가를 얻었다. 또 인근에 제방을 쌓아 논으로 쓸 수 없는 곳에 갈대를 기르게 하여 정사를 덮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전언으로는 1675년(숙종 1)에 유수 허질(許秩)이 세웠다고도 한다. 유수 민진원이 강화읍으로 행궁을 이전하면서 폐허가 된 별관 터에는 갈대밭이 조성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6. 강화도 진보 설치와 현황

1) 강화도 진보 설치 과정

(1) 여말선초 강화도 방비

1232년 고려는 몽골의 1차 침입에 최우의 주도로 강화천도를 단행했다. 강화도는 수전에 약한 몽골군이 쉽게 상륙할 수 없고, 지방의 물자를 조운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38년 동안 강화도는 명실상부한 항쟁의 근거지로서 군사적 요충지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강화도가 이때 획득한 관방 요해처로서 지위는 조선 초에도 지속되어 유사시 조정의 보장처로서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고, 그 위상 또한 상대적으로 격상되었다. 1399년(태종9)에는 경기좌우도 수군절제사가 강화부사를 겸직하였고,⁵⁵⁾ 1413년(태종13) 강화도가 도호부로 격상하는⁵⁶⁾ 등 군사·행정적 지위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강화도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체계가 재편되면서 보장처로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왕실의 유배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 차인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55) 『태종실록』 태종 9년, 2월 22일.

56) 『세종실록지리지』 강화도호부.

(2) 임진왜란 이후 강화도 방비체계 변화

임진왜란을 계기로 강화도의 전략적 가치가 재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10월에 선조가 의주까지 웅진한 상황에서 강화도에는 도순찰사(都巡察使) 권징(權徵)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 반격을 도모하는 조선군과 피난민들이 압도해 있었다. 선조는 우상(右相)을 파견하여 그들을 독려하여 한양 수복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⁵⁷⁾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전라도 관찰사 권율의 군대가 강화도를 거점으로 황해도 일대의 왜적에 대한 반격을 하기도 하였다.⁵⁸⁾ 광해군이 이 끌었던 분조(分朝) 역시 전세가 악화되면 강화도로 들어간다는 계획⁵⁹⁾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강화도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백성의 피난처이자 반격을 위한 보장처로서 전략적 위상을 굳건히 했다.

광해군대 전후 복구 차원에서 강화도의 일부 요해처와 폐기된 진을 재차 설치하자는 방비책이 제기되었다. 1614년(광해군6) 강화부사 이정표가 여러 나루 주위에 목책을 설치할 것과 전선(戰船)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폐기된 덕진진(德津鎭)이 대양과 맞닿은 요해처이기 때문에 재차 진을 설치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남부의 요로인 강화부에 군대의 주둔지를 마련하고, 갑곶진(甲串津)에는 관수(關守)

57) 『선조실록』 선조 25년 10월 13일.

58) 『선조실록』 선조 25년 10월 22일.

59)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5일.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변사에서는 그의 제안을 수용하여 물자의 여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자 했다.⁶⁰⁾

또한 1618년 광해군은 유사시 강화도 내 피난민의 수용 대책, 입도 루트, 군기 및 군량 비축, 목책 설치 등 보장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⁶¹⁾

(3) 인조대 호란과 진보설치 논의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진압한 후 보장처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관방 정비에 대한 방안은 크게 도성 수축, 남한산성 축성, 그리고 강화도 관방시설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인조는 세 후보지 가운데 우선 강화도 관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았고, 후속 조치로 경기 수영(水營)을 강화로 이설하여 강화의 전략적 위상과 방어력을 높였다.⁶²⁾

한편 1627년(인조 5) 1월 13일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켜 의주를 공격해 오자, 조정에서는 긴급히 강화도를 피난처로 거론하기 시작했다.⁶³⁾

그러나 신료들은 강화도로 피신하면 조정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각

60)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7월 11일.

61) 『광해군일기』 광해군 10년 7월 2일.

62) 『인조실록』 인조 2년 3월 16일.

63) 『인조실록』 인조 5년 1월 17일.

도의 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파천을 보류하였다. 그 대안으로 삼남의 군병과 함께 임진강을 수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⁶⁴⁾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강화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했다. 당시 강화도의 비축곡은 2~3만석 가량으로 약 1개월 동안 버틸 양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창의 곡식 1만여 석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강화도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1만 여명 가량의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조는 사전에 김류를 보내 그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⁶⁵⁾

그러나 1월 24일 안주와 평양성이 후금군에 힘없이 무너지고 임진강 방어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소현세자는 서둘러 분조하여 강화도로 입도했다.⁶⁶⁾

이어서 경기의 수변과 해안의 각 고을에 있는 창고 곡식을 강화도로 옮겨 왔고, 선박을 다루는데 익숙했던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풍덕(豐德)·인천(仁川)·부평(富平) 등의 속오군(東伍軍)도 강화도에 배치시켰다.⁶⁷⁾ 소현세자가 강화도로 떠난 지 7일 후인 2월 1일 마침내 인조도 강화에 입도하였다.⁶⁸⁾

이는 이귀, 김류 등 임진왜란을 경험한 신료들의 건의에 따라 전격적

64) 『인조실록』 인조 5년 1월 19일.

65) 위와 같음.

66) 『인조실록』 인조 5년 1월 24일.

67) 『인조실록』 인조 5년 1월 25일.

68) 『인조실록』 인조 5년 2월 1일.

으로 결정되었다. 파천한 인조는 삼남의 1만 병력을 차출하여 강화도로 불러들이는 한편 경상·충청도의 전선(戰船) 또한 강화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방비에 주력했다.⁶⁹⁾

조선과 후금 사이 화약을 맺음에 따라 큰 피해없이 전쟁이 종식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강화도에 대한 전략적 입지와 가치를 재입증했다.

정묘호란 이후 인조정권은 강화도에 대한 본격적인 방비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환도 후 인조는 곧바로 강화를 우수부로 승격시키고 경협이 많은 심열(沈悅)을 우수로 삼아 방비를 강화하였다.⁷⁰⁾

한편 1631년(인조 9) 후금의 홍타이지가 명에 투항한 만주인들을 대거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피한 만주인 385명이 조선으로 넘어와 후금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어 침략의 빌미를 야기할 수 있었다.⁷¹⁾

인조는 그 대책으로 강화도의 관방 시설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즉 유사시 적의 공격에 대비해 강화읍성과 갑곶성을 개축하고 강화 연안 사면에 창고를 설치하여 군향과 병기를 옮겨 두는 등 보장처 방비에 주력했다.⁷²⁾ 같은 해 8월 이시백, 이서, 김자점 등과 강화의 군기와 군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에서 갑곶과 연미정 등 요해처에 보루를 쌓

69)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59~60쪽.

70) 『인조실록』 인조 5년 4월 2일. ; 『인조실록』 인조 5년 5월 11일.

71) 이근호,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역사적 맥락」, 『2015년 제2차 학술회의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방안〉 자료집』, 강화고려역사재단, 2015, 18쪽.

72) 『인조실록』 인조 9년 7월 4일. ; 『승정원일기』 인조 9년 7월 7일.

는 문제가 재론되었다. 이에 인조는 “강도를 빙 둘러 사방에 보루를 쌓고 각 처에 수 만석의 곡식을 비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자, 이에 이시백이 지역의 형세를 살펴 대진(大鎭) 7곳, 소진(小鎭) 10곳 등 총 17개 지역에 진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⁷³⁾ 곧바로 인조는 이수일, 이서, 김자점, 김사양 등을 강화도로 보내 형세를 살펴보게 하였다.⁷⁴⁾

현지조사를 마친 일행은 강화의 긴요한 방어처를 선별하고 병력을 고려하여 담당구역을 나누는 등 구체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⁷⁵⁾

이서는 강화도가 조수 차이가 크고 바닷가가 진펄이라 외부의 선박이 상륙하기 어려운 천혜의 보장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시백이 제시한 17곳의 후보지를 16곳으로 조정하고 각 진영 간의 거리를 10~20리로 구획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1636년(인조 14) 후금의 홍타이지가 정묘화약 위반을 이유로 압록강을 넘어 재차 침범했다. 이에 인조는 강화도로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후금군의 남하가 예상 밖으로 임박하자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항전을 시작한지 불과 38일째 되던 날 강화도가 후금군에 함락되었고 그로부터 8일 후 인조가 이끌었던 남한산성 농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결정했다.

73) 『인조실록』 인조 9년 8월 3일.

74)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8월 23일.

75)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8월 23일.

강화도 패인은 청군의 강화도 상륙, 청군의 홍이포(紅夷砲) 공격, 강화 방위 병력의 열세 등 조선의 개관적 전략·전술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강화유수 겸 주사대장 장신과 강도검찰사 김경징을 처형하는 것으로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병자호란 당시 육군 주력부대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투입된 상황이었고, 강화도 수비는 수군 1,600여 명에 의존해야 했다. 그나마 수군 600명을 내륙 수비로 전환함에 따라 강화도 방어 병력은 고작 1천여 명에 불과했다.⁷⁶⁾ 결국 청군이 갑곶에 상륙해 강화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방어 병력 상당수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강화도의 1천명의 병력으로 3만여 명의 청군⁷⁷⁾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청군은 경강(京江) 근처에서 조선 선박들을 징발하거나 목재를 끌어 모아 삼판선(三板船)을 건조해 도하 준비를 한 후, 염하가 녹아 뱃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1637년 1월 22일 청군은 홍이포를 쏘면서 갑곶진을 공격했고, 포격에 놀란 조선 병사들은 수비를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흩어졌다. 특별한 저항없이 갑곶에 상륙한 후금군은 강화도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농성을 풀고 삼전도의 맹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 정권은 강화도의 관방시설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여 방어시설을 복구하는데

76) 청나라 『태종실록』에도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물리친 조선군의 숫자를 1,100여명으로 기록하고 있다(허태구, 「병자호란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진단학보』113, 진단학회, 2011, 108쪽).

77) 『인조실록』에 따르면 강화도를 공격한 청군의 병력은 약 3만 명으로 확인된다.

주력했다. 1649년(인조 27) 인조는 강화유수 조계원(趙啓遠)에게 군기 제작, 요해처 성 쌓기, 목장 폐쇄 및 백성 유입 방안 등을 지시하며 보장처의 정비에 전력했다.⁷⁸⁾

(4) 효종대 강화 진보의 이설과 신설

한편 병자호란을 계기로 비교적 안정적인 보장처로 인식되었던 강화도가 허무하게 함락된 사실은 이후 국방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효종의 북벌계획 하에 조정에서 강화도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전략적 실패가 강화도에서 후금군의 상륙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화 방비 전략은 연안 방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강화도 국방 강화의 기초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전략 기지를 강화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연안 방어를 위한 진보를 신설하여 강화유수 중심의 자체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강화도에는 교동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에 소속된 덕포(덕진진), 철곶 첨사진과 정포(승천보) 만호진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비공식적이지만 월곶과 용진포에도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해안 경계를 담

78) 『인조실록』 인조 27년 4월 23일.

당하고 있었다.⁷⁹⁾ 1653년(효종 4) 이들 진보 가운데 철곶을 제외한 나머지 4포의 군사지휘권을 통어사로부터 강화유수에게 이양함으로써 강화유수 중심의 방어체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⁸⁰⁾ 효종 또한 병자호란을 강화도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물가에 보를 설치하면 국가가 난을 당하여도, 각 보의 변장(邊將)이 스스로 방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안방비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⁸¹⁾ 결국 1656년(효종 7) 그는 남양에 있던 월곶진(月串鎭)과 인천에 있던 제물진(濟物鎭), 안산에 있던 초지진(草芝鎭) 등을 강화도로 이속시키고, 용진진(龍津鎭)과 화도보(花島堡)를 신설했다. 이듬해인 1657년(효종 8)에는 인화진(寅火鎭)과 승천보(昇天堡)가 설치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광성보(廣城堡)가 설치되면서 8개의 진보를 이속되거나 신설하였다.⁸²⁾

당시 진장의 소속과 직위가 월곶진은 수군첨사, 용진진·제물진·초지진·인화진의 4곳에는 수군만호, 화도보·승천보·광성보의 3곳에는 별장 등 대체로 수영에 소속된 첨사·만호·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효종대 진보 설치의 김포지역과 마주하는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개풍 쪽에서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북쪽지역에 진보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79) 배성수, 「숙종초 강화도 돈대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134쪽.

80) 위와 같음.

81) 『효종실록』, 효종 6년 1월 17일.

82)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179~180쪽.

강화 13진보 현황

왕대	재위 연대	진보	소재지	군관	토출	책임자	변경 내용
인조 효종	1639년 ~ 1649년	철곶보	강화 → 풍덕 → 강화 → 주문도 → 강화			첨사 (수군→병마)	현종7년(1666) 풍덕 이설 현종10년(1669) 복설 숙종38년(1712) 주문도이설 영조4년(1728) 강화 복설 수군 → 병마
효종	1665년	월곶진	남양 → 교동 → 강화	16	66	첨사 (수군→병마)	인조7년(1629)남양 → 교동이설 효종7년(1656) 병마첨사 현종6년(1665)수군 → 병마
		제물진	인천 → 갑곶나루	16	66	만호 (수군→병마)	현종2년(1661) 갑곶 이전 현종6년(1665)수군 → 병마
		초지진	안산	23	68	만호 (수군→병마)	현종6년(1665)수군 → 병마
	1656년	용진진		18	37	만호 (수군→병마)	현종6년(1665년)신설 수군 → 병마
		인화진		16	36	별장→만호	
		승천보		25	16	별장	
		화도보		16	35	별장	
	1658년	광성보		15	45	별장	

왕대	재위 연대	진보	소재지	군관	토출	책임자	변경 내용
현종	1666년	덕진진	강화 → 통진	24	63	만호	임진왜란기 강화 설치 후 치폐 현종 7년(1666) 통진 이설 현종 10년(1669) 복설
		정포보	강화 → 교동 → 강화 → 장봉도 → 강화			별장	현종 6년(1665) 교동 이설 현종 10년(1669) 복설 숙종 43년(1717) 장봉도 이설 영조 4년(1728) 강화 복설 수군 → 병마
숙종	1676년 ⁸³⁾	장곶보		15	86	별장	
	1706년	선두보		30	46	별장	숙종34년(1708) 화도보 합설

출처 : 배성수, 「숙종초 강화도 돈대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135쪽, 〈표1〉 참조.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135쪽 〈표〉 참조.

(5) 현종대 육군체제로의 전환과 12진보체계 완비

효종대 강화도 진보설치에 대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현종대 들어서면 주요 요해처에 대한 진보 설치가 가속화되었다.

1665년(현종 6) 강화유수로 부임한 서필원은 강화도 ‘군무변통13개

조'⁸⁴⁾를 올렸는데, 그 핵심 요지는 강화도의 군사력을 수군에서 육군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다. 현종은 그의 변통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월곶진·제물진·초지진 등이 수군에서 육군 관할로 재편하였다. 또한 이듬해 1666년(현종 7) 수영에 소속된 철곶·덕포·정포 등이 강화부의 관할 밖이었기 때문에 풍천·통진·교동 등의 수영 관할지로 이속시켰다.⁸⁵⁾

그러나 1669년(현종 10) 3포를 강화 건너편으로 옮긴 것이 전술상 실책이니 복귀시켜야 한다는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의 주장에 따라 철곶·덕포·정포가 재차 강화도로 환속되었다.⁸⁶⁾ 결국 강화의 방어체계

83) 『여지도서』, 강화부지와 강화부지에는 병진년(숙종 2년, 1676)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형상의 『강도지』에는 정사년(숙종 3년, 1677)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형상,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189쪽.)

84) 서필원이 성소로 올린 강화도군문변동13개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족산성(鼎足山城)은 다시 보수하여 축조하지 말 것
- 2) 정포진(井浦鎭)을 교동(喬桐)으로 옮기고 소속된 수군(水軍)을 본부에 소속시킬 것
- 3) 중군(中軍)은 혁파하고 소속 군병을 신지(信地)에 각각 예속시킬 것
- 4) 별파진(別破陣)·마대(馬隊) 등은 파하여 육군으로 삼게 하는 것
- 5) 내노(內奴)를 단속하여 초군으로 만들 것
- 6) 월곶(月串) 등 사진(四鎭)의 수군을 병마 침사와 만호로 전환하고 모두 육군으로 삼을 것
- 7) 덕포진(德浦鎭)을 통진(通津), 철곶진(鐵串鎭)을 교동(喬桐)으로 옮기고 군병은 본부에 이속할 것
- 8) 봉수군(烽戍軍)을 혁파하여 정군(正軍)으로 돌려보낼 것
- 9) 본부에 군기(軍器)를 보는 자는 전적으로 훈련하는 데 쓰게 할 것
- 10) 본부에 활과 총을 만드는 장인 2인을 모집하여 전세미(田稅米)를 주고 영구히 살게 할 것
- 11) 본부 조곡의 원수 16만 6천여 석을 영원히 한정할 것
- 12) 본부의 교생(校生)을 모두 군역에 충정할 것
- 13) 섬에 있는 마장(馬場)을 혁파하여 백성들에게 경작토록 할 것(『현종개수실록』, 현종 6년 9월 28일).

85) 『현종실록』 현종 7년 2월 7일. ; 『비변사등록』 숙종 11년 1685년 3월 10일. ; 정포의 경우는 1665년(현종 6) 이미 교동으로 옮기고 그곳에 창고를 짓도록 했다는 『강도사무(江都事目)』의 기록이 있다(『비변사등록』, 현종 6년 10월 30일).

86) 『현종실록』에 따르면 덕포는 1666년(현종 7)에 통진으로 옮겼다가 1669년(현종 10)에 강화로 돌아오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도지』에는 덕포진을 통진으로 옮긴 후 원래의 덕포에는 덕진진을 두었다고 기술되어 있고(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 江都志(상)』, 192쪽), 『비변사등록』에는 1685년(숙종 11) 이자원이 “철곶과 정포는 강화로 되돌아 왔지만, 덕포는 지금까지 통진 땅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비변사등록』 숙종 11년 1685년 3월 10일).

가 육군 중심의 내륙방어로 전환됨에 따라 진보체제의 구축방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효종~현종 연간 강화도에는 연안을 따라 굴곶언·대청포언·만월언·승천언·가릉포언·장지언 등 7곳의 제방 축조가 완성되었다. 제언의 구축은 간척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작지를 원하는 경작자에게 절급하여 이들을 군병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갯벌 위에 쌓은 제방은 군병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로 및 행성의 역할도 수행하였다.⁸⁷⁾

숙종 전반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면서 강화도 방비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1676년(숙종 2)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했던 장곶에 보를 설치함에 따라 ‘12진보’⁸⁸⁾ 체제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진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실제 방비에 허점을 들러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강화 방비의 기조는 또다시 진보 사이에 돈대를 구축하는 방향안이 마련되었다.

87) 배성수, 앞의 논문, 136~137쪽.

88) 한편 이근호는 강화도의 진보 체계를 일반적인 12진보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김포에 위치한 문수진을 포함한 13진보체제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여지도서』, 『강화부지』, 『영조실록』 등에 13진보체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근호, 앞의 논문, 19쪽). 그럼에도 진보의 설치 목적이 강화 연안에 대한 방비에 있고, 강화 상륙을 저지하는 관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진보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진보 관찰 차원에서도 문수진은 강화부와는 별도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정조대 통어영 예측과 진무사 검직에 따른 진보의 변동

1779년(정조 3) 강화도에 통어사가 예측되어 진무사를 겸하는 과정에서 진보에 대한 변동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조치는 강화도가 교동·영종도·통진 등 주변 요충지를 일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수륙(水陸)이 서로 조응하여 공통으로 방어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⁸⁹⁾

한편 1779년(정조 3) 지중추부사 구선복이 강화도 주요 요해처와 진보를 직접 상세히 점검한 후 방비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별단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했다.

1779년(정조 3) 구선복의 강화진보 변동에 관한 별단 내용

순번	진보	진보에 대한 평가	변동 내용	변동 내용
1	인화보	방비에 걱정 없음	-	-
2	철곶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음	-	-
3-1	승천보	교동과 함께 기각의 형세	별장(別將)을 첨사(僉使)로 승격 전함 비치 병조의 이력을 가진 자로 첨사로 승격	첨사 승격 전함 비치
3-2	송정포	강도내 배 정박에 최적격지임	중영(中營)을 승천보(昇天堡)에 설치 이곳에 전함을 감추어 둠	중영 설치 전함 비치
4	월곶진	긴요(緊要)함이 더한 데가 없음 문수산성과 기각의 형세	-	-
5	제물진	서울로 통하는 직로 입술과 이가 서로 보존되는 형세	현재 어가선(御駕船) 1척, 진선(津船) 6척 이외에 추가 비치	전함 추가

89)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순번	진보	진보에 대한 평가	변통 내용	변통 내용
6	용진진	위급할 때 갑진(甲津)과 서로 도울 수 있음	-	-
7	광성보	배가 상륙하기 힘든 일당백의 요해지	-	-
8	덕진진	형승이 믿을 만하고 외구(外寇) 침범이 어려움	-	-
9	초지진	진(鎭)의 남쪽 연변에 축조한 제방이 끊김 돈대(墩臺)의 설치 허술	첨사(僉使)로 승격 후 목관을 겸하게 함 목아(牧衙) 철취(撤毀)후 진사(鎭舍) 건립 본진(本鎭)에 첨사가 거처하면서 목관 겸함	첨사 승격 진사 건립
10	선두보	안쪽 외진 곳에 위치 밖의 성식(聲息)이 까마득하여 서로 알릴 수 없음	후애돈으로 옮겨 해방(海防) 진수(鎭守)하고 제언에 관한 일을 겸직	진보 이설
11	장곶보	해구(海寇)가 정박할 걱정 없음	-	-
12	정포보	방수(防守) 믿을 만함	-	-

출처 :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위와 같이 구선복의 별단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수륙 군대의 통솔체 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였다. 그 내용을 보면, 12진보가 완성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였지만, 진보의 입지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승천보·진보에 대해서는 첨사 승격, 전함 비치, 진사(鎭舍) 건립, 진보 이설 등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었다.

2) 강화의 12진보

(1) 제물진(濟物鎭)

제물진은 강화읍 갑곶리 1019번지인 갑곶돈대의 역사공원 일대로 추정되며 육지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진무영 소속 진보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았다.⁹⁰⁾

제물진은 원래 인천에 있었는데 1656년(효종 7) 이설되어 수군만호가 지휘하였다가 1665년(현종 6) 강화도 내의 모든 진보를 수군진에서 병마진으로 변경할 때 병마만호진으로 변경되었다. 이곳에는 갑곶돈, 염주돈, 제승돈, 망해돈 등 4개 돈대가 소속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강화 외성의 문루인 북파루(北波樓)와 진해루(鎭海樓)가 있었다.⁹¹⁾

(2) 월곶진(月串鎭)

월곶진은 강화읍 월곶리 242번지 일대에 위치했으며 남쪽으로는 염하를 통하여 인천을 거쳐 삼남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북쪽으로 조강(祖江)을 통하여 황해도 연백군과 왕래할 수 있는 포구가 발달되어 있어 중요한 요해처였다.⁹²⁾ 월곶진은 원래 남양에 설치되었다가 교동현 남쪽으로 옮긴 후, 1629년(인조 7) 재차 강화도로 옮겼다.⁹³⁾

90)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91) 이형상,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181쪽.

9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화군 군사유적 - 지표조사 보고서(돈대편)』, 1999, 14~15쪽. ;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93) 『여지도서』 상, 강화부, 교동 건치연혁.

강화도 설치 당시 수군첨사진이었던 월곶진은 1665년(현종 6) 강화도 내의 모든 진보를 수군진에서 병마진으로 변경할 때 병마첨사진이 되었다. 월곶진에는 옥창돈·월곶돈·휴암돈·적북돈 등 4개의 돈대가 설치되었으며, 인근에는 강화외성의 조해루(朝海樓)가 있었다.⁹⁴⁾

(3) 승천보(昇天堡)

승천보는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97번지 일대에 위치했으며, 강화도에서 개성 방향으로 왕래할 수 있는 최단거리였다. 실제 고려조정이 몽골의 침입을 받아 도성을 천도할 때 이 보를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⁹⁵⁾

승천보는 1657년(효종 8)에 설립되었으며, 낙성돈·숙룡돈·소우돈·빙현돈·석우돈 등 5개의 돈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4) 철곶보(鐵串堡)

철곶보는 강화군 양사면 철곶리 산 19-1번지 일대에 위치했다. 이곳은 수세(水勢)가 매우 빠르고 급하며 작은 섬들 사이에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적군을 방어하기에 용이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⁹⁶⁾

철곶보는 전술 변화에 따라 병영 소속과 위치의 변화가 있었는데, 1666년(현종 7) 강화유수 서필원의 주장에 따라 철곶진이 강화도에서

9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79쪽.

9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화군 군사유적 - 지표조사 보고서(돈대편)』, 1999, 14~15쪽.

96)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풍덕으로 일시적으로 옮겨다가 1669년(현종 10) 재차 강화도로 옮겨 경기수영에 소속된 수군첨사진으로 변경되었다. 1712년(숙종 38) 수군첨사진을 주문도로 또 다시 이설한 후, 이곳에 철곶보를 설치하여 진무영에 소속시켰다.⁹⁷⁾ 철곶보는 천진돈·철북돈·의두돈·불장돈·초루돈 등 5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5) 인화보(寅火堡)

인화보는 강화군 양사면 철곶리 산 504번지 일대에 위치했다. 이곳은 교동과 마주하고 작은 섬들이 앞에 있으며 무성한 풀들이 우거진⁹⁸⁾ 요해처였다. 인화보는 1657년(효종 8) 처음 설치되어 별장을 두었으며, 1678년(숙종 4)에 병마만호로 승격되었다.⁹⁹⁾ 인화보는 작성돈·구등곶돈·광암돈·인화돈·무태돈 등 5개 돈대를 관할하였다.

(6) 정포보(井浦堡)

정포보는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28번 일대에 위치했다. 이곳은 장곶(長串)의 북쪽 매음도(煤音島) 안쪽에 위치하여 수세(水勢)가 급하고, 주변 도서(島嶼)가 험하기¹⁰⁰⁾ 때문에 외적을 방비하기에 적당한 입

9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92쪽.

98)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9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90쪽.

100)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지였다. 정포보는 원래 경기수영에 속한 수군만호진이었으며, 1666년(현종 7) 강화유수 서필원의 제안으로 일시적으로 교동으로 옮겨갔다가 1669년(현종 10) 재차 강화도로 이설하여 경기수영에 소속되었다. 『승정원일기』에 경종대까지 이곳의 수군만호에 관한 인사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경기 수영이 소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1723~1727년 사이 어느 시기에 진무영으로 재편되면서 별장이 지휘하는 체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¹⁰¹⁾ 정포보는 석각돈·삼암돈·망양돈·건평돈 등 4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7) 장곶보(長串堡)

장곶보는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696번 일대에 소재했다. 이곳은 마니산(摩尼山) 서쪽 기슭 아래에 위치하고 뒤에는 태산(泰山)이 절벽처럼 우뚝 서서 가로 10여 리를 뻗어나가 있고 앞쪽은 풀과 작은 섬들이 물속에 숨겨져 있어 선로(船路)를 방해¹⁰²⁾할 정도의 전략적으로 안전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장곶보는 1676년(숙종 2)¹⁰³⁾에 정포로 옮겨 보를 세워 별장을 두었고, 검암돈·장곶돈·북일곶·미곶돈 등 4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10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92쪽.

102)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103) 『강도지』에는 장곶보가 정포로 옮긴 연도를 정사년(1667)으로 기록하고 있다.

(8) 선두보(船頭堡)·화도보(花島堡)

선두보는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 460번지 일대에 설치되었다. 이곳은 제방을 축조한 안쪽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산(泰山)이 가로질러 둘러 있고 해구(海口)와의 거리가 먼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원래 1656년(효종 7) 강화군 선원면 연리 54번지 일대에 소재했던 화도보가 설치되었는데, 1708년(숙종 34) 선두포의 독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¹⁰⁴⁾ 그러나 실제 이전은 1710년(숙종 36) 이르러 강화유수 민진원이 진강목장(鎭江牧場) 밖 사복시의 둔전에 보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침내 실행할 수 있었다.¹⁰⁵⁾

이후 1770년(정조 3) 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칠 때 구선복이 별단을 올려 선두보를 전략상 유리한 후애돈이 있던 곳으로 재차 이설하자고 제안했지만,¹⁰⁶⁾ 그대로 선두포에 존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두보는 별장이 파견되었고, 후애돈·동검북돈·택지돈 등 3개의 돈대를 관리하였다.

(9) 초지진(草芝鎭)

초지진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일대에 위치했는데 현재의 초지돈에서 북쪽으로 약 200~300m 지점에 조성되었다. 이곳은 남쪽으로 나가는 초입의 해로에 해당되는 요충지였다. 원래 초지진은 안산

104)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12월 6일.

105) 『비변사등록』 숙종 36년 8월 27일.

106)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초지진

에 있었는데, 1656년(효종 7)에 강화도로 이속되었다. 1665년(현종 7) 강화유수 서필원이 수군만호를 병마만호로 변경하고 감목관의 겸임을 혁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만호가 목장 관리를 병행하여 방비가 허술하다는 주장에 1763년(영조 39) 만호를 첨사로 승격시키고, 변장이 감목관을 겸하는 대신 감목관은 태복시에서 자백(自辟)하는 방식으로 변경¹⁰⁷⁾되는 등 국방과 목장 운영권이 분리되었다.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당시 초지진은 미군의 상륙작전으로 점거되기도 하였다. 초지진은 섬안돈·장자평돈·초지돈 등 3개의 돈대를 관리하였다.

107) 『영조실록』 영조 39년 9월 12일. ; 『비변사등록』 영조 39년 9월 14일.

(10) 덕진진(德津鎭)



덕진진

덕진진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407번지 일대에 설치되었으며, 인근에 덕포나루와 강화외성의 문루인 공조루가 복원되어 있다. 이곳은 이른바 손돌목(孫覿項)이라 하는데 강폭이 좁고 물이 방아 찹듯 부딪치고 휘돌아 흘러 외적이 침범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¹⁰⁸⁾

덕진진은 덕포수군첨사를 두어 수영에 속해 있었는데, 1666년(현종 7) 강화유수 서필원의 주장으로 통진으로 옮겨 별장을 두었다. 1677년(숙종 3) 강화유수 허질의 건의에 따라 병마만호로 승격되었다.¹⁰⁹⁾

108)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109) 『비변사등록』 숙종 3년 7월 27일.

한편 1693년(숙종 19) 덕진의 진두(津頭)에 있던 행궁의 벽과 기둥이 무너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자 평시에도 만호가 주재하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¹¹⁰⁾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초지진과 함께 점거하였다. 덕진진은 덕진돈·손석항돈·용두돈 등 3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11) 광성보(廣城堡)

광성보는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3번지 일대로 현재 광성보 소형 주차장 자리로 추정된다.¹¹¹⁾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작은 섬들이 우뚝 솟아 있고, 강심(江心)의 수세(水勢)가 가장 위험하여 배를 정박하기 매우



광성보

110) 『비변사등록』 숙종 19년 10월 11일.

11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86쪽.

어려운 일당백(一當百)의 요해처로 알려졌다.¹¹²⁾

광성보는 1658년(효종 9)에 설립되었는데, 1817년(순조 17) 500석의 경비를 들여 무너진 안해루 동우와 북문루 등을 수선하기도 하였다.¹¹³⁾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는 어재연이 이끄는 600여명의 수비군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차례로 점거한 미군에 맞서 항전하였으나, 미군의 수륙 양면의 포격에 끝내 함락되어 수자기(帥字旗)까지 빼앗긴 곳이기도 하다. 광성보는 광성돈·오두돈·화도돈 등 3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12) 용진진(龍津鎭)



용진진

112)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8일.

113) 『비변사등록』 순조 17년 5월 6일.

용진진은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438-1번지 일대로 추정되며, 현재 강화외성의 문루인 참경루(斬鯨樓)가 복원되어 있다.¹¹⁴⁾

이곳은 제물진과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주변의 관방시설과 협력하여 방비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용진진은 수군만호가 감목관을 겸하였는데, 그 후 감목을 혁파하고 1656년(효종 7) 진이 설치되었다. 1665년(현종 6) 강화도 내의 모든 진보를 수군진에서 병마진으로 변경할 때 병마첨사진으로 변경되었다. 용진진은 용당돈·좌강돈·가리산돈 등 3개의 돈대를 관할하였다.

11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인천광역시, 183쪽.

7. 강화도 돈대 설치와 현황

1) 돈대 설치

(1) 돈대 축조 배경

강화도 방비 전략은 동북지역의 불안한 정세와 맞물려 다변화하는 대외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청나라는 남명(南明)의 부흥을 저지하기 위해 삼변(三藩)을 내세워 이용하였는데, 1662년 남명 정권이 붕괴하자 삼변 세력이 오히려 청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했다. 마침내 1673년 강희제의 삼변 철폐 승인서가 운남의 오삼계(吳三桂)와 복건의 경정충(耿精忠)에게 전달되자, 이에 반발한 오삼계가 명의 부흥을 천명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초 오삼계 세력은 기세가 커져 청에 대한 강력한 도전세력으로 부상했지만, 청이 한족의 지지를 받아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가 점차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1679년(숙종 5) 삼변의 복건, 광동 세력이 청에 투항했고, 이어서 오삼계가 병사한 후 그의 손자 오세건의 자결함에 따라 마침내 청은 삼변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다.¹¹⁵⁾

청은 이러한 내홍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은 파병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보이며 불확실한 대외정세에 대비해 북한산성 축성과 강화도 관방 시설의 확충 등 자강책 마련에

115) 이근호, 앞의 논문, 20쪽.

부실했다. 그러한 일환으로 실행되었던 강화도 돈대 설치의 연안 방비를 위해 설치된 진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방비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2) 진보체제의 한계와 연변정장(沿邊亭障) 제도의 차용

병자호란 이후 조선정부는 오랑캐에게 손쉽게 강화도 상륙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강화도의 패인을 찾고 있었다. 즉 강화의 해안 지형에 퇴적층이 굳어져 선박 상륙이 용이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강화도 방비의 핵심내용은 적들의 연안 접근을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즉 강화도방비의 핵심은 연안의 주요 요충지에 관방시설을 세우고 상시적인 경계 병력을 배치하여 적의 상륙과 기습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656년(효종 7) 염하를 마주한 해안 요해처에 진보를 설치하여 방어라인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 진보 간 거리가 멀어 실제 방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진보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충지마다 목책과 토성 및 보루를 쌓는 등 새로운 방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¹¹⁶⁾ 또한 효종~현종대에 걸쳐 강화도에는 6개의 제언이 축조되어 농경지 확보를 통한 군역의 확충, 진보의 물 공급, 군병의 이동로 확보 등 여타의 군사적 기반시설도 확보되었다.

116) 배성수, 「숙종초 강화도 돈대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141쪽.

한편 1670년(현종 11) 강화유수 김수흥(金壽興)이 제방 수축을 지휘 하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진보체제의 허점과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 그는 승천보에서 초지진까지 요충지마다 진보를 설치하여 기본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기는 했지만, 승천과 월곶 사이의 적북(赤北), 월곶 과 제물포 사이의 제승곶(濟勝串), 제물포와 용진 사이의 가리산(加里 山), 용진과 화도 사이의 용당곶(龍堂串) 등 긴요한 4구역에 별도의 추 가적인 방비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구역에 진보를 추가 로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중국의 연변정장 (沿邊亭障) 제도와 같이 정사(亭舍)를 세워 화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 안했다. 나아가 이곳에 배치할 화포의 운영 방식으로 속오군과 별도로 별파진을 복구하고 50여명의 정예 포병을 교육시켜 배치하는 운영계획 까지 내놓았다.¹¹⁷⁾

이처럼 김수흥이 진보체제의 보안 차원으로 제시한 중국의 연변정장 제도가 이후 숙종대 진행되었던 강화도 돈대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그 가 긴요한 지역이라고 지목했던 적북, 제승곶, 가리산, 용당곶에 실제 돈대가 들어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¹⁸⁾

117) 『비변사등록』 현종 11년 10월 5일.

118) 배성수, 앞의 논문, 142쪽.

(3) 숙종 초 돈대축성 결정과 『강도설축돈대절목(江都設築墩臺節目)』 마련

중국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돈대는 원래 ‘돈후(墩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적에 대한 사전 경보를 목적으로 해변 10리마다 설치한 시설에 기원을 두고 있다.¹¹⁹⁾

일반적으로 돈대는 적을 경계하고 방비하기 위해 행성이나 해변 등에 설치한 소규모 방어시설로서 체성(體城)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성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돈대는 그 사이가 멀지 않아 유사시 인근 돈대와의 연락이 용이하며 돈대 간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포좌를 배치하여 접근하는 적을 협력하여 제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¹²⁰⁾

조선시대 돈대는 1638년(인조 16) 남한산성의 웅성을 증축할 때 적 용한 사례를 기점으로 숙종대 강화도 연안 방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주요한 관방시설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1677년(숙종 3) 이완의 아들 이인척(李仁儻)이 소위 “동·서·북쪽에 별도로 큰 성을 쌓고 그 사이에 돈대를 설치(別築東西北三大城間置墩臺之說)”하자는 아버지의 유지를 상소로 올리면서 강화도 돈대 축성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즉 이완이 주창한 돈대축성론의 요지는 강화도 연안 지형의 변형으로 선박의 정박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방시

119) 위와 같음.

120) 이근호, 앞의 논문, 20쪽.

설인 돈대를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숙종을 비롯한 주요 대신들이 대체로 이에 동의했지만, 돈대 조성에 동원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 등 물력 확보 어려움 때문에 축성 실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¹²¹⁾

이듬해인 1678년(숙종 4) 진무영이 창설되면서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직¹²²⁾함에 따라 강화도 전술체계가 변화되면서 돈대 축성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같은 해 9월 숙종과 대신(大臣) 및 비국당상(備局堂上)의 회의에서 정국을 주도했던 영의정 허적에 의해 돈대 축성 문제가 재차 거론되었다. 즉 그의 방안은 고려의 옛 성터 위에 성을 다시 쌓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국의 ‘연대제(煙臺制)’에 착안하여 강변을 따라 작은 성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그는 이 방안이 이완이 제기한 돈대 축성론과 같은 취지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숙종은 강화도가 보장처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 돈대 축성을 미룰 수 없다며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¹²³⁾

실제로 당시 조정 안팎으로 강화도 돈대 축성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지만, 인력 재정 부담으로 실제 실행은 부진했다. 더구나 공사 착공은 흉년이 들어 물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었

121) 숙종은 이러한 이완의 방책이 훗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인척에게 『금천위사목(錦川衛事目)』을 작성하여 강화 서고에 보관하도록 한 점에서 이완의 돈대축성론에 대한 그의 의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숙종실록』 숙종 3년 8월 4일).

122) 이형승, 『역주 강화부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7, 205쪽.

123) 『승정원일기』 숙종 4년 9월 28일. : 이 과정에서 윤희는 왕의 3번의 부름을 모두 거절하며, 강화도 축성이 ‘몹시 람의 힘을 탄환(彈丸)이나 만들며 돈대(墩臺)를 설치하는 역사에 허비하고, 군사를 다스리고 무예를 단련하는 일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계책을 얻음이 아닌 줄 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숙종실록』 숙종 4년 11월 25일).

다. 이에 김석주는 서울 근처에 강화도보다 유리한 지형을 가진 곳이 없고 축성하기 좋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선별하여 진행하고자 가능한 사안을 보고하였다. 그는 돈대 축성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고려가 강화 대몽항쟁기에 연안에 토성을 쌓아 방비했다는 것과, 둘째 이완이 제기했던 “동·서·북쪽에 별도로 큰 성을 쌓고 그 사이에 돈대를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강화도의 둘레 300리 전체에 성을 쌓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백성들의 노역과 갯벌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석성으로 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 연안 둘레에 성을 쌓는 것보다는 진보 사이 요해처에 돈대를 세우고 그곳에 강력한 화기를 배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1678년(숙종 4) 숙종의 지시로 병조판서 겸 어영대장인 김석주¹²⁴⁾가 강화도를 순심한 후 돈대 후보지 49개소¹²⁵⁾와 그 지도를 서계로 올리면서 돈대 축성 사업의 계획이 마련되었다.¹²⁶⁾ 또한 그가 돈대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새로운 부지를 찾기보다 기존에 조성된 고려 성터 일부를 돈대의 기반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진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의

124) 김석주는 김육의 손자이자,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의 조카로서 외척계열로 분류되며, 숙종 집권초반 병조판서와 수어대장, 어영대장, 훈련대장, 금위대장 등 핵심적인 권력의 주도세력이었다(이근호 외, 『앞의 책』, 31쪽; 차인배, 「조선중기 捕盜大將 인사 특성과 정치적 의미」, 『大丘史學』, 112, 대구사학회, 15~16쪽).

125) 이때 올린 후보지 가운데 실제 축조된 돈대는 불은평을 제외한 48개소였다. 불은평은 축조에 들어가는 물력에 비해 해안선이 직선에 가까워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배성수, 위의 논문, 143쪽).

126) 『숙종실록』 숙종 4년 10월 23일.

원로(父老)들의 도움을 받아 고려 성터의 흔적과 축성양식을 조사하고, 훈련대장 유혁연이 권유한 ‘포구(浦口)에 진흙을 쌓아 성자(城子)의 붕괴 여부’를 직접 시험하는 등 신중한 현장검증을 통해 후보지를 물색하였다.¹²⁷⁾

후보지가 확정된 후 돈대 착공을 앞두고 공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이 선행되었다. 같은 해 11월 김석주는 돈대에 사용할 돌을 떠내기 전 토신에게 먼저 제사에 올릴 제물을 요청하였다.¹²⁸⁾

이듬해인 1679년(숙종 5) 2월에는 권해를 전축검대축으로 차정하고 강화도로 파견하여 축성 시작을 알리는 고제(告祭)를 선행하였다.¹²⁹⁾

한편 돈대 부지에 대한 사전 보상이 시행되었지만, 지주의 입장에서 땅을 거저 빼앗기다시피 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황형의 후손도 예외는 아니었다. 황형의 유적(遺基)이었던 연미정이 월곶돈의 부지로 수용하는 대가로 그 후손인 황익(黃益)에게 간척지 토지(堤田)를 지급하기도 하였다.¹³⁰⁾ 또한 부지 내 이장이 필요한 묘지는 강화유수에게 주인을 수소문하도록 하고, 후손이 있을 경우 장례비(葬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¹³¹⁾

1679년(숙종 5) 3월 6일 숙종은 특별히 비망기를 내려 역사로 인해

127) 위와 같음.

128)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1월 17일.

129)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27일. ;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29일.

130) 『숙종실록』 숙종 4년 10월 23일.

131)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24일.

백성의 농사에 방해되거나 민간에 함부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군율로 다스리겠다고 엄포한 후, 강화민의 전조를 낮추고 역군에게도 쌀100석과 삼승포 20통을 배급하여 위무하기도 하였다.¹³²⁾ 동시에 승군에게는 호초(胡椒)와 단목(丹木) 등의 물품이 제공되었다.¹³³⁾

한편 1678년(숙종 4) 11월 돈대 축성의 구체적인 설계안인 「강도설 축돈대절목(江都設築墩臺節目)」이 마련되었다.¹³⁴⁾ 이 절목에는 돈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방법 그리고 소요된 인력 및 물품 공급처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돈대의 위치와 개수, 규모와 모양 등 돈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돈대 : 돈대의 수를 49개소로 정하고 돈대의 제도는 산이 있는 곳은 산을 따라 성첩(城堞)을 만들며, 평지에 성을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3장(丈)으로 하고, 그 두께의 밑넓이는 3장 5척으로 하며, 면(面)의 넓이를 2장 5척으로 한다. 성가퀴[垛]는 높이 6척, 두께 3척, 길이 9척으로 하고 전면에 포혈(砲穴) 2, 좌우에 포혈 각 1로 하고, 주위를 4면 10칸(間) 기준으로 하되 그 지형에 따라 방형(方形) 또는 원형, 일직선 또는 ㄷ자형으로 하며 파수병이 많아야 할 긴요한 지역의 경우는 성의 제도를 알맞게 크게 한다.

132) 『숙종실록』 숙종 5년 3월 6일.

133) 『숙종실록』 숙종 5년 3월 24일.

134) 『비변사등록』 숙종 4년 11월 4일.

② 성돈체석(城墩體石) : 남쪽은 마니산(摩尼山), 서쪽은 별립산(別立山)의 두 산 및 이웃 여러 섬에 모두 돌이 있으며, 매음도(煤音島)에는 또 넓은 박석(磚石)이 있어 사용할 만하다.

③ 부석철물(浮石鐵物) : 훈국·어영·수어·정초의 4 군문에서 각각 신철(薪鐵) 1만근을 가져왔으며 해서에는 향곡(餉穀)을 떼어 지급하고 3만근을 본도로 하여금 구하여 보내게 한다.

④ 돌을 운반하는 배 : 크고 작은 성석(城石)은 수상(水上) 운송이 육상 운송보다 많을 것이므로 배를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70척을 마련하되 충청수영(忠淸水營)에서 30척, 전라 좌·우수영에서 각 20척을 만들어 내년 정월 그믐께까지 강도(江都)에 도착하게 하고, 돌의 육상 수송은 본부(本府)에 새로이 제조한 병거(兵車) 70여량(輛)이 있고 또 진강목장(鎭江牧場)에 소 60~70두가 있으니 사용할 만하다.

⑤ 석회(石灰) : 해서의 연백(延白)·평산(平山)·강음(江陰) 등 연강(沿江) 4읍에 석회가 가장 많으니 따로 차사원을 정하여 2만석에 한정하여 벽란도(碧瀾渡)에서 굽도록 하되, 이상은 강도에 가까운 곳이므로 강도의 각 진포(鎭浦) 소속 선척으로 역소(役所)까지 수송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⑥ 기계잡물(器械雜物) : 배에 실은 돌을 묶으로 올릴 때 벌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잡목을 엮어 길을 만들어야 비로소 끌어 옮기는 데에 편리하다. 장산곶(長山串)에서 잡목 8천조(條)를 소강첨사(所江

僉使)로 하여금 베어서 수송하도록 하고 기제도 이 나무를 사용한다.

⑦ 다고목(多苦木) : 3천 개를 소강첨사로 하여금 베어서 수송하게 한다.

⑧ 원다고(圓多苦) : 2백 개를 양호수영(雨湖水營)으로 하여금 선재(船材)의 끝둥부리로 만들어 보내게 한다.

⑨ 동거백량(童車百輛)과 녹로(轆轤) 50기(機) : 모두 양호에 배정하고, 설매(雪馬)는 경강(京江)에서 재목을 구하여 보낸다.

⑩ 돌 놓을 때의 소나무메 : 경산(京山)의 응종목을 가져다 사용한다.

⑪ 생첩 : 가을에 채취한 것이 좋으며 8백동(同)을 호서에 배정한다.

⑫ 공석(空石) : 가장 많이 필요하니 호조·진흥청·경기 각 읍에서 수만장을 가져다 사용한다.

⑬ 회를 깔 때에는 판조(板槽)를 사용하고 철물(鐵物)을 두드려 만들 때에는 노탄(爐炭)을 사용한다.

⑭ 물을 운반할 때에는 담통(擔桶) 및 소통(小桶)을 사용하고 저수(儲水)할 때에는 대옹(大甕)을 사용한다.

⑮ 석수(石手) : 서울 및 여러 도에서 4백 명 한도에서 사역시킨다.

⑯ 역부(役夫) : 굶주린 백성을 사역시킬 수 없고 허약한 병사를 사역시킬 수는 없다. 혹자는 말하기를 ‘왜관(倭館)을 건조하여 지급할 때에도 한 도의 병민(兵民)의 힘을 빌었으니 지금 보장(保障)을 보수하는 때를 맞이하여 비록 백성의 힘을 빌리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 이 말이 진정 옳다. 그러나 농사가 흉년이요, 또 농사철

을 맞이하였으니 이 점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각 도의 승군(僧軍) 8천 명을 40일 범위에서 사역한다.

⑰ 역량(役糧) : 8천석을 창고에 쌓아 둔 삼남의 대동(大同) 비축과 양서의 관향(管餉)에서 2천석씩 가져오면 역시 8천의 수자에 충분할 것이다.

⑱ 역선(役膳) : 간장·젓갈·해채(海菜)·황각(黃角) 등의 물건을 삼남수영(水營)에 배정한다.

⑲ 취기(炊器) 식정(食鼎) 및 동과(銅鍋) : 각 군문 및 남한·강도에 있는 것을 가져다 사용한다.

⑳ 목표(木瓢) : 강원도에 배정한다.

위와 같이 강화도 돈대 축성 설계안인 「강도설축돈대절목(江都設築墩臺節目)」이 마련되자 축성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1679년(숙종 5) 1월부터 돈대 축성에 동원될 승군이 전라도 2,800명, 충청도 1,800명, 강원도 500, 함경도 400명 등 총 5,500명이 배정되었다. 역사에 참여한 승군은 2월 26일 통진현에 모여 3월 2일부터 공사에 투입되었다. 공사기간은 1679년(숙종 5) 3월 2일경에 시작해서 약 40일간 진행해 4월 12일경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당초의 돈대공사는 30개의 돈대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돈대의 간격이 너무 넓어 방어 능력이 경감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중에

그 개수가 48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축성해야 할 돈대가 많아지면서 동원된 인력의 작업량도 증가함에 따라 공사기간도 40일로 늘어났다.¹³⁵⁾

축성 감독은 48개의 돈대를 12개씩 모두 4개소로 나누고, 각 소의 장은 별장(別將), 천총(千總), 금군장(禁軍將) 가운데 선출하여 맡도록 하였다.¹³⁶⁾

참여 인원은 주요 축성병력인 승군 8,000명과 기술직 장인인 석수 400명, 야장 80명, 목수 50 명 등 530여 명이 동원되었는데, 장인의 경우 그들에게 속한 조수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0명에 이르렀다.¹³⁷⁾ 따라서 총동원 인원은 승군 8,000명과 장인 2,000명 등 순수 공사 참여 인력만 전체 약 10,000여 명에 이르렀다.

석재의 공급은 강화도 남쪽의 마니산, 서쪽의 별립산, 그리고 매음도와 주변 섬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가공할 석수 400명은 서울과 지방 등에서 동원하기로 했다.¹³⁸⁾

(4) 1673년 돈대 축성 시행과 완공

1679년(숙종 5) 3월 2일에 돈대 축성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연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인력 충원 문제와 개펄을 메우고 세

135) 『승정원일기』 숙종 5년 3월 28일.

136) 배성수, 앞의 논문, 147쪽.

137) 『비변사등록』 숙종 5년 3월 27일.

138) 『비변사등록』 숙종 4년 11월 4일.

우는 돈대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인력 충원 문제는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요해처 38곳에 승군을 증액하여¹³⁹⁾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낙성, 장자평, 망월돈대 등 갯골에 위치한 돈대는 석재로 진흙을 메워 석축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공역이 두 배로 들었다.¹⁴⁰⁾

한편 착공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난 4월 8일 김석주가 강화도 축성 현장을 돌아본 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러 돈대 가운데 갑곶의 경우 채석장과 가장 멀고, 선박이 조수를 가려 옮기는데 2~3일이 걸려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도 보고했다.¹⁴¹⁾

이후 5월 6일 김석주는 평지에 위치한 돈대는 축조에 어려움이 있어 5월 12~13일경에 완료될 것이며, 나머지 40여 곳은 5월 10일 이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지연 현황을 보고했다.¹⁴²⁾ 또한 돈대 축성과 동시에 48곳 성문에 들어갈 박철(朴鐵) 7만 여 근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공정도 진행되었다.

한편 돈대 축성이 시작된 3월에 돈대 축성 감독관 수사(水使) 이우(李僞)에게 역모에 관련된 홍서가 전달되면서 예상치 못한 역육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즉 이유정(李有溍)이란 자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손

139) 『속중실록』 숙종 5년 3월 28일.

140) 배성수, 앞의 논문 147쪽.

141) 『비변사등록』 숙종 5년 4월 8일. 갑곶의 석재 운반 여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에서도 확인된다(『승정원일기』 숙종 5년 3월 28일).

142) 『비변사등록』 숙종 5년 5월 7일.

자인 임창군(臨昌君)을 추대하여 반정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 내용은 종묘사직과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성을 쌓아 백성의 원망이 높아지니 승장들에게 동참하라는 것이었다.¹⁴³⁾ 결국 투서사건은 이유정이 붙잡혀 국청에서 역모의 실체가 밝혀짐에 따라 그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¹⁴⁴⁾

실제 이 사건이 돈대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화민과 역꾼들의 고역, 불만에 대한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침내 돈대 축성공사를 시작한지 80여일 만인 5월 25일 강화유수 윤이제(尹以濟)가 숙종에게 돈대 축성의 역사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¹⁴⁵⁾ 또한 같은 해 6월 16일 김석주는 강화도 돈대 48좌(座)를 그린 족자를 바쳐 올리면서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다.¹⁴⁶⁾

돈대 축성에 동원된 총 인력은 순수 역부만 12,263명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각종 장인과 조수를 합하여 14,0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1681년(숙종 7) 강화의 인구가 22,336명이었고, 1676년(숙종 2) 개성의 대응산성 축조에 역부와 장인이 6,100명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당

143) 『연려실기술』 肅宗朝 故事本末 李有演投書之變.

144) 위와 같음.

145) 배성수는 이날 윤이제의 보고를 공사 끝나는 날로 보지 않고, 『강도지』의 축돈 기간이 80일이라는 점을 착안해 3월 2일로부터 80일 되는 5월 23일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성수, 앞의 논문 148쪽). ; 『승정원일기』, 숙종 5년 5월 25일).

146) 『숙종실록』 숙종 5년 6월 16일.



강화전도

시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역부의 식량은 삼남의 대동미와 양서의 관향미 각 4,000섬 등 총 8,000섬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시작되자 장인과 그들 조수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한 달 만에 준비된 8,000섬이 모두 소진되었다. 따라서

3월 28일 강도미 2,000섬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4월 6일 공사에 투입된 어영군이 차용하여 소비한 강도미 약 2,800여 섬을 더하면 총 사용 식량은 약 12,800섬이 사용되었다.¹⁴⁷⁾

(5) 돈대의 보강과 치폐

1679년(숙종 5)에 48개의 돈대 축성이 완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강 공사와 추가 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석주는 「돈대필축순심후서계」를 봉진하여 부실하게 시공된 용당돈과 손돌목돈을 재건축하고, 돈대간 상호 조응이 어려운 장곶돈과 송강돈대 사이에는 돈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⁴⁸⁾ 또한 강화유수 신후재(申厚載)는 축성 당시 돈대의 전면은 높고 후면이 낮게 조성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가 적의 상륙한 이후에는 오히려 적에게 후면을 공격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⁴⁹⁾

한편 1690년(숙종 16)~1696년(숙종 22)년경에는 장곶과 송강돈 사이에 검안돈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49돈대로 증설되었다.¹⁵⁰⁾ 이후 1718년(숙종 44) 석우돈과 소우돈 사이에 병현돈대가 새롭게 추가되어 50개 돈대가 구축되었다.

147) 배성수, 앞의 논문, 150~151쪽.

148) 배성수, 앞의 논문, 152~153쪽.

149) 『숙종실록』 숙종 16년 5월 13일.

150) 배성수, 앞의 논문, 156쪽.

이듬해인 1719년(숙종 45) 우의정 이건명은 돈대간의 거리가 먼 14곳에 돈대를 추가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반면 강화유수 민지원이 양암·갈곶돈대를 잇는 선두포 제방공사를 추진하여 완공한 후, 1710년(숙종 36)부터 이곳에 특별히 군졸이 지킬 일이 없다하여 파수군졸을 배정하지 않다가¹⁵¹⁾ 1718년(숙종 44) 마침내 전략상 무익하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되었다.¹⁵²⁾ 이후 1726년(영조 2) 철북·초루·작성돈대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마침내 강화도 53돈대의 규모를 완성하였다.¹⁵³⁾

151) 『비변사등록』 숙종 36년 12월 3일.

152) 『숙종실록』 숙종 44년 4월 1일.

153) 배성수, 위의 논문, 156쪽.

강화 54돈대의 소속 및 규모

번호	소속	돈대	위치	현황	규모		거리		기타
					둘레(보)	첩	보	미터	
1	제물진	망해돈대	강화읍 용정리 산 17	토축 일부 잔존	90	20	600	816	
2		제승돈대	강화읍 용정리 산 79	멸실 (군시설)	106	29	760	912	
3		염주돈대	갑곶리 산2	석축 일부 잔존	84	23	625	750	
4		갑곶돈대	갑곶리 1025	멸실	113	40	1,400	1,680	
5	용진진	가리산돈대	선원면 신정리 343-2	토축 잔존	94	34	1,300	1,560	
6		좌강돈대	선원면 지산리 215	복원	96	37	1,200	1,440	
7		용당돈대	선원면 연리 1	복원	94	36	1,390	1,668	
8	광성보	화도돈대	불은면 연리 53	부분 복원	92	42	700	840	
9		오두돈대	불은면 오두리 산1	복원	80	33	2,145	2,574	
10		광성돈대	불은면 덕성리 23-1	복원	86	38	233	279	
11	덕진진	손돌목돈대		복원	66	31	2,010	2,412	
12		용두돈대	불은면 덕성리 5834	복원	-	-	-	-	고종 8년 (1871년) 전후 설치
13		덕진돈대	불은면 덕성리 373	복원	90	40	1,650	1,980	
14	초지진	초지돈대	길상면 초지리 624	복원	83	34	900	1,980	
15		창자평돈대	길상면 초지리 1074	멸실	83	34	2,300	2,760	
16		선암돈대	길상면 창흥리 271	토축 일부 잔존	93	40	2,100	2,520	
17	선두보	택지돈대	길상면 선두리 1081	토축 일부 잔존	84	37	1,250	1,500	
18		동검복돈대	길상면 동검리 산70	석축 붕괴 잔존	209	85	1,750	2,100	
19		후애돈대	길상면 선두리 954	복원 여장 잔존	91	40	1,450	1,740	
20	-	양암돈대	길상면 선두리 840	석축 일부 잔존(폐지)			1,645	1,974	숙종 44년 폐지
21		갈곶돈대	화도면 사기리 산47-3	토축 부분 잔존			1,645	1,974	
22	영문소속	분오리돈대	화도면 사기리 185-1	복원	84	37	320	384	
23		송곶돈대	화도면 동막리 182	석축 일부 잔존	94	36	870	1,044	
24	장곶보	미루지돈대	화도면 여차2리 170-2	원형 유지, 보수정비	92	38	1,440	1,728	
25		북일곶돈대	화도면 장화1리 1029	원형 유지, 복원	93	40	1,260	1,512	
26		장곶돈대	화도면 장화2리 113	복원	96	40	1,260	1,512	
27		선수(검암)돈대	화도면 내리 산25	원형 유지, 보수정비			350	420	숙종 16~22년 (1790~1796) 경 축조

번호	소속	돈대	위치	현황	규모		거리		기타
					둘레(보)	첩	보	미터	
28	영문 소속	송강돈대	화도면 내리 103	토축 잔존	93	40	1,098	1,317	
29		굴암돈대	양도면 하일리 487	복원	88	36	1,440	1,728	
30	정 포 보	건평돈대	양도면 건평리 산39	원형유지, 보수정비	88	40	3,240	3,888	
31		망양돈대	내가면 외포리 223-4	복원	98	40	1,440	1,728	
32		삼암돈대	내가면 황청리 680	복원	91	55	1,080	1,296	
33		석각돈대	내가면 황청리 산171	석축 일부 잔존	58	27	1,916	2,300	
34	영문 소속	계룡돈대	내가면 황청리 282	복원	79	33	1,525	1,830	
35		망월돈대	하점면 망월3리 2107	복원	100	42	3,100	3,720	
36	인 화 보	무태돈대	하점면 창후1리 151-4	복원	109	47	1,470	1,764	
37		인화돈대	양사면 인화리 991	석축일 부잔존	98	44	1,350	1,620	
38		광암돈대	양사면 인화리 산32	원형유지	42	38	2,724	2,068	
39		구등곶돈대	양사면 북성리 996	원형유지	90	46	500	600	
40		작성돈대	양사면 북성리 산633	원형유지	86	38	1,500	1,800	영조 2년 (1726) 축조
41	철 곶 보	초루돈대	양사면 북성리 산47	원형유지	85	38	645	774	경종 즉위년 (1720) 축조
42		불장돈대	양사면 북성리 산42	원형유지 부분파괴	81	38	666	800	
43		의두돈대	양사면 철산리 산1	복원	32	27	297	356	
44		철북돈대	양사면 철산리 35	성벽잔존	76	33	545	654	
45		천진돈대	양사면 철산리 203	멸실	94	38	984	1,180	
46	승 선 보	석우돈대	송해면 당산리 산2-1	석축 일부 잔존	73	31	993	1,191	
47		빙현돈대	송해면 당산리 산278	멸실	69	25	585	702	
48		소우돈대	송해면 상도리 425	멸실	70	25	1,096	1,315	
49		숙룡돈대	송해면 상도리 534	석축 일부 잔존	82	33	941	1,129	
50		낙성돈대	강화읍 대산리 249	멸실	96	34	940	1,128	
51	월 곶 진	적북돈대	강화읍 대산리 산1	멸실	96	39	550	660	
52		휴암돈대	강화읍 월곶리 산11	멸실	83	30	1,110	1,320	
53		월곶돈대	강화읍 월곶리 242	복원	124	48	775	930	
54		옥창돈대	강화읍 옥림리 125	멸실	104	41	1,120	1,344	

출처 : 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27, 2003. 154~155쪽, 〈표5〉 참조 ;
정민선,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인천학연구』, 2018, 〈표1〉, 〈표2〉 참조 작성.

2) 돈대 입지와 현황

(1) 돈대 입지

1719년 3월 마련된 「강도돈대설축절목」에 따르면 돈대는 49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략적 가치에 비해 축성 여건이 좋지 않았던 불은평(佛恩坪)을 제외하고 총 48개가 축성되었다. 강화의 돈대는 정형화된 양식 대신 환경과 전략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강화도 돈대는 대략 꽃형, 산정형, 산사면형, 평지형 등 4가지 입지형태로 구분된다. 꽃형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산정형(山頂形) 12개소, 산사면형 12개소, 그리고 평지형이 5개소의 순으로 파악된다.¹⁵⁴⁾ 꽃형이 가장 많이 구축된 이유는 강화도 지형적 특성상 바다로 돌출한 육지의 끝부분인 꽃이 잘 발달된 특성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유형은 해안의 주요 요충지에 돈대를 구축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적의 내륙 상륙을 저지하였다. 또한 강화도는 북서쪽과 남서쪽이 주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산정형과 산사면형 돈대가 주로 조성되었다.

돈대 입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 전방과 주변의 시야가 확보된 곳에 위치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모든 돈대의 향방이 해양 쪽으로 조성되어 있어 설치 목적이 해안방어를 위해 조성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54)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 강화도, 광주 신남성, 파주 장산진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18, 94쪽.

강화 돈대의 입지형태별 현황

입지유형	돈대	개수
곳형	제승돈대, 갑곶돈, 좌강돈대, 용당돈대, 오두돈대, 용두돈대, 덕진돈대, 택지돈대, 갈곶돈, 분오리돈대, 송곶돈대, 미곶돈대(미루지돈대), 북일곶돈, 장곶돈, 망양돈대, 삼암돈대, 귀등곶돈대(구등곶돈대), 불장돈대, 의두돈대, 철북돈대, 천진돈대, 병현돈대, 적북돈대, 옥창돈대	24
산사면형	선암돈대, 선수돈대(검암돈대), 굴암, 건평돈대, 석각돈대, 무태돈대, 광암돈대, 석우돈대, 속룡돈대, 연주돈대, 광성돈대	11
산정형	망해돈대, 가리산돈대, 손석항돈대(손돌목돈대), 동검북돈대, 송강돈대, 계룡돈대, 인화돈대, 작성돈대, 초루돈대, 소우돈대, 휴암돈대, 월곶돈대	12
평지형	화도돈대, 초지돈대, 후애돈, 양암돈대, 망월돈대, 낙성돈대	6
확인불가	장자평돈대, 불은돈대	2

출처 :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인천학연구』, 2018, 92~94쪽 <표1> 참조.

또한 산정형 및 산사면형의 경우 먼 바다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되어 섬으로 접근하는 적선을 사전에 인지하여 저지하는데 용이했다. 또한 외적이 섬에 상륙하더라도 이들 돈대의 위치가 높아 기어오르기 쉽지 않은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평지형 돈대 역시 육지의 가장자리 하천의 입구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해안은 물론 이웃 돈대 사이의 시야를 확보하여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둘째 돈대 상호간 관측과 소통이 용이하여 적의 공격 시 상호 협공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돈대간 거리가 손돌목돈~광성돈 사이로 233보(279미터)로 최단거리였고, 무태돈~망월돈 사이가 3,100보(3,720미터)로 최장거리였다. 돈대간 평균 거리는 1,249보(1,494미터)로 실전에서 상호 협력방비가 가능한 지근거리에 배치되었다.

강화도 돈대의 방위별 배치 현황

방위 연번	방위				기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1	망해돈대	장자평돈대	북일곶돈대	인화돈대	
2	제승돈대	선암돈대	장곶돈대	광암돈대	
3	염주돈대	택지돈대	선수돈대 (검암돈대)	구등곶돈대 (귀등곶돈대)	
4	갑곶돈대	동검북돈대	송강돈대	작성돈대	
5	가리산돈대	후애돈대	굴암돈대	초루돈대	
6	좌강돈대	양암돈대	건평돈대	불장돈대	
7	용당돈대	갈곶돈대	망양돈대	의두돈대	
8	화도돈대	분오리돈대	삼암돈대	철북돈대	
9	오두돈대	송곶돈대	석각돈대	천진돈대	
10	광성돈대	미루지돈대 (미곶돈대)	계룡돈대	석우돈대	
11	손돌목돈대 (손석항돈대)		망월돈대	빙현돈대	
12	용두돈대		무태돈대	소우돈대	
13	덕진돈대			숙룡돈대	
14	초지돈대			낙성돈대	
15	월곶돈대			적북돈대	
16	옥창돈대			휴암돈대	
소계	16(29.6%)	10(18.5%)	12(22.2%)	16(29.6%)	
총계	54(100%)				

강화 돈대의 보존 현황

현황	돈대	갯수
원형 유지 (부분보수)	미루지돈대, 선수(검암)돈대, 북일곶돈대, 광암돈대, 구등곶돈대, 작성돈대, 초루돈대, 불장돈대, 건평돈대	9
멸실 (군시설)	제승돈대, 갑곶돈대, 장자평돈대, 천진돈대, 낙성돈대, 적북돈대, 휴암돈대, 빙현돈대, 소우돈대, 옥창돈대	10
복원 (부분복원 포함)	좌강돈대, 용당돈대, 오두돈대, 광성돈대, 손돌목돈대, 용두돈대, 덕진돈대, 초지돈대, 분오리돈대, 장곶돈대, 굴암돈대, 망양돈대, 삼암돈대, 계룡돈대, 망월돈대, 무태돈대, 의두돈대, 월곶돈대, 후애돈대, 화도돈대	20
일부 잔존 (토축, 석축, 여장 등)	송곶돈대, 석각돈대, 석우돈대, 숙룡돈대, 양암돈대, 염주돈대, 인화돈대, 동검북돈대, 철북돈대, 갈곶돈대, 망해돈대, 선암돈대, 택지돈대, 가리산돈대, 송강돈대	15
총계	54	

출처 :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인천학연구』, 2018, 92~94쪽 (표1) 참조.

셋째 강화도 돈대의 배치가 주로 동쪽과 북쪽 연안유역에 집중된 것은 내륙 쪽에서 강화도를 향해 공격해 오는 적에 대한 대비책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돈대의 방위상 배치 비율을 보면, 동쪽과 북쪽에는 각 16개로 각각 30%씩 전체 60% 가량이 배치되었고, 남쪽에는 10개로 18.5%, 서쪽에 12개로 22.2% 가량 배치되었다.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이 동쪽 내륙으로는 김포와 북쪽 내륙으로는 개풍과 마주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내륙과 연접한 연안지역에 대한 방비에 각별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강화도 돈대의 입지가 섬 내부로 접근하기 쉬운 포구나 나루 주변

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화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나루와 포구를 통하지 않고 상륙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지만, 만조 시 갯골수로와 하천이 연결되어 섬 내부로 직접 진입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돈대가 주요 포구와 하천 주변에 입지한 것은 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아군이 선점하여 적들의 상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2) 돈대 현황

돈대의 성벽 둘레에는 80~120m(70보~100보)의 규모로 일반 성곽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돈대의 평면 형태는 주변 지형에 따라 크게 원형과 방형 그리고 부정형으로 구분된다.

돈대의 복원 및 정비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돈대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곽의 기초부분이 지형에 따라 판축 또는 석축방식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성곽 기초를 구축하였다. 둘째 성채는 일부 편축(片築)방식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내·외벽을 동시에 쌓아 올린 후, 그 사이는 할석과 흙으로 채워 넣는 협축(夾築)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은 대부분 돌로 쌓은 석성 구조로 그 높이는 대체로 2~4m이며, 성첩은 평균 둘레 90보에 그 수는 40개가 조성되어 있다. 돈대의 공격 시설은 상·하단 2층 구조로 하단부는 포좌를 두고 화포를 설치해 상륙전 원거리 적들을 사전에 제압하였고, 상단부는 여장을 축조하여 조총 등 개인화기를 동원해 돈대에 근접한 적병을

제압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밖에 돈대 내부에는 병사들의 생활공간과 화약, 무기를 보관했던 돈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① 화도돈대

화도돈대는 강화도 동남쪽 선원면 연리 54번지 일대 평야지역의 해안선 접경에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수축되었고, 광성돈, 오두돈과 더불어 광성보 관할 하에 운영되었다. 화도돈대는 1990년부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다.



화도돈대

② 망월돈대

망월돈대는 강화도 서쪽인 하점면 망월3리 2107번 일대의 망월 평야의 해안선 부근 갯골에 진흙을 메우고 석축을 쌓아 구축하였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수축되어 진무영 직할에 소속되었다. 이곳에



망월돈대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 상당부분 토사에 묻히는 등 훼손이 심했던 것을 근래에 복원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11호로 지정되었다. 그 형태는 장방형으로 남북 40m, 동서 18m의 규모이며 서쪽으로 3기의 포좌가 설치되어 있다. 망월돈대는 해안가의 조망이 평야 한복판에 세워진 점이 특이하다. 이 돈대는 인근의 무태돈대와 함께 진무영에서 직접 관할하였다.¹⁵⁵⁾

③ 초루돈대

초루돈대는 강화도의 북쪽인 양사면 북성리 산47번지 일대 해발 45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맨 밑바닥에는 화강암을 깔고 평면 계란형으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이 돈대는 1720년(경종 즉위년)에 추가로 축조되어 인근의 불장돈대, 의두돈대, 철북돈대, 천진돈대 등과 함

15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6집, 강화의 국방유적』, 2011, 73쪽.

께 철곳보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다. 돈대의 규모는 남북 35m, 동서 27m 둘레 99m로 3개의 포좌가 조성되어 있다. 초루돈대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용이한 곳에 자연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것으로서 남벽과 북벽은 얇은 생토면 위에 기단석을 놓고 외벽을 쌓았으며, 생토면이 깊은 동벽과 서벽은 흙을 다진 후 축조하였다. 성벽의 기단부는 산탁(山托)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막돌과 모래, 유사판축을 통해 내부를 채웠다. 동벽은 급경사로 인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뿔층과 솥을 포함한 흙층, 점토층 등을 교대로 견고하게 다졌다. 동쪽과 서쪽 보축한 곳에는 한 겹 잡석층을 시설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았다. 포좌와 문은 특별한 바닥 시설없이 흙을 다졌으며, 그 바닥에는 넓적한 판석을 깔았다. 특히 문 서쪽에서 발견된 명문은 계룡돈대의 명문과 함께 돈대 축조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¹⁵⁶⁾

한편 초루돈대 문 서쪽벽면에서 ‘강희오십구년사월일□□전별장최□형비장교련관장준영전사과김□□(康熙五十九年四月日□□前別將崔□蜚婢將教練官張俊英前司果金□□)’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돈대의 축성시기는 물론 축성 관련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월곶돈대

월곶돈대는 강화도의 동쪽인 강화읍 월곶리 242번지 일대로 문수산

15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4,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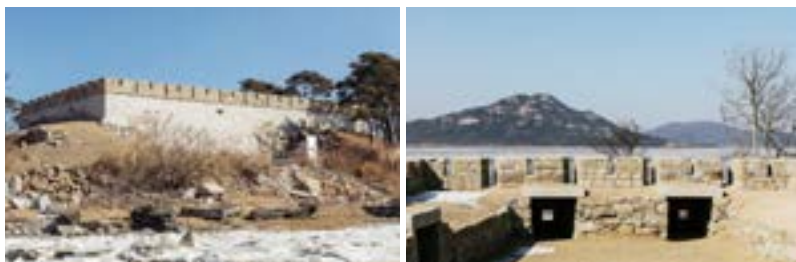


월곶돈대

성과 기각 형세로 구축되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 축조되어 인근의 적북돈대, 휴암돈대, 옥창돈대와 함께 월곶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돈대의 규모는 둘레 148m이고 2개의 포좌를 갖춰 원형으로 조성되었다. 월곶돈대는 한강진 입구에 위치하고 유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으로 염하와 연결되고, 북으로 조강을 통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19세기에 제작된 8폭 병풍의 『강화도지도』(서울대박물관 소장)에 따르면 연미돈(鵞尾墩)으로 표기된 연미정(鵞尾亭) 외에 건물지 1동이 추가로 확인된다. 연미정은 1995년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⑤ 계룡돈대

계룡돈대는 강화군의 서쪽인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일대에 간척지 평야의 끝에 얇은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 축조되어 진무영 직할에 소속되었다. 돈대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방



계룡돈대

형이지만 북서쪽 끝이 좁은 형태이며, 그 규모는 북서~남동쪽이 33m, 북동~남서가 22m 가량이며 높이는 2~4m 내외이다. 돈대의 벽체 하단부의 면석에는 ‘강희십팔년사월일경상도군위어영(康熙十八年四月日慶尙道軍威御營)’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강희18년이라는 연호는 1679년으로 돈대가 설치된 연대를 명확히 확인해 준다.

2008년 발굴조사를 통해 돈대 벽체의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경사가 급한 동벽의 경우 벽체 하단부에 여러 단의 석재를 쌓아 성벽을 보강한 보축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돈대 규모가 작은 경우 돈사 대신 움막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 발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계룡돈대는 발굴조사 이후 2009년 정비공사가 완료되었다. 정비된 모습은 대체적으로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 복원되었지만, 동벽과 서벽이 편축이 아닌 모두 협축으로 정비되었다.¹⁵⁷⁾

157)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강화군, 『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 발굴조사-』, 2010, 135~136쪽.

계룡돈대는 1995년부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2호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다.

⑥ 삼암돈대

삼암돈대는 강화군의 서쪽인 내가면 황청리 680번지 일대 해안가 조망이 용이한 급경사지역에 원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축조된 것으로 인근의 망양돈대와 건평돈대, 석각돈대와 함께 정포보에 소속되어 있었다. 삼암돈대는 강화도 돈대 중에서 축조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이는 해안가에 조망이 좋은 급경사 지역에 자리한 인근의 망양돈대와 건평돈대, 석각돈대와 함께 정포보에 소속되어 있었다. 돈대의 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이 37m 가량이다. 4개의 포좌가 바다를 향해 설치되었고 동북쪽에 출입구를 두었다. 삼암돈대에는 본래 55개의 여장이 있었으나 현재 일부 흔적만 남아있다.¹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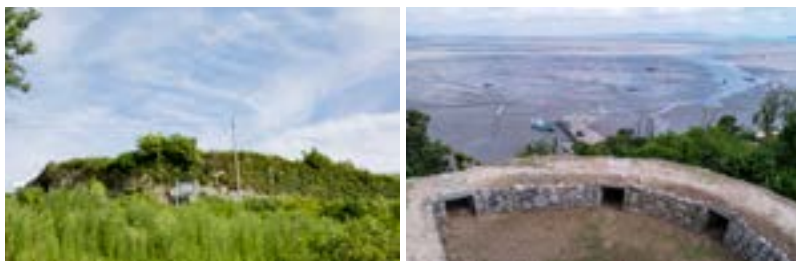
삼암돈대

15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의 보고서, 2011, 68쪽.

이 돈대는 1999년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⑦ 분오리돈대

분오리돈대는 강화도 남단인 화도면 사거리 185-1번지 일대의 해안가 쪽으로 돌출한 구릉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축조되었으며 진무영의 직할에 소속되어 운영되었다. 돈대는 동쪽으로 자연암반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아 견고한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 4개의 포좌가 설치되어 있다. 분오리돈대는 선두포 제방 축조로 그 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맞은편의 후애돈대와 더불어 선두포로 접근하는 선박의 감시와 해안선의 방어에 용이한 입지였다.¹⁵⁹⁾ 돈대가 위치한 지형은 동쪽의 경사가 절벽에 가깝고 다른 면도 경사가 급해 돈대가 초승달 모양으로 조성되었다. 분오리돈대는 1999년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분오리돈대

15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의 보고서, 2011, 68쪽.

⑧ 장곶돈대

장곶돈대는 강화도 남서쪽 방향인 화도면 장화2리 113번지 일대로 마니산의 서쪽에 자리한 상봉(上峰, 254.6m)에서 바닷가 쪽으로 돌출한 능선의 경사면에 설치되었다. 이 돈대는 1679년에 축조되어 미루지 돈대, 북일곶돈대, 선수돈대와 함께 장곶보에서 관할하였다. 돈대의 형태는 원형이며 지름은 39m이다. 바닷가 쪽으로 포좌 4개가 설치되어 있다. 1993년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 정비하였으며, 1995년부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장곶돈대

⑨ 망양돈대

외포리 포구의 서쪽에 외포리 선착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한 돈대이다. 망양돈대는 1679년에 축조된 48개 돈대 중 하나로 정포보에 소속되어 있었다. 돈대의 형태는 정방형으로 각 변의



망양돈대

길이가 약 32m이다. 성벽의 높이는 3m이고 성벽 상부에 치첩의 흔적이 남아있다. 최근 일부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면서 복원이 이루어졌다. 돈대는 남서향을 하고 있는데 포좌가 남면에 2개, 동쪽과 서쪽 벽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망양돈대는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⑩ 미루지돈대

미루지돈대는 강화도 남쪽 화도면 여차2리 170-2번지 일대의 해안에 연접한 구릉 위에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년에 축조되어 북일꽃돈대, 정꽃돈대와 더불어 장곶보의 관



미루지돈대

할 하에 운영되었다. 미루지돈대는 평면 원형에 문지 1개소, 포좌 4개소, 건물지 1개소 등이 확인되는 등 여러 구조물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미루지돈대는 경사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까지 흙으로 다져 올린 후 돈대 내부가 전체적으로 평면을 이루는 높이에서부터 내벽을 3~4단 쌓아 올려 조성하였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 체성벽이 2~3단의 기단 위에 7~8단을 추가로 쌓는 방식으로 시공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지의 경우에는 월곶돈, 구등곶돈, 미곶돈 등과 같이 흥예문이 축조되었다.¹⁶⁰⁾ 미루지돈대는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⑪ 선수돈대

선수돈대는 강화도 서쪽 화도면 내리 산25번지 일대 해안 조망이 유리한 구릉 위에 장방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선수돈대의 정확한 축조연대를 알 수 없고,



선수돈대

160)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미루지·선수돈대 - 강화 미루지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17. ;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미루지·선수돈대 - 강화 선수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17, 76쪽.

대략 1690~1696년경에 추가로 축조된 것으로 추측된다. 선수돈대는 문지 1개소, 북쪽 포좌 2기, 남쪽과 북쪽에 포좌가 각각 1기씩 위치해 있으며, 중앙부에 건물지의 초석으로 보아 소규모 건물 1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⁶¹⁾ 선수돈대는 48개소가 축조된 돈대와는 다르게 성벽 하단부 뿐만 아니라 성 내부 일부에 대해서도 판축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공력을 들여 조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²⁾

현재 선수돈대는 1995년부터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⑫ 건평돈대

건평돈대는 강화도 서쪽 양도면 건평리 산39 일대로 노고산 중턱의 급경사 지역에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에 축조되었으며, 망양돈대, 삼암돈대, 석각돈대와 더불어 정포보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돈대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앞쪽이 약간 돌출되어 배가 나온 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남북 38m, 동서 25m이고 높이는 4m 가량이다. 포좌는 서쪽에 2개, 남서쪽과 북서쪽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기록에는 치첩이 40개로 나와 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¹⁶³⁾

161)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앞의 보고서, 2017, 82쪽.

162)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앞의 보고서, 2017, 80쪽.

16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의 보고서, 2011, 71~72쪽.

건평돈대는 1999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⑬ 북일곶돈대

북일곶돈대는 강화도 서쪽 화도면 장화1리 1029번지 일대로 마니산 서남쪽 능선 위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수축되어 미루지돈대, 장곶돈대, 선수돈대와 더불어 장곶보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다. 이 유적은 1999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시굴조사에서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서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들이 확인되어 추후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¹⁶⁴⁾



북일곶돈대

164) 재단법인 한울문화재단연구원, 『강화 북일곶돈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 34쪽.

8. 『강도지』와 『강화부지』의 강화 관방

1) 『강도지(江都志)』¹⁶⁵⁾ (1694~1696)

봉수(烽燧)

대모山城[全羅·忠淸·沿海之烽至喬桐, 復出河陰. 東應通津守安城山, 西傳本府鎮江山] 鎮江山[東應大母城山, 西傳網山] 網山[東應鎮江山, 西傳喬桐華蓋山] 河陰城山[自喬桐復出者也. 西應喬桐華蓋山, 東傳本府南山] 南山[丁巳年自松岳移來, 西應河陰城山, 東傳通津南山].

대모산성 [전라·충청·연해의 봉화가 교동에 이르고, 다시 하음으로 나온다. 동쪽에서 통진 수안성산(守安城山)에 전한 다음 서쪽으로 본부 진강산에 전한다.] 진강산 [동쪽 대모성산에 응하여 서쪽으로 망산에 전한다.] 망산 [동쪽 진강산에 응하여 서쪽으로 교동 화개산에 전한다.] 하음성산 [교동에서 다시 나온다. 서쪽 교동 화개산에 응하여 동쪽으로 본부 남산에 전한다.] 남산 [정사년에 송악으로부터 옮겨온 것이며, 서쪽 하음성산에 응하여 통진 남산에 통한다.]

165) 병와 이형상이 저술한 강화부의 방어 전략을 저술한 지방지로 그의 문집 『병와전서』와는 이본(異本)인 별도로 전하는 강도지(江都志)의 내용임.

장교(將校)

中軍[一員, 以秩高武班, 啓請] 軍官[本府十五人, 鎮撫十五人, 而多少隨意, 啓請]
千摠[左右中各一員, 統把摠六] 出身領將[一員, 領出身] 別將[左右各一員, 各統
百摠五] 勸武領將[一員, 統勸武軍官] 百摠[十員, 各統軍官一百] 把摠[六員, 各
統哨官五] 哨官[三十一員, 各統旗摠三名] 旗摠[九十三名, 各統隊長三名] 隊長
[二百七十九名, 各統凡軍十名] 教練官[八人, 分統五般營屬] 旗牌官[五十一人] 勸
武軍官[九十二人] 營軍官[三百一人] 左列軍官[五百十人] 右列軍官[五百十人] 從事
官軍官[一百五十三人] 中軍軍官[二百十三人] 出身[二百二十一人] 各墩別將[十二
人] 瞭望別將[二人] 義旅師長[一員, 統學長三] 學長[三人, 各統教領五] 教領[十五
人, 各統訓正三] 訓正[四十五人, 各統導正三] 導正[一百三十五人, 各統義旅十人]
教師[九十五人] 別破陣[一百五十一人] 都訓導[七十人] 合三千四十二人.

중군¹⁶⁶⁾ [1명이고, 품계가 높은 무반으로 계청하였다.] 군관¹⁶⁷⁾ [본부
는 15명이고, 진무영에 15명 있는데, 많고 적음은 뜻에 따르도록 계청
하였다.] 천총¹⁶⁸⁾ [좌부, 우부, 중부에 각각 1명을 두어 파총 6명을 통솔
한다.] 출신영장 [1명이고, 출신을 거느린다.] 별장¹⁶⁹⁾ [좌, 우에 각각 1명
이고, 각각 백총 5명을 통솔한다.] 권무영장 [1명이고, 권무군관을 통

166) 조선시대 각 군영의 영장(營長)이나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밑에서 병사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던 장수를 말한다. 진무영의 중군은 3품 이상의 무관이 부임했으며, 30개월마다 교체하였다.

167) 조선시대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는 것으로 군령의 전달, 사환 등의 임무를 맡아보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군사훈련 및 지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68) 조선후기 각 군영에 소속되었던 무관직으로 임진왜란 후 5군영이 생기면서 설치되었다.

169) 조선시대 지방 군영에 두었던 무관직으로 지역에 따라 1명에서 9명까지 배치되었다.

솔한다.] 백총¹⁷⁰⁾ [10명이고, 각각 군관 100명을 통솔한다.] 파총¹⁷¹⁾ [6명이고, 각각 초관 5명을 통솔한다.] 초관¹⁷²⁾ [31명이고, 각각 기총 3명을 통솔한다.] 기총¹⁷³⁾ [93명이고, 각각 대장 3명을 통솔한다.] 대장¹⁷⁴⁾ [279명이고, 각각 범군(凡軍) 10명을 통솔한다.] 교련관¹⁷⁵⁾ [8명이고, 5반(般)의 영속(營屬)을¹⁷⁶⁾ 나누어 통솔한다.] 기패관¹⁷⁷⁾ [51명이다.] 권무군관 [92명이다.] 영군관 [301명이다.] 좌열군관 [510명이다.] 우열군관 [510명이다.] 종사관군관 [153명이다.] 중군군관 [213명이다.] 출신 [221명이다.] 각돈별장¹⁷⁸⁾ [12명이다.] 요망별장¹⁷⁹⁾ [2명이다.] 의려사장 [1명이고, 학장¹⁸⁰⁾ [3명을 통솔한다.] [3명이고, 각각 교령(敎領) 5명을 통솔한다.] 교령 [15명이고, 각각 훈정(訓正) 3명을 통솔한다.] 훈정 [45명이고, 각각 도정(導正) 3명을 통솔한다.] 도정 [135명이고, 각각 의려

170) 조선시대 개성의 군무(軍務)를 주관하던 관리영(管理營)에 둔 종3품(從三品) 무관직으로 정원은 4원이다. 강화(江華)의 진무영을 편제할 때 개성 관리영의 예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171) 임진왜란 이후 속오법(束伍法)에 따른 새로운 군사편제의 하나인 사(司)의 지휘관으로 약 600명 단위부대의 장이었다.

172) 조선시대 100명 단위의 병사집단인 초(哨)를 통솔하던 무관이다.

173) 조선시대의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하부 단위부대인 기(旗)의 통솔자이다.

174) 조선시대 각 군영에 두었던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대오(隊伍)를 거느렸으며, 진무영 군사편제에 있어 최하위 지휘관이었다.

175)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으로 주로 병사의 훈련을 담당했던 품위직(品外職)이었다.

176)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속한 아전(衙前)과 종을 말한다.

177) 조선 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으로 일반 병사, 금군(禁軍), 출신(出身) 중에서 무예에 뛰어난 자를 골라 선발하였다.

178) 당시 강화도에 축조된 돈대는 49개였으며, 그 중 29개 돈대는 각 진보에서 관할하였고, 20개 돈대는 6명의 돈대별장을 두어 진무영에서 직접 관할하였다. 돈대별장은 2인을 차출하여 30개월을 근무시켰기에 영문에 소속된 돈대별장은 12명이었다.

179) 각각 장봉도와 주문도에 설치된 요망대에 배치되었다.

180) 조선시대 향교(鄕校)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원이었지만, 교수(敎授)와는 달리 봉록이 지급되지 않았다. 진무영에는 향교의 교생이나 유사(儒士)들로 구성된 의려군(義旅軍)이 편제되어 있어 학장은 이들을 통솔하던 임무를 담당하였다.

[義旅] 10명을 통솔한다.] 교사 [95명이다.] 별파진¹⁸¹⁾ [151명이다.] 도훈 [70명이다.] 이상 모두 합하여 3,042명이다.¹⁸²⁾

군병(軍兵)

武學十二哨合一千二百名, 束伍十九哨合一千九百名, 內奴一哨合百名. 牙兵一哨合百名.

무학¹⁸³⁾ 12초(哨)에 1,200명, 속오¹⁸⁴⁾ 19초(哨)에 1,900명, 내노 1초(哨)에 100명, 아병¹⁸⁵⁾ 1초(哨)에 100명.

義旅校院生合一千五百人. [把守城丁一名亦關. 顧彼校生其數甚多, 宜有所變通. 故校生團爲一隊, 號曰義旅. 丙午年間, 請爲師長等, 任俾有統領, 而猶未能遽然簽之. 其後漸次層加, 始令白衣從軍, 俄變爲戎服, 未乃至戰服戰笠, 識者固已寒心. 及到戊寅, 皆令赴操執芟前驅, 齟齬可笑. 記昔麗朝賦詩, 抄選不中生徒, 勒令從軍. 當時蒙兵遍一國, 國計軍政實無, 可惜. 而至今笑罵, 史氏以爲衣冠之辱. 況我朝文教冠萬國, 彼雖卑微, 問其名則儒也.]

181)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화포를 주로 다루던 특수병종을 말한다.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이라고도 하며, 각 군영에 소속되어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182) 장교에 기록된 각각의 숫자를 합하면 3,045명으로 3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착오로 보인다.

183) 원래 무학(武學)은 주로 양반의 자제들을 입속시켜 포병 또는 전갈을 신속히 전달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각도의 감영 및 병영에 배속되어 주로 마병(馬兵)으로서의 임무도 띠고 있었다.

184) 조선 후기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편성된 지방군으로 1594년(선조 27) 임진왜란 때 군역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고 유사시에 군역을 치르게 하였다.

185) 조선 후기에 설치된 군병으로 대장의 휘하에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사를 칭하는 아하친병(牙下親兵)의 약칭으로 사용되었다.

冠儒服儒守直聖廟，一朝驅出，猝編軍伍，屈首於馬足之間，佩弓於明倫之庭，氣象索然，文物掃如。脫有緩急，則閭一島男婦皆兵也，何必扶曳縫掖，徑先習操，而後可謂團束耶。又況法典既有定額，自官申飭勿許濫錄，則境內男丁，自有屬處，不駭於瞻聆，且足於把守。公義民情，夫誰曰不可，而隨到隨錄，無有限節，數過累千之後，不得不團聚，以致名實各異，怨讟朋興。此則前後，守臣不善奉法之致也。無已則有一焉。除守齋，而汰定爲軍裨，以變其名目，則猶之或可後之登壇者，宜有所變更】。

의령교원생¹⁸⁶⁾ [1,500명 파수성정(把守城丁)이 여기에 속한다. 교생의 수를 헤아리니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마땅히 변통해야 하는 바, 교생과 원생을 모아서 하나의 부대로 삼고 이름을 의려(義旅)라고 하였다. 병오년(1666) 무렵에 사장(師長)¹⁸⁷⁾ 등이 통솔하도록 요청하였지만 급하게 서명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점차 증가하여 처음에는 백의종군하도록 하였다가 갑자기 용복(戎服)¹⁸⁸⁾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전복(戰服)¹⁸⁹⁾과 전립(戰笠)을 입게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참으로 한심스러워 했다. 무인년에 이르러서는 조련할 때 모두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앞장서게 하였으니 사리에 어긋남이 가소롭다. 기억하건데 옛 고려왕조의 부(賦)와

186) 향교와 서원에 등록된 교생(校生)과 원생(院生) 등으로 1대(隊)를 구성한 부대로 줄여서 의려(義旅)라 부르기도 하였다. 진무영 병력구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병종으로 지역의 하층양반 내지는 상층양인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7) 의령군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의려사장(義旅師長)을 말한다.

188) 조선시대 문무관료가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였던 복장이다. 가법고 민첩하게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장으로 왕의 행차를 수행하거나 국난을 당했을 때 착용하였다.

189) 전투시 겹옷 위에 착용하는 조끼 형태의 소매없는 복장을 말한다.

시(詩)에서 생도에 뽑히지 못한 사람을 억지로 종군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나라 전체에 몽골의 군대가 널리 퍼져 있어서 실제로 나라의 군정(軍政)을 계획할 수 없어 애석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그 일을 비웃으며 꾸짖고 있으며 사관은 의관(衣冠)의 욕(辱)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물며 우리 조정의 문교(文教)는 만국에 으뜸이 되고 있으니 그들의 지위가 비록 낮고 천하다지만 그 이름을 따진다면 역시 선비인 셈이다.

선비의 관과 옷을 입고 성묘(聖廟)를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갑자기 군오(軍伍)에 편제되어 말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숙이고 명륜(明倫)의 마당에서 활을 차게 하였으니 기상(氣象)이 삭막해지고 문물이 쓸려가 버렸다. 만약 위급한 일이 있다면 한 섬의 남녀가 모두 병사가 되는데 하필이면 선비들을 끌어다 가장 먼저 훈련시킨 후에야 단속(團束)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법전에는 이미 정해진 숫자가 있고, 관에서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며 함부로 등록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있다. 경내의 남정(男丁)이 스스로 소속된 곳에 있게 되면 보고 듣는 일을 신경쓰지 않고 파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공의(公義)로 보나 민정(民情)으로 보나 누가 안된다고 하겠는가? 가는 곳마다 되는대로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계도 없이 수천의 수효를 넘게 되었고, 이를 어쩔 수 없이 모아 놓으니 이름과 실체가 서로 다르고 원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전후의 수신(守臣)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재

(齋)를 지킬만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쫓아버려서 군비(軍裨)로 삼고 그 명목(名目)을 바꾼다면 괜찮을 것이다. 훗날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은 마땅히 변경을 해야할 것이다.]

千摠標下七十七名, 把摠標下一百二十名, 哨官標下一百六十名, 別將標下二十名, 百摠標下五十名, 軍牢一百三十五名, 旗手一百四十名, 吹手一百六名, 器械軍五十五名, 伺候五十五名, 各墩直四十九名, 各墩軍一百四十七名, 烽隧千五名, 烽軍七十名, 合五千九百八十二名.

천총표하¹⁹⁰⁾ 77명, 파총표하 120명, 초관표하 160명, 별장표하 20명, 백총표하 50명, 군뢰¹⁹¹⁾ 135명, 기수 140명, 취수 106명, 기계군 55명, 사후 55명, 각 돈직 49명, 각 돈군 147명, 봉수간¹⁹²⁾ 5명, 봉군 70명, 모두 5,982명¹⁹³⁾이다.

190) 표하군(標下軍) 또는 표하병(標下兵)이라 부르며 각 군영의 대장(大將)이나 장관(長官) 수하의 친위 부대를 말한다.

191) 조선시대 각 군영과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군졸.

192) 신분은 양인이나 천역의 일종인 봉군의 역할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93) 군병에 기록된 각각의 숫자를 합하면 5,989명으로 7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착오로 보인다.

진보(鎭堡)

月串鎭[在府北七里長嶺面,南至濟物十里.舊鎭南陽,移屬本府,今丙申年設立,爲水軍僉使,乙巳年改爲兵馬僉使.軍官十六人,士卒六十六名,屬墩三,船亭船竝六隻,軍餉米一百八十四石,火藥二千七十斤.大鳥銃五十柄,大鉛丸二千六百十九介,小鳥銃三百七十九柄,小鉛丸八萬介.角弓一百五十九張,交子弓一百四十一張,木弓四十張,長箭三百部,片箭二百部.大砲四坐,水鐵丸六百五十介,天字砲四坐,水鐵丸二百五十三介,銅丸二十介,將軍箭二介,地字砲一坐,水鐵丸九百二十介,銅丸十介,玄字砲十六坐,水鐵丸一百九十介,小小別黃字砲四坐,水鐵丸八千介,大碗口一坐,震天雷五坐,中碗口三坐,小小碗口三十七坐,水鐵丸四千介,一號佛浪機二坐,水鐵丸一千九百九十七介,二號二坐,水鐵丸一千八十九介,四號十坐,水鐵丸七千一百四十六介,五號三十二坐,水鐵丸九千介,唐大百字砲一坐,水鐵丸四百介,洪字銃筒五柄,水鐵丸四百介,勝字砲五十三坐,別樣銃筒一百四十八柄,水鐵丸萬介,紙砲玄黃字竝十一坐,銅丸四百九十九介.串光屎四十柄,廣光屎十五柄,小加乃二十五柄,大加乃二十柄,釜九坐,鼎四十坐].

월곶진 [관아의 북쪽으로 7리, 장령면에 있으며 남쪽으로 제물진까지 10리에 이른다. 원래 남양에 있던 진이었는데 본부로 이속되어 이번 병신년(1656)에 수군첨사진으로 설립하였고, 을사년(1665)에는 병마첨사진으로 고쳤다. 군관 16인, 토졸 66명, 돈대 3곳이 소속되어 있고 선박과 정자선을 합하여 모두 6척이다. 군량미는 184섬이고 화약이

2,070근이다. 대조총 50자루에 대연환이 2,619개, 소조총 379자루에 소연환이 80,000개이다. 각궁¹⁹⁴⁾ 159장, 교자궁¹⁹⁵⁾ 141장, 목궁¹⁹⁶⁾이 40장이고 장전이 300부, 편전¹⁹⁷⁾이 200부이다. 대포 4좌에 수철환 650개, 천자포¹⁹⁸⁾ 4좌에 수철환 253개, 동환이 20개이고 장군전 2개, 지자포¹⁹⁹⁾ 1좌에 수철환 920개, 동환이 10개이고 현자포²⁰⁰⁾ 16좌에 수철환이 190개, 소소별항자포²⁰¹⁾ 4좌에 수철환이 2,000개이고 대완구 1좌²⁰²⁾, 진천뢰 5좌, 중완구 3좌,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이 4,000개이며 1호 불랑기²⁰³⁾ 2좌에 수철환이 1,997개, 2호 불랑기 2좌에 수철환이 1,089개, 4호 불랑기 10좌에 수철환 7,146개, 5호 불랑기 32좌에 수철환이 9,000개이며 당대백자포 1좌에 수철환 400개, 홍자총통 5자루에 수철환 400개, 승자포²⁰⁴⁾ 53좌, 별양총통 148자루에 수철

194) 군궁(軍弓)으로 전투용으로 사용된 활이다. 물소의 뿔로 만든 흑각궁이 가장 유명했으며, 이외에도 황소의 뿔을 이용한 향각궁, 사슴의 뿔을 이용한 녹각궁 등이 있다.

195) 몇 종류의 나무를 겹쳐서 만든 활로 각궁이 부족하거나 혹은 날씨가 습하여 각궁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대용으로 사용했다.

196) 산뿔나무나 회목을 이용해서 만든 활로 평궁이라고도 불리며, 사거리가 짧아 활쏘기 연습에 많이 사용되었던 활이다.

197) 통전(筒箭), 변전(邊箭), 동전(童箭), 애기살이라고 불리는 짧은 화살을 말한다.

198) 천자총통(天字銃筒). 조선 후기 재래식 화포 중에서 구경이 11.76cm로 가장 크다.

199) 지자총통(地字銃筒). 천자총통보다 조금 작은 규모지만 조선전기의 장군화통보다 위력이 큰 화포이다.

200) 현자총통(玄字銃筒). 해전에서 황자총통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고 조선후기 읍지, 지방의 수영에 가장 많이 비추된 대형 총통이었다.

201) 별항자총통(別黃字銃筒). 황자총통을 개량하여 만든 총통으로 포에 얹기 위한 포이(砲耳)가 달려있다.

202) 완구(碗口)는 무거운 발사체를 담아서 쓰는 일종의 박격포로 주둥이가 밥그릇(碗)모양으로 생겨 이름 붙여졌다.

203) 불랑(佛浪)은 프랑크(Frank)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중국에서 유럽인을 지칭하는 말. 불랑기는 16세기 초 중국서 전해진 신형 화포로 조선도 거의 같은 시기에 전해졌다.

204) 승자총통(勝字銃筒)은 선조 초기 경상병사 김지가 만들어서 북방의 야인을 물리칠 때 큰 효과를 봤던 소형총통이다.

환 10,000개, 지포(紙砲)²⁰⁵⁾는 현자와 황자 모두 11좌이며 동환이 499개이다. 곡괭이 40자루, 넓은 괭이 15자루, 소가래 25자루, 대가래 20자루, 솔이 9좌, 다리달린 솔이 40좌이다.]

濟物鎭[在府東八里長嶺面, 卽所謂甲串也. 南至龍津七里. 舊鎭仁川, 丙申年移設于本府, 爲水軍萬戶, 乙巳年改爲兵馬萬戶. 軍官十六人, 屬墩四, 船亭船并十五隻, 士卒六十六名, 軍餉米一百七十四石, 火藥二千三百五十八斤. 大鳥銃五十六柄, 大鉛丸二千六百七十介, 小鳥銃三百七十七柄, 小鉛丸八萬介. 角弓一百八十三張, 交子弓一百七十張, 木弓四十張, 長箭三百部, 片箭二百部, 大砲四坐, 水鐵丸四百八十介, 天字砲五坐, 銅丸十介, 水鐵丸三百十五介, 玄字砲二十坐, 水鐵丸一千五百十七介, 黃字砲二坐, 水鐵丸一千二百介, 別黃字砲三坐, 水鐵丸一百九十介, 大碗口二坐, 中碗口三坐, 小小碗口三十八坐, 水鐵丸九千九百九十九介, 鉛丸三十介, 銅丸一百五十介, 一號佛浪機二坐, 水鐵丸二千九十一介, 二號二坐, 水鐵丸一千四百五十介, 大百字砲一坐, 水鐵丸二千介, 霹靂砲一坐, 水鐵丸八百介, 鐵信砲一坐, 虎蹲砲二坐, 水鐵丸二千介, 紙砲天字一坐, 地字一坐, 玄字十一坐, 黃字二坐. 串光屎四十柄, 廣光屎十五柄, 大加乃二十柄, 小加乃二十五柄, 斧子百介, 釜九坐, 鼎四十坐].

제물진 [관아의 동쪽으로 8리, 장령면에 있으며 즉 갑곶이라 불리는 곳이다. 남으로 용진진까지 7리에 이른다. 원래 제물진은 인천에 있었는

205) 지포(紙砲)는 화약을 종이에 싸서 터뜨리는 연희용 폭죽을 말하나, 여기서는 종이로 만든 화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짜유기로 포신을 얹게 만든 다음 그 둘레를 종이로 둘러싸서 만든 것이다.

데, 병신년(1656)에 본부로 이설(移設)되어 수군만호가 다스리다가 을사년(1665)에 병마만호로 고쳤다. 군관이 16인이고 소속 돈대는 넷이며 배와 정선(亭船)까지 모두 15척이다. 토졸 66명, 군량미 174섬, 화약 2,358근이다. 대조총 56자루에 대연환 2,670개, 소조총 377자루에 소연환이 80,000개이다. 각궁 183장, 교자궁 170장, 목궁 40장에 장전 300부, 편전 200부이다. 대포 4좌에 수철환 480개, 천자포 5좌에 동환 90개, 수철환 315개이고 현자포 20좌에 수철환 1,517개, 황자포 2좌에 수철환 1,200개, 별황자포 3좌에 수철환 190개이다. 대완구 2좌, 중완구 3좌, 소소완구 38좌에 수철환 9,999개, 연환 30개, 동환 150개이고 1호 불랑기 2좌에 수철환 2,091개, 2호 불랑기 2좌에 수철환 1,450개이다. 대백자포²⁰⁶⁾ 1좌에 수철환 2,000개, 벽력포²⁰⁷⁾ 1좌에 수철환 800개, 철신포²⁰⁸⁾ 1좌, 호준포²⁰⁹⁾ 2좌에 수철환 2,000개이다. 지포는 천자가 1좌, 지자가 1좌, 현자가 11좌, 황자가 2좌이다. 곡괭이 40자루, 넓은 팽이 15자루, 대가래 20자루, 소가래 25자루, 도끼가 100개, 솔이 9좌, 다리달린 솔이 40좌이다.]

206) 백자총통(百字銃筒).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사용했던 소형 총통으로 선조 27년에 처음으로 조선에서 제작되었다.

207) 수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중종 16년(1522)에 직제학 서후(徐厚)가 창안하여 만들었다.

208) 신흥 대포로서 화약과 격목만 넣고 쏜다.

209) 마치 앉아 있는 호랑이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지형에 관계없이 즉시 땅에 설치하여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龍津鎮[在府東南十三里仙源面, 南至花島四里. 地名舊稱龍堂, 癸巳改稱龍津. 水軍萬戶, 曾兼監牧官, 其後革監牧, 丙申設鎮, 乙巳改爲兵馬萬戶. 軍官十八人, 士卒三十七名, 屬墩三, 船三隻, 士卒位番二十石落只, 軍餉一百七十四石, 租二十五石, 醬八石, 火藥二千六百五十八斤. 鳥銃大小, 竝三百二十八柄, 鉛丸八萬四千六百介. 角弓一百三十六張, 交子弓一百七十四張, 木弓三十一張, 長箭三百部, 片箭二百部, 筒兒百介. 大碗口二坐, 水鐵丸二百二十介, 中碗口二坐, 天字砲四坐, 水鐵丸三百九十五介, 銅丸十介, 地字砲三坐, 水鐵丸一百二十六介, 玄字砲三坐, 水鐵丸一千介, 黃字砲八坐, 水鐵丸一千三百介, 別黃字砲二坐, 水鐵丸百二十介, 小小碗口三十七坐, 水鐵丸一萬介, 鉛丸三十介, 銅丸一百五十介, 唐大百字砲二坐, 水鐵丸二千七百三十介, 小小別黃字砲二十七坐, 水鐵丸二千五百介, 一號二坐, 水鐵丸一千二百九十介, 三號三坐, 水鐵丸一萬二千二百介, 四號十四坐, 五號水鐵丸一萬五千一百介, 虎蹲砲二坐, 大百字砲二坐, 鐵信砲一坐, 紙砲天字一坐, 地字二坐, 玄字十坐, 黃字二坐, 銅丸五百二十介, 洪字砲水鐵丸四千介, 次勝字砲水鐵丸七十介. 串光屎四十柄, 廣光屎十五柄, 斧子百柄, 加乃二十柄, 釜九坐, 鼎三十五坐].

용진진 [관아의 동남쪽으로 13리, 선원면에 있으며 남으로 화도보까지 4리에 이른다. 옛 이름은 용당이었는데 계사년(1653)에 용진으로 고쳤다. 일찍이 수군만호가 감목관을 겸하였는데 그 후에 감목을 혁파하여 병신년(1656)에 진(鎭)을 설치하고 을사년(1665)에는 병마만호로 고쳤다. 군관이 18인, 토졸 37명이며, 소속 돈대가 셋이고 배가 3척이다. 토

줄의 위답(位答)²¹⁰⁾이 20섬지기, 군량미 174섬, 벼 25섬, 장(醬) 8섬, 화약 2,658근이다. 조총이 대소 아울러 328자루이며 연환이 84,600개이다. 각궁 136장, 교자궁 174장, 목궁 31장에 장전 300부, 편전 200부, 통이²¹¹⁾ 100개이다. 대완구 2좌에 수철환 220개, 중완구 2좌, 천자포 4좌에 수철환 395개, 동환 10개이고 지자포 3좌에 수철환 126개, 현자포 3좌에 수철환 1,000개, 황자포 8좌에 수철환 1,300개, 별황자포 2좌에 수철환 920개,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이 10,000개, 연환 30개, 동환 150개, 당대백자포 2좌에 수철환 2,730개, 소소별황자포 27좌에 수철환이 2,500개이다. 1호 불랑기 2좌에 수철환이 1,290개, 3호 불랑기 3좌에 수철환이 12,200개, 4호 불랑기 14좌와 5호 불랑기 수철환이 15,100개이며 호준포 2좌, 대백자포 2좌, 철신포 1좌이다. 지포는 천자가 1좌, 지자가 2좌, 현자가 10좌, 황자가 2좌에 동환이 520개, 홍자포 수철환이 4,000개, 차승자포에 수철환 70개이다. 곡괭이 40자루, 넓은 괭이 15자루, 도끼가 100자루, 가래 20자루, 솔 9좌, 다리달린 솔이 35좌이다.]

210) 위답(位答)은 향교나 서원에서 수확물을 제향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 설정한 논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의 토출(土出) 위답은 수확물을 병사들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 설정한 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11) 짧은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넣기 위해 시위에 매어 쓰는 가느다란 나무통을 말한다.

花島堡[在府東南十五里仙源面,南至廣城十里.今丙申年設立.軍官十六人,士卒三十五名,屬墩二,船三隻,軍餉米一百三十三石,正租五十石,醬六瓮,火藥二千六百三十九斤.大鳥銃四十柄,鉛丸三千八十介,小鳥銃二百七十八柄,小鉛丸五萬五千八百介.角弓九十八張,交子弓一百二張,長箭二百五十部,片箭一百部.地字砲二坐,水鐵丸二百九十一介,銅丸二十介,玄字砲八坐,水鐵丸一千介,黃字砲二坐,水鐵丸一千介,別黃字砲二坐,水鐵丸百介,大碗口一坐,小小碗口三十七坐,水鐵丸三千五百介,銅丸二十介,鉛丸八十五介,二號佛浪機一坐,水鐵丸七百介,四號九坐,水鐵丸八百七十五介,五號水鐵丸一萬八千三百介,鉛丸一千三百介,小小別黃字砲一坐,水鐵丸二千一百二十介,吳字砲水鐵丸七千五百介.串光屎二十柄,廣光屎十三柄,大加乃十七柄,小加乃二十柄,斧子六十八柄,釜九坐,鼎二十三坐].

화도보 [관아의 동남쪽으로 15리, 선원면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광성보까지 10리에 이른다. 이번 병신년(1656)에 설립되었다. 군관이 16인, 토졸 35명이다. 소속 돈대가 둘이고 배가 3척이다. 군량미 133섬, 벼 50섬, 장(醬) 6항아리, 화약 2,639근이다. 대조총이 40자루에 연환 3,080개, 소조총 278자루에 소연환 55,800개이다. 각궁 98장, 교자궁 102장에 장전 250부, 편전 100부이다. 지자포가 2좌에 수철환 291개, 동환 20개, 현자포 8좌에 수철환 1,000개, 황자포 2좌에 수철환 1,000개, 별황자포 2좌에 수철환 100개이다. 대완구 1좌와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 3,500개, 동환 20개, 연환 85개이며 2호 불랑기 1좌에

수철환 700개, 4호 불랑기 9좌에 수철환 875개, 5호 불랑기 수철환 18,300개, 연환이 1,300개, 소소별황자포 1좌에 수철환이 2,120개, 오자포 수철환이 7,500개이다. 곡괭이 20자루, 넓은 괭이 13자루, 대가래 17자루, 소가래 20자루, 도끼가 68자루, 솔이 9좌, 다리달린 솔이 23좌이다.]

廣城堡[在府東南二十五里佛恩面,南至德津十里.戊戌年設立.軍官十五人,士卒四十五名,屬墩二,船九隻,士卒位畚二十六石落只,軍餉米一百九十五石,火藥二千六百十六斤.大鳥銃十柄,鉛丸一千介,小鳥銃二百四十八柄,小鉛丸五萬介.角弓九十二張,交子弓一百七張,長箭二百部,片箭一百部.大砲二坐,水鐵丸二百三十二介,天字砲三坐,水鐵丸二百五十介,銅丸十介,地字砲一坐,水鐵丸一百二十五介,銅丸十介,玄字砲十六坐,水鐵丸一千五十介,黃字砲三坐,水鐵丸一千三百介,別黃字砲三坐,水鐵丸六百三十介,大碗口一坐,中碗口二坐,小小碗口三十七坐,水鐵丸一萬介,銅丸一百十介,四號佛浪機九坐,水鐵丸一千八百七十四介,鉛丸三百九十八介,五號水鐵丸一萬介,鉛丸九百介,唐大百字砲一坐,水鐵丸四百七十介,洪字銃筒水鐵丸三千七百五十介,勝字砲二坐,虎蹲砲八坐,水鐵丸一千介,小小別黃字水鐵丸二千介,四號八坐.串光屎二十柄,廣光屎十五柄,斧子十七柄,加乃十七柄,釜四坐,鼎二十五坐].

광성보 [관아의 동남쪽 25리, 불은면에 있으며 남쪽으로 덕진진까지 10리이다. 무술년(1658)에 설립하였다. 군관 15인, 토졸 45명, 소속 돈

대가 2, 배가 9척, 토졸의 위답(位畓)이 26섬지기, 군량미가 195섬, 화약이 2,616근이다. 대조총 10자루에 연환이 1,000개, 소조총 248자루에 소연환이 50,000개이다. 각궁이 92장, 교자궁 107장, 장전 200부, 편전이 100부이다. 대포 2좌에 수철환 232개, 천자포 3좌에 수철환 250개, 동환 10개, 지자포 1좌에 수철환 125개, 구리탄환 10개, 현자포 16좌에 수철환 1,050개, 황자포 3좌에 수철환 1,300개, 별황자포 3좌에 수철환 630개, 대완구 1좌, 중완구 2좌,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 10,000개, 동환 110개, 4호 불랑기 9좌에 수철환 1,874개, 연환 398개, 5호 불랑기 수철환 10,000개, 연환 900개, 당대백자포 1좌에 수철환 470개, 홍자총통 수철환 3,750개, 승자포 2좌, 호준포 8좌에 수철환 1,000개, 소소별황자에 수철환 2,000개, 4호 불랑기가 8좌이다. 곡괭이 20자루, 넓은 괭이 15자루, 도끼가 17자루, 가래 17자루, 솔이 4좌, 다리달린 솔이 25좌이다.]

德津鎮[在府南三十里佛恩面, 南至草芝八里. 舊有德浦水軍僉使屬水營, 丙午年移于通津, 以其地置別將, 乙巳陞爲兵馬萬戶. 軍官二十四人, 士卒六十三名, 屬墩一, 船六隻, 軍餉米一百三十二石, 火藥二千二百五十斤. 大鳥銃五十柄, 大鉛丸五千八十介, 小鳥銃三百三十八柄, 小鉛丸五萬介. 角弓一百十七張, 交子²¹²⁾八十三張, 長箭二百五十部, 片箭百部. 大砲二坐, 水鐵丸二百二十一介, 玄字砲八坐, 水鐵丸九百九十八介, 黃

212) 『강도지』 정본에는 ‘交子弓’으로 기재되어 있다.

字砲二坐, 水鐵丸一千介, 別黃字砲三坐, 水鐵丸四千六十九介, 小小別黃字水鐵丸二千一百二十介, 大碗口一坐, 中碗口二坐, 小小碗口三十七坐, 水鐵丸二千介, 銅丸八十五介, 鉛丸二十介, 四號丸九坐, 水鐵丸一千九十四介, 五號水鐵丸六千五百二十七介, 鉛丸三百介, 虎蹲砲十坐, 水鐵丸九百介, 小百字砲水鐵丸一千二百九十介, 震天雷一坐. 串光屎二十柄, 廣光屎十五柄, 大加乃二十柄, 小加乃二十五柄, 斧子百柄, 釜丸九坐, 鼎十四坐].

덕진진 [관아의 남쪽 30리, 불은면에 있으며, 남쪽으로 초지진까지 8리이다. 옛날에는 덕포수군첨사를 두고 수영에 속하게 했다. 병오년(1666)에 통진으로 옮겨가고, 그 땅에 별장을 두었다가, 정사년(1677)²¹³⁾에 병마만호로 승격되었다. 군관 24인, 토졸 63명, 소속 돈대가 1곳, 배가 1척, 군향미 132섬, 화약 2,250근이다. 대조총 50자루에 대연환 5,080개, 소조총 338자루에 소연환 50,000개이다. 각궁 117장, 교자궁 83장, 장전 250부, 편전 100부이다. 대포 2좌에 수철환 221개, 현자포 8좌에 수철환 998개, 황자포 2좌에 수철환 1,000개, 별황자포 3좌에 수철환 4,069개, 소소별황자에 수철환 2,120개, 대완구 1좌, 중완구 2좌,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 2,000개, 동환 85개, 연환 20개, 4호 불랑기 9좌에 수철환 1,094개, 5호 불랑기 수철환

213) 초본과 정본 모두 을사년(1665)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덕포수군첨사진을 통진으로 이설한 것이 병오년(1666)이기 때문에 정황상 맞지 않는다. 『여지도서』, 『강도부지』,와 『강화부지』의 진보(鎭堡)에 병마만호를 설치한 년도가 속종 정사년(1677)으로 기록되어 있어 역주본에서는 이를 정사년으로 바로잡는다.

6,527개, 연환 300개, 호준포 10좌에 수철환 900개, 소백자포 수철환 1,290개, 진천뢰 1좌이다. 곡괭이 20자루, 넓은 괭이 15자루, 대가래 20자루, 소가래 25자루, 도끼가 100자루, 솔이 9좌, 다리달린 솔이 14좌이다.]

草芝鎭[在府南三十五里吉祥面, 西至長串八十里. 舊鎭安山, 丙申年移屬本府, 前以兼監牧官啓下, 乙巳徐必遠啓請, 差出監牧官, 兼任則革罷, 陞爲兵馬萬戶. 軍官二十三人, 士卒六十八名, 屬墩三, 船四隻, 軍餉米二百七十六石, 火藥一千七百五十八斤. 大鳥銃六十柄, 大鉛丸四千六百二十介, 小鳥銃一百八十二柄, 小鉛丸七萬九千九百介. 角弓一百五十五張, 交子弓一百四十五張, 木弓四十張, 長箭三百部, 片箭二百部. 大砲一坐, 水鐵丸百介, 天字砲二坐, 水鐵丸三百三十介, 地字砲一坐, 水鐵丸二百二十九介, 銅丸十介, 玄字砲三坐, 水鐵丸六百介, 黃字砲二坐, 水鐵丸一千介, 小小別黃字砲水鐵丸二千五百二十介, 洪字砲水鐵丸一千五百介, 大碗口一坐, 中砲口二坐, 小小碗口三十七坐, 水鐵丸五千二百介, 銅丸十五介, 二號佛浪機, 三號四號五號, 水鐵丸一萬五百八十八介, 鉛丸一千二百介, 唐大百字砲一坐, 水鐵丸四百介, 四箭銃筒二坐, 紙砲玄字十坐, 銅丸一百九十九介. 串光屎三十六柄, 廣光屎十六柄, 大加乃十八柄, 小加乃二十三柄, 斧子百柄, 釜四坐, 鼎二十五坐].

초지진 [관아의 남쪽으로 35리, 길상면(吉祥面)에 있으며, 서쪽으로 장
꽃보까지 80리에 이른다. 원래 초지진은 안산(安山)에 있었는데 병신년
(1656)에 본부로 이속되었다. 전에 감목관을 겸하도록 계하(啓下)되었
으나, 을사년(1665)에 서필원이 감목관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청을 올
려 겸임하는 것이 혁파되고 병마만호로 승격시켰다. 군관 23인, 토졸
68명, 소속 돈대가 3, 배가 4척, 군향미 276섬, 화약 1,758근이다. 대
조총 60자루에 대연환 4,620개, 소조총 182자루에 소연환 79,900개
이다. 각궁 155장, 교자궁 145장, 목궁 40장, 장전 300부, 편전 200부
이다. 대포 1좌에 수철환 100개, 천자포 2좌에 수철환 330개, 지자포
1좌에 수철환 229개, 동환 10개, 현자포 3좌에 수철환 600개, 황자포
2좌에 수철환 1,000개, 소소별황자포 수철환 2,520개, 홍자포 수철환
1,500개, 대완구 1좌, 중완구 2좌, 소소완구 37좌에 수철환 5,200개,
동환 95개, 2호 불랑기, 3호, 4호, 5호 불랑기 수철환 10,588개, 연환
1,200개, 당대백자포 1좌에 수철환 400개, 사전총통 2좌, 지포는 현
자 10좌에 동환 199개이다. 곡괭이 36자루, 넓은 괭이 16자루, 대가래
18자루, 소가래 23자루, 도끼가 100자루, 솔이 4좌, 다리달린 솔이 25
좌이다.]

長串堡[在府西南四十五里下道面, 北至井浦四十里, 自井浦至寅火鎮三十里. 丁巳年移井浦, 以其地設立爲堡. 軍官十五人, 士卒八十六名, 屬墩三, 船三隻, 位田四結六十一卜畚五結九十九卜, 軍餉米一百七十石, 火藥一千八百六十七斤. 鳥銃一百三十柄, 小鉛丸六千介. 角弓五十一張, 交子弓十四張, 長箭一百四十部, 片箭四十部. 水鐵丸一千六百九介, 大鉛丸一百五十介, 小百字砲九百三十二坐, 小鉛丸一千九百三十二介, 虎蹲砲一坐, 水鐵丸五百九介. 串光屎十三柄, 廣光屎五柄, 大加乃十柄, 小加乃十柄, 斧子五十柄, 釜八坐, 鼎三十三坐].

장곶보 [관아의 서남쪽으로 45리, 하도면에 있다. 북쪽으로 정포까지 40리에 이르고, 정포에서 인화진까지는 30리이다. 정사년(1677)²¹⁴⁾에 정포로 옮기고, 그 땅에 보(堡)를 설립하였다. 군관 15인, 토졸 86명, 소속 돈대가 3곳, 배가 3척이다. 위전(位田)이 4결 61복, 답(畓)이 5결 99복, 군량미 170섬, 화약 1,867근이다. 조총 130자루에 소연환 6,000개이다. 각궁 51장, 교자궁 14장, 장전 140부, 편전 40부이다. 수철환 1,609개, 대연환 150개, 소백자포 932좌에 소연환 1,932개, 호준포 1좌에 수철환 509개이다. 곡괭이 13자루, 넓은 괭이 5자루, 대가래 10자루, 소가래 10자루, 도끼가 50자루, 솔이 8좌, 다리달린 솔이 33좌이다.]

214) 『여지도서』 『강도부지』와 『강화부지』에는 숙종 병진년(1676)으로 기록되어 있다.

寅火鎭[在府西三十六里西寺洞面, 東至鐵串鎭三十里, 自鐵串至昇天堡十五里. 丁酉年設別將, 戊午年陞爲兵馬萬戶. 軍官十六人, 士卒三十六名, 屬墩三, 船五隻, 軍餉米一百九十四石, 火藥一千一百九十八斤. 小鳥銃四十柄, 小鉛丸七千介. 角弓六十六張, 交子弓百張, 長箭二百十部, 片箭一百六十部. 天字砲一坐, 水鐵丸五十四介, 銅丸十介, 玄字砲一坐, 水鐵丸一百八十二介, 鐵信砲一坐, 紙砲玄字五坐, 銅丸五百介, 唐大百字砲一坐, 水鐵丸六百三十介, 百字砲水鐵丸二十四介, 小百字砲水鐵丸六百五十介, 勝字砲水鐵丸三千六十五介, 五號佛浪機鉛丸四百五十介. 串光屎三十柄, 廣光屎七柄, 大加乃十五柄, 小加乃十五柄, 斧子七十五柄, 釜七坐, 鼎三十三坐].

인화진 [관아의 서쪽으로 36리, 서사동면에 있다. 동쪽으로 철곶진까지 30리에 이르고, 철곶진에서 승천보까지는 15리이다. 정유년(1657)에 별장을 두었고, 무오년(1678)에 병마만호로 승격되었다. 군관 16인, 토졸 36명, 소속 돈대가 3곳, 배가 5척, 군향미 194섬, 화약 1,198근이다. 소조총 40자루에 소연환 7,000개이다. 각궁 66장, 교자궁 100장, 장전 210부, 편전 160부이다. 천자포 1좌에 수철환 54개, 동환 10개, 현자포 1좌에 수철환 182개, 철신포 1좌, 지포는 현자 5좌에 동환 500개, 당대백자포 1좌에 수철환 630개, 백자포에 수철환 24개, 소백자포에 수철환 605개, 승자포에 수철환 3,065개, 5호 불랑기에 연환이 450개이다. 곡괭이 30자루, 대가래 15자루, 소가래 15자루, 도끼가 75자루, 솔이 7좌, 다리달린 솔이 33좌이다.]

昇天堡[在府北二十里三間面, 東至月串二十五里. 丁酉年設立. 軍官二十五人, 士卒十六名, 屬墩四, 船四隻, 軍餉米一百九十四石, 火藥一千九百六十斤. 小鳥銃五十柄, 小鉛丸二萬介. 角弓七十八張, 交子弓七十六張, 長箭二百部, 片箭一百五十部. 天字砲二坐, 水鐵丸二百六十介, 銅丸十介, 地字砲水鐵丸百介, 玄字砲四坐, 水鐵丸五百四十二介, 黃字砲一坐, 水鐵丸四百十介, 洪字砲水鐵丸一千七百介, 唐大百字砲一坐, 水鐵丸四千八百介, 鐵信砲一坐, 紙砲玄黃字銅丸四百九十介, 虎蹲砲九坐, 水鐵丸七百五十介. 串光屎三十柄, 廣光屎八柄, 大加乃中加乃并十五柄, 斧子七十五柄, 釜五坐, 鼎四十坐].

승천보 [관아의 북쪽으로 20리 삼간면에 있으며, 동쪽으로 월곶진까지 25리에 이른다. 정유년(1657)에 설립하였다. 군관 25인, 토졸 16명, 소속 돈대가 4곳, 배가 4척, 군향미 194섬, 화약 1,960근이다. 소조총 50자루에 소연환 20,000개이다. 각궁 78장, 교자궁 76장, 장전 200부, 편전 150부이다. 천자포 2좌에 수철환 260개, 동환 10개, 지자포에 수철환 100개, 현자포 4좌에 수철환 542개, 황자포 1좌에 수철환 410개, 홍자포에 수철환 1,700개, 당대백자포 1좌에 수철환 4,800개, 철신포 1좌에 지포는 현자, 황자포 동환 490개, 호준포 9좌에 수철환 750개이다. 곡괭이 30자루, 넓은 괭이 8자루, 대가래와 중가래를 합하여 15자루, 도끼가 75자루, 솔이 5좌, 다리달린 솔이 40좌이다.]

鐵串[水軍僉使一員. 舊在本府, 中移于豐德, 己酉年還設于本府, 屬水營] 井浦[水軍萬戶一員. 舊在本府屬水營, 中屬本府, 還屬水營, 移於喬桐. 己酉年還設于本府, 屬水營] 德浦[水軍僉使一員. 舊在本府, 今移于通津, 屬水營, 以其地置德津] 花梁[水軍僉使一員. 舊在本府屬本府, 今移于南陽地, 屬水營].

철곳 [수군첨사 한 명이 있다. 옛날에 본부에 있었는데 중간에 풍덕으로 옮겼다가, 기유년(1669)에 다시 본부에 두고 수영에 속하게 하였다. 정포 수군만호 한 명이 있다. 옛날에는 본부의 수영에 속했는데, 중간에 본부에 속하였다가, 다시 수영에 속해서 교동으로 옮겼다. 기유년(1669)에 다시 본부로 두고 수영에 속하게 하였다. 덕포 수군첨사 한 명이 있다. 옛날에 본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통진으로 옮겨 수영에 속하게 하였고, 그 땅에는 덕진진을 두었다.] 화량 [수군첨사 한 명이 있다. 옛날에 본부에 두고 본부에 속하게 했는데, 지금은 남양땅으로 옮겨 수영에 속하게 했다.]

급대(給代)²¹⁵⁾

六鎭[初以軍官吏房兵房通引及昌庫直馬直沙工炊飯饌軍柴軍紙地砲樓直, 各一名, 使令 各二名, 定給矣. 癸亥年, 四堡給代變通之時, 砲樓直則全減, 紙地則減一疋, 移給於

215) 진보(鎭堡)에 근무하는 색리(色吏)와 특수 직종의 병사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말한다.

四堡, 及昌, 通引之代] 四堡[無印時軍官吏房庫直馬直炊飯砲樓直, 各一名, 定給矣. 癸亥年造印後, 減砲樓直爲沙工, 又移六鎭砲樓直, 及紙價一疋, 移給於通引, 及昌及紙價, 二疋之代] 以上[六鎭各十三名二疋, 四堡各七名二疋, 十鎭堡竝計, 每朔一百十二名二疋, 每名三疋式, 一年都合八十一同六疋, 移文兵曹受來].

6진 [처음에는 군관, 이방, 병방, 통인,²¹⁶⁾ 급창,²¹⁷⁾ 고직, 마직, 사공, 취반²¹⁸⁾ 찬군²¹⁹⁾, 시군²²⁰⁾, 지지, 포루직이 각 1명, 사령 각 2명의 급대를 정해 주었다. 계해년(1683)에 4보의 급대를 변통할 때 포루직은 전부 감하고 지지(紙地)는 1필만을 감하여 4보로 이급시켜 급창, 통인의 급대로 주었다.] 4보 [인(印)이 없을 때는 군관, 이방, 고직, 마직, 취반, 포루직 각 1명의 급대를 정해 주었는데 계해년(1683)에 인을 만든 후에는 포루직을 감하여 사공을 만들고 또 6진의 포루직 및 지가(紙價) 1필을 옮겨 통인과 급창 및 지가에게 2필의 급대를 이급하였다. 이상 6진 각 13명에 2필, 4보 각 7명에 2필이며, 10진보를 합하여 계산하면 매월 112명에게 2필씩을 주는데, 매 사람당 3필의 규정에 따라 1년에 도합 81등 6필을 병조에 이문(移文)하여 받아온다.]

216)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딸린 이속(吏屬)으로 수령의 잔심부름을 맡아 하였다.

217) 조선시대 군영에 속하여 진장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령.

218)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속하여 밥 짓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을 말한다.

219) 조선시대 군영에 속해 있으면서 반찬거리를 구하는 일을 맡아보는 병사를 말한다.

220) 조선시대 지방 군영에 속하여 땔나무를 구하는 일을 맡아하던 병사를 말한다.

성곽(城郭)

外城, 自宿龍墩至鵠巖墩, 二千四百一步[癸酉年本府三十一哨築之], 自鵠巖墩至炎珠墩, 十三里六十步[禁衛營築之. 元軍三千四百十四名, 火丁十七名, 翻石募軍六十名, 卜馬軍二百五十二名, 石手六十一名, 助役一百二十二名, 冶匠六名, 使喚旗手二十一名, 千總牌將策應監官二十四員, 辛未閏七月二十七日逢點, 壬申四月十四日放軍], 自炎珠墩至甲申水門[丁卯年本府煙軍築之], 自甲申水門至鰲頭亭墩, 十四里二百三十二步[御營廳築之. 元軍三千三百八十七名, 火丁十六名, 翻石募軍四十名, 卜馬軍二百四十一名, 石手五十名, 助役百名, 冶匠四名, 使喚旗手十六名, 千總牌將策應監官二十五員, 辛未閏七月二十七日逢點, 壬申四月二十九日放軍], 自鰲頭亭墩至草芝墩, 十九里二十七步[訓練都監築之. 元軍一千四百七十五名, 募軍一千七百十六名, 火丁九十八名, 翻石募軍五十名, 石手五十六名, 助役一百十二名, 冶匠五名, 助役十五名, 使喚旗手二十一名, 千總牌將策應監官二十四員, 辛未閏七月二十七日逢點, 壬申五月初五日放軍].

외성 [숙룡돈대에서 휴암돈대까지 2,401보 계유년(1693)에 본부 31초(哨)가 쌓았다.] 휴암돈대에서 염주돈대까지 13리 60보 [금위영에서 쌓았다. 원군(元軍) 3,414명, 화정(火丁) 16명, 번석모군(翻石募軍) 60명, 북마군(卜馬軍)²²¹⁾ 252명, 석수(石手) 61명, 조역(助役) 122명, 대장장이 6명, 사환·기수 21명, 천총패장·책응감관(策應監官) 24명은 신미

221) 각 군영에 소속되어 행군(行軍)이나 군대 이동시 짐의 운반을 담당하는 군인.

년(1691) 윤 7월 27일 점검을 받았고, 임신년(1692) 4월 14일에 군역에서 풀려났다.] 염주돈대에서 갑곶수문까지 [정묘년(1687)에 본부 연호군]²²²⁾이 쌓았다. 갑곶수문부터 오두정돈대까지 14리 232보 [어영청(御營廳)에서 쌓았다. 원군 3,387명, 화정 16명, 번석모군 40명, 북마군 241명, 석수 50명, 조역 100명, 대장장이 4명, 사환·기수 16명, 천총패장·책응감관 25명은 신미년(1691) 윤 7월 27일 점검을 받았고, 임신년(1692) 4월 29일에 군역에서 풀려났다.] 오두정돈대에서 초지돈대까지 19리 27보 [훈련도감에서 쌓았다. 원군 1,475명, 모군(募軍) 1,716명, 화정 98명, 번석모군 50명, 석수 56명, 조역 112명, 대장장이 5명, 조역 15명, 사환·기수 21명, 천총패장·책응감관 24명은 신미년(1691) 윤 7월 27일에 점검을 받았고, 임신년(1692) 5월 초닷새에 군역에서 풀려났다.]

合一萬四千四百五步內, 山上只築女牆, 二千八百二十六步, 平地築一萬二千二百七步, 海岸陡起不費力處三百七十二步, 作里四十里五步. 門樓七處, 中城門二處, 小城門三處, 大水門四處, 中水門三處, 小水門四處, 自鐵串至德津[城機應爲割入, 一萬一百三十三步, 五等解算二百二十八結] 其後三軍門及本府, 各其所築處, 隨毀隨補, 宿龍以西本府每年加築事定奪.

222) 연호군(煙戶軍)은 고려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정규군만으로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임시로 지방의 농민을 징발하여 왜적에 대비하였던 군사조직이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으나, 이때는 대개 국가의 큰 공사를 위하여 동원되는 민호군(民戶軍)을 가리킨다. 연군(煙軍)은 연호군의 준말이다.

도합 14,405보 내에 산위에 여장(女牆)만 쌓은 것이 2,826보, 평지에 쌓은 것이 12,207보, 해안이 험준하여 다시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372보인데 리로는 40리 5보이다. 문루 7곳, 중성문 2곳, 소성문 3곳, 대수문 4곳, 중수문 3곳, 소수문 4곳, 철곶에서 덕진까지이다. [성기(城機)도 응당 포함되어야 하며, 10,133보이다. 5등전(等田)으로 풀어 계산하면 228결²²³⁾이다.] 그 후 삼군문과 본부는 각기 쌓은 곳이 훼손되면 즉시 보수하고, 숙룡돈대 서쪽은 본부가 매년 가축(加築)하는 일이 정탈되었다.

부성(府城)

[一千二百二十二把, 作步一千六百五十八步, 作里四里二百十八步. 東南西三門燬於丁丑兵火] 丁巳年[留守許秩] 改築, 前面石築八百三十四步[左邊五百四十四步 右邊二百九十步], 後面土築八百二十四步[左邊二百八十五步, 右邊五百四十九步] 有東南西三門樓有[小東小西門及北門] 甲申倉城[九百七十步, 甲子年尹堦築之], 鼎足山城[即古之三郎城, 周回陡絕, 四無障礙可謂天險] 石築一千七百十三把, 女牆六百五牒, 有東南門樓及西北門內, 有十三井. 己亥年徐元履始築, 以國恤停役. 庚子年柳愔更築, 其年移安實錄, 置別將及山倉軍器內需司, 以儲糧餉. 丙午年徐必遠請勿修築, 罷別將, 置史閣參奉. 山倉及內需寺移作井浦, 軍器及坐起廳移構花島. 壬戌年又藏璫源錄. 高麗古城[基址一萬九千三百七十二尺] 積石寺城基[三十里十八步].

223) 5등전 기준 1결은 약 7,466평이다.

[1,222파로 보로 하면 1,658보이고, 리로 하면 4리 218보이다. 동문·남문·서문은 정축년에 전란으로 불타버렸다.] 정사년(1677)에 [유수 허질]이 개축하였는데 전면 석축 834보 [좌변 544보, 우변 290보], 후면 이 토축 824보 [좌변 285보, 우변 549보]이다. 동문·남문·서문 세 문루가 있다. [그 외 소동문, 소서문, 북문이 있다.] 갑곶창성 [970보이다. 갑자년(1684) 윤계가 쌓았다.] 정족산성 [옛날의 삼랑성으로 주위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있어 사방에 장애가 없으니 천연 요새라 할만하다.] 석축 1,713파(把), 여장 605첩(牒), 동문루, 남문루와 서문, 북문이 있다. 안에는 13개의 우물이 있다. 기해년(1659)에 서원리가 처음 쌓았고, 국상으로 인해 역(役)이 중지되었다. 경자년(1660)에 유심이 다시 쌓았고, 그 해 실록을 옮기어 모시고 별장 및 산창(山倉)·군기(軍器)·내수사(內需司)를 두어 양식을 저장했다. 병오년(1666) 서필원이 수축을 금하도록 청원하여 별장을 혁파하고, 사각참봉을 두었다. 산창 및 내수사(內需寺)는 정포로 옮겨 지었고 군기 및 좌기청(坐起廳)은 화도로 옮겨 지었다. 임술년(1682)에 『선원록』을 보관하였다. 고려고성 터는 19,372척 적석사성 터 [30리 18보].

돈황(墩墮)

己未年發[咸鏡南道, 江原道, 黃海道]僧軍[八千九百名]四十日赴役, 御營軍[四千二百六十二名]四十日赴役, 石築四十八墩. 其後加築一墩, 癸亥年營建墩舍.

기미년(1679)에 [승군을 일으켜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도] 승군 [8,900명]을 40일 동안 부역시키고, 어영군 [4,262명]을 40일간 부역시켜 48개 돈대를 돌로 쌓았다. 그 후에 1개 돈대를 추가로 축조하였다. 계해년(1683) 돈사(墩舍)를 영건하였다.

每墩所置軍器各[四號佛狼機八坐, 子砲四十文, 火藥三百斤, 大鳥銃十柄, 大鉛丸二千介, 水鐵丸一千介, 鐵豆毛一坐, 釜五坐, 鼎十坐], 月串墩[加置二號佛狼機二坐, 子砲十門, 水鐵丸五百九十介, 他餘物與各墩同], 甲串墩[加置三號佛狼機二坐, 子砲十門, 水鐵丸二千四百介, 四號八坐, 子砲四十門, 五號三十八坐, 水鐵丸三萬三百八十介, 鉛丸一千五十介, 小小別黃字砲四坐, 水鐵丸一萬一千六十六介, 他餘物皆與各墩同].

각 돈대에 설치한 군기 [4호 불랑기 8좌, 자포 40문, 화약 300근, 대조총 10자루, 대연환 2,000개, 철두명²²⁴⁾ 1좌, 솔 5좌, 다리달린 솔 10좌] 월곶돈대 [2호 불랑기 2좌, 자포 10문, 수철환 590개를 추가로 두는데 다른 군기는 각 돈대와 같다.] 갑곶돈대 [3호 불랑기 2좌, 자포 10문, 수철환 2,400개, 4호 불랑기 8좌, 자포 40문, 5호 불랑기 38좌, 수철환 30,380개, 연환 1,050개, 소소별황자포 4좌, 수철환 11,066개를 추가로 두는데 다른 군기는 모두 각 돈대와 같다.]

224) 두명은 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해 만든 독이나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드무'라 읽기도 하며, 한자로는 두모(豆毛)로 표기한다.

各鎭堡所屬者, 邊將看儉, 墩臺別將所屬者, 別將二人軍三名, 輪番守直, 墩臺直一名, 入居典守.

각 진보에 소속된 돈대는 진보의 장수가 간검하고, 돈대별장에 소속된 돈대는 별장 2인과 군 3명이 돌아가며 수직하는데 돈대직 1명이 들어가 살며 맡아 지킨다.

月串屬[赤北, 鵠巖, 月串, 玉浦], 濟物屬[望海, 制勝, 炎珠, 甲串], 龍津屬[加里山, 左岡, 龍堂], 花島屬[花島, 鰲頭亭], 廣城屬[廣城, 孫丕項], 德津屬[德津], 草芝屬[草芝, 長者坪, 蟾巖], 宅只將屬[宅只, 小檢島, 後崖, 陽巖], 葛串將屬[葛串, 分五里, 松串, 彌串], 長串屬[北一, 長串, 黔巖, 追後所築], 松岡將屬[松岡, 窟巖, 乾坪], 望洋將屬[望洋, 三三巖, 石角], 鷄龍將屬[鷄龍, 望月, 無殆], 寅火屬[寅火, 廣巖, 龜登串], 佛藏將屬[佛藏, 蟻頭, 天津], 昇天屬[石隅, 疎雨, 宿龍, 樂成], 凡四十九墩. 長峯島, 注文島[兩島皆有, 瞭望別將二人, 輪番機察].

월곶진 [적북, 휴암, 월곶, 옥포] 제물진 [망해, 제승, 염주, 갑곶] 용진진 [가리산, 좌강, 용당] 화도보 [화도, 오두정] 광성보 [광성, 손돌목] 덕진진 [덕진] 돈대를 관할한다. 초지진 [초지, 장자평, 섬암] 택지돈장 [택지, 소검도, 후애, 양암] 돈대를 관할한다. 갈곶돈장 [갈곶, 분오리, 송곶, 미곶] 장곶보 [북일, 장곶, 검암(나중에 축조된 것)] 송강돈장 [송

강, 굴암, 건평] 망양돈장 [망양, 삼삼암, 석각] 돈대를 관할한다. 계룡돈장 [계룡, 망월, 무태], 인화진 [인화, 광암, 귀등곶] 불장돈장 [불장, 의두, 천진] 승천보 [석우, 소우, 숙룡, 낙성] 이상 모두 49개 돈대이다. 장봉도, 주문도 [두 섬에는 모두 2명의 요망별장이 있어 돌아가며 기찰한다.]

선박(船舶)

官船大小并六十隻, 其中腐傷者十年過限, 則統營及三南水營具什物造送, 分授自願者, 使之賃載漁採. 私船大小并六十隻. 稅木公私船一體, 中船五疋, 小中船二疋, 半小船二疋. 自十月至解冰, 勿論公私船分防於東北各鎮堡, 以待緩急.

관선은 크고 작은 것을 모두 합쳐서 60척이며 그 중 썩고 망가져 10년이 지난 것들은 통어영 및 3남의 수영(水營)에서 짐물을 갖추어 새로 만들어 보내고 망가진 배들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품삯을 받고 짐을 나르거나 물고기를 잡게 했다. 사선(私船)은 크고 작은 것을 모두 합쳐서 60척이다. 세목(稅木)은 공선(公船)과 사선(私船)은 모두 동일하니 중선(中船)은 5필을 내고 소중선(小中船)은 2필을 내고 반소선(半小船)은 2필을 낸다. 10월에서 얼음이 풀릴 때까지 공선(公船)과 사선(私船)을 막론하고 모두 동북쪽의 진보로 보내 방비에 동원하여 급한 일에 대비하게 한다.

2) 『강화부지(江華府志)』(1783년)

성곽(城郭)

府治內城[石築據松岳以南花山以北周一十五里三百四十三步雉堞一千八百一十三舊城周一千六百五十八步丁丑寇難毀夷 肅宗丁巳留守許秩始改築留守朴權留守閔鎮遠相繼完役而拓闢其址域○東門曰望漢西門曰瞻華南門曰晏波北門未及架樓 當宁癸卯留守金魯鎮建扁曰鎮松]外城[自玉浦至草芝沿海而築凡四十三里二百九十步舊以土築 英宗甲子留守金始煥燔壁改築高二尺廣五尺其後隨毀隨補已補者一萬七千七百六十二步未及補者三千六百九十二步改壁以石始自丙寅○月串玉浦廣城德津甲串津鎮海寺六處皆設關架樓]鼎足山城[石築在府治南三十五里三峰對峙如鼎足寔名其似周五里雉堞七百五架樓於南門扁以宗海 當宁癸卯留守金魯鎮重建]井浦城[舊有城今只有瓮城數所相傳 反正後所以處光海世子者云而無史乘可據今設鎮].

부치내성 [돌로 쌓았고 송악을 기준으로 남쪽 화산에서 북쪽까지 둘레가 15리 343보이고 치첩²²⁵⁾은 1,813개이다. 옛성의 둘레는 1658보이다. 정축년 도적떼의 난때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을 의미한다. 오랑캐가 훼손하였는데 숙종 정사년(숙종3, 1677)에 유수 허질(許秩)이 개축을 시작하였고 유수 박권(朴權)·유수 민진원(閔鎭遠)이 계속하여 역을 마무리하였는데 그 터의 경계가 확장되어 만들어졌다. ○동문

225)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한다. ㄴ 성가퀴·보원(堡垣)·성첩(城堞)·여담(女-)·여장(女牆)·여첩(女堞)·치성(雉城)·타구(壕口).

은 망한, 서문은 첩화, 남문은 안파라 하였는데 북문은 문루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가 당시의 임금 계묘년에 유수 김노진이 망루를 세우고 편액을 진송이라 하였다.] 외성 [옥포에서 초지 연해까지에 걸쳐 쌓아 무릇 43리 290보 인데 옛날에는 흙으로 쌓았다. 영조 갑자년(영조 20, 1744)에 유수 김시혁(金始爌)이 구운 벽돌로 다시 쌓았는데 높이가 20척 너비가 5척이다. 그 후에 훼손된 것에 따라 보수하여, 이미 보수한 것이 17,762보 보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3,692보이고 병인년부터 벽돌을 돌로 고쳐 시작하였다. ○월곶 옥포 광성 덕진 갑곶진 진해사 등 6곳 모두 가루를 설치하였다.] 정족산성 [돌로 쌓았고 부치 남쪽 35리에 있고, 3개의 봉우리가 솟발처럼 대치하여 이러한 이름이 되었다. 둘레는 5리 치첩은 705개이고 문루가 남문에 있는데 편액은 종해이다. 당시의 임금 계묘년에 유수 김노진이 증건하였다.] 정포성 [옛날에는 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단지 웅성이 있고 이야기만 전한다. (인조)반정 후 광해군 세자가 거처한 곳이라 하나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없고 지금은 진을 설치하였다.]

관량(關梁)

文殊山城[石築在甲津東 通津府界 周一十五里一百二十九步 雉堞一千一百七十三 肅宗癸酉築實沁府第一關陜 設門四所 而南門樓圯廢 當寧癸卯留守金魯鎮就舊址 改建扁曰取豫有記] 鎮海關[在府治東一十里甲串津上 …… 甲串津[通陸大路 昔蒙將

來侵者之語 日積甲可渡盖少之也 李詹記遂以爲名津 以是然考之麗史 已先此有甲申之稱矣 江華古稱甲比古次 則津之名 安知非甲古歟 古字與申字俗音相近 必有一訛矣 畫譙錯落粉堞映帶極目上下不但金湯之固甲於東方亦近畿佳麗之勝地也一名童津○甲津上流舊名濟清串丁丑難水漸滿江無處行船而水勢忽於此截開以濟清兵人謂之譙後以濟勝易其稱云]廣城關[在府治東南二十五里廣城津上設鎮其內]廣城津[以險阨名涉津者必待潮侯有古詩云三兔三龍水三蛇一馬時羊三猿亦二月黑復如斯此潮侯也]孫石項[在廣城下流磯石齧齧瀧湍迅激以天險名三南船舶之達于 京師者皆由之]井浦津[在井浦堡南通煤音席毛老等島]寅火石津[在寅火鎮西海中有石如虎向南方故名寅火石水路十餘里通喬桐及延安海州等處實西海要衝]昇天津[在府治北二十里昇天堡東水路一十里侯潮方涉然有小風亦不可涉兩西船舶之達于 京師者皆由之]川橋[在府城內東洛川上]免橋[東洛川下流在南門外傍有石免故名]花島橋[廣城龍津二鎮之間城內諸水所洩處橋門窄闊多害稼 英宗丙戌留守李潏改築虹霓於是無滯流民稱其利今頗毀圯雖間有修補亦不能救矣]倉橋[在艮帖里]大青浦橋[在仙源里]佛橋[在松亭里]蝦橋[在松亭里]宿龍橋[在松亭里相傳橋北有麗時所謂崇陵者本名崇陵橋云]甲申橋[在濟物鎮下]圮浦橋[在長嶺里]狻猊浦橋[在北寺里]

문수산성 [돌로 쌓았으며, 갑진 동쪽에 있고 통진부의 경계이다. 둘레는 15리 129보이고, 치첩은 1,173개이다. 숙종 계유년(숙종 19, 1693)에 축조하였고 실제로 심부(강화)의 제1 관액으로 4곳에 문을 설치하였으나 남문루는 무너져 없어졌다. 당저(當宁) 계묘년에 유수 김노진이

옛터에 다시 문루를 세우고 편액을 취예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
 해관 [부치의 동쪽 10리에 있는 갑곶진 위에 있다.] 갑곶진 [육지의 대
 로와 통하는데 옛날에 몽고의 장수가 침입해 왔을 때 말하기를 거북
 이 등딱지를 쌓아 건너는 것이 가능했으니 어찌 그 것이 적겠는가. 이첨
 (李詹)이 이를 따라 진의 이름을 삼아 기록한 것이다. 이것으로 고려사
 의 것을 살펴보면 이곳은 이미 전에 갑곶이라는 칭하는 것이 있었다. 강
 화의 옛 명칭이 갑비고차 즉 진의 이름이었다. 갑고(甲古)의 옛날 글자
 와 곽(串)의 속음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반
 드시 그릇된 것이다. 동방에 있어 금성탕지의 견고한 갑옷과도 같지 않
 은가? 또한 근기지방의 아름답고 고운 뛰어난 땅으로 일명 동진(童津)
 이라 한다. ○갑진 상류의 옛 이름은 제청곶이다. 정축년 환난시 유병
 이 가득차서 강 어느 곳에도 배가 움직일만한 곳이 없었는데 수세가 홀
 연히 여기에서 끊어지고 물길이 열려 청병(淸兵)이 건너게 되어 사람들
 이 이르기를 비결이 있는 후에 건너고 쉽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칭한
 다고 한다.] 광성관 [부치의 동남쪽 25리에 있고 광성진 위에 진(鎭)을
 설치하고 그 안에 두었다.] 광성진 [험하고 좁은 곳으로 진을 건너 이름
 을 날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수를 기다려야만 제후의 칭호를 갖게
 될 것이다.] 손석항 [광성진 하류에 있는데 물가의 자갈이 잇몸처럼 깨
 물고 여울이 소용돌이 치는 것이 빨라 물결이 부딪쳐 흘러 천혜의 험한
 곳이라 명명하고 있다. 삼남의 선박이 도달하여 서울로 가는 것은 다 이

곳을 경우한다.] 정포진 [정포보 남쪽의 매음도·석모도·노등도와 통한다.] 인화석진 [재화진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돌이 호랑이 같고 남방을 향하고 있는고로 인화석이라고 이름하였다. 수로로 10여 리를 가면 교동 및 연안, 해주 등과 통하는 실로 서해의 요충지이다.] 승천진 [부치의 북쪽 20리 승천보 동쪽에 있다. 수로로 10리는 조수를 기다려 건너야 하는데 작은 바람이 있어 또한 양쪽 서쪽을 건너갈 수 없어 서울에 가려는 선박은 이곳을 경유해야 한다.] 천교 [부성내의 동락천 위에 있다.] 면교 [동락천이 아래로 흐르고 남문 밖 옆에 석면이 있어 이렇게 이름하였다.] 화도교 [광성과 용진 두 진 사이에 성내의 모든 물들이 새어 나오는 곳에 다리문이 좁아 가로 막는 것이 농사짓는데 많은 해를 미친다. 영종 병술년 유수 이은(李澣)이 개축하여 이곳에 홍예를 만들어 흐름이 지체됨이 없어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칭송하였다. 지금은 조금 훼손되어 비록 수리하고 보수하였으나 역시 능히 고치지는 못하였다.] 창교 [간점리에 있다.] 대청포교 [선원리에 있다.] 불교 [송정리에 있다.] 하교 [송정리에 있다.] 숙용교 [송정리에 있고, 다리 북쪽에 고려때에 소위 능을 숭상하는 자가 있어 본래 이름은 숭릉교라고 한다고 전한다.] 갑곶교 [제물진 아래에 있다.] 비포교 [장령리에 있다.] 산예포교 [북사리에 있다.]

진보(鎭堡)

月串鎭[在府治東北一十里 肅宗丙申留守洪重普設]濟物鎭[在府治東一十里甲串津上北去月串鎭一十里亦丙申設]龍津鎭[在府治東南一十里北去濟物鎭一十里亦丙申設]廣城堡[在府治東南二十五里北去龍津鎭一十五里 孝宗戊戌留守徐元履設]德津鎭[在府治東南三十里北去廣城堡五里舊置水軍僉使屬統禦營 顯宗丙午留守徐必遠 啓革置別將移設僉使於津東通津界謂之新德浦 肅宗丁巳留守許秩 啓陞萬戶]草芝鎭[在府治南三十里北去德津鎭一十五里亦丙申設丙午 啓置萬戶 英宗癸未留守鄭實 啓陞僉使兼監牧]船頭堡[在府治南三十五里東南去草芝鎭二十里 肅宗丙戌留守閔鎭遠啓罷花島鎭移置別將於此□]長串堡[在府治西南五十里東北去船頭堡三十里 肅宗丙辰留守許秩設□]井浦堡[在府治西南二十五里南去長串堡二十五里舊置水軍萬戶留守徐必遠啓移水軍於喬桐置別將己酉留守金徽還置萬戶 肅宗戊午留守尹以濟又 啓移於長峰復置別將]寅火石鎭[在府治西三十里南去井浦堡三十里亦丙申設初置別將己未留守尹以濟 啓陞萬戶]鐵串堡[在府治北三十里南去寅火鎭二十里舊置水軍僉使屬統禦營留守徐必遠 啓移水軍於豐德置別將留守金徽還置僉使 肅宗壬辰留守趙泰老 啓移於注文島復置別將]昇天堡[在府治北二十里西去鐵串堡五里東去月串鎭二十里亦丙申設]文殊鎭[在甲串津通津界西去府治一十里 肅宗甲戌置]

월곶진 [부치의 동북쪽 10리에 있다. 숙종 병신년 유수 홍중보(洪重普)가 설치하였다.] 제물진 [부치의 동쪽 10리 갑곶진 위에 있다. 북쪽으

로 가면 월곶진이 10리 거리에 있고 역시 병신년에 설치하였다.] 용진진 [부치의 동남쪽 1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제물진이 10리 거리에 있고 역시 병신년에 설치되었다.] 광성보 [부치의 동남쪽 25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용진진이 15리 거리에 있고 효종 무술년에 유수 서원이(徐元履)가 설치하였다.] 덕진진 [부치의 동남쪽 3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광성보가 5리 거리에 있고 옛날에 통어영에 속하는 수군첨사를 두었다. 현종 병오년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계문을 올려 혁파하고 별장을 두고 첨사는 진의 동쪽 통진과의 경계인 신덕포라 이르는 곳에 옮겼고, 숙종 정사년 유수 허질(許秩) 계문을 올려 만호로 승격시켰다.] 초지진 [부치의 남쪽 3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덕진진이 15리 거리에 있고 또한 병신년에 설치하였고 병오년에 계문을 올려 만호를 두었다. 영종 계미년에 유수 정실(鄭實)이 계문을 올려 첨사를 감목이 겸하도록 승격시켰다.] 선두보 [부치의 남쪽 35리에 있다. 동남쪽으로 가면 초지진이 20리 거리에 있다. 숙종 병술년에 유수 민진원(閔鎭遠)이 계문을 올려 혁파하고 화도진으로 옮기고 이곳에는 별장을 두었다.] 장곶보 [부치의 서남쪽 50리에 있다. 동북쪽으로 가면 선두보가 30리 거리에 있다. 숙종 병진년에 유수 허질(許秩)이 설치하였다.] 정포보 [부치의 서남쪽 25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장곶보가 25리 거리에 있다. 옛날에 수군 만호를 두었는데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계문을 올려 교동 수군으로 옮기고 별장을 두었다. 기유년 유수 김휘(金徽)가 다시 만호를 두었다.

숙종 무오년 유수 윤이제가 또 계문을 올려 장봉으로 옮기고 다시 별장을 두었다.] 인화석진 [부치의 서쪽 30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정포보가 30리 거리에 있고 또한 병신년 설치 처음에는 별장을 두었다가 기미년 유수 윤이제(尹以濟)의 계문에 의해 만호로 승격하였다.] 철곶보 [부치의 북쪽 30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인화진이 20리 거리에 있고 옛날에는 통어영에 속한 수군첨사를 두었으나 유수 서필원(徐必遠)의 계문에 의하여 풍덕(豐德)의 수군에 속하게 하고 별장을 두었으나 유수 김휘(金徽)가 첨사를 다시 두었다. 숙종 임진년에 유수 조태로(趙泰老)가 계문을 올려 주문도로 옮겼고 다시 별장을 두었다.] 승천보 [부치의 북쪽 20리에 있다. 서쪽으로 가면 철곶보가 5리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 가면 월곶진이 20리 거리에 있으며 또한 병신년에 설치되었다.] 문수진 [갑곶진과 통진의 경계에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부치의 10리 거리에 있다. 숙종 갑술년에 설치되었다.]

목장(牧場)

屬草芝鎮 鎮江場[在鎮江南 仁祖己丑留守趙啓遠罷場許耕後太僕以場有良馬種更請設場而殺其場圍今之吉祥場是也故通稱鎮江場相傳太祖朝內廐八駿皆產於此場 孝廟之自瀋中廻駕也清主界一馬曰此鎮江場產可與之同還也及將渡江馬忽躍涉不知何去方知其爲神種云一說 孝廟嘗畜一馬於內廐名曰伐大驄亦鎮江之種異於凡馬故命名蓋有以云] 北一場[在摩尼南麓 肅宗庚寅留守閔鎮遠 啓罷亦因太僕

陳請還仍而實空場也 英宗甲申有折受今 上丙申留守金鍾秀請許民丁酉留守李福源申請可之]矢島場[在矢島]煤音島場[在煤音島].

초지진에 속해 있다. 진강장 [진강산 남쪽에 있다. 인조 기축년에 유수 조계원 진강장을 파하고 경작을 허락하였으나 후에 태복시에서 좋은 마종(馬種)을 얻기 위한 목장이 필요하여 다시 청하여 목장을 개설하여 목장 주위를 말을 살육하였다. 지금의 길상장(吉祥場)이 이곳이다. 그런고로 통칭 진강장이라 전해오는 것이다 태조조의 내구마 8마리 뛰어난 말이 모두 이 목장에서 나온 것이다. 효종이 심강 가운데를 돌며 가마에 오르자 청나라 임금이 말 1필을 주며 이르기를 이것은 진강장 산으로 너에게 주니 같이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장차 강을 건너가는데 미쳐서 말이 홀연히 뛰어 건너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말은 그 방향을 알고 있어 이를 신종(神種)이라 한다는 일설이 있다. 효종은 일찍이 내구에서 말 1필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름하여 벌대총(伐大驄)이라 하였고 또한 진강장의 종마로 일반 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명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복일장 [마니산 남쪽에 있다. 숙종 경인년에 유수 박진원(閔鎭遠)이 계문을 올려 혁파하였으나 또한 태복시에서 진정을 청하여 계속 환원해줄 것을 청하여 돌아오기를 거듭했으나 실제로는 빈 목장이다. 영조 갑신년에 왕으

로부터 절수를 받아 병신년에 유수 김종수(金鍾秀)가 백성들이 경작하
기를 청하였고 정유년에 유수 이복원(李福源)이 청하여 경작하게 되었
다.] 시도장 [시도에 있다.] 매음도장 [매음도에 있다.]

돈대(墩臺)

赤北墩[在府治北一十里周九十六步雉堞三十九]鵠巖墩[北去赤北墩五百五十步
周八十三步雉堞三十]月串墩[北去鵠巖墩一千一百一十步周一百二十四步雉堞
四十八]玉倉墩[北去月串墩七百七十五步周一百四步雉堞四十一去江邊三百餘步
○已上四墩管於月串鎮]望海墩[北去玉倉墩一千一百二十步周九十步雉堞二十]制
勝墩[北去望海墩六百八十一步周一百六步雉堞二十九]念珠墩[北去制勝墩七百六
十一步周八十四步雉堞二十三]甲串墩[北去念珠墩六百二十五步周一百一十三步雉
堞四十○已上四墩管於濟物鎮]加里山墩[北去甲串墩一千四百步周九十四步雉堞
三十四]左岡墩[北去加里山墩一千三百步周九十六步雉堞三十七]龍堂墩[北去左岡
墩一千二百步周九十四步雉堞三十六○已上三墩管於龍津鎮]花島墩[北去龍堂墩
一千三百九十步周九十二步雉堞四十二]鼇頭墩[北去花島墩七百步周八十步雉堞
三十三]廣城墩[北去鼇頭墩二千一百五十四步周八十六步雉堞三十八○已上三墩
管於廣城堡]孫石項墩[北去廣城墩二百二十三步周六十六步雉堞三十一]德津墩[北
去孫石項墩二千一十步周九十步雉堞四十○已上二墩管於德津鎮]草芝墩[北去德
津墩一千六百五十步周八十三步雉堞三十四]長者坪墩[北去草芝墩九百步周九十四
步雉堞三十九]蟾巖墩[北去長者坪墩二千三百步周九十三步雉堞四十○已上三墩

管於草芝嶺宅只墩[北去蟾巖墩二千一百步周八十四步雉堞三十七]東黔北墩[北去宅只墩一千二百五十步周二百九步雉堞八十五]後厓墩[北去東黔北墩一千七百五十步周九十一步雉堞四十○已上三墩管於船頭堡]陽巖墩[北去後厓墩一千四百五十步今廢]葛串墩[北去陽巖墩一千六百四十五步今廢]分五里墩[北去葛串墩一千六百四十五步周八十四步雉堞參十七]松串墩[北去分五里墩四百二十步周九十四步雉堞三十六 摩尼南一麓逶迤蜿蜒揭入海中 以海水絡之 而墩其上其下 皆石場水外 島嶼或聯或斷 圍繞如屏障軒豁之勢 雖少遜燕尾奇麗過之處既僻 且以設墩也 雖島中之人 亦不知有此名 境惜哉 柳子厚不置鄆杜之感 良以是夫○已上二墩 管於營門別有墩長]彌串墩[北去松串墩八百七十步周九十二步雉堞三十八]北一串墩[東去彌串墩一千四百四十步周九十三步雉堞四十]長串墩[東去北一串墩一千二百六十步周九十六雉堞四十]黔巖墩[東去長串墩一千二百六十步周三十三步雉堞二十三○已上四墩管於長串堡]松岡墩[南去黔巖墩三百五十步周九十三步雉堞四十]屈巖墩[南去松岡墩一千九十八步周八十八步雉堞三十六○已上二墩管於營門別有墩長]乾坪墩[南去屈巖墩一千四百四十步周八十八步雉堞三十八]望洋墩[南去乾坪墩三千二百四十步周九十八步雉堞四十]三巖墩[南去望洋墩一千四百四十步周九十一步雉堞五十五]石角墩[南去三巖墩一千八十步周五十八步雉堞二十七○已上四墩管於井浦堡]雞龍墩[南去石角墩一千九百六十步周七十九步雉堞三十三]望月墩[南去雞龍墩一千五百二十五步周一百步雉堞四十二○已上二墩管於營門]無殆墩[南去望月墩三千一百步周一百九步雉堞四十七]寅火墩[南去無殆墩一千四百七十步周九十八步雉堞四十四]廣巖墩[南去寅火墩一千三百五十步周四十二步雉堞三十八]龜

登墩[南去廣巖墩二千七百二十四步周九十步雉堞四十六]鵲城墩[南去龜登墩五百步周八十六步雉堞三十八○已上五墩管於寅火鎮]譙樓墩[南去鵲城墩一千五百步周八十五步雉堞三十八]佛藏墩[西去譙樓墩六百四十六步周八十一步雉堞三十四]蟻頭墩[西去佛藏墩五百六十六步周三十二步雉堞二十七]鐵北墩[西去蟻頭墩二百九十七步周七十六步雉堞三十三]天津墩[西去鐵北墩五百四十五步周九十四步雉堞三十八○已上五墩管於鐵串墩]石隅墩[西去天津墩九百八十四步周七十三步雉堞三十一]冰峴墩[西去石隅墩九百九十三步周六十九步雉堞二十五]踈雨墩[西去冰峴墩五百八十五步周七十步雉堞二十五]宿龍墩[西去踈雨墩一千九十六步周八十二步雉堞三十三]樂城墩[西去宿龍墩九百一十四步東去赤北墩九百四十步周九十六步雉堞三十四○已上五墩管於昇天堡○凡五十三墩 肅宗己未築用威鏡黃海江原三道僧軍八千名及御營軍四千三百名凡四十一而築完冰峴鐵北譙樓鵲城四墩皆追築].

적북돈 [부치의 북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96보, 치첩은 39개이다.] 휴암돈 [북쪽으로 가면 적북돈이 5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3보 치첩은 30개이다.] 월곶돈 [북쪽을 가면 휴암돈이 1,11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124보 치첩은 48개이다.] 옥창돈 [북쪽으로 가면 월곶돈이 775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104보 치첩은 41개이며 강변으로 300여 보를 간다. ○이상의 4개 돈은 월곶진에서 관장한다.] 망해돈 [북쪽으로 가면 옥창돈이 1,12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0보 치첩은 20개이다.] 제승돈 [북쪽으로 가면 망해돈이 681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106보 치첩

은 29개이다.] 염주돈 [북쪽으로 가면 제승돈이 761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4보 치첩은 23개이다.] 갑곶돈 [북쪽으로 가면 염주돈이 625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112 치첩은 40개이다. ○이상 4개의 돈은 제물진에서 관장한다.] 가리산돈 [북쪽으로 가면 갑곶돈이 1,4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4보 치첩은 34개이다.] 좌강돈 [북쪽으로 가면 가리산돈이 1,3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6보 치첩은 37개이다.] 용당돈 [북쪽으로 가면 좌강돈이 1,2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4보 치첩은 36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용진진에서 관장한다.] 화도돈 [북쪽으로 가면 용당돈이 1,39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2보 치첩은 42개이다.] 오두돈 [북쪽으로 가면 화도돈이 7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0보 치첩은 33개이다.] 광성돈 [북쪽으로 가면 오두돈이 2,154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6보 치첩은 38개이다. ○이상 3개 돈은 광성보에서 관장한다.] 손석항돈 [북쪽으로 가면 광성돈이 223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66보 치첩은 31개이다.] 덕진돈 [북쪽으로 가면 손석항돈이 2,01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0보 치첩은 40개이다. ○이상 2개 돈은 덕진진에서 관장한다.] 초지돈 [북쪽으로 가면 덕진돈이 1,6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3보 치첩은 34개이다.] 장자평돈 [북쪽으로 가면 초지돈이 9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4보 치첩은 39개이다.] 섬암돈 [북쪽으로 가면 장자평돈이 2,3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3보 치첩은 40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초지진에서 관장한다.] 맥지돈 [북쪽으로 가면 섬암돈이 2,1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4보 치첩은 37개이다.] 동검북돈 [북쪽으로 가면 택지돈이 1,2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209보 치첩은 85개이다.] 후애돈 [북쪽으로 가면 동검북돈이 1,7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1보 치첩은 40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선두보에서 관장한다.] 양암돈 [북쪽으로 가면 후애돈이 1,450보 거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갈곶돈 [북쪽으로 가면 양암돈이 1,645보 거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분오리돈 [북쪽으로 가면 갈곶돈이 1,645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4보 치첩은 37개이다.] 송곶돈 [북쪽으로 가면 분오리돈이 42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4보 치첩은 36개이다. ○이상 2개의 돈은 영문(진무영 : 역자)에 별도의 돈장이 있어 관장한다.] 미곶돈 [북쪽으로 가면 송곶돈이 87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2보 치첩은 38개이다.] 북일곶돈 [동쪽으로 가면 미곶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3보 치첩은 40개이다.] 장곶돈 [동쪽으로 가면 북일곶돈이 1,26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6보 치첩은 40개이다.] 검암돈 [동쪽으로 가면 장곶돈이 1,26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33보 치첩은 23개이다. ○이상 4개 돈은 장곶보에서 관장한다.] 송강돈 [남쪽으로 가면 검암돈이 3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3보 치첩은 40개이다.] 굴암돈 [남쪽으로 가면 송강돈이 1,098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8보 치첩은 36개이다. ○이상 2개 돈은 영문에 별도의 돈장이 있어 관장한다.] 건평돈 [남쪽으로 가면 굴암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8보 치첩은 38개이다.] 망양돈 [남쪽으로 가면

건평돈이 3,24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8보 치첩은 40보이다.] 삼삼
 압돈 [남쪽으로 가면 망양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1보 치첩
 은 55개이다.] 석각돈 [남쪽으로 가면 삼삼압돈이 1,080보 거리에 있
 고 둘레는 58보 치첩은 27개이다. ○이상 4개 돈은 정포보에서 관장한
 다.] 계룡돈 [남쪽으로 가면 석각돈이 1,96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79
 보 치첩은 33개이다.] 망월돈 [남쪽으로 가면 계룡돈이 1,525보 거리
 에 있고 둘레는 100보 치첩은 42개이다. ○이상 2개돈은 영문에서 관
 장한다.] 무태돈 [남쪽으로 가면 망월돈이 3,1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109보 치첩은 47개이다.] 인화돈 [남쪽으로 가면 무태돈이 1,470보 거
 리에 있고 둘레는 98보 치첩은 44개이다.] 광암돈 [남쪽으로 가면 인화
 돈이 1,35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42보 치첩은 38개이다.] 귀등돈 [남
 쪽으로 가면 광암돈이 2,724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0보 치첩은 46개
 이다.] 작성돈 [남쪽으로 가면 귀등돈이 5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68
 보 치첩은 38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인화진에서 관장한다.] 초루돈
 [남쪽으로 가면 작성돈이 1,50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5보 치첩은 38
 개이다.] 불장돈 [서쪽으로 가면 초루돈이 646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1보 치첩은 34개이다.] 의두돈 [서쪽으로 가면 불장돈이 566보 거리
 에 있고 둘레는 32보 치첩은 27개이다.] 철북돈 [서쪽으로 가면 의두돈
 이 297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76보 치첩은 33개이다.] 천진돈 [서쪽으
 로 가면 철북돈이 545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4보 치첩은 38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철곶돈에서 관장한다.] 석우돈 [서쪽으로 가면 천진돈이 984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73보 치첩은 31개이다.] 빙현돈 [서쪽으로 가면 석우돈이 993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69보 치첩은 25개이다.] 적우돈 [서쪽으로 가면 빙현돈이 585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70보 치첩은 25개이다.] 숙용돈 [서쪽으로 가면 적우돈이 1,096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82보 치첩은 33개이다.] 악성돈 [서쪽으로 가면 숙룡돈이 914보 거리에 동쪽으로 가면 적북돈이 940보 거리에 있고 둘레는 96보 치첩은 34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승천보에서 관장한다. ○무릇 53개의 돈은 숙종 기미년(숙종 5, 1679)에 쌓아서 사용했다. 함경·황해·강원도의 3도 승군 8,000명 및 어영군 4,300명이 대략 41일에 걸쳐 축조하여 완성하였다. 빙현·철북·초루·작성의 4개 돈은 모두 추가로 축조하였다.]

봉수(烽燧)

大母山烽燧[東應通津藥山西應本府鎮江○烽燧軍十九名]鎮江山烽燧[東應大母山西應望山○烽燧軍十九名]望山烽燧[東應鎮江山西應喬桐華盖山○烽燧軍十六名]河陰山烽燧[卽鳳頭山西應華盖山還入應本府南山○烽燧軍十六名]南山烽燧[西應河陰山東應通津南山○烽燧軍二十名]○已上五烽燧屬本府自全羅道海南館頭洪忠道唐津起火沿海至通津藥山入來]陽城槐苔吉串烽燧[東應稷山望海山北應水原興天山○烽燧軍一百名]水原興天山烽燧[南應槐苔吉串北應南陽念佛山○烽

燧軍一百名]南陽念佛山烽燧[南應興天山北應海雲山○烽燧軍九十七名]海雲山烽燧[南應念佛山北應安山正往山○烽燧軍九十六名]安山正往山烽燧[南應海雲山北應仁川城山○烽燧軍一百名]仁川城山烽燧[東南應正往山北應富平柎串○烽燧軍一百名]富平柎串烽燧[南應城山北應金浦白石山○烽燧軍一百名]金浦白石山烽燧[南應柎串北應冷井山○烽燧軍九十六名]冷井山烽燧[西應通津南山東應陽川開花山○烽燧軍九十五名]通津南山烽燧[北應本府南山東應金浦冷井山○烽燧軍一百三名]守安山烽燧[南應白石山西應本府大母山○烽燧軍一百三名]陽川開花山烽燧[西應冷井山東應 京城木覓山○烽燧軍一百名]喬桐華盖山烽燧[南應本府望山東應本府河陰山○烽燧軍四十六名]脩井山烽燧[西應延安看月山北應延安角山○烽燧軍四十五名○已上 十四烽燧 屬統禦營 自南來者起火與本府烽燧同西來者沿海至喬桐脩井山 北應延安角山入于 京城○兩營 凡十九烽燧 每烽燧置烽燧將一人監官五人都監考一人].

대모산봉수 [동쪽으로 통진 약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본부(강화부) 진강과 응한다. ○봉수군은 19명이다.] 진강산봉수 [동쪽으로 대모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망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9명이다.] 망산봉수 [동쪽으로 진강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교동 화개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6명이다.] 하음산봉수 [곧 봉두산으로 서쪽으로 화개산과 응하고 돌아서 본부 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6명이다.] 남산봉수 [서쪽으로 하음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통진 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20명이

다. ○이상 5개 봉수는 본부에 속하며 전라도 해남관에서 시작하여 홍충도(충청도) 당진에서 불을 올려 연해로 가며 통진 약산으로 들어 온다.] 양성 괴태길곶봉수 [동쪽으로 직산 망해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수원 흥천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수원 흥천산봉수 [남쪽으로 괴태 길곶과 응하고 북쪽으로 남양 염불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남양 염불산봉수 [남쪽으로 흥천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해운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7명이다.] 해운산봉수 [남쪽으로 염불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안산 정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6명이다.] 안산 정왕산봉수 [남쪽으로 해운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인천 성산봉수 [동쪽으로 정왕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부평 축곶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부평 축곶봉수 [남쪽으로 성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김포 백석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김포 백석산봉수 [남쪽으로 축곶과 응하고 북쪽으로 냉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6명이다.] 냉정산봉수 [서쪽으로 통진 남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양천 개화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5명이다.] 통진 남산봉수 [북쪽으로 본부 남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김포 냉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3명이다.] 수안산봉수 [남쪽으로 백석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본부 대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3명이다.] 양천 개화산봉수 [서쪽으로 냉정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서울 목멱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교동 화개산봉수 [남쪽으로 본부 망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본부 하음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46명이다.] 수정
산봉수 [서쪽으로 연안 간월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연안 각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45명이다. ○이상 14개 봉수는 통어영에 속한다. 남쪽으로
부터 올라온 것은 본부 봉수와 같이 불을 올리고 동시에 서쪽으로부터
온 것은 연안에서 교동 수정산에 이르면 북쪽으로 연안 각산이 응하고
서울에 들어간다. ○두 영은 무릇 19개 봉수가 있으며 각 봉수에는 봉
수장 1명 감관 5명, 도감고 1명을 둔다.]

9. 교동의 관방체제

1) 교동의 방어체제

(1) 교통·군사·외교의 요충지 교동

1899년 발간된 『교동군읍지』의 고적(古蹟)에서는 교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 고려 때 교동은 개성 가까운 곳에 있고, 하류는 수륙의 운수가 모여 편리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조세선, 상인, 어염이 아울러 도달하고 가득히 모여 나라의 외부(外府 : 국가의 재물을 간직하는 창고)가 되었다. 그러므로 관원이나 부호가 많이 이곳에 거처하였다. 옛적에는 송가도(현재의 석모도)의 상주산 북쪽이 읍과 연륙해 있고, 바다로 통하는 것은 산의 남쪽이어서, 조선(漕船)이 이로 인하여 매음도 난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중엽(中葉)에는 상주산의 북쪽이 바다로 통하고, 상주산의 남쪽이 매음도에 미쳐 뿔이 스스로 생겨나 읍에서 이곳에 독을 쌓아 둔전(屯田)을 만들었다.

② 진망산(鎭望山) 아래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사신관이라고 불렀고, 사신관 곁에 신당(神堂)이 있어 사신당이라고 불렀다. 바닷가 바위 위에는 정(釘)으로 쏘아 만든 계단이 있어 '사신등선지로(사신이 배에 오르는 길)'라 명명하였다. 이곳은 고려 때 중국의 남경으로 가는 사신의 통행로였고, 조선에서는 사신관에 군사무기를 저장하였다.

* 남달우 (사)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③ 정덕(正德) 원년(1506) 병인에 연산군이 본 현으로 방출되었다. 옛 현은 군의 북쪽 십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송정(崇禎) 2년 기사년(1629)에 수군영으로 승격하면서 읍을 남면 용정리 월곶진터로 옮겼다. 옛 현의 성터가 지금도 고읍리에 남아있다.

④ 을묘년에 왜구의 난(1555년 을묘왜변)을 당하여, 지현사를 무관으로 바꾸어 줄 것을 계청하였다. 지현사 최제운(崔霽雲)이 이 해에 화개산성을 더하여 쌓고, 산성안에 군량고를 두었다. 다음 해인 병진년(1556)에 판옥선을 만들고, 36년이 지난 신묘년(1591) 10월에 지현사 이여양(李汝讓)이 산성을 철거하고, 읍을 둘러싸는 외성을 쌓았다. 화개산 남쪽 기슭의 서쪽 정상에 우물이 있는데 이름을 무정(武井)이라 하고, 동쪽 정상에도 우물이 있어 이름을 문정(文井)이라 하였다. 둘레가 수백 척은 되었는데 샘물이 흘러 넘쳐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사방에 전달되었는데, 섬 안의 명승이 되었다. 이 때문에 문무관의 어진 인재와 고위 관원이 세대를 이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에 들어 샘이 마른 이후 문무인재와 고위 관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⑤ 인조 병자년(1636)에 청의 군사들이 강화를 침범하였다. 교동도호부의 수군이 나아가 국난을 구하려 하였으나, 갑진(甲津 : 갑곶진)이 함락되고 남한산성에서 화약(和約)이 맺어지자 수군들은 무장을 풀고 교동으로 돌아왔다.

⑥ 현종 갑진년(1844) 철종의 잠저소가 본 읍에 있었는데, 석달이 지난 뒤에 강화

부로 잡지를 옮겼다. 기유년(1849) 6월 철종은 보위에 올랐다.

- ⑦ 동치(同治) 병인년(1866) 9월에 서양의 병사들이 강도를 함락하였다. 이때 유수 이인기(李寅夔)가 어진을 받들고 교동에 도착하자, 통어사 서상직(徐相稷)과 중군 안금수(安兢壽)가 군위를 갖추고, 응복을 하고 어진을 공경히 맞아 객사에 봉안하였으며, 다음 날 어진을 모시고 육지를 경유하여 송도로 향하였다. 같은 해 10월 통어사 정운익(鄭雲翼)과 중군 이지수(李祉壽)가 통진의 대진(大陣)으로 부터 특별히 선택되어 부임하였다. 이들은 해서의 수군 구원병을 뽑아 교동에 머물렀다. 적세가 더욱 창궐하자 통어사 정운익과 중군 이지수가 싸우기를 자원하는 별초 500 명을 거느리고 송가도에 이르렀을 때, 조선군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고 서양 배가 도망하였기에 정운익과 이지수는 본영으로 돌아왔다. 이때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군량을 취하여 나를 때, 본영은 각처의 식량을 모았다.
- 6년이 지난 신미년(1871) 4월에 서양의 군대가 광성보를 함락하였다. 이때 총장공(어재연)은 전사하고 군세가 약해지자, 방어사 신태익(申泰益)이 이희도(李羲道) 유동수(劉東秀) 등으로 하여금 포병 100명을 이끌고 강화부로 나가 싸우도록 하였다. 본읍의 선비 한진기(韓鎭璣)가 종군하기를 자원하자 강화부 유수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한진기로 하여금 서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서양 군대가 물러나자 무장을 풀고 교동으로 돌아왔다.²²⁶⁾

226)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교동군읍지』(1899년) 古蹟.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교동이 교통의 요지로 서 조세선, 상인, 어염 등이 모여 드는 국가 재물 창고의 역할, ②는 외교통로 겸 무기 저장소의 역할, ③은 폐군 유배지로서의 역할, ④는 화개산성의 수축 사실, ⑤는 병자호란 때의 교동 수군이 국난을 구하려 했던 사실, ⑥은 철종의 잠저가 있었던 사실, ⑦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교동의 군사적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2) 교동의 방어체제 변화

(1)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한반도 중·서부 가운데 특히 한강유역과 경기만 일대를 차지하려고 대립하였다. 한강유역과 경기만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며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출입구로 지리적 가치가 높다.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오고가는 경우 통과해야 할 지역이 경기만이다. 그리고 경기만 북부의 강화를 점령하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한강의 입구를 장악하게 된다.²²⁷⁾

4세기 백제는 점차 국력이 성장하여 대외투쟁을 강화하고 내부 체제를 정비하였다. 근초고왕(346~375)은 369년 9월에 고구려의 침략을 치양(雉壤 : 황해도 배천)에서 격파하고, 371년에는 친히 태자와 함께 정병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이 전사하

227) 윤영철,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58, 59 합집호, 1999, 260~261쪽.

게 된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광개토왕(392~412) 때에 일대 정복사업을 펴기 시작했다. 392년(백제 진사왕 8) 10월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관미성(關彌城)을 함락시켰다.²²⁸⁾

그러자 백제는 진사왕의 뒤를 이은 아신왕(阿莘王)이 393년 자신의 외숙인 진무(眞武)에게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요해지인데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과인이 통석하는 바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설욕하라.”²²⁹⁾고 하였으나 관미성의 수복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지만 고양시 신도읍 중흥동 폐산성(廢山城), 강화도 하음산성,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되는 오두산성, 예성강 하구에 속하는 황해도 배천군 길미포, 강화·연안 부근, 강화 교동도의 화개산성, 예성강 남쪽 개성 부근의 관미령, 예성강 북안의 황해도 금천군 탈미성, 개풍군 백마산 부근 혹은 개풍 부근의 승천포 고성(古城) 등으로 보고 있다.²³⁰⁾

이렇듯 연구자들마다 관미성의 위치를 다르게 비정하고 있지만 모두 예성강, 한강 수계와 연관되는 지역 특히 교동 주변이라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이로 볼 때 삼국시대 교동에 군사 방어시설이 존재하였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과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강화의 옛 지명

228)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8년.

229)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아신왕(阿莘王) 2년.

230) 윤명철, 앞의 글, 269쪽.

인 ‘갑비고차(甲比古次)’는 ‘혈구(穴口)’로, 그리고 교동은 ‘고목근현(高木根縣)’으로 바뀐다.²³¹⁾

757년(신라 경덕왕 16)에는 전국의 고유 지명을 중국식 한자이름으로 바꾸었다. 이 때문에 주부토군(부평의 지명)은 장제군, 인천의 고구려 때 명칭인 매소홀현은 소성현, 강화도의 옛 이름인 혈구군은 해구군, 고목근현은 교동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라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4개의 군진을 설치하였다. 황해도 장산곶의 장구진, 황해도 평산의 패강진, 해구군의 혈구진, 경기도 남양 당은군의 당성진이 그것이다. 이때 해구군의 영현인 교동은 혈구진에 소속되었다.

936년 후삼국이 고려로 통합된 후 940년에는 해구군이 강화현으로 바뀌면서, 교동현은 강화현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태였다. 고려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들의 자치에 일임하고 있었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

231) 지리지와 읍지에 기록된 교동의 지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고목근(高木根)	달을참(達乙斬)		
고려사	고목근(高木根)	달을참(達乙斬)	대운도(戴雲島)	고림(高林)
세종실록지리지	고목근(高木根)		대운도(戴雲島)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목근(高木根)		대운(戴雲)	고림(高林)
동국여지지	고목근(高木根)	달걸신(達乞新)	대운도(戴雲島)	고촌(高村)
여지도서	고목근(高木根)	달신(達新)	대운(戴雲)	고림(高林)
1842년 교동부읍지		위신(達新)	대운(戴雲)	교림(喬林)
1856년 여도비지	고목근(高木根)	달을신(達乙新)	대운도(戴雲島)	
1863년 대동지지	고목근(高木根)	달을신(達乙新)	대운도(戴雲島)	고림(高林)
1871년 교동부읍지	고목근(高木根)	달신(達新)	대운(戴雲)	고림(高林)
1899년 교동군읍지	고목근(高木根)	달신(達新)	대운(戴雲)	고림(高林)

하였다. 983년 12목(牧)의 설치가 본격적인 지방관 파견의 시초였다. 그러나 전국 50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된 주군(主郡)·주현(主縣)이 130개였는데 반하여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속현(屬縣)은 374개나 되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속현에 대한 외관의 증파로 주현의 수가 많아지자 지방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였고, 이 때문에 1018년(현종 9)에는 전국을 5도 양계(兩界)로 하고 3경(京) 4도호부 8목(牧) 56지주군사, 20현령, 28진장(鎭將)을 두었다. 양계는 평안도지방의 북계를, 함경도지방의 동계를 말하며, 양계 이외의 지역에는 양광·경상·전라·교주·서해도 등 5도를 설치하였다.

1106년(예종 1)부터 속군·속현, 향·소·부곡 등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비로소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감무는 정식 수령이 아니라 일시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행정관이었다. 감무의 임무는 유민 안집과 권농이 임무였고,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거나 전란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고을을 보호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³²⁾ 지역적으로는 초기엔 서해도·양광도·경기 등의 중부지역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남부지역으로 옮겨 가 공양왕대에는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²³³⁾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

232) 임용한, 「14~15세기 교동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인천학연구』 3, 2004. 5쪽.

23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동현에 의하면 교동에는 1172년(명종 2)에 감무가 파견된다. 이때의 감무 파견은 무신정권 수립 직후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로 특별히 교동의 군사적 기능 변화와 관련되지는 않았다.²³⁴⁾

앞의 『교동군읍지』 고적에서 보았듯이 교동은 “교통의 요지로서 조세선, 상인, 어염 등이 모여 드는 국가의 재물 창고”였다. 이 때문에 고려후기에 교동은 빈번한 왜구의 침입을 받았다. 1352년(공민왕 1)부터 1377년(우왕 3)까지 왜구가 교동에 침입한 횟수만 12회였다.²³⁵⁾

왜구 침입의 규모가 컸던 예를 살펴보면, “1363년에는 213척의 배가 교동에 정박하고 수안현을 침입했다.”²³⁶⁾ 1365년 3월에는 교동과 강화에 들어 온 왜구가 4월에 개령의 예성강까지 들어갔다. 1368년에는 왜구가 교동에 장기 주둔하였고, 1373년에는 해주를 함락시키고 목사 엄익점을 살해하였다.”²³⁷⁾ 등이다.

왜구가 교동을 주둔지로 선택한 이유는 교동이 황해와 경기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개령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삼남(충청·전라·경상도)에서 오는 조운선과 수송선은 개령으로 들어가려면 교동과 연안, 풍덕 사이의 수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234) 임용한, 앞의 논문, 5쪽.

235) 유창호, 「고지도와 지리지로 본 교동」, 『교동향교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12. 427쪽.

236) 『고려사』 권 40, 세가 40, 공민왕 12년 4월 기미.

237) 『고려사』 권 44, 세가 44, 공민왕 22년 7월 갑인, 9월 신축.



『여지도(輿地圖)』의 교동지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러나 왜구의 위협으로 세곡 수송이 끊겨 관리의 녹봉을 줄 수 없고, 쌀값이 앙등하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수군을 양성하여 왜구를 해상에서 격멸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1374년 공민왕은 이희(李禧)를 양광도안무사 겸 왜인추포만호(楊廣道按撫使兼倭人追捕萬戶), 정준제(鄭准提)를 전라도안무사 겸 왜인추포만호(全羅道按撫使兼倭人追捕萬戶)로 임명하고 최영(崔瑩)의 책임 하에 대규모 전함건조사업을 시작하였다.²³⁸⁾ 우왕대 이후 왜구 방어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수군이다. 수군은海道수군(海道水軍)과 각도수군(各道水軍)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었다.海道수군의 거점은 개경의 입구에 위치한 강화와 교동이었으며, 전국의 바다를 작전권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그 최고 지휘권은海道도통사(海道都統使)에게 있었으나 실제 지휘권은 3명의海道원수(海道元帥)에게 있었다. 1377년(우왕 3)海道원수 손광유(孫光裕)가 강화에서 왜구에 대패하여海道수군의 전함 대부분이 소실되자 최영이 곧바로 승도(僧徒) 2,000여 명·선장(船匠) 100여 명을 징발해 800여 척의 전함을 다시 만들었다. 1380년(우왕 6)에는 나주·목포 지역의 정예 수군을 추쇄, 교동과 강화에 배치하여海道수군의 병력이 증강되었다. 2년 뒤 최영은 다시 승려를 동원하여 거함 130여 척을 만들어서 전국의 요충지에 배치하였으며, 이로부터 각 도의 수군도 전보다 강화되어 왜구 방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각 도 수군의 도별 지휘권은 도순문사가 가졌지만 실제 수군을 통할한 것은 수군도만호·만호·천호와 영선두목 등이었다.²³⁹⁾

238) 임용한, 앞의 논문, 7~9쪽.

239) 『신편 한국사』 19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1.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1. 정치조직의 변화, 4)군제의 개편, (4)지방군제의 재편.

(2) 조선초기 교동의 방어체제와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영의 설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빈번한 내침이 있자, 조선 건국 초에는 각 포(浦)와 진(鎭)에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수군도첨절제사(水軍都僉節制使)·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등을 두어 왜구의 침탈에 대비하였다. 세종 때에는 수군도절제사가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되었으며, 그 휘하에 도만호(都萬戶: 종3품)와 만호(萬戶: 종4품)가 배치되었다.

1393년(태조 2)에는 박충영을 강화의 절제사로, 이승원(李承源)을 교동의 절제사로 파견²⁴⁰⁾하였다. 여기서 교동절제사가 수군도절제사인 지 아니면 수군도첨절제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절제사는 절도사에 딸린 거진(巨鎭)의 정3품 관직이며 첨절제사는 종3품 관직으로, 왜구의 침탈에서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적 중요성 때문에 3품인 ‘절제사’가 강화와 교동에 파견된 것이다.

1390년(공양왕 2)에 좌·우도로 분리된 경기는, 1394년(태조 3)에 도평의사사에서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의하여 좌·우도를 고치자는 건의에 따라 재조정된다. 이때에 교동은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豐)·백주(白州)·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재령(載寧)·강화(江華)·진강(鎭江)·하음(河陰)·서흥(瑞興)·우봉(牛峯)·신은(新恩)·협계(俠溪)·수안(遂安)·곡주(谷州)·부평(富平)·동성(童城)·통진(通津)·수안

240) 『태조실록』 제3권, 태조 2년 5월 4일(무신).

(守安)·김포(金浦)·덕수(德水) 등과 함께 경기우도에 소속되었다.²⁴¹⁾

교동절제사는 설치된 지 2년 만인 1395년(태조 4)에 만호겸지현사(萬戶兼知縣事)로 변경되고,²⁴²⁾ 1409년(태종 9)에는 경기좌·우도수군절제사(京畿左右道水軍節制使)에게 강화부사(江華府使)를 겸하게 하고, 경기우도도만호(京畿右道都萬戶 : 종3품)에게 교동현령(喬桐縣令)을 겸하게 하여²⁴³⁾, 조선초기 교동은 절제사나 도만호가 파견된 지역으로서 3품의 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1423년(세종 5)에는 경기좌도수군부만호를 정포수군부만호로 고치고 경기우도수군부만호를 교동수군부만호(喬桐水軍副萬戶)로 고쳐 부른다.²⁴⁴⁾

부만호는 1413년(태종 13)에 신설한 직제로 수군지휘관을 3품 이상은 만호, 4품은 부만호, 5품은 천호, 6품은 부천호로 구분하였다. 이후 교동현령을 1425년에는 ‘지교동현사’²⁴⁵⁾로, 1429년에는 ‘판교동현사’²⁴⁶⁾라고 하였다. ‘지교동현사’든 ‘판교동현사’든 모두 교동수군부만호가 또한 겸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교동에는 교동수군부만호만이 아니라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도 두게 되는데, 당시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의 진영은 교동현의 서쪽 응암량(鷹岩梁) 월곶진에 위

241) 『태조실록』 제6권, 태조 3년 6월 23일(신묘).

242)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 부평 도호부, 교동현.

243) 『태종실록』 제17권, 태종 9년 2월 22일(을미).

244) 『세종실록』 제21권, 세종 5년 7월 26일(갑진).

245) 『세종실록』 제30권, 세종 7년 12월 19일(갑신).

246) 『세종실록』 제46권, 세종 11년 11월 13일(을묘).

치하고 있었다.²⁴⁷⁾

교동에 위치한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 진영은 『경국대전』에서 확인된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에 의하면 종3품인 경기도의 수군첨절제사의 진을 월곶(月串)에 설치하였으며, 월곶진에서는 영종포(永宗浦)·초지량(草芝梁)·제물량(濟物梁)·정포(井浦)·교동량(喬桐梁)을 관할하며, 교동량영에는 종4품인 수군만호를 두어 현감이 겸직하게 하였다.

즉 교동에는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의 수영이 월곶진인 응암량에, 수군만호의 영은 지교동현사의 치소인 교동량에 두어 교동이 경기도 수군의 지휘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진망산 아래의 남산포로 알려진 포구에 고려와 송의 사신이 머물렀던 사신관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신당이 있었다. 이곳이 수군첨절제사진인 응암량이고, 조선후기에는 이곳에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하였다.²⁴⁸⁾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교동의 호수는 221호, 인구 562명, 군정은 시위군 6명, 선군(船軍) 195명에 장번(長番)수군이 249명이다.²⁴⁹⁾

그리고 강화의 호수는 2,445호, 인구 3,283명, 군정은 시위군 2명, 선군 195명, 장번수군이 279명이다. 교동은 강화에 비해 호수는 1/11,

247)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응암량은 교동도와 송가도(석모도)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지금의 교동읍성 남쪽 바다 가운데 철타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248) 이영호, 『교동도의 역사적 특징』, 『교동도』, 민속원, 2015. 41쪽.

249) 위와 같음.

인구는 거의 1/6이었지만 시위군은 4명이 더 많았고, 선군은 같았으며, 장변수군은 30명이 적을 뿐이었다. 장변군사는 겸사복이나 내금위와 같이 중앙의 특수한 병종에 일부만 존재하였다. 지방군으로서 장변군사가 주축이 되는 부대는 교동과 강화가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²⁵⁰⁾

교동의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의 수영과 수군만호의 영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될 때까지도 존속하였다.

월곶진 [현 남쪽 16리에 있다. 우도수군첨절제사영이 있는데, 소관은 정포(井浦) 교동량(喬桐梁)이다. 첨절제사 1명이 있다.] 교동량영 [수군 만호 1명이 있으며, 교동현감이 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교동현 관방

3) 경기 수군절도사영의 교동 이설

고려 말 왜구 침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수군이 재건되어 해도원수를 두었다가, 조선건국 초 해도수군을 경기수군으로 개편하고 삼남과 경기좌·우도에 수군도절제사를 두어 도별로 지휘하게 했다. 1420년(세종 2) 각 도 수군사령관의 직함을 수군도안무처치사로 고치고 그 관하에 수군도만호와 만호를 두는 정돈된 조직을 갖춘 뒤, 1466년(세조 12) 다시 고친 것이 수군절도사이다. 수군절도사는 경기도에 2명, 충청도 2

250) 임용한, 앞의 논문, 19쪽.

명, 경상도 2명, 전라도 3명, 황해도 1명, 강원도 1명, 영안도(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다.²⁵¹⁾

경기수군절도사는 1473년(성종 4) 6월에 설치되었으며,²⁵²⁾ 본영은 남양도호부 화랑진에 있었다. 그런데 화랑진에는 수군절도사 본영만이 아니라 좌도수군 첨절제사영이 있어 영종포·초지량·제물량을 관할하였다.²⁵³⁾

이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485년(성종 16) 10월 동부승지 안처량(安處良)은 경기수군절도사를 임시로 혁파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결국 같은 해 11월 경기수군절도사는 혁파되었다.²⁵⁴⁾

그런데 이후의 실록에는 경기수군절도사를 다시 설치하였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556년(명종 11)에 사간원이 경기수군절도사 김순고(金舜皐)를 체직시킬 것을 청하는 것으로 보아²⁵⁵⁾ 1485년 혁파 이후 1556년 이전 어느 때에 경기수군절도사가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국방정책이 남방의 왜구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던데 반하여 17세기 전반에는 북방의 만주족 위협을 의식하여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왜구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양의 화랑진에 설치된 경기수군절도

251)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252)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축.

25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남양도호부, 【관방】.

254) 『성종실록』 184·성종 16년 10월 갑진, 185권 성종 16년 11월 을해.

255)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1월 갑자.

사영은 선조대부터 강화나 교동으로 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⁵⁶⁾

“삼가 영의정 유성룡의 차자에서 논한 바를 보건대, ‘경기 좌·우·중 삼로의 각처에 있는 산성을 수축하고 경영해서 점차 완성하여 서울 방어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오늘의 급무이다. 또 경기의 수영(水營)이 남양에 있어서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므로 위급한 일이 닥치면 제때에 전진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수사(水使)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가 높아지기 전에 강화·덕포 등지로 가서 교동과 강화의 수로군(水路軍)을 모두 주사(舟師)에 소속시켜 농한기에 수전(水戰)을 연습시켰다가 유사시에는 그들을 거느리고 책임지게 하며, 수영에 소속된 여주(驪州)·지평(砥平) 등 먼 고을의 수군은 제번(除番)시켜 파사성(婆婆城)에 소속되게 하여 상류 쪽을 방비하게 하는 것이 피차에 편리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자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궁벽한 곳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적을 제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며 수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청·전라·경상도 등에 진관 속오법을 거듭 밝혀 영(營)을 세워 조련시키고 서로 형세를 연결하여 협력해서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곧 보장의 대계(大計)이니, 당도(當道)의 도체찰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²⁵⁷⁾

256)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기해.

257)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9일 기해.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을 당하여 인조는 강화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교동은 강화와 더불어 유사시 국왕의 이어(移御)를 대비하여 방어적 중요성이 조선초기에 비해 더욱 부각되었다.

1629년(인조 7) 비변사에서는 “화량은 한쪽에 외파로 있어서 수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교동은 연안(延安)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그 곳에 수영을 설치하면 강화도와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며 교동으로 수영을 옮기자고 건의하였다. 비변사의 요청에 의해 인조는 교동현(종6품)을 교동도호부(종3품)로 승격시키고, 변흘(邊滄)을 경기수군절도사로 삼아 교동도호부사를 겸직하게 하여 군정과 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²⁵⁸⁾ 남양 화량진의 수영을 교동 월곶진으로 옮기고, 교동의 월곶진은 강화로 이설하였다.²⁵⁹⁾ 남양에 있던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옮긴 것은 도성 방비의 인후인 강화도 외곽의 방어를 위함이었다. 당시 수군절도사겸도호부사로 교동에 부임한 인물로는 변흘(재임기간 : 1629년 3월~1630년 3월)과 안영남(安穎男, 1630년 10월~1630년 12월) 2명이 찾아진다.²⁶⁰⁾

1632년(인조 10)에는 지중추부사 정응성(鄭應聖)이 경기수사에게 황해도·충청도의 수군까지 통제하도록 하는 삼도구군통어사의 직임을

258) 『인조실록』 제20권, 인조 7년 2월 13일(기해).

259) 『여지도서』 교동, 건치연혁.

260)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교동군읍지』, 인천역사문화총서 27에 기재된 1899년 『교동군읍지』(장서각, K2-4218) 환적(官蹟).

부여할 것을 건의하였다.

“강도는 바로 서울의 피난처입니다. 만약 오랑캐가 곧장 몰아쳐오는 환난이 있을 경우, 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무슨 계책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예전 규례에 의하여 다시 경강(京江)의 주사(舟師)를 두어 한 무장(武將)을 정하여 정돈해서 변란에 대비하게 한다면, 반드시 급할 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수사를 통어사로 호칭하여 공청(公淸)·황해의 주사들까지 통제하도록 한다면, 서로 의지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⁶¹⁾

다음해인 1633년(인조 11)에는 교동이 강화와 순망치한의 관계가 있는 중요지역이기에 교동의 경기수군절도사로 하여금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경기, 황해, 충청도 통어사)를 겸하게 하여 황해도와 충청도의 병권을 관할하였으며, 연해의 각 진에서는 황당선(荒唐船)의 출몰을 살펴 보고하게 하였다.²⁶²⁾

『대동지지(大東地志)』 영아(營衙)에 “통어영은 곧 경기 수영이며 읍성에 있다.”고 하여 통어사의 치소가 교동읍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9년의 기록인 『교동군읍지』 선생안에 의하면 경기수군절도사겸 삼도통어사도호부사로 교동에 처음 부임한 인물은 최진립(崔震立)으로 그는 1631년 1월에 부임하여 1633년 이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261) 『인조실록』 27권, 10년 9월 갑인.

262) 『여지도서』 교동, 건치연혁.



『교동수영도(喬桐水營圖)』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으로는 이방일(李邦一)이 1777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동의 경기수군절도사가 삼도통어사를 겸하게 된 것이 『여지도서』에는 1633년이라 하고 있으나, 『교동군읍지』에는 163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조실록』에는 1631년(인조 9) 1월 17일(신묘)에 인조가 경상감사 조희일과 경기수사 최진립을 인견하여 양전법과 무략을 진흥시키는 일, 교동의 포구 파는 일을 논한 것으로 보아, 이는 최진립이 경기수군절도사로 재직 중 1633년 교동에 삼도통어사영이 설치되면서 경기수군절도사겸삼도통어사도호부사로 임명된 것이라 하겠다.

교동의 통어영의 군세는 전선(戰船) 3척, 귀선(거북선) 1척, 병선(전선 또는 방패선의 보조적인 무장선) 4척, 사후선(伺候船 : 본진보다 앞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알리는 배) 8척과 수군 580호를 보유하였다.²⁶³⁾

교동에 설치된 통어사영은 이후 강화로 옮겨지기도 하고 다시 교동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즉, 1659년에는 삼도통어사를 강화로 이속시켜 강화부사겸방어사로 하였고,²⁶⁴⁾ 1669년(현종 10)에는 비변사에서 계를 올려 “강도(江都)는 수군을 사용할 곳이 못되고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피란의 도구 밖에 못 된다.”²⁶⁵⁾고 하여, 교동에 다시 통어사를 두게 되었다.

1746년에는 통어사를 재차 강화로 이속시켜 수군절도사겸부사로 하였고 1754년에는 통어사를 다시 교동에 설치하였다. 1762년 6월에 통어사를 또 강화로 이속시켰고, 같은 해 8월 또다시 통어사를 교동에 두었다.²⁶⁶⁾

교동의 수군절도사영의 규모는 1760년경 편찬된 『여지도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통어사는 무신 2품으로 2년마다 교체된다. 통어사 아래에는 비장(裨將 : 통어사의 막료) 5명, 기고관(旗鼓官) 4명, 속오파총(東伍把總) 2명, 초관(哨官) 5명, 선장(船將) 7명, 기패관(旗牌官) 25명, 포도관(捕盜官) 15명, 좌·우선봉장(左右先鋒將) 2명, 병선감관(兵船監官)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4명, 수성파총(守城把總) 1명, 초관 4명, 집사

263)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23쪽.

264) 위와 같음.

265) 『현종실록』 제16권, 현종 10년 3월 3일(병신).

266) 『여지도서』 간치연혁조.

(執事) 3명, 가솔군관(假率軍官) 26명, 별초군관(別抄軍官) 25명, 토포군관(討捕軍官) 25명, 도훈도(都訓導) 6명, 영리(營吏) 5명, 진무(鎭撫) 19명, 지인(知印) 7명, 영노(營奴) 1명, 영비(營婢) 1명, 군뢰(軍牢) 23명, 순령수(巡令手) 20명이 있다. 중군(中軍)은 1명으로 무신 3품이다. 중영군관(中營軍官) 28명, 서기(書記) 6명, 군뢰 20명이 있다.

절도사영의 관하변장(管下邊將)은 통진의 덕포첨사(德浦僉使)·남양의 화랑첨사·강화의 주문(注文)첨사·인천의 덕적첨사·강화의 장봉만호(長峰萬戶)이다.

교동 수군절도영 진영 별 소속 군병

진영	소속 군병
수군절도영	1천 6백 61명이다. 그 중 7백 76명은 교동에 있고, 2백 16명은 경기도의 각 고을에 있고, 6백 69명은 황해도 각 고을에 있다. 육군(陸軍) 7백 50명은 교동에 있다.
속오군	1천 1백 48명이다. 그 중 교사(敎師) 1명, 별파진(別破陣) 4명, 사수(射手) 1백 80명, 포수(砲手) 1백 59명, 격군(格軍) 3백 63명, 능노(能櫓) 97명, 타공(舵工) 20명 등은 교동부의 수군과 육군으로 하여금 겸하게 해서 각각 총당한다. 잡색군(雜色軍) 2백 54명, 사후군(伺候軍) 70명은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으로 액수를 채운다.
덕포진	수군 4백 27명은 통진(通津) 등 각 고을에 있다. 군병소령초관(所領哨官) 3명, 기고관 2명, 기패관 2명, 포도관(捕盜官) 2명, 군기 감관 1명, 교사(敎師) 2명, 사수 37명, 포수 36명, 격군 67명, 타공 13명, 잡색군 47명 등 합계 2백 12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나눈다.
화랑진	수군 6백 40명은 남양에 있다. 군병소령초관 3명, 기고관 1명, 기패관 1명, 포도관 2명, 군기감관 1명, 교사 2명, 사수 41명, 포수 43명, 격군 87명, 타공 12명, 잡색군 28명 합계 2백 21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나눈다.

진영	소속군병
주문진	수군 5백 67명은 풍덕(豊德) 등 각 고을에 있다. 군병소령초관 3명, 기고관 2명, 기패관 2명, 포도관 2명, 군기감관 1명, 교사 2명, 사수 48명, 포수 48명, 격군 86명, 타공 16명, 잡색군 44명 합계 2백 54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나눈다.
덕적진	수군 2백 18명은 남양 등 각 고을에 있다. 군병소령초관 4명, 기고관 1명, 기패관 1명, 포도관 1명, 군기감관 1명, 교사 1명, 사수 24명, 포수 26명, 격군 46명, 타공 9명, 잡색군 39명 합계 1백 53명은 덕적진에 소속된 섬사람들로 대오를 나눈다.
장봉진	수군 4백 70명은 파주(坡州) 등 각 고을에 있다. 군병소령초관 4명, 기고관 1명, 기패관 3명, 포도관 3명, 군기감관 1명, 교사 3명, 사수 47명, 포수 44명, 격군 78명, 타공 15명, 잡색군 36명 합계 2백 35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나눈다.

교동 수군절도영 진영별 전선(戰船)

진영	전선
수군절도영	전선(戰船) 2척, 거북선 1척, 방선(防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8척, 급수선(汲水船) 3척.
덕포진	방선 2척, 병선 1척, 사후선 3척.
화랑진	전선 1척, 방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1척, 급수선 1척.
주문진	전선 1척, 방선 1척, 거도선(艍舠船) 1척, 복물선(卜物船) 1척, 사후선 2척, 급수선 2척.
덕적진	방선 1척, 병선 1척, 보경선(報驚船) 2척, 사후선 2척, 급수선 1척.
장봉진	방선 3척, 거도선 1척, 사후선 1척, 급수선 1척.

출처 : 『여지도서』 강도부, 교동, 수군절도영

1775년(영조 51)에는 강화유수 이휘지(李徽之)가, 강화유수직을 역임하였던 판서 김진규(金鎭圭)의 진소(陳疏)의 내용 중 “기보(畿輔) 때문에 수사(水師)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었지만, 만약 설치한다면 마땅히 이곳(강화)을 버리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중략) 수사가 겸하는 통어사를 옮겨 본부(강화)에 소속시켜 진무사와 아울러 겸하게 하고, 교동·영종 및 전에 관장하던 통풍(通豊) 등 여러 고을에서 모두 절제(節制)를 받아 수륙(水陸)으로 서로 응하면서 서로 방수(防守)에 힘을 다하게 한다면 거의 소홀의 실수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라 말한 것을 인용하여, 강화에 통어사를 옮겨야 됨을 상소하였다.²⁶⁷⁾ 그러나 교동의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자는 건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통어영이 강화로 옮겨지는 것은 1779년(정조 3)이다. 이때 정조는 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기 전에 신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강화에 합치자는 의견과 교동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으로 대별된다.

1778년에 번고어사(反庫御史) 심염조(沈念祖)는 “…… 교동을 바라보니 탄환(彈丸)만한 작은 섬이 깊은 바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실로 삼도를 통어할 수 있는 형세가 없었습니다. …… 전후의 사세를 통하여 상세히 헤아려 보건대 통어영을 본부(本府 : 강화)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계책인 것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혹 화량에다 하기

267) 『영조실록』 제124권, 영조 51년 1월 23일(신미).

도 하고 혹은 교동에다 하기도 하여 이미 정해진 법제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법규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라 하여 지리적인 이유를 들어 통어영을 강화에 두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심언조와 같은 의견은 영돈녕부사 정존겸(鄭存謙)·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우참찬 김종수(金鍾秀)·부사직(副司直) 이보행(李普行)·대사성 유당(柳戇) 등으로 이들은 통어영을 강도로 옮기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교동의 영(營)의 상황이 비록 잔악하여 믿을 만한 것이 없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성곽도 있고 수군도 있습니다. (중략) 교동의 수영을 해서(海西)에 있는 수영과 똑같이 일컫다가 이제 갑자기 혁파한다면 한쪽 팔을 제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 하여 통어영을 그대로 교동에 두기를 말하고 있고, 이에 찬성한 인물은 영중추부사 이은(李潏)으로 경기수사를 그대로 교동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의정 정홍순(鄭弘淳)은 통어사를 강화로 옮기되, 교동에는 수군절도사를 그대로 두자고 하여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위 논의에서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자는 의견이 6명, 교동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2명, 절충안이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조는 “강도에는 삼도의 수군을 통괄할 수 있는 통어사를 두고 남한산성에는 이보(二輔)의 육군을 영솔하는 수어부(守禦府)를 개

설하는 것이 어찌 사리에 있어 떳떳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해에 정조는 구선복을 순심사(巡審使)로 삼아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게 하였는데, 구선복이 “강도는 곧 하늘이 만들어 준 곳이고 교동은 서울의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 통어영을 강도에 설치하고 겸하여 수륙(水陸)을 영유(領有)하게 하면 이는 실로 해문(海門)에 장성(長城)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교동에는 그대로 수사를 두어 강도를 호위하게 한다면 또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강도에 통어영을 설치하는 것은 대개 수륙의 군대를 겸하여 통솔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동에다 또 수영을 설치하는 것은 변통시키는 본뜻이 아닙니다. 비록 방어사(防禦使)를 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두는 것만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강화유수에게 경기수사와 삼도통어사를 겸임시켜 수군·육군을 통령하게 하고 교동현감을 부사(府使)로 승격시켜 방어사를 겸하게 한 다음 안흥진(安興鎭)을 수사의 행영(行營)으로 삼았다.²⁶⁸⁾ 즉 강화에는 경기수사 겸 통어사가, 교동에는 도호부사 겸 방어사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1781년(정조 5)에는 경기관찰사 이형규(李亨逵)가 상소하여

268) 『정조실록』 제7권, 정조 3년 3월 8일(임진).

교동에 전처럼 그대로 수사를 두기를 청하였으나²⁶⁹⁾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²⁷⁰⁾ 이후 교동은 수군방어사겸도호부사가 관장을 하게 되었다. 『교동군읍지』 환적조(1899년)에 의하면 당시 수군방어사겸도호부사는 홍수보(洪秀輔, 재임기간 1777년 8월~1778년 12월)로부터 임률(任崐, 1786년 3월~1788년 4월)에 이르고 있다.

강화의 통어영은 1788년(정조 12)에 다시 교동에 옮겨진다. 강화 유수 송재경(宋載經)이 “교동은 바로 삼남의 요충인데, 통어영을 강도로 이설(移設)한 뒤부터 간섭으로 구애되는 일이 많아 항구가 육지로 변하여 선박을 숨겨두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어사를 도로 교동에 소속시켜 단지 진무사(鎭撫使)의 절제(節制)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²⁷¹⁾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1789년 5월 교동에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도호부사를 재설치하였으며²⁷²⁾ 교동에 속한 영종·덕포·덕적·화양·주문·장봉 본영 및 각 진(鎭)은 전선 60척씩을 보유하게 되었다.²⁷³⁾ 그런데 1700년(숙종 26) 강화도에 설치된 진무영(鎭撫營)이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이후 외국 선박의 침입이 빈번하자 진무영은 국방상 중요한 군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진무영을 정2품아문으로 격상시키고 삼도수군통어사를 소속시

269) 『정조실록』 제12권, 정조 5년 12월 9일(정축).

270) 『정조실록』 제12권, 정조 5년 12월 15일(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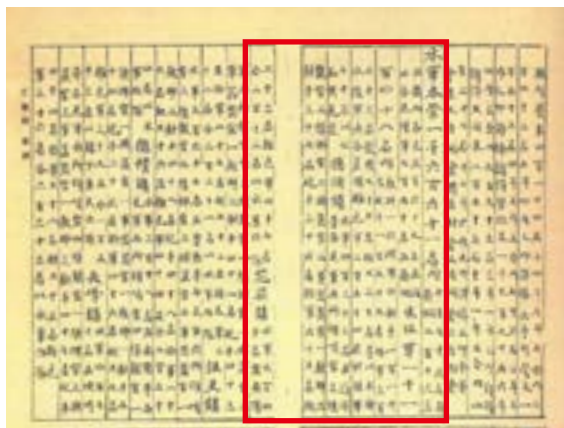
271) 『정조실록』 제25권, 정조 12년 2월 25일(무오).

272) 『정조실록』 제27권, 정조 13년 5월 26일(임오).

273) 『대동지지』 관원.

키고 강화유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교동을 방어영으로 감하(減下)시켰으며,²⁷⁴⁾ 영종을 좌방어사로, 교동을 우방어사로 하였다.²⁷⁵⁾ 우방어영인 교동부에는 포병 100인을 가설(加設)하였다.²⁷⁶⁾

그러나 교동의 방어영은 또 다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874년(고종 11)에는 교동수사로 하여금 삼도 통어사를 겸임하게 하였고,²⁷⁷⁾ 1884년(고종 21)에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이 “교동은 외딴 섬에 위치해 있어서 통어사의 명칭은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데다가 또 해방영(海防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체제가 서로 모순됩니다. 수군절제사가 때에 따라 바뀐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닌 만큼, 참작하여 변통하



『여지도서』 교동의 수군본영(수군본영)

274) 『고종실록』 제3권, 고종 3년 10월 30일(음묘).

275) 『고종실록』 제4권, 고종 4년 4월 15일(무술).

276) 『고종실록』 제8권, 고종 8년 1월 25일(음묘).

277) 『고종실록』 제11권, 고종 11년 8월 4일(갑술).

는 것이 때와 형편에 알맞을 것입니다.”라고 상소²⁷⁸⁾하여 결국 해방아문의 군무개정 때 다시 방어사로 격하된다.²⁷⁹⁾

1899년 편찬된 『교동군읍지』 군액(軍額)에 의하면 당시 교동에는 좌우별무사 402명, 병대 100명, 수군 1,661명, 육군 752명, 속오군 1,169명, 봉(수)군 52명으로 『여지도서』의 군인 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전선은 귀선 1척, 전선 2척, 방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8척, 급수선 3척으로 대소 전함이 도합 19척이다. 이 또한 『여지도서』와 같다. 교동은 통어영이었다가 방어영으로 감하되었지만 군인 수나 전선 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어영이었던 방어영이었던 군사적 중요 지역이었음은 변화가 없었다.

278) 『고종실록』 제21권, 고종 21년 4월 14일(무오).

279) 『고종실록』 제21권, 고종 21년 4월 21일(을축).

10. 교동의 관방유적

관방이란 『만기요람』 군정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험난한 곳에 설치하여 굳게 방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관방유적은 국경의 방비를 위하여 내륙이나 해안 또는 섬에 설치하는 보(堡)나 진(鎭), 목책(木柵) 또는 수책(水柵), 포(浦) 또는 포영(浦營), 행영(行營), 성(城) 등의 요새 시설이다. 대체로 성벽(城壁)과 군창(軍倉), 또는 봉수(烽燧)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수가 성곽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방유적은 성곽(城郭)과 봉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관방에는 당시의 관방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7개소, 충청도 12개소, 전라도 28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 교동현 건치연혁

제주도 27개소, 경상도 36개소, 강원도 5개소, 함경도 58개소, 평안도 50개소, 황해도 13개소 등 모두 236곳에 이른다. 관방시설이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던 북계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에도 많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동의 관방유적은 화개산성·고구리 고읍성·교동읍성 등 성곽 유적, 월곶진·교동랑영 등의 진과 영, 화개산봉수·수정산봉수·진망산봉수 등 봉수 유적 등이 있다.

1) 성곽

(1) 화개산성

교동면 고구리 산 145임, 산 145-2임, 산 189임 일대에 위치한 강화군 향토유적 제30호이다. 교동도에서 제일 높은 화개산(해발 259m) 정상부부터 북쪽으로 축도된 총 길이 2,096m²⁸⁰⁾에 이르는 내·외성을 갖춘 포곡식 산성이며, ‘고구리산성’으로도 불린다. 화개산 북쪽으로는 고구리 저수지와 고구리 고읍성이 내려다보이며 시계(視界)가 좋으면 황해도 지방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화개산 동쪽으로는 강화도의 별립산

280) 2007년 강화군청과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강화 교동읍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2,168m로 되어 있다.



화개산성(『신편강화사』)



화개(고구려)산성(강화군 홈페이지)

과 봉천산, 남쪽과 서쪽으로는 삼산면 대부분의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화개산성은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⁸¹⁾

화개산성은 삼국시대의 관미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관미성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당시 남하정책을 추구하던 고구려는 391년(광개토왕 1) 7월에 백제의 석현(石峴) 등 10성을 빼앗고 이어 10월에는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를 7도로 나누어 관미성을 공격하여 20일 만에 함락시켰다.²⁸²⁾ 이에 백제도 곧 반격을 시도하여 393년(아신왕 2) 8월에 백제장군 진무(眞武)가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관미성의 탈환 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광개토왕릉비에 396년(영락 6)에 광개토왕에 의하여 정벌된 백제의

281)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 『교동 역사문화유적 학술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8, 21쪽.

282) 『삼국사기』 권18, 高句麗本紀 제6, 광개토왕. “冬十月, 攻陷百濟關瀾城.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撃二十日, 乃拔.”

성 중에 관미성이 보여 양자가 같은 곳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²⁸³⁾ 비문의 이 부분은 과거에 ‘각미성(閣彌城)’으로 읽어 왔던 것인데 역시 ‘관미성(關彌城)’의 같은 이름이면서 표기는 달리 보기도 했다.²⁸⁴⁾ 양자를 같은 곳으로 볼 경우 『삼국사기』에는 391년에 정별한 것으로, 비문에는 396년에 정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 기록 간에 시간적 불일치를 보이는데 이는 비문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며 쓰여졌을 것임을 생각할 때 백제 방면의 정별이 일단락된 396년에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관미성의 현재 위치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동도(喬桐島)설(이병도), 개성(開城)부근설(武田行男), 파주군 교하면 오두산성(交河面 烏頭山城)설(윤일녕, 「관미성위치고」) 등이 있다.²⁸⁵⁾

‘화개산성’ 또는 ‘화개산 석성’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에서 찾아진다.

283)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동경, 1989, 171쪽.

28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79쪽.

28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주 83.

화개산 석성(華蓋山石城)은 현 남쪽 7리에 있다. 둘레가 1천 5백 65보이며, 안에 못[池]이 1개, 샘[泉]이 1개 있다.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부평 도호부, 교동현

화개산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는 3,534척이고, 높이는 18척이다. 그 안에 못[池]이 하나, 샘 하나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3권, 경기, 교동현, 성곽



『신증동국여지승람』 교동현 관방 관련 기록

화개산성은 돌로 축성되었으며 둘레는 3,534척 이내이다. 하나의 연못과 하나의 샘이 있으며, 군창이 있다.

『동국여지지』 교동현, 성곽

화개산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34척이고, 높이는 3장이다. 성안에 한 개의 연못과 한 개의 샘이 있다. 영조 4년 정사년에 고쳐 쌓았다. 군창(軍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여지도서』 강도부, 교동, 성지(城池)

화개산성은 옛 현감이 있을 때 쌓았다. 신묘년 10월 지현인 이여양이 무너져 내린 성 바깥으로 현의 읍을 옮겼다. 지금은 단지 성 안쪽에 터만 남아있고 성 안에는 2대의 큰 우물이 남아있다.

『교동군읍지』 성지(城池)(1899년)

을묘년에 왜구의 난(1555년 을묘왜변)을 당하여, 지현사를 무관으로 바꾸어 줄 것을 계청하였다. 지현사 최제운이 이 해에 화개산성을 더하여 쌓고, 산성 안에 군랑고를 두었다. (중략) 신묘년 10월에 지현사 이여양이 산성을 철거하고 읍을 둘러싸는 외성(外城)을 쌓았다.

『교동군읍지』 고적(1899년)

이상에서 화개산성은 석성이며, 성 안에 하나의 연못과 하나의 샘 그리고 군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91년(선조 24)에 이여양(李汝讓)이 무너진 화개산성을 철거하여 성 바깥으로 현을 옮기고 읍성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1737년(영조 13)²⁸⁶⁾에 개축하여 군창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경기 수사 유비연(柳斐然)이 장계하기를, “수영(水營) 북쪽 5리에 화개산성의 옛 터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산성을 수축한다면 본도(本島)의 보장(保障)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본 고을의 남정(男丁)이 수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도(島) 군민(軍民)들이 경오년과 신미년에 바칠 조곡(糶穀)이 1천 3백여 석이니, 만일 역사에 나온 날수를 계산하여 바치지 못한 수량을 감한다면, 수만 명이 하루 역사에 나온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公私) 양쪽 다 편리하겠습니다.”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그대로 시행했다.²⁸⁷⁾

지현사 최제운이 화개산성을 더하여 쌓은 시기는 1555년인 듯하다. 2007년에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강화도의 국방유적』 165쪽에는 『전국유적총람』 상 333쪽을 전거로 하여 “명종 10년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지현 최제운이 증축하고 성에 군랑고를 두었으

286) 『여지도서』에는 영조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정사년은 영조 13년이 된다.

287) 『속중실록』 6권, 3년 2월 1일(무신). “朔戊申/京畿水使柳斐然啓言: “水營北五里, 有華蓋山城舊基. 若築山城, 則可爲本島保障, 而本邑男丁不過數千, 難以修築. 一島軍民等, 庚辛未納糶穀一千三百餘石, 若以立役日數, 計減其未納之數, 則可直數萬人一日之役, 公私兩便.” 備局覆奏, 依施.”

며”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1677년(숙종3)에도 수축하였음이 보인다.

이렇듯 화개산성의 축조시기는 기록이 있지만 초축시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2018년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기 보고된 패총뿐만 아니라 약수터에서 교동면사무소로 향하는 등산로 주변과 ‘대룡리 산 82임’ 일대의 북쪽 완사면, 교동 봉수대에서 서쪽의 좁은 등산로를 따라서도 삼국시대 토기편과 패각이 일부 확인되었다.”²⁸⁸⁾고 하였다. 또 “더욱이 자연지형이 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점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패각이 확인되는 것은 당시 이곳에 산성과 같은 방어시설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하여 화개산성의 초축시기를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화개산성의 내성에서 망루로 추정되는 석축과 서암문으로 생각되는 문지를 확인하였으며, 외성의 북벽 중앙부로 추정되는 해병대 유격훈련장 부근에 군량고[軍倉]와 같은 성내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고구리 고읍성

읍내리로 교동 수령의 치소가 옮겨지기 전까지 교동의 현청은 고구리에 위치하였다. 고읍성에 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288)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 『교동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8, 25~26쪽.

고읍성(古邑城)이 교동현 치소(읍내리 치소를 말함)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유지(遺址)가 있다.

『여도비지(輿圖備志)』 성지(城池)(1856년)

화개산성은 옛 현감이 있을 때 쌓았다. 신묘년 10월 지현인 이여양이 무너져
내린 성 바깥으로 현의 읍을 옮겼다.

1899년 『교동군읍지』 성지(城池)(1899년)

신묘년 10월에 지현사 이여양이 (화개)산성을 철거하고 읍을 둘러싸는 외성
(外城)을 쌓았다.

『교동군읍지』 고적(1899년)

이상에서 고읍성은 1591년 지현 이여양이 무너진 화개산성을 철거함
과 동시에 현의 읍치를 현재의 고구리로 옮기면서 현의 외성으로 쌓았
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교동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고읍성의 동·서·북벽은 잔존해 있으며, 둘째 물푸레나무가 위치한
고구리 일대가 관아지일 것으로 추정되고, 셋째 고읍성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또는 방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⁹⁾

289) 위와 같음, 30쪽.

(3) 교동읍성

교동읍성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46대, 267-1대, 276전, 282전 일대에 위치한다. 교동읍성을 기록한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동읍성

읍성(邑城) 둘레는 1천 6척이고, 높이는 3장이다. 동문·남문·북문 세 문을 설치했는데 모두 1층 누각이고, 옆에는 곡성(曲城)이 있으며 4곳에 웅성(甕城)이 있다. 읍성을 쌓은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지금은 없는데, 월곶(月串)에 진(鎭)을 설치할 때 쌓았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여지도서』(1760년 경)

읍성은 현재 읍이 들어선 주위로 8리를 두르고 있는데 단지 그 터에 동·남·북의 3문만이 남아 있다.

『교동부읍지』(1842년)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는 1,006척이다. 곡성이 셋, 치성이 넷, 성문이 넷이다. 우물이 하나이다.

『여도비지』(1856년)

읍성 둘레가 1천 6척인데, 웅성이 셋이고 치성이 넷이며, 동·남·북 3문과 소남문이 있다.

『대동지지』(1863년)

읍성의 둘레는 1,006척이고 높이는 18척이며 동·남·북 3문이 있다.

『교동군읍지』 성지(1899년)

읍성의 둘레는 1,006척이고 동·남·북 3개의 문이 있다. 수영을 설치할 때 쌓았다가 다시 없었다. 계유년에 통어사 백동원(白東遠)이 수리해서 쌓았으나 치첩(성위에 쌓은 작은 담)은 없었다. 갑신년에 통어사 이교복(李敎復)이 성의 문루와 치첩을 포함해서 전체를 쌓았다. 남문은 방어사 백낙륜(白樂倫)이 같은 해 증건하였다. 호지(壕池 : 해자)는 오래되어 구덩이가 되었다. 동북쪽 두 개 문은 오랫동안 무너졌으나 다시 세우지 않았다.

『교동부읍지』(1871년)

(중략) 전 수사 이공(李公 : 이교복)이 관아와 곳간을 보수하였으나 삼문의 문루를 살펴보건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져 버렸으니, 이에 방영의 재목을 모았다. (중략) 내가 진실로 기뻐하며 갓옷과 띠를 풀고 이 누에 올라 화개산의 구름과 노을을 바라보니 (중략) 높은 명성과 절개는 장차 이 누각과 더불어 천세 동안 백장의 높이로 비탈져 오랫동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중략)

경인년(1890) 양월(10월) 상순 여흥 민창호 찬.

『교동군읍지』 제영(1899년), 통삼루중수기

구(舊) 교동읍성 둘레는 4정(町) 26칸 4척이고 높이는 18척이요, 동·남·북에 삼문을 두고 영을 설치할 때 쌓은 것이다. 영조 계유년에 통어사 백동원이 치첩을 수리하여 쌓았다. 그 후 갑신년에 이교복이 성의 문루와 치첩을 포함해서 전체를 쌓다가 교체되어 돌아가 역사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방어사 백낙륜이 같은 해에 남문을 중건하고 동·북 두 문은 영영 없애 버리고 세우지 않았다. 남문의 해자도 또한 빈 구덩이가 되었다. 그 동문의 문루를 이르러 통삼루(統三樓)라 하고 남문 유량루(庾亮樓) 북문을 공북루(拱北樓)라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1932년)

① 교동읍성의 초축과 수축

『여지도서』 성지(城池)에 “읍성을 쌓은 시기는 근거할 수 있는 문서가 현재 없어 알 수 없으나 월곶진의 설치 때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여 경기수영의 설치 때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월곶진의 설치시기 역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단언할 수 없다. 다만 15세기 초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의 진영을 교동현의 서쪽 응암량(鷹岩梁) 월곶진에 두었던 것으로 보아 월곶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곶진의 군세는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경기에 잘 언급되어 있다. 월곶진에서는 영종포·초지량·제물량·정포·교동량을 관할하며, 교동량 영에는 종4품인 수군만호를 두어 현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3층으로 된 큰 전투선인 대맹선(大猛船)은 영종포에 1척과 월곶에 3척을 두었다. 중간 크기의 중맹선(中猛船)은 월곶에 6척, 정포에 3척, 영종포에 2척, 초지량과 제물량에 각각 1척 씩을 두었다. 소맹선(小猛船)은 초지량에 3척, 영종포·월곶·정포에 각각 2척씩, 제물량에 1척을 두었다. 그리고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용으로 비치해 두었던 군선인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의 경우, 정포에 2척, 영종포·초지량·제물량·월곶에 각각 1척을 두었다. 월곶에는 대맹선 3척, 중맹선 6척, 소맹선 2척, 무군소맹선 1척 총 12척을 두었다. 위와 같은 규모는 무기의 보관과 선박의 수리 그리고 수군의 거주 등의 진영(鎭營)시설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1629년 교동을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경기 수영을 남양부 화랑에서 읍내리의 월곶진으로 이설한다. 이때 교동도호부사는 예전 고구리에 있던 치소를 읍내리로 옮기면서 읍내리 치소를 보호할 수 있는 읍성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지도서』의 “월곶진의 설치 때 쌓았다.”라는 기록은 “경기수영이 월곶진으로 옮겨올 때 교동읍성을 쌓았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인후가 강화이고 강화와 순치의 관계에 있는 지역이 교동이다. 교동과 강화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그 방어기능은 매우 중대하다. 이 때문에 교동에 설치했던 통어영이 강화로 옮겨갔다 다시 교동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동읍성은 중요 방어시설로 계속 인식되었다.

1629년 쌓은 읍성의 치첩은 뒤에 통어사 백동원이 수리하여 쌓았다. 치첩을 수리한 시기를 『교동군읍지』(1899)년에는 ‘계유년’이라 하였고 『속수증보강도지』에는 ‘영조 계유년’이라 하였다. 영조 계유년은 1753년이다. 그런데 1746년에는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시켜 수군절도사겸부사로 하였고 1754년에야 통어사를 다시 교동에 설치하였다. 즉 1753년 교동은 통어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었다. 『교동군읍지』 선생안(1899년)에 의하면 백동원은 1802년 7월에 수군절도사겸삼도통어사도호부사로 부임하여 1804년 5월에 이임한 기록이 보인다. 백동원이 재임하고 있던 1803년의 간지는 계해년이다. 그러므로 『교동군읍지』

와 『속수증보강도지』의 ‘계유년’은 오기이다.

1884년에는 이교복(1883년 1월 부임~1884년 5월 이임)이 성의 문루와 치첩을 포함해서 전체를 쌓다가 교체되어 돌아가 역사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방어사 백낙륜(1884년 5월 부임~1885년 12월 이임)²⁹⁰⁾이 통삼루를 중수하였다.²⁹¹⁾

② 교동읍성의 규모

지리지와 읍지에서는 읍성의 둘레를 1,006척, 또는 8리, 또는 4정(町) 26칸 4척이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0년 강화군·육군박물관의 조사는 읍성의 둘레를 779m로, 2007년 강화군청·인하대박물관의 조사는 읍성의 장축이 340m이고 단축이 17m이며 총 길이 856m, 2018년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 보고서는 870m로 보고 있다.

지리지와 읍지에서는 읍성이 높이를 3장 또는 18척으로 기록하였다. 2007년 보고서에는 “높이는 3.6m인데 기존의 6m라는 보고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였다.

교동읍성의 문은 넷인데 동·남·북문과 소남문이고 단층으로 문루가 있다. 1884년 백낙륜이 남문만 남기고 나머지 문은 없애버렸다. 남문은 『문화유적총람』에 따르면 1975년에 해체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²⁹²⁾

290) 이상의 부임과 이임은 『교동군읍지』 선생안(1899년).

291) 『교동군읍지』 제영, 통상루중수기(1899).

292) 강화군청·인하대학교박물관 보고서 (2007년). 64쪽.

문 옆에는 문을 방어하기 위한 곡성 또는 옹성이 둘러져 있었고 사방에 치첩이 있었으나 백낙륜이 남문만 수축할 때 모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 봉수

조선시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는 봉수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외침과 같은 국경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정부 또는 이웃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방 주민에게도 알려져 신속하게 대응토록 함에 의도가 있었다. 즉 봉수로는 국가의 신경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역로와 함께 군사행정상의 의미를 지니면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게 하였다. 봉수제는 변경에서 중앙으로 급보를 전달하는 상향식에 그 특징이 있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1거(炬),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接戰)하면 5거를 올린다. 서울에서는 사직(司直)·사과(司果)·사정(司正)·사맹(司猛)·사용(司勇) 등 5원(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 지방의 모든 봉수의 귀착점은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남산)이다. 서울의 목멱산 봉수대는 동쪽으로 제1대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양주(楊州) 아차산의 봉수를 받고, 제2대가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의 천천령의 봉수를 받으며, 제3대가 평안도의 육로에서 오는 무악산 동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고, 제4대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해로에

서 오는 무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으며, 제5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의 봉수를 받는다. 병조에서는 사람을 정하여 목맥산 봉수의 망을 보게 해서 이튿날 이른 새벽에 봉수와 관련된 일을 승정원에 알려 임금에게 아뢰는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비록 밤일 지라도 즉시 알려야 한다. 목맥산 봉수대 5곳에는 각기 군사 4인과 오장 2인을 두고 해변과 변경지방에는 각 곳마다 군사 10인과 오장 2인을 두며 내륙지방에는 군사 6인과 오장 2인을 둔다. 군사 및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혹시 구름이 끼어 어두우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로 신호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대로 달려가서 보고하도록 한다. 봉군은 다른 신역을 질 수가 없으며, 부지런하고 재간있는 품관 각 4인으로 특별히 감고(監考)를 정하여 2교대로 나누어 밤낮으로 봉수를 올리는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혹시 연화(煙火)가 끊어진 곳이 있으면 수령(守令)은 장(杖) 80에 처하고 감고는 장 100에 처하며 색리(色吏)와 봉군은 장 100에다 극변으로 충군(充軍)한다. 적이 이른 곳에서 연화로 알리지 아니한 봉졸(烽卒)은 참형에 처한다.²⁹³⁾

목맥산에 들어가는 교동의 봉수는 5거이다. 제5거는 순천의 방답진(防踏鎭)에서 처음 피어오른 후 남해안을 서쪽으로 돌아 진도 여귀산(女貴山) 봉수에 이르고 그 곳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수원 염불산·

293) 『대전회통』 병전, 봉수.

남양 해운산·안산 정왕산 봉수를 거쳐 인천의 성산(문학산) 봉수와 부평의 축곶산(紐串山) 봉수에 이르고, 다시 김포 백석산·통진 수안산·강화 대모성산·진강산·망산봉수를 거쳐 교동으로 들어가 규산(화개산) 봉수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나와 강화 하음산·남산, 통진 남산, 김포 냉정산, 양천 개화산 봉수를 거쳐 서울의 남산 제5거에 이르는 것이다.

교동의 봉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정산(修井山) 봉수는 교동현 서쪽에 있고, 동쪽으로 성산(城山)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연안(延安) 간월산(看月山)에 신호한다.

성산봉수는 현 남쪽에 있고 동쪽으로 강화 별립산(別立山)에 신호한다.

『세종실록지리지』 부평도호부, 교동현

수정산봉수는 북으로 황해도 연안부 각산(角山)에 신호를 보낸다.

화개산봉수는 남쪽으로 강화부 망산(綱山)에서 신호를 받아, 동으로 강화부 하음성산(河陰城山)에 신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교동현

수정산봉수는 북쪽으로 황해도 연안부 각산에 신호를 보낸다.

화개산봉수는 남쪽으로 강화부 망산에서 신호를 받아, 동쪽으로 하음성산에 전한다.

『동국여지지』

주산(主山)봉수는 관아의 북쪽 5리 화개산에 있다. 강화부 망산봉수에서 남쪽으로 신호를 받아서, 동쪽으로 강화부 하음산봉수에 신호를 보낸다.

수정산봉수는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황해도 연안 간월산봉수에서 서쪽으로 신호를 받아서, 북쪽으로 연안 각산봉수에 신호를 보낸다.

『여지도서』 교동, 봉수

진망산(鎭望山)봉수는 관아의 서쪽 2리에 있다. 강화부 소속 말도(耑島)봉수에서 서쪽으로 신호를 받아서, 단지 수영에 신호를 보낸다.

『여지도서』 교동, 봉수, 신증(新增)

화개산봉수는 강화 진망산봉수에서 남쪽으로 신호를 받아 동쪽으로 하음산봉수에 신호한다. 수정산봉수는 연안 간월산봉수에서 서쪽으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연안부 각산봉수에 보낸다.

1899년 『교동군읍지』

교동에는 수정산봉수, 화개산봉수(주산봉수라고도 하고 성산봉수라고도 한다), 진망산봉수 등 3봉수가 있었다.

수정산봉수는 교동현 서쪽 20리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동쪽 화개산에서 신호를 받았으나 뒤에는 서쪽으로 황해도 간월산에서 신호를 받아 다시 북쪽으로 황해도 연안 각산봉수에 신호하였다. 이는 제4거에

속하여 제5거에 속한 화개산봉수와는 봉수로가 다르다.

화개산봉수는 남쪽으로 강화부 망산(綱山, 덕산이라고도 한다)에서 신호를 받아, 동으로 강화도 하음산봉수로 전달하는 제5거에 속한다.

진망산봉수는 『여지도서』 봉수, 신증조에 관아의 서쪽 2리에 있는데 서쪽으로 강화 소속 말도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단지 경기수영에만 신호한다. 조선시대 모든 봉수들의 귀착점이 서울의 목멱산인데 오로지 교동의 진망산봉수만 교동의 수영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봉수이다.

11.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교동 관방

1)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56년)

喬桐縣[在海島中, 東至寅火石津海岸十里, 西至海岸二十七里, 南至海岸十一里, 北至角山渡海岸 或云二十一里 實十二里, 距京都一百八十二里]

교동현 [바다의 섬 가운데 있다. 동쪽으로 인화석진의 해안까지 10리 가면 다다르고, 서쪽 해안까지는 27리 길이며, 남쪽 해안까지는 11리, 북쪽의 각산나루 해안까지 흑자는 21리 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리길이다. 서울과는 182리 거리이다.]

관원(官員)

縣監[一人 ○ 時自南陽 移水軍節度營于縣 曰以節度使兼], 訓導[一人]

현감 [1명이다. ○ 이때 남양으로부터 수군절도영을 교동현으로 옮겨왔고, 이로 인하여 현감이 절도사를 겸하였다.] 훈도 [1명이다.]

성곽(城郭)

華蓋山城[石築 周三千五百三十四尺內, 有一池一泉, 有軍倉 ○ 本朝 崔淑精

詩, 蒼山高壓六鰲頭, 倦客登臨豁遠愁, 水國寒潮漁店暮, 天涯斜日海門秋, 胷
懷納納三千里, 眼界悠悠數十州, 四座風流誰取健, 一盃相屬更遲留]

화개산성 [돌로 축성되었으며 둘레는 3,534척 이내이다. 하나의 연못
과 하나의 샘이 있으며, 군창이 있다. ○ 조선 최숙정의 시에 “푸른 산
높고 높아 육오두(六鰲頭) 눌렀는데, 게으른 손 올라서니 먼 근심 사라
지네. 물 나라 찬 조수에 고기잡이 마을 저물었고, 하늘 끝 지는 해에
바닷 문에 가을 왔구나, 가슴은 활짝 띄어 삼천리요, 눈길에 보이는 것
은 수십주(數十州)로다, 둘러 앉은 풍류는 누가 가장 씩씩하나, 술잔 부
어 서로 주며 놀다 가세”라고 하였다.]

봉수(烽燧)

修井山烽燧[北望黃海道延安府角山] 華蓋山烽燧[南應江華府綱山, 東應同
府河陰城山.]

수정산봉수 [북쪽으로 황해도 연안부 각산을 조망한다], 화개산봉수
[남쪽으로 강화부(진) 강산에서 신호를 받고, 동쪽으로는 하음성산에
서 신호를 받는다.]

2)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경)

喬桐府. 鎭管無, 屬水營[東至海十里 江華界. 南至海三里 江華屬彌法島界.
西至海二十里 黃海道延安界. 北至海二十里 延安白川兩邑界. 東距京陸路
一百五十里, 水路則一百六十里, 二日程. 距監營上同]

교동부는 (소속된) 진관이 없고 수영에 속한다. [동쪽으로 해로를 따라 10리를 가면 강화의 경계에 이르며, 남쪽으로 해로를 따라 3리를 가면 강화에 속한 미법도의 경계에 이른다. 서쪽으로 해로를 따라 20리를 가면 황해도 연안의 경계에 이르며, 북쪽으로 해로를 따라 20리를 가면 연안과 백천(白川) 두 고을의 경계에 이른다. 동쪽으로 서울까지 육로로 1백 50리, 수로로 1백 60리 길이므로 이를 거리이다. 감영까지의 거리는 위와 같다.]

성지(城池)

華蓋山城[石築 周圍三千五百三十四尺, 高三丈. 內有一池 一泉. 今 上四年丁巳 改築軍倉 今無]. 邑城[周圍一千六尺, 高三丈. 置東南北三門, 皆一層樓. 傍有曲城 四處有瓮城. 而所築年月 今無可據之文, 月申設鎭時 所築 自古流傳]

화개산성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3,534자[尺]이고, 높이는 3길[丈]이

다. 안에 못 하나와 샘 하나가 있다. 현 임금(영조) 4년 정사년(1728)에 군용창고를 개축하였으나, 지금은 없다.] 읍성 [둘레는 1,006자이고, 높이는 3길이다. 동·남·북에 3개의 문을 설치했는데 모두 단층 루(樓)이다. (성문) 옆에 곡성(曲城)이 있으며, 네 곳에는 웅성(瓮城)이 있다. (읍성을) 쌓은 시기가 얼마쯤인지 현재로는 가히 증거할 수 있는 문서가 없으나, 월곶(月串)에 진(鎭)을 설치할 때 쌓았다고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관직(官職)

兼喬桐都護府使[府屬 座首一人, 別監三人, 選武軍官二十四, 衙前二十二, 知印十三, 使令二, 官奴五, 官婢四]

겸 교동도호부사가 있다. [관아 소속으로는 좌수 1인, 별감 3인, 선무군관 24명, 아전 22명, 지인 13명, 사령 2명, 관노 5명, 관비 4명 등이다.]

봉수(烽燧)

主山烽燧[在府北五里 華蓋山, 自江華府綱山烽燧, 南來應, 東去應, 同府河陰山烽燧] 修井山烽燧[在府西二十里, 自黃海道延安看月山烽燧, 西來應, 北去應, 延安角山烽燧] 新增, 鎭望山烽燧[在府西二里, 自江華屬磊島烽燧, 西來應, 只准本營.]

주산(화개산)봉수 [관아의 북쪽 5리 화개산에 있다. 강화부의 강산봉수로부터 남쪽에서 신호를 받아 동쪽으로 강화부의 하음산봉수에 보낸다.] 수정산봉수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황해도 연안의 간월산봉수로부터 서쪽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연안의 각산봉수에 보낸다.]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진망산봉수 [관아의 서쪽 2리에 있다. 강화부에 속해 있는 말도봉수로부터 서쪽에서 신호를 받아 오로지 본영에 보낸다.]

군병(軍兵)

水軍戶保并 七百七十六名. 諸色陸軍 七百五十名. 專屬水營 烽燧軍 五十二名.

수군호와 보인을 합쳐 776명이다. 여러 명목의 육군[諸色陸軍]이 750명이다. 수영에만 소속된 봉수군이 52명이다.

관직(官職)

行京畿水軍節度使 兼三道統禦使 喬桐都護府使[本營 初設於南陽 花梁鎮, 仁廟己巳 移營於喬桐 月申鎮基, 而兼府使. 仁廟癸酉 又兼統禦使, 武二品. 管三道舟師, 二周年交遞. 裨將 五. 旗鼓官 四. 束伍把總 二, 哨官 五. 船將 七. 旗牌官 二十五. 捕盜官 十五. 左右先鋒將 二. 兵船監官 一. 軍器監官 四. 守城把總 一, 哨官 四. 執事 三. 假率軍官 二十六. 別抄軍官 二十五. 討捕軍官 二十五. 都訓導 六. 營吏 五. 鎮撫 十九. 知印 七. 營奴 一, 婢 一, 軍牢 二十三,

巡令手 二十]. 中軍 一員[自設營初仍設, 武三品. 自望 啓請. 佐治水軍事. 中營軍官 二十八. 書記 六. 軍牢 二十]. 管下邊將 德浦僉使[鎮在通津境], 花梁僉使[鎮在南陽境], 注文僉使[鎮在江華境], 德積僉使[鎮在仁川境], 長峯萬戶[鎮在江華境].

행 경기수군절도사가 삼도통어사와 교동도호부사를 겸한다. [본영(수군절도영)은 처음 남양의 화랑진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조 기사년(1629)에 수영을 교동의 월곶진 터로 옮기고, (경기수군절도사가) 부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인조 계유년(1633)에는 또 통어사를 겸하도록 하면서 무신2품 벼슬로 삼았다. 삼도(경기도와 황해도, 충청도)의 수군을 관할하였으며 2년마다 교체되었다. (이밖에) 비장이 5명, 기고관이 4명, 속오파총이 2명, (속오)초관이 5명, 선장이 7명, 기패관이 25명, 포도관이 15명, 선봉장이 좌·우 (각 1명씩) 2명, 병선감관이 1명, 군기감관이 4명, 수성파총이 1명, (수성)초관이 4명, 집사가 3명, 가솔군관이 26명, 별초군관이 25명, 토포군관이 25명, 도훈도가 6명, 영리가 5명, 진무가 19명, 지인이 7명, 영에 속한 노가 1명, (영에 속한) 비가 1명, (영에 속한) 군뢰가 23명, (영에 속한) 순령수가 20명 등이다.] 중군이 1명이다. [수영을 설치한 초기에 두었으며, 무신 3품 벼슬이다. (수영에서) 스스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에) 아뢰어 청한다. (수군절도사를) 보

좌해 수군의 일을 다스린다. 중영군관 28명, 서기 6명, 군뢰 20명 등이 있다.] 관할 하에 있는 변방의 장수로는 덕포첨사 [진은 통진 지역에 있다.] 화랑첨사 [진은 남양 지역에 있다.] 주문첨사 [진은 강화 지역에 있다.] 덕적첨사 [진은 인천 지역에 있다.] 장봉만호 [진은 강화 지역에 있다.] 등이 있다.

수군(水軍)

本營 一千六百六十一名內[七百七十六名 在喬桐, 二百十六名 在畿內 各邑, 六百六十九名 在海西 各邑. 陸軍 七百五十名 在喬桐]. 束伍軍 一千一百四十八名內[教師 一, 別破陣 四, 射手 一百八十名, 砲手 一百五十九名, 格軍 三百六十三名, 能槽 九十七名, 舵工二十名等, 以本府 水陸軍兼 各差備. 雜色軍 二百五十四名, 伺候軍 七十名, 以公私賊 充定] 德浦鎮[水軍 四百二十七名 在通津等 各邑軍兵 所領. 哨官 三, 旗鼓官 二, 旗牌官 二, 捕盜官 二, 軍器監官 一, 教師 二, 射手 三十七名, 砲手 三十六名, 格軍 六十七名, 舵工 十三名, 雜色軍 四十七名, 合二百十二名, 以水軍作隊] 花梁鎮[水軍 六百四十名 在南陽軍兵 所領. 哨官 三, 旗鼓官 一, 旗牌官 一, 捕盜官 軍器監官 一, 教師 二, 射手 四十一名, 砲手 四十三名, 格軍 八十七名, 舵工 十二名, 雜色軍 二十八名, 合二百二十一名, 以水軍作隊] 注文鎮[水軍 五百六十七名 在豐德等 各邑軍兵 所領. 哨官 三, 旗鼓官 二, 旗牌官 二, 捕盜官 二, 軍器監官 一, 教師 二, 射手 四十八名, 砲手 四十八名, 格軍 八十六名, 舵工 十六名,

雜色軍 四十四名, 合二百五十四名, 以水軍作隊] 德積鎮[水軍 二百十八名 在南陽等 各邑軍兵 所領. 哨官 四, 旗鼓官 一, 旗牌官 一, 捕盜官 一, 軍器監官 一, 教師 一, 射手 二十四名, 砲手 二十六名, 格軍 四十六名, 舵工 九名, 雜色軍 三十九名, 合一百五十三名, 以鎮下島民作隊] 長峯鎮[水軍 四百七十名 在坡州等 各邑軍兵 所領. 哨官 四, 旗鼓官 一, 旗牌官 三, 捕盜官 三, 軍器監官 一, 教師 三, 射手 四十七名, 砲手 四十四名, 格軍 七十八名, 舵工 十五名, 雜色軍 三十六名, 合二百三十五名, 以水軍作隊]

본영에 1,66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776명은 교동에 있고, 216명은 경기도의 각 고을에, 669명은 황해도 각 고을에 있다. 육군 750명은 교동에 있다.] 속오군은 1,148명인데, 이 중에서 [교사 1명, 별파진 4명, 사수 180명, 포수 159명, 격군 363명, 능노 97명, 타공 20명 등은 본부(교동-역자)의 수군과 육군으로 하여금 겸하게 해서 각각 채운다. 잡색군 254명과 사후군 70명은 공천과 사천으로 충원시킨다.] 덕포진 [수군이 427명인데, 통진 등 각 고을의 군병에게 맡게 한다. (이밖에) 초관 3명, 기고관 2명, 기패관 2명, 포도관 2명, 군기 감관 1명, 교사 2명, 사수 37명, 포수 36명, 격군 67명, 타공 13명, 잡색군 47명 등, 합 212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편성한다.] 화랑진 [수군이 640명인데, 남양의 군병에게 맡게 한다. 초관 3명, 기고관 1명, 기패관 1명, 포도관 2명, 군기 감관 1명, 교사 2명, 사수 41명, 포수 43명, 격군 87명, 타공 12명,

잡색군 28명, 합 221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편성한다.] 주문진 [수군이 567명인데, 풍덕 등 각 고을의 군병에게 맡게 한다. 초관 3명, 기고관 2명, 기패관 2명, 포도관 2명, 군기 감관 1명, 교사 2명, 사수 48명, 포수 48명, 격군 86명, 타공 16명, 잡색군 44명 등, 합 254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편성한다.] 덕적진 [수군이 218명인데, 남양 등 각 고을의 군병에게 맡게 한다. 초관 4명, 기고관 1명, 기패관 1명, 포도관 1명, 군기 감관 1명, 교사 1명, 사수 24명, 포수 26명, 격군 46명, 타공 9명, 잡색군 39명 등, 합 153명은 (덕적)진에 소속된 섬사람들로 대오를 편성한다.] 장봉진 [수군이 470명인데, 파주 등 각 고을의 군병에게 맡게 한다. 초관 4명, 기고관 1명, 기패관 3명, 포도관 3명, 군기 감관 1명, 교사 3명, 사수 47명, 포수 44명, 격군 78명, 타공 15명, 잡색군 36명 등, 합 235명은 수군으로 대오를 편성한다.]

전선(戰船)

本營[戰船 二, 龜船 一, 防船 一, 兵船 四, 伺候船 八, 汲水船 三] 德浦鎮[防船 二, 兵船 一, 伺候船 三] 花梁鎮[戰船 一, 防船 一, 兵船 一, 伺候船 一, 汲水船 一] 注文鎮[戰船 一, 防船 一, 艍船 一, 卜物船 一, 伺候船 二, 汲水船 二] 德積鎮[防船 一, 兵船 一, 報驚船 二, 伺候船 二, 汲水船 一] 長峯鎮[防船 三, 艍船 一, 伺候船 一, 汲水船 一]

본영(수군절도영-역자)에는 [전선 2척, 거북선 1척, 방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8척, 급수선 3척] 등이 있다. (그리고) 덕포진에는 [방선 2척, 병선 1척, 사후선 3척] 등이 있으며, 화랑진에는 [전선 1척, 방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1척, 급수선 1척] 등이 있다. 주문진에는 [전선 1척, 방선 1척, 거도선 1척, 북물선 1척, 사후선 2척, 급수선 2척] 등이 있으며, 덕적진에는 [방선 1척, 병선 1척, 보경선 2척, 사후선 2척, 급수선 1척] 등이 있다. 장봉진에는 [방선 3척, 거도선 1척, 사후선 1척, 급수선 1척] 등이 있다.

3) 『여도비지(輿圖備志)』(1856년경)

관원(官員)

都護府使 一員[水軍節度使兼]

도호부사 1명[수군절도사를 겸하였다.]

목장(牧場)

長峯島[監牧官一員, 長峯島萬戶兼]. ○屬[今 音島 末島 ○廢牧場松家島]

장봉도[김목관 1명이 있는데 장봉도만호가 겸한다], ○속해 있는 목장
[지금은 음도와 말도에 있다 ○송가도 목장은 폐지되었다.]



『여도비지(輿圖備志)』, 『교동도호부 무비(武備)』

성지(城池)

邑城[石築周一千六尺 曲城三 雉城四 城門四 井一] 華蓋山城[石築州三千五百三十四尺 池一 泉一 英宗十三年改築爲摠禦營 信地今廢] 古邑城[治北十里 有遺址]

읍성 [돌로 쌓았고 둘레는 1,006척이다. 곡성이 3군데고 치성이 4군데
이며 성문은 4개가 있다. 우물이 1개 있다.] 화개산성 [돌로 쌓았고 둘

레는 3,534척이다. 연못과 섬이 1개씩 있다. 영조 13년 개축하여 총어영으로 삼았다. 지금은 없어졌다.] 고읍성 [치소에서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터가 남아있다.]

봉수(烽燧)

華蓋山[見上], 水晶山[見上], 末島 甫乙音島 長峯島[初起右四所權設].

화개산 [위의 내용을 보라.] 수정산 [위의 내용을 보라.] 말도 볼음도 장봉도 [처음 이 4곳에 임시로 세웠다.]

전함(戰艦)

戰船二艘 防船一艘 兵船四艘 龜船一艘 伺候船八艘 給水船三艘.

전선 2척 방선²⁹⁴⁾ 1척 병선²⁹⁵⁾ 4척 거북선 1척, 사후선²⁹⁶⁾ 8척, 급수선 3척이 있다.

294) 조선 때 수군이 사용하던 배로 60명 가량이 탈 수 있는 병선이다.

295) 전쟁에 쓰는 장비를 갖춘 배이다. 수영에 딸린 전투함의 하나로 수군 30명 정도가 타는 작은 전선이다.

296) 수영에 소속되어 있고, 척후에 쓰이던 전선의 한 종류이다.

4) 『대동지지(大東地志)』(1863년경)

관원(官員)

都護府使兼京畿水軍節度使三道統禦使一員.

도호부부사 겸 경기수군절도사 삼도통어사 1명이 있다.

성지(城池)

邑城[周一千六尺瓮城三雉城，四東南北三門小南門]，華蓋山城[周三千五百三十四尺，池一泉一，英宗朝改築，今廢]，古邑城[北十里有遺址]

읍성 [둘레는 1,006척이고 웅성으로 3개 성가퀴가 있다. 사방으로 동·남·북 삼문과 작은 남문이 있다.] 화개산성 [둘레는 3,534척이고 연못과 샘이 1개씩 있다. 영조 때 개축하였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렸다.] 고읍성 [도호부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터가 남아 있다.]

영아(營衙)

統禦營[卽京畿水營在邑城中，國初開營于南陽之花梁，後移于此。仁祖十一年以水使兼三道統禦使，領京畿黃海忠清三道舟師。正宗三年移統禦營于江華，以本府使兼水軍防禦使右海防將。十二年復還統禦營于本府，兼水使如舊。仍減防禦海防之號].

통어영 [곧 경기수영이 읍성에 있다. 조선 초 남양의 화랑에 경기수영을 처음 두었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겼다. 1633년(인조 11) 수사 겸 삼도 통어사를 두어 경기·황해·충청 3도의 수군을 거느리게 하였다. 1779년(정조 3)에는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게 되어 교동부사는 수군방어사와 우해방장을 겸하게 되었다. 1788년(정조 12)에는 다시 본부로 통어영을 환속시켜 이전과 같이 수사를 겸하게 하였다.]

관원(官員)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都護府使兼], 中軍守城把總各一員.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도호부사가 겸한다.] 중군과 수성파총이 각 1명이다.

속진(屬鎭)

[永宗, 德浦, 德積, 花梁, 注文, 長峯], 本營及各鎭各樣戰船六十艘[津船一百十五艘].

[영종, 덕포, 덕적, 화랑, 주문, 장봉], 본 수영 및 각 진에는 각종의 전선 60척이 있다. [진선(나룻배)은 115척이 있다.]

진보(鎭堡)

注文島鎭, 水軍同僉節制使一員, 長峯島鎭, 水軍萬戶兼監牧官一員. ○瞭望,
長峰島, 末島, 芑音島.

주문도진, 수군동첨절제사 1명, 장봉도진, 수군만호 겸 감목관 1명이 있다. ○요망대는 장봉도, 말도, 볼음도에 있다.

봉수(烽隧)

華蓋山, 修井山, 長峯島, 芑音島, 末島.

화개산, 수정산, 장봉도, 볼음도, 말도 등에 있다.

목장(牧場)

長峯島末島牧羊. ○廢場 芑音島松家島彌法島.

장봉도와 말도에 양을 방목한다. ○폐목장은 볼음도와 송가도 미법도에 있다.

5)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1899년)

건치연혁(建置沿革)

本高句麗高木根縣。新羅景德王改郡名，爲穴口郡領縣。高麗仍之，明宗置監務。本朝太祖四年置萬戶兼知縣事，後改縣監爲訓導，仍復縣。仁祖七年己巳，自花梁水營移設于喬洞，月串鎮基址，陞號兼府使，月串鎮移設江華。後四年癸酉，兼三道統禦使，管轄畿海湖三道舟師，置戰艦畜軍器，以備西南海方。丁酉降府使爲縣監，越三年己亥，統禦使移屬江華爲府使兼防禦使。後十一年己酉，因備局啓復設統禦使。八十八年丙寅，統禦使移屬江華爲府使兼防禦使。後九年甲戌，復設統禦使。後九年壬午六月，統禦使移屬江華爲水軍節度使兼府使。同年八月，復設統禦。後三年甲申，因海防營草記統禦使移屬，該營爲府使兼防禦使。後十一年乙未五月，革邑附江華郡置監獄署。翌年丙申七月，復邑爲郡守。

본래 고구려 고목근현이다. 신라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인 교동으로) 군 이름을 고쳐 혈구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도 계속 이어 오다 명종때 감무²⁹⁷⁾를 설치하였다. 본조에 들어와서 1395년(태조 4)에는 만호 겸 지현사를 두었다가 나중에 현감을 고쳐 훈도²⁹⁸⁾를 두었고 계속 현으로 이어왔다. 1629년(인조 7) 기사년에는 화랑의 수영을

297) 중앙정부가 속군현(屬郡縣)에 파견한 지방관.

298) 조선시대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

교동 월곶진 터로 옮겨 설치하여 읍호를 승격시켜 수군절도사가 부사를 겸하게 하였고 월곶진은 강화로 이설하였다. 4년 뒤인 계유년(1633)에는 삼도통어사²⁹⁹⁾를 겸하게 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충청도 3도의 수군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전함을 두고 군사 기물을 축적하여 서남해를 방어하는데 대비하였다. 정유년(1657)에는 부사를 강등하여 현감으로 하였고 3년이 지난 기해년(1659)에는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시켜 부사 겸 방어사로 하였다. 11년이 지난 기유년(1669)에는 비변사에서 계를 올려 다시 통어사를 두게 되었다. 88년이 지난 병인년(1746)에는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시켜 수군절도사 겸 부사로 하였고 9년 후 갑술년(1754)에는 다시 통어사를 설치하였다. 9년 뒤인 임오년(1762) 6월, 통



『교동군읍지』(1899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고 915.12-G999g)

299) 조선후기 경기도·충청도·황해도 3도의 수군을 관령(管領)하던 지휘관으로 통어사라고 했다. 정명은 1명으로 경기도 수군절도사가 겸했다.

어사는 다시 강화로 이속되어 수군절도사 겸 부사가 되었고 같은 해 8월 다시 통어사를 두었다. 3년 뒤인 갑신년(1764)에는 해방영에서 올린 초기(草記)³⁰⁰⁾로 인하여 통어사를 이속시켰고 이 영(營)이 부사 겸 방어사가 되었다. 11년 뒤인 을미년(1775) 5월에는 읍을 혁파하고 강화군에 부속시켜 감옥서를 두었다가 다시 읍호를 회복시켜 군수를 두었다.

관직(官職)

統禦使[從二品, 減] 水軍節度使[正三品, 減] 府使[正三品, 革] 防禦使[從二品, 革] 統禦中軍[正三品, 甲子增置, 丙寅革, 癸未以領將履歷還置, 革] 郡守[四等 丙申增置] 帶率軍官三員[革] 巡檢二十八[己未創置同年減].

통어사 [종2품이다. 지금은 없다.] 수군절도사 [정3품이다. 지금은 없다.] 부사 [정3품이다. 혁파되었다.] 방어사 [종2품이다. 혁파되었다.] 통어중군 [정3품이다. 갑자년에 증치하여 병인년에 혁파되었다. 계미년에는 영장으로 경력을 삼아 다시 두었다가 혁파되었다.] 군수 [4등관이다. 병신년에 추가로 두었다.] 군수에 딸린 군관으로 3명이 있다. [혁파되었다.] 순검 28명 [기미년에 처음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없앴다.]

300) 지방 관아에서 올린 문서의 일종.

영부³⁰¹⁾소속(營府所屬)

士中軍[一員] 敎鍊官[六員] 水軍把摠[二員] 哨官[六員] 守城把摠[一員] 哨官[六員] 烽燧別將[二員] 船將[六員] 監官[十員] 餐率軍官[革] 別抄軍官[革] 旗牌官[二十五員] 捕盜官[十二員] 別軍官[五十員] 討捕軍官[二十五員] 選武軍官[二十四員] 各庫監官[六員] 中營軍官[革] 訓導[七人] 營吏[四人] 鎮撫[十人革] 衙前[三十人] 通引[十五人] 使令[十名] 巡令手[十五名] 鼓吹手[十名], 沙工[十名] 官奴[十五名] 官婢[三口] 校奴[六名] 着紋匠[七名] 乙未并革.

토중군[1명] 교련관[6명] 수군파총[2명] 초관[6명] 수성파총[1명] 초관[6명] 봉수별장[2명] 선장[6명] 감관[10명] 찬솔군관[혁파되었다.] 별초군관[혁파되었다.] 기패관[25명] 포도관[12명] 별군관[15명] 토평군관[25명] 선무군관[24명] 각고감관[6명] 중영군관[혁파되었다.] 훈도[7명] 영리[4명] 진무[18명, 혁파되었다.] 아전[30명] 통명[15명] 사령[10명], 순령수[15명] 고취수[10명] 사공[10명] 관노[15명] 관비[3명] (향) 교노[6명] 착문장[7명] 을미년에 모두 혁파되었다.

군액³⁰²⁾(軍額)

左右別武士 四百二名 [洞布後有闕勿充] 兵隊 一百名 [墓稅錢革罷後, 以

301) 영부(營府): 감영이나 도호부 같은 지방 관청.

302) 군액(軍額): 군명(軍人)의 수효(數效) 또는 군용에 쓸 곡물이나 기타 경비.

給代未放下, 有闕勿充] 水軍 一千六百六十一名 陸軍 七百五十二名 束伍軍
一千一百六十九名 烽軍 五十二名 [已上各軍 公私賤中兼役]

좌우별무사 402명의 군액 [동포로 충당한 이후 나중에 부족이 있더라도 채우지 않았다.] 병대 100명의 군액 [묘세전에서 충당했다가 (묘세전이) 혁파된 이후 다른 명목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았다. 병대에 부족이 생겨도 채우지 않았다.] 수군 1,661명, 육군 752명, 속오군 1,169명, 봉(수)군 52명이다.[이상의 각 군대는 공노비와 사노비 가운데서 역을 겸하게 했다.]

성지(城池)

華蓋山城[古縣監時所築, 辛卯十月, 知縣李汝讓毀撤外城, 移築縣邑. 今則只有內城基址 城內有二大井] 邑城[周一千六尺, 置東南北三門, 設營時所築 再去癸酉統禦使白東遠修築雉堞去甲申統禦使李教復, 只築體城門樓及雉堞, 以降營遞歸, 未準役. 南門 防禦使 白樂倫 同年重建, 濠池年久坎壞 東北兩門 永旣未建]

화개산성 [옛 현감 시절에 쌓았다. 신묘년(1591) 10월 지현으로 있던 이여양이 외성을 헐고 읍으로 옮겨 쌓았다. 지금은 단지 내성 터만 남아있고 성안에는 2개의 큰 우물이 있다.] 읍성 [둘레는 1,006척이고 동·남·

북 3개의 문이 있다. 수영을 설치할 때 쌓았다. 두 번 지난 계유년(1813)에 통어사 백동명이 수리해서 쌓았으나 치첩(성위에 쌓은 작은 담)은 없었다. 지난 갑신년(1884)에 통어사 이교복이 성의 문루와 치첩을 포함해서 전체를 쌓았으나 수영으로 교체되어 돌아간 이후 완성하지 못하였다. 남문은 방어사 백낙륜이 같은 해 중건하였다. 해자는 오래되어 구덩이가 되었다. 동북쪽 두 개 문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지만 다시 세우지 않았다.]

병선(兵船)

龜船[一隻], 戰船[二隻], 防船[一隻], 兵船[四隻], 伺僕船[八隻], 波水船[三隻], 大小戰艦 合十九隻. 年久破傷無形體 報海方營頃下.

귀선[1척], 전선[2척], 방선[1척], 병선[4척], 사복선[8척], 파수선[3척] 등 대소 전함이 모두 19척이다. 그러나 건조한 지 오래되어 부식지고 상해서 형체가 거의 없다.

관액(關厄)

本邑處在畿沿要衝, 屏蔽二京. 故備舟師蓄軍器以防不虞.

본읍은 경기 연안의 요충에 있어 이경(한성과 개성)을 가려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군과 군사 무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방어하는 데에 근심이 없다.

진보(鎭堡)

月串鎭基址, 設營後移去江華.

월곶진 터에 수영을 설치한 이후에 강화로 옮겨갔다.

봉수(烽燧)

華蓋山烽燧[自江華鎭綱山南來應, 東去應同府河陰山烽燧], 水晶山烽燧[自延安看月山西來應, 北去應同府角山烽燧]

화개산봉수 [강화 진강산 남쪽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동쪽 교동 하음산 봉수로 신호를 보낸다.] 수정산봉수 [연안 간월산 서쪽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 교동 각 산 봉수로 보낸다.]

목장(牧場)

無[分養馬三匹 代錢上納 今革]

없다. [교동 분담 말 세필은 돈으로 대신 상납한다. 지금은 혁파되었다.]

인천의 관방유적

용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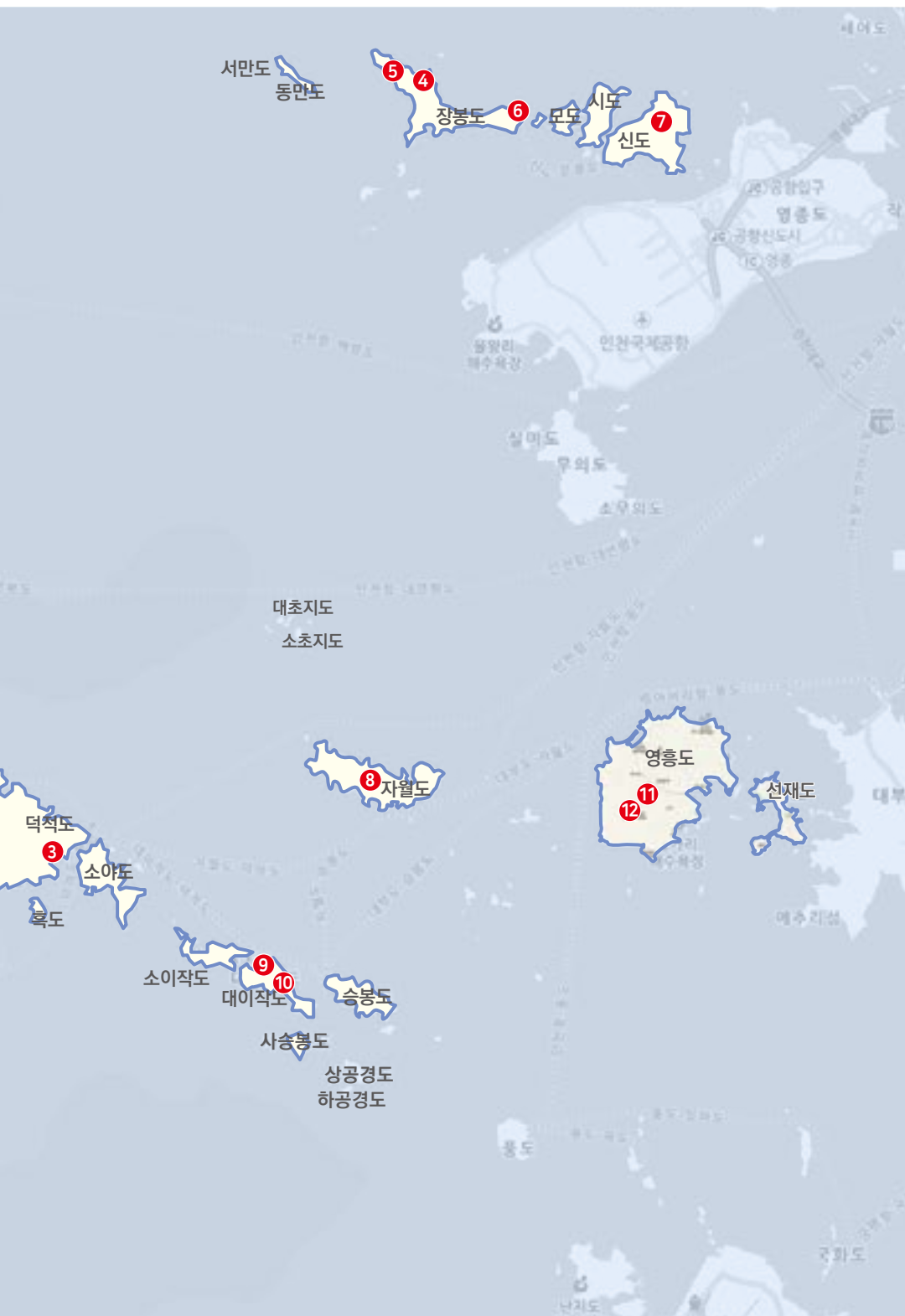


용진군

| 관방유적 위치 |

- ① 백령진(白翎鎭)
- ② 대청도진(大靑島鎭)
- ③ 덕적진(德積鎭)
- ④ 장봉진(長峰鎭)
- ⑤ 장봉도 봉화산봉수
- ⑥ 장봉도 목장과 마성
- ⑦ 신도 목장과 마성
- ⑧ 자월도 국사봉봉수
- ⑨ 대이작도 부아산봉수
- ⑩ 대이작도 소리산봉수
- ⑪ 영흥진(靈興鎭)
- ⑫ 영흥도 목장과 마성







옹진군

옹진군(甕津郡)은 인천광역시 서남쪽에 위치하며, 경기만과 황해도 남쪽 바다의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군을 이루는 섬은 모두 100개인데, 이 중에 유인도가 25개이고 무인도가 75개이다. 옹진군의 최북단에는 이른바 서해 5도라 불리는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가 자리하고 있어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북으로는 강화군과 황해도, 동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남으로는 충청남도 당진군·태안군과 접한다.

* 김춘식 소래역사관 학예연구사
김정훈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학예연구사

웅진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초이다. 웅진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의 웅천(甕遷)이었는데, 고려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웅진이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을 고려초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940년(태조 23) 전국 주부군현(州府郡縣)의 명칭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일 가능성이 있다.

웅진지역에 처음 중앙에서 지방관 현령이 파견된 것은 1018년(현종 9)이다. 이해는 고려 지방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로 전국을 4도호부(都護府)·8목(牧)·56군(郡)·28진(鎭)·20현(縣)로 편제하여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 20개 현 중의 하나가 웅진이었다.

웅진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서해 연안 방비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선시대에도 관서지방을 연결하는 해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상 요충지로 여겨져 1397년(태조 6) 웅진현에 군사거점인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통솔하게 했으며, 병마사는 행정을 담당하는 판현사(判縣事)를 겸하도록 했다. 1423년(세종 5)에는 병마사 대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 첨절제사는 후에 다시 현령으로 환원되었지만, 웅진군의 국방상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었기에 1718년(숙종 44) 웅진현은 다시 도호부로 승격하고, 수영(水營)이 설치되었다.

8도제를 근간으로 한 조선왕조의 지방제도는 1895년(고종 21) 23부제로 개편되고, 종래 유수부·대도호부·도호부·목·군·현으로 되어 있던

지방제도를 군으로 통일하고 지방관도 군수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웅진부도 웅진군이 되었으나, 웅진의 지리적 범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909년 6월 25일 웅진군의 지리적 범위에 변화가 와서 강령군과 해주군의 3개 면이 웅진군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웅진은 14개 면·100개의 법정리를 가진 군이 되었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1914년 지방제도를 개편하는데, 이때 웅진군의 면의 일부가 통폐합되고, 해주군의 일부가 웅진군에 편입되었으며, 해주의 서면 읍내리에 있던 군청을 마산면 온천리로 옮겼다. 그 결과 웅진은 11개 면·115개 법정리를 가진 군이 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지방제도 개편은 이후에도 실시된 바 있었지만, 웅진군의 경우에는 이 틀이 1945년 해방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38선 획정은 웅진군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즉 웅진군이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에 미군정에서는 남한에 편입된 웅진군의 일부와 같은 운명에 처한 벽성군(碧城郡 ; 1938년 신설)·장연군(長淵郡)의 도서지역을 합쳐 웅진군을 재편성하고, 38선 이남 지금의 서해5도만을 관할하게 되었고 웅진군을 경기도로 편입시켰다. 6·25전쟁은 웅진군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았다. 백령도와 대청도를 제외한 웅진군 지역이 모두 북한이 된 것이다.

웅진군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는 것은 1973년 7월 1일 부천군의 영

종면·북도면·용유면·덕적면·영흥면·대부면 등 6개 면과 장봉·무의·자월 등 3개 출장소가 용진군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이로서 용진군은 백령면과 송림면에 새로 편입된 6개 면을 합하여 8개 면과 4개의 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83년 2월 15일에는 영흥면 자월출장소와 덕적면 승봉리를 통합하여 자월면을 신설했다. 이로써 용진군은 10개면 3출장소가 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는 영종면과 용유면을 인천직할시로 이관했으며, 1994년 12월 26일에는 대부면을 안산시에 이관하여, 7개 면 2개 출장소를 관할하였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고, 1999년 7월 20일에는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개칭함으로써 지금의 용진군이 되었다. 현재 용진군은 7면 3출장소 78리 272반 113개 도서(유인도 23, 무인도 90)로 이루어져 있다.

용진군의 섬과 바다는 과거 대중국 무역과 외교의 통로인 서해횡단해로, 왜구와 해적의 출몰, 연안의 조운로, 강화(江華)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연안의 관방정책에서의 역할, 그리고 조선말기 이양선의 출입을 허락해야 했던 복합적 해상 공간으로 쇄환(공도)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주요거점 도서에 군영인 진이 설치되어 해상과 조운로를 방어하였고 현재도 그 중요성은 동일하다.

1. 백령도

백령도는 옹진군의 최북부, 북한의 옹진반도 남쪽에 위치한다. 고구려때는 곡도(鵠島)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 초부터 백령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 백령도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의 “곡도(鵠島)는 지금의 백령진(白翎鎭) 옹진군(백령면)이다.”라는 기록과 『삼국유사』의 “진성여왕 때의 아찬(阿飡) 양패(良貝)는 왕의 막내아들이었는데, 당(唐)에 봉사(奉使)하려 할 때 백제(후백제)의 해적이 평안도의 진도(津島)에서 가로막는다 함을 듣고 궁사(弓士) 50인을 뽑아서 따르게 하였다. 배가 곡도[鵠島 : 향언(鄉言)에는 골대도(骨大島)라 한다.]에 이르렀을 때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 10여 일 동안 묵게 되었다.”라는 기록이다. 앞의 기록을 통해 백령도의 예전 명칭이 ‘곡도’ 또는 ‘골대도’였음을 알 수 있다.

‘백령’이라는 지명은 고려에 들어와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 지리지 안서대도호부 옹진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백령진(白翎鎭)은 원래 고구려의 곡도(鵠島)인데 고려에 와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진(鎭)으로 하였으며, 1018년(현종 9) 진장(鎭將)을 두었다.

- 『고려사』 지리지, 안서대도호부 옹진현

그런데 『백령진지』의 『정당판각(政堂板刻)』조에는 ‘백령’이라는 이름이 1010년부터 사용되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송(宋) 진종(眞宗) 대중(大中) 3년(1010) 경술은 즉 고려 현종 원년인데, 지찰문(智察文)이 진장겸판현사(鎭將兼判縣事)를 둘 때 이름을 백령이라 고치고 문무를 겸한 김처례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고 5년이 지난 갑인년(1014)에 이세화(李世華)가 처음 향교를 세우고 자제를 모아 문학을 가르쳐서 과거에 응한 이도 있었다.

『백령진지』 「정당판각」

당시 백령도에 설치된 진은 수군진이였으나, 1357년(공민왕 6)에 백령으로 가는 항행로가 험난하다고 하여 진의 소재지를 육지로 옮겨서 문화현 동촌(東村)에 있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동촌의 땅이 협소하여 진장을 없애고 문화현 관할 하에 소속시켰으며, 1390년(공양왕 2)에는 진을 없애고 다시 촌(村)으로 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백령도는 원 황실 인물들과 고려 관직자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1317년(충숙왕 4)에 원에서 직왕(稷王) 아목가(阿木哥)를 백령도에 귀양보냈다가 1323년에 소환하였으며, 1324년에는 발라태자(勃刺太子)를 이곳에 귀양보낸 후 1329년에 소환하였다. 1330년에는 도우첩목아태자(陶于帖木兒太子)를 백령도에 귀양보냈다가 1332년

에 소환하였다. 고려인물로는 “이분희, 정순우(丁純祐), 정안, 김경손, 시녕후(始寧侯) 의(禕), 김흔” 등이 백령도에 귀양을 왔다. 당시에는 귀양 온 인물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귀양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히 원 황실의 직왕이나 태자는 아무리 귀양보내졌다고는 하지만 고려에서 함부로 대우할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령도는 이들이 귀양 생활하기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다음에 보인다. 1043년(고려 정종 9) 정월 을유일에 백령진(白翎鎭)에서 불이 나서 성문 2백여 간, 창고 50간, 민가 300여 채가 연소되었다는 기록(『고려사』 제53권, 권지 제7)과 평주·곡주 등의 부사, 천안·경산(京山)·안동·장흥부(長興府) 등의 부사, 고부·영광·영암·보성·승평군 등의 부사, 을주·양주의 방어부사(防禦副使) 등



『해동지도』(固4709-61) 황해도 웅진부의 백령·대창·소청

과 같이 백령진장(白嶺鎭將)에 대한 외관 녹봉이 33섬 5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령진의 규모와 경제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백령도에는 목장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국마 170필을 키우고 있었다. 백령도 목장에서 관리하는 마필 수는 증감이 있었는데, 1760년경 발간된 『여지도서』에 보면 백령도 목장은 길이가 20리, 넓이가 10리이며, 암수 말 합이 78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령진지』에는 수말 35필, 암말 33필로 기록되었다. 백령도의 목장은 『대동지지』에도 목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도 존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고종 32) 지방 행정관제 개혁 때 장연군 백령면으로 편제되어 도장행정(島長行政)이 실시되었다. 8·15광복 후인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거하여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1962년 6월 14일에는 옹진군 조례 제17호에 의해 백령면에 대청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74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7160호에 의해 대청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1995년 3월 1일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개편되면서 옹진군 전체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으로 편제되었다. 현재 진촌 1리~7리, 북포 1리~3리, 가을 1리~3리, 연화 1리~3리, 남포 1~2리 등 18리로 운용되고 있다.

1) 백령진(白翎鎭)

백령도에 설치되었던 수군진(水軍鎭)인 백령진(白翎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백령도는 현재의 웅진지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백령도의 수군진은 고려조에 설치되어 조선시대까지 오랜기간 동안 존속한 수군의 방어시설이었다. 진촌리 동편 구릉 위에 축조된 성으로 성의 평면 형태는 북서-남동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으로 장축 길이가 약 100여 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성벽 주변과 벽면에서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백령면 진촌리 804-24, 807-1번지 일대 지금의 백령도 천주교회 일대가 진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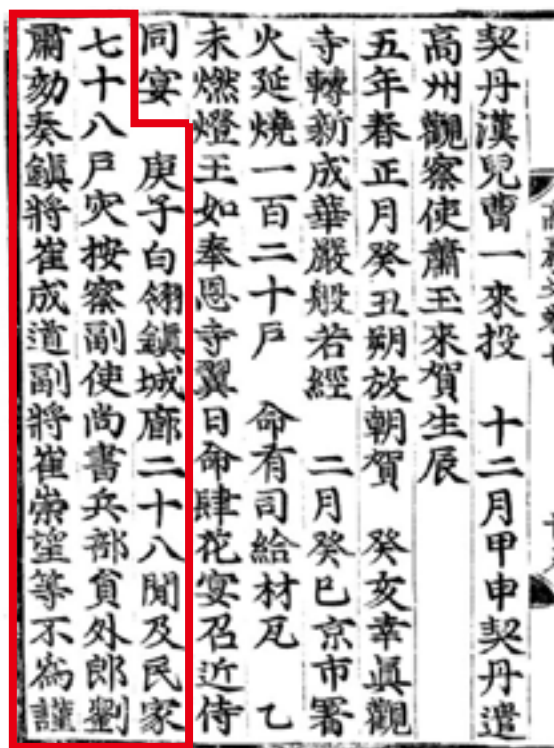
백령도는 원래 고려시대에 곡도(鵠島)라 불렸는데, 진을 설치한 뒤 이름을 백령진이라 하여 진의 명칭에서 섬의 이름이 유래 되었을 정도로 군사적 거점이었다. 백령진은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해주목(海州牧) 관할로 1015년(현종 9) 진장을 두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백령진에서 불이 나 성위에 있는 누각 28칸과 민가 78호가 불에 탔다. 이에 안찰부사 겸 상서병부외랑인 유숙이 상서를 올려 탄핵하기를 “진장(鎭將)인 최성도와 부장(副將) 최송망 등이 조심하지 않아서 불이 났으니 청하건대 그 직위를 삭탈하여 죄를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고려사』 「세가」 권7

이를 통해 백령진에 진장과 부장이 있는 군대가 주둔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해의 외딴 섬인 백령도에 양계와 같은 군사시설과 군대를 주둔시킨 명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백령진이 서해 횡단항로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중국 송(宋)과의 해상무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357년(공민왕 6) 백령진을 통한 항해로가 험난하다는 이유



『고려사』 세가 권7 문종 5년 2월

로 인해 진의 소재지를 육지로 옮겨 문화현에 소속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는 진 자체를 없애고서 문화현의 직촌(直村)으로 만들었다. 이는 당시 왜구의 거듭된 침입으로 인한 방어의 한계를 느낀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쇄환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는 빈 섬이 되어버렸고, 백령이라는 하나의 고을을 육지로 이전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백령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포기하면서 백령도는 해적의 소굴이 되었다.

조선시대 백령진은 서해안 도서지역에 해적의 활동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치안이나 국방 차원의 관심도 그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 중 현재의 웅진지역에 있어 가장 먼저 군사적 중요성으로 주목받은 곳은 백령도였다. 특히 쇄환정책이 수정되면서 백령도에는 다시 진이 설치되었다.

백령도는 1428년(세종 9)에 새로 설치한 영강진을 합쳐서 강령진의



백령도 진촌리 성터

로 지명을 변경하였다. 1429년(세종 10)에는 영강현을 파한 뒤 백령과 합쳐 강령현으로 만들었고, 현의 치소는 사천(蛇川)에 두었다가 다시 진을 백령도로 옮겼다. 1432년(세종 13)에는 국영목장이 들어서면서 백령진의 운영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이 복설된 뒤 백령진의 운영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세종대 이후에 진이 사라지고 주민들도 섬을 떠나 이곳은 황폐해졌으며, 해적활동에 대한 방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백령진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1609년 『광해군일기』에 보이는데, 이 시기 들어 다시 진(鎭)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새로 진(鎭)을 설치한 백령도는 땅이 기름지고 광활하니 반드시 백성이 모여
들 것이다. 모든 성 안의 토지를 다만 새로 들어온 백성에게만 허가하여 편의
에 따라 개간하도록 하고, 그 개간한 토지를 즉시 입안(立案)하여 호민(豪民)
들이 멀리서 불법으로 점유하지 못하게 하라.

『광해군일기』 12권, 1609년(광해 1) 1월 24일

당시 진의 설치는 4도 도체찰사(都體察使) 이항복(李恒福)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백령도, 대청도 등지를 근거로 활동하던 해적(해랑적)들을 단속하고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중기에도 여전히 서해 도서지역의 해적활동은 국가의 큰 근심거리였던 것이다.

조선중기의 백령도 근해를 포함하는 서해도서 일대는 해적이 자주 출몰하였기 때문에 1608년(광해군 1)에 체찰사 이항복(李恒福)이 건의하여 해적에 대한 방비책으로 진을 다시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항복이 광해군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한 설진 절목 8조에 의하면, 백령도가 해적의 소굴일 뿐 아니라 경기·강화·황해도의 송도와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는 한편 첩사의 책임자를 천거하기도 하고 진군의 충원 및 훈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광암(廣巖, 황해도 은율현에 소속된 진)과 아랑(阿郎, 황해도 장연현에 소속된 진) 2보(堡)를 합쳐 백령도에 거진(巨鎭)을 세웠고, 첩사는 반드시 관직과 녹봉이 높은 무인으로 뽑았으며, 또한 곡식 창고를 많이 설치하고 백성을 모아 거주하게 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 「장연백령진도(長淵白翎鎭圖)」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대한 가장 자세한 고지도로서 정방위로 그려져 있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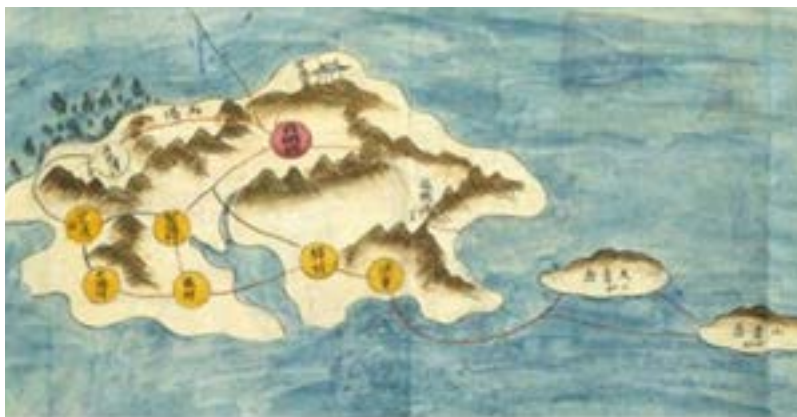
백령진 토성 성벽

선시대에 백령도는 한양에서 한강 하구와 교동도를 거쳐 서북지방으로 가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에서는 이곳에 진(鎭)을 설치하였는데, 이 지도는 백령도에 진을 설치했던 당시의 지리 정보들을 담고 있다.

지도에서 섬의 북쪽에 망은정(望恩亭)이라는 정자가 보이고, 서북쪽에는 말을 사육했던 마장(馬場), 두무진(斗武津)이라는 나루터가 기록되어 있다. 두무진 앞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백령진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섬 중앙부에 위치하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한 도로가 섬의 곳곳으로 뻗어 있다. 섬의 동쪽에는 용기현(龍機峴)이라는 고개가 있고, 이 고개를 넘으면 대청도 방향의 바닷가 포구에 이른다. 섬 안에는 여러 곳의 촌락이 표시되어 있다. 갈염촌(架鹽村), 연지변촌(沿之邊村), 역촌(驛村), 중해촌(中海村), 사곶(沙串) 마을 등이 그것들이다. 대청도(大靑島), 소청도(小靑島)에는 둘레가 각각 30리, 40리라고만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소청도는 대청도보다 섬의 크기가 작



1872년 지방지도 장연 백령진도



1872년 지방지도 백령진도 상세

고 이전의 『동여도』에서도 대청도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청도의 둘레가 40리라고 한 것은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령도의 진장 관련 기록은 고려 말에는 이세화(李世華) 한 명만이 보인다. 이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정치를 청렴 공평하게 하였고, 향교를 처음 창설하여 자제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치니, 과거 보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리고 1609년 이후 백령첨사로 임명된 인물은 1622년까지 7명으로, 그 중 김립신(金立信)은 창곡(倉穀) 3,900석을 모아 백령진의 기반을 만들었고, 방어하는 기기(器機)를 비치하였다고 한다.

백령진의 최고 지휘관인 진장은 수군첨절제사(첨사, 종3품)였다. 수군첨절제사는 진이 설치된 지역의 행정까지도 책임지는 수령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유적으로 현재 백령도에는 첨사선정비(僉使善政碑)가 남아 있다. 백령진은 조선말기 갑오개혁 때 폐진되었다.

2) 진촌리 첨사선정비군(僉使善政碑群)

이곳은 백령진을 거쳐 간 첨사들의 선정비군이다. 백령면 진촌2리 1184번지에 위치해 있는 첨사선정비군은 1972년에 세운 비석 1기(최경림)를 포함하여 모두 8기의 비가 있다. 이곳은 원래 1961년 8월 15일 ‘반공유적전적비’를 건립하고 주변을 휴식장소로 조성한 곳이었으나, 1978년 12월 1일 백령도에 흩어져 있던 선정비들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이 비석군에 있는 조만(趙萬, 1776~1846)은 1813년 문과로 출사하여 지평·정언·이조판서·금위대장·암행어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백령도에 조만의 영세불망비가 세워진 것은 조만이 암행어사로 백령도에 왔을 때 세금과 역(役)을 감면해 준 사실이 있어 백성들이 그 뜻을 기리



백령진 첨사 선정비(웅진군청)

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또한 임원석(林元錫)은 근대 인물로 공이 있어 1907년 백령도민이 그 뜻을 기려 비를 세우게 되었다. 다음은 비석군에 있는 선정비를 정리한 것이다.

- 권흥준 애민선정비 (行僉節制使權公興駿愛民善政碑, 1733, 54×128×22cm)
- 조만 영세불망비 (提調趙公萬永永世不忘碑, 1827, 43×113×18cm)
- 이명석 애민선정비 (行水軍僉節制使李公明錫愛民善政碑, 1848, 44×106×17cm)
- 박래명 영세불망비 (行水軍僉節制使朴公來命永世不忘碑, 1866, 44×84×18cm)
- 이보현 청백선정비 (行僉使李公普憲清白善政碑, 1872, 48.4×107×18cm)
- 정수현 애민선정비 (行僉使鄭公秀鉉愛民善政碑, 1874, 42.3×100×13cm)
- 임원석 영세불망비 (行島長林公元錫永世不忘碑, 1907, 40.3×83×16cm)

이 외에 백령진의 마지막 첨사로 알려진 박희덕(朴熙德)의 청백선정비는 진촌리 671-1번지에 따로 있다. 비석의 건립 연대는 1893년(광서 19)이다. 비신의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나있는 상태이고,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102cm, 두께 16cm이다. 전면에 ‘행첨사박공희덕청백선정비(行僉使朴公熙德清白善政碑)’라는 명문이 있고 그 좌우로 작은 글자가 있으나, 풍화로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

2. 대청도

대청면은 옹진군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백령도 남쪽으로 12km 거리에 있는 대청도, 소청도 두 개의 유인도와 갑죽도(甲竹島)를 비롯한 몇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이 15.7km²의 섬으로 우리나라의 최서북단에 위치한다. 본래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광복 후 위도상 38도선 이남에 있어 남한에 속하면서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대청도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고려 초에 나타난다. 932년(고려 태조 15) 후백제의 견훤이 해군장군 상애(尙哀) 등을 시켜 대우도(大牛島 : 평북 용천)를 침략하였다. 태조는 대광직에 있는 만세(萬歲) 등을 보내 대우도를 구원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태조 왕건을 도와 마군장군(馬軍將軍)으로 되었으며 누차 승진하여 대광(大匡)직에 있던 유검필이 931년(태조 14) 참소를 당하여 곡도(鵠島 : 백령도)로 귀양을 가 있었는데, 태조에게 글을 올려 “저는 비록 죄를 짓고 귀양살이는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해변 지방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미 곡도와 포을도(包乙島)의 장정들을 선발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또 전함도 수리하여 방어하게 되었으니 주상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였다.

『대동지지』의 기록에 따르면 “포을도는 대청이다(包乙島卽大靑)”라고

하여 대청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서도 대청도가 안서대도호부 웅진현 백령진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령진(白翎鎭)은 원래 고구려의 곡도(鵠島)인데 고려에 와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진(鎭)으로 하였으며 1018년(현종 9)에 진장(鎭將)을 두었다. (중략) 여기에는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가 있다.

『고려사』 지리지, 권 12

대청도가 속해 있던 백령진은 1357년(공민왕 6) 백령으로 가는 항행로가 험난하다고 하여 백령진의 소재지를 육지로 옮겨 문화현 동춘가을산에 두었다. 이때 백령진은 육지인 문화현 동춘가을산에 있었으나, 백령도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백령’이라 하여 장연현(長淵縣)에 속하였다. 이로 볼 때 고려 말에는 대청도가 황해도 해주 장연현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6년(태종 6) 대청도는 웅진현에 편입되었고, 1428년(세종 10)에는 이곳에 목우장이 설치되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웅진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청도(小靑島)[수로로 75리 떨어져 있다. (중략) 본래 해주(海州)에 딸리었는데, 태종(太宗) 6년에 웅진현에 붙이었다.】

대청도(大靑島)[현의 서쪽에 있는데, 수로로 75리 떨어져 있으며, 옛 궁궐 3칸, 뒷간 1칸과 담의 옛터가 있다. 고려 충숙왕(忠肅王) 4년에 원나라 황제가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이 섬에 귀양보냈다가, 10년 10월에 소환(召還)하였고, 11년에 발라태자(勃喇太子)를 이 섬에 귀양보냈다가, 16년 3월에 소환하였으며, 17년에 선제(先帝)의 태자(太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를 이 섬에 귀양보냈다가, 충숙왕 복위 원년(1332) 12월에 소환하였다. 지금은 소를 놓아 먹인다.】

『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 해주목, 웅진현

이를 통해 장연에 속했던 대청도가 1406년(태종 6)에 다시 웅진현 소속으로 복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령도나 대청도는 똑같이 원의 왕족인 아목가나 발라태자 그리고 도우첩목아가 귀양살이를 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청도가 백령진에 속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기록자의 혼선인 듯하다. 웅진현 소속이던 대청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는 또 다시 장연현으로 옮겨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 장연현 산천조에는 대청도와 소청도가 장연현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어 같은 책에 부기된 기록에 『대명일통지』에는 “대청서(大靑嶼)·소청서(小靑嶼)로 되어 있

는데 곧 이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청서(靑嶼)’는 『해동역사』 제24권 형지(刑志) 형제(刑制)에 보면 다음과 같이 대청도와 소청도를 의미한다.

청서(靑嶼)는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를 가리키며...

『해동역사』 제24권, 형지(刑志)

그런데 왜 이 섬들이 ‘청도(靑島)’로 불렸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해동역사』에 부기된 두 가지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개성에 약 1개월 간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대청서는 멀리서 바라보면 울창한 숲이 진한 눈썹과 같으므로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소청서는 대청서와 모양새가 같은데, 다만 그 산이 약간 작고 주위에 초석(礁石)이 많을 뿐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청도와 소청도는 모두 장연현(長淵縣)의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대청도는 광주(廣州)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일명 대청서라고도 한다. 원나라 문종(文宗)이 그의 형의 아들인 타환첩목아(妥歡帖木兒)를 고려로 내쫓고서는 그로 하여금 대청도에 살게 하였다가, 얼마 뒤에 광서(廣西)의 정강(靜

江)으로 옮겼는데, 바로 이곳이다. 대청도와 가까운 곳에 또 소청서가 있다.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 대청도 안에는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궁궐 터가 있어 부서진 기왓장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모두 청요(靑瑤)이다.

『해동역사(海東釋史)』 속집(續集) 제13권, 지리고(地理考) 13

여기서 올창한 숲은 멀리서 보면 푸른색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서’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타환첩목아는 원의 혜종(惠宗, 1332~1370)으로 순제(順帝)라고 불린다. 즉 원의 순제가 고려의 대청도로 쫓겨나 있을 때 축조한 궁궐 기와가 모두 ‘청요’이기 때문에 이 섬의 이름이 청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750년경에 저술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장연 남쪽 바다 가운데에 대청 소청 두 섬이 있는데 둘레가 꽤 넓다. (중략) 섬에 지금은 사람이 없고 수목이 하늘을 가리었다.

『택리지』 팔도총론(八道總論) 황해도

이를 통해 대청도에는 사람의 거주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청도에는 1793년(정조 17)에 정민사의 건의가 있은 후, 둔(屯)이 설치되고 별장(別將)을 두어졌다. 1799년 수원부(水原府)로 편입되었고 수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청도와 소청도에 각각 진(鎭)을 설치하고 수원부의 장교 중에서 진장(鎭將)을 임명하여 1년씩 근무하게 하였다. 진장 제도는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 대신 도장(島長) 중심의 행정체제로 바뀌었으며, 공식적인 소속 역시 수원부에서 장연부(長淵府)로 변경되었다.¹⁾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대청도는 대청리가 되었고, 소청도는 소청리로 개편되어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에 통합되었다. 1942년 백령면에는 대청출장소가 설치되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8·15광복 후 38도선은 군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남북



『팔도지도』(규10331)의 대청도와 소청도

1) 웅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웅진군향리지』, 1996, 528쪽 참조.

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백령면 전체가 옹진군에 편입되면서 대청도 지역도 옹진군에 소속되었다. 1962년 백령면에 대청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74년 7월 1일 대청도와 소청도를 합하여 대청면을 설치하였다. 다음해인 1975년 5월 20일에는 옹진군 조례 제341호에 의해 대청면에 소청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개편되면서 옹진군 전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으로 편제되었다. 현재 대청 1리~7리, 소청 1리~2리 등 9개리로 운용되고 있다.

대청도진(大靑島鎭)

대청도는 원래 황해도 장연에 속한 섬으로 백령도의 속도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들어 해안지역의 방어체계 정비와 화성유수부가 설치되면서 두 섬은 서로 소속이 바뀌었고 군영이 설치되었다.

1793년(정조 17) 대청도와 소청도 두 섬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섬을 개간하자는 좌참찬 정민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곳에 둔전을 설치하고 임시 별장을 파견하였다. 다음해 2월 황해도 수군절도사 이해우가 두 섬에 중군(中軍)을 파견하여 섬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선박의 침입으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1799년(정조 23)에는 새로 신설된 화성의 위상을 높이기 위

해 화성유수부에 속하게 하고 두 섬에 각각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은 화성부 장교 중에서 1년씩 번갈아가면서 임명하였다. 이 두 섬이 수원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시킨 것은 정조가 당시 관심을 가졌던 화성의 운영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이 설치된 이후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당시 둔에 대한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후 1861년(철종 12)에 진장으로 부임한 임지형(林芝馨)은 부임 초부터 도서의 방어상태와 주민의 생활상태를 살펴 대책을 세우고, 「대청도진장선생안·설서(大靑島鎭將先生案·設序)」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대청진은 1894년 도장(島長)제도의 신설로 폐진될 때까지 약 100여 년을 지속하였지만 그 사이에 둔전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즉 백령진의 이속(吏屬)들이 갖은 명분을 내세워 수탈했던 것이다. 결



대청도진 진장 임지형(林芝馨)의 「대청도진장선생안·설서」

국 1893년(고종 30) 대청도와 소청도 주민들의 장적(帳籍)은 모두 수원 유수영으로 이속되었다. 이후 1914년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대청도의 중심지가 선진동으로 옮겨지면서 대청면 동내동의 대청진청은 빈 집으로 남아 있다가 1921년 김학선에 의해 사숙(私塾)이 건립되었다. 1923년 대청사립보통학교가 인가되어 1929년 학교가 이전한 후 진청사 건물은 철거되고 함석지붕의 목조 공회당이 되었다가 근래 보건소가 건립되었다.

3. 덕적도

덕적면은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75km 떨어져 있으며 면적 22.1km² 해안선 37.6km로 남한에서 37번째로 큰 섬이다. 덕적면은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야도, 울도, 굴업도, 지도 등 7개의 유인도가 있으며 선미도, 먹염(묵도, 먹도) 등 38개의 무인도가 있을 정도로 커다란 군도를 이루고 있다.

덕적도의 옛 지명은 덕물도(德勿島, 德物島), 득물도(得物島), 인물도(仁勿島) 또는 수심도(水深島) 등으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고려 말 왜구에 관한 기사에서 덕적을 ‘덕물’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덕적이라 쓰고 ‘덕물’로 발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클 인(仁)자를 사용하여 인물도(仁物島)·인물도(仁勿島)라고도 표기했는데 본래 ‘큰 물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덕적도의 원명은 수심도(水深島)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깊고 큰 바다의 큰 섬’이라는 뜻으로 이를 한자화하면서 큰 덕(德)자와 재물 물, 또는 만물 물(物)자인 ‘덕물(德物, 德勿)도’라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본래 덕적면은 남양도호부 지역으로 1486년(성종 17) 인천부로 옮겨서 진리·울도·익포·우포·북리·소야·문갑·백야·승봉·굴업의 10개 섬(리)을 관할하였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된 후 1973년에는 용진군에 편입되었으며 1983년 승봉리를 자월면에 넘겨주면서 현재의 8개 섬이

되었다.²⁾

황해에서 경기만의 연안과 강하구에 산란하러 들어오는 회유성 어종이 대규모 어장을 이루는 중심에 덕적도가 위치하고 있어 근대화된 수산업이 일찍이 시작되면서 민어파시, 새우파시가 60년대까지 지속되어 인천의 수산업을 견인하기도 하였다.

덕적진(德積鎭)

덕적도는 경기만에서 황해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했기에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조선시대에 진(鎭)이 설치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덕적도는 덕적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조선시대 쇄환(공도)정책이 해제된 후 가장 먼저 육지에서 인구가 유입된 곳이다. 물론 섬과 해역에 산물이 풍부한 것도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시대 군영이었던 덕적진은 1652년(효종 3) 처음으로 둔을 설치하고 만호를 두었다가 1708년(숙종 34) 첨사를 둔 기록이 『대동지지』에 보인다. 또한 덕적도의 향토사학자 김광현의 『덕적도사(德積島史)』에 따르면 덕적진은 1652년(효종 3) 처음 설치되어 1723년(경종 3)에 혁파되었지만 1740년(영조 16)에 복설(復設)되었다고 한다.

덕적진의 설치 이유는 덕적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개성, 한양을 중심으로 황해(黃海), 경기(京畿), 양서

2) 인천광역시, 『인천의 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 54쪽.



덕적도 진리 절제사 비석 『웅진군지』

(兩西) 지역을 잇는 주요 수로(水路)였기 때문이었다. 덕적도는 서해 연안에서 충청지역으로 들어가는 수로(水路)의 요충지였다. 덕적도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멀리서는 삼국시대 나당연합군 소정방(蘇定方) 군대의 이동 경로와 가깝게는 청일전쟁(淸日戰爭) 당시 청군(靑軍)들의 병력 수송선과 일본 전함 사이에 벌어진 충돌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역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고려 공민왕 때 실시된 전함(戰艦) 건조 사업을 비롯한 해방 강화에 대한 의지가 조선왕조까지 이어져, 15세기 중엽까지 남양, 안산, 인천, 교동, 강화 등지에 수군(水軍) 진영이 운영되었다.

경기지역 수군 편제상에서 각 진영의 승강(乘降) 조치가 간혹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남양과 교동을 중심으로 한 수군 조직은 1485년(성종 16) 경기수영(京畿水營)이 일시적으로 혁파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56년(명종 11)에는 혁파되었던 경기수영을 다시 설

치하고 경기지역의 연안 방비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을묘왜변(乙卯倭變)’을 전후한 시기에 왜구의 노략질이 대규모이며 조직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왜구의 침입과 같은 국지적인 변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을 겪은 조선왕조는 유사시 왕실과 조정의 안위를 담보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의 설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강화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은 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남양의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옮기는 한편, 황해·경기·충청 3도(道)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 군영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국방 강화에 전력하였던 조선 효종대(孝宗代)에 이르러서는 중부지역 수군 본부격인 통어사(統禦使) 군영의 교동 이설로 공백이 우려되던 남양지역 인근에도 도서(島嶼) 지역을 중심으로 수군 군영을 증설하였다. 이 시기에 ‘덕적진(德積鎭)’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652년(효종 3) 특진관(特進官) 이완(李浣)의 건의에 따라 덕적도에 둔영(屯營)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수군만호(水軍萬戶)의 군영으로 시작된 ‘덕적진’은 이후 수군 218명에 방선(防船) 1척, 병선(兵船) 1척, 보경선(報驚船) 1척, 사후선(伺候船) 1척, 급수선(汲水船) 1척을 각각 보유한 수군첨사(水軍僉使) 군영으로 승격되었다. 덕적진의 설치로 중부지역 수군 본부가 위치한 교동에서부터 주문도의 주문진, 장봉도의 장봉진, 영종도의 영종진으로 이어지는 도서지역 중심의 수군 방어선이 완

성되었다.

조선전기의 수군 진영들이 해안선을 따라 복상한 뒤 상륙하여 약탈을 일삼았던 왜구들을 방어하기 위해 내륙 해안가 등지에 설치되었던 것과 다르게, 조선후기에는 해상으로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광범위한 해역을 보다 우선적으로 방어하고, 적들의 동향을 사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영들이 전진 배치되었다. 이는 ‘보장처(保障處)’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도 지역의 안위를 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정의 전략인 동시에 당시 서남해안에서 극성을 부리던 해적 및 황당선(荒唐船)들에 의한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1708년(숙종 34)에는 ‘덕적진’을 수군첨사(水軍僉使) 군영으로 승격시켰다. 1723년(경종 3)에는 잠시 군영이 혁파(革罷)된 시기도 있었지만, 조정대신들의 계속된 해방 강화에 대한 건의에 따라 1740년(영조 16)에 덕적진은 다시 설치되었다. ‘덕적진’의 재설치 이유는 먼 바다의 경계와 경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급보(急報)를 도성으로 전달하도록 하였고, 객사(客舍)와 동헌(東軒), 군기고(軍器庫), 장교청(將校廳) 등 10여 채의 건물을 신축하여 군진(軍陣)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하였다. 이후 ‘덕적진’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군진(軍陣)이 완전히 혁파될 때까지 덕적도와 인근 부속 도서인 소야도, 승봉도 등의 행정과 군사를 모두 관장하는 독진(獨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덕적진의 위치는 초기에는 덕적도 윗말산 중턱이었다. 현재 진리마을에서 확인되는 터는 복설된 이후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영조 때에 복설된 덕적진 역시 1894년 개혁 조치로 혁파된 이후 그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말에 면사무소가 들어서기 전까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면사무소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다시 방치되어 있다.

덕적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덕적군도 종합학술조사』(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서 제2집) 해당 유적의 지표조사를 통해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이곳을 ‘덕적도 진리유물산포지 3’이라고 하면서 ‘덕적진지(德積鎭址)’라는 부제를 병기하였다. 당시 현장 조사에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덕적면 진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우체국의 신축공사 현장과 그 주변으로 지표에 노출된 상태의 조선시대 자기편과 기와편을 수습하였다. 또한 우체국 남동쪽으로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경작지 주변으로도 동일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 도기편, 자기편을 수습하였다. 당시 수습된 조선시대 유물들을 근거로 현재 진리마을에 조선시대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덕적진과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유물과 관련된 지표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장봉도

장봉도는 인천에서 북서방향으로 18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남쪽에는 영종도가, 북쪽에는 강화도가 있다. 장봉도가 속한 북도면은 흔히 ‘삼형제 섬’이라고 일컫는 신도, 시도, 모도 4개의 유인도와 신도먹염[信梧島], 시도먹염[矢梧島], 와염[臥島], 사염[蛇島, 뱀섬], 날가지[飛加之島], 암서도[岩嶼島, 암여도, 감투섬], 서만도(西晩島), 동만도(東晩島), 신도(新島), 대말곶[大末島, 말곶] 등 10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장봉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주로 강화부에 소속되었다. 장봉도는 강화부 진강현에 소속되었으며, 신도와 시도는 강화도호부 소속이었다. 그리고 모도는 조선후기부터 지명이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신도의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섬들은 모두 1668년(현종 9) 강화도 내의 모든 현을 강화도호부로 합치면서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717년(숙종 43)에는 장봉도에 수군진(水軍鎭)이 설치되었는데, 이 수군진은 교동도에 있었던 통어영(統禦營)의 소속이었다. 장봉도에는 국영목장이 있었는데 목장과 이에 소속된 토지는 병조와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하였고, 섬 주민들의 민생관련 문제는 강화도호부에서 담당하였다.

1895년 6월 18일에 공포된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조칙 및 칙령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구역주의인 8도제를 폐지하고 소

구역주의에 입각하여 한성부·인천부 등의 23부(府)로 편제하였다. 또한 부·목·군·현 등은 모두 군(郡)으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강화도호부는 강화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강화도 서남쪽 도서 14개의 유인도를 묶어서 제도면(諸島面)을 신설하였다. 이때에 장봉진이 혁파되고 목장도 폐장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2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화군의 여러 도서 중에서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4개의 유인도와 그 부속 무인도가 부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도면이 되었다. 광복 이후 법정리를 자연부락 단위인 행정리로 분리하면서 단일 부락인 시도, 모도를 제외한 신도와 장봉도를 행정리로 분리되었고, 1968년 8월 장봉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천군이 없어지면서, 북도면을 포함한 부천군 소속의 6개 도서면은 옹진군에 통합되었다.

북도면의 섬들 중에서 조선시대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장봉도는 북도면의 4개 유인도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하였다. 동쪽은 모도, 서쪽은 동만도·서만도, 동남쪽은 영종도·용유도, 북쪽은 강화도이다. 장봉도는 폭이 좁으나 길이가 길고 높고 낮은 산봉들이 섬의 길이대로 끊이지 않고 줄지어 있는 형태이다. 실제로 중앙의 국사봉을 중심으로 동쪽은 웅암 상봉산, 서쪽은 싸리골의 봉화산 등을 주축으로 많은 산봉우리들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다. 장봉이라는 섬이름은 여기서 연유한 듯하다.

1) 장봉진(長峯鎭)

진촌(鎭村)이라 불리는 장봉3리 일대는 1717년(숙종43)에 설치된 장봉수군진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장봉진의 위치는 진촌 일대로 여겨지지만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밭 주변에 여러 가지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그리고 장봉3리 진촌에서 ‘대빈창’으로 넘어가는 ‘비석거리’ 언덕에 여러 기의 장봉만호의 선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진촌리 일대에 장봉진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봉진의 설치는 강화수로의 방비를 강화하는 숙종대의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장봉도에 군영을 설치하는 문제가 강화도의 돈대 축조를 논의하는 『숙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871년 『경기읍지』(규12177) 장봉진지 지도



장봉진터

장봉도(長峰島)와 자연도(紫燕島)는 해문(海門)을 분치(分峙)하여 남쪽으로 조운(漕運)하는 입구가 되고 매음(煤音)은 교동(喬洞)과 몇 리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강도(江都) 사람과 물을 격(隔)하여 서로 말할 수 있으며, 그 섬은 또 매우 넓어 소금을 만드는 호구와 고기 잡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으니, 비록 목장(牧場)이 있더라도 진(鎭)을 설치하기에 족하고, 장봉도는 토지가 심히 비옥하고 사람이 모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포곡(浦曲)이 있어 수십 척의 선함(船艦)을 정박시킬 만한 데이니, 또한 1보(堡)를 설치할 만합니다.

『숙종실록』 7권, 1678년(숙종4) 10월 23일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와 부사직(副司直) 이원정(李元禎)이 강도(江都)를 살펴본 뒤 돌아와 지도(地圖)와 서계(書啓)를 봉진(奉進)하면서 장봉도의 지리적 중요성 그리고 토지의 비옥함 등으로 진(鎭)을 설치할만한 장소로 추천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장봉도는 목마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장처인 강화의 외연을 방어하는 중요



1871년 『경기읍지』(규12177) 장봉진지

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장봉진의 설치 문제는 1678년(숙종 4) 김석주의 건의 이후 그 유효성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으며 설치가 지체되었다. 그후 1683년(숙종 9)에 강화유수 이민서(李敏紱)의 건의로 본격적으로 설진이 추진되었으나, 1717년(숙종 43)에 가서야 진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장봉진에는 수군만호(水軍萬戶)가 배치되어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되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장봉진에는 전선 5척과 수군 470명을 비롯하여 705명에 이르는 군병이 배치되었고 거주민은 49가구로 남자는 77명, 여자는 58명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1871년 『경기읍지』의 『장봉진지』에는 재정과 병력사항 등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 그 운영 규모를 알 수 있다.

재정 : 환곡으로 활용하는 군량미는 18석 2두 2승 5합이다. 양방전(糧防錢: 군량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돈)은 1,410냥인데 경기도와 황해도에서도 와서 그 돈을 쓰고 있다. 전세(田稅)는 모아서 사복시에 납부한다. 답세(踏稅) 역시 사복시에 납부한다

군사 : 장봉진 수군의 병사는 본진에 62명이 있고, 외읍에 170명이 있다. 장봉진에서 운용하는 군선은 대선과 소선 모두 7척이다. 무기는 조총 60자루가 있지만, 3자루는 철로 된 몸통이 부러졌으며 12자루는 장식이 파손되었다. 이는 1870년(고종 7) 6월 삼군부와 강화에 있는 군영에서 시험 발사하던 중에

망가진 것이다. 장봉진에 남아 있는 무기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은 승자총통이 19자루가 있고, 총구가 세 개인 삼혈총(三穴銃)이 2자루, 납으로 만든 총알이 3,127개, 화약통 60개, 이약통(耳藥筒) 60개, 화약 심지 6사리가 있다. 그리고 칼 종류로는 환도 30자루와 월도(月刀) 2자루, 찬혈철장(鑢血鐵杖) 2개, 모양이 긴 삽 20자루 등이 있다. 또한 기타 군영에서 사용되는 물건으로는 나팔 1쌍, 낫쇠와 징 각 1정, 호적(呼笛) 1쌍, 주장(朱杖: 붉은 칠을 한 몽둥이) 1쌍, 대현령(大懸鈴) 1개, 영기(令旗: 군령을 표시하는 깃발) 1쌍, 군기정(軍器鼎) 3좌, 가내(加乃: 가래) 1개, 도끼 1개, 각구착(角九錯) 1개가 있다.

『경기읍지』 「장봉진지」 (1871년)

조선말에는 이양선의 출몰과 병인·신미양요로 장봉진의 전력이 증강되기도 하였으나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2) 봉화산봉수

장봉도의 북서쪽 해발 130m 봉화산 정상에는 서해 연안의 주요 봉수 가운데 하나였던 봉화산 봉수대의 연대(煙臺)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석축의 일부가 남아있다. 전언에 의하면 봉화산의 봉수는 기점 봉수로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장봉도에 봉수대가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684년(숙종 10) 8월 6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좌참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장봉(長峰)과 위문(位文) 두 섬은 지형으로 논하자면 진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군병을 적게 배치하면 힘이 될 수 없고 군병을 많이 두려면 형편이 닿지 않는 점입니다.

『비변사등록』 1684년(숙종 10), 8월 6일

이처럼 장봉진의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점에서 숙종 연간에 장봉진이 설치되면서 봉수도 함께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봉수대는 할석을 이용해 원형으로 쌓은 화구부와 통로처럼 길게 석축한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다. 둥근 화구부 바닥에는 기단석으로 보이는 석렬도 일부 남아있다. 기단 석렬은 50~70cm의 산돌을 이용해 쌓았는데 북쪽과 동쪽은 방형이나 서쪽은 원형이다. 석축은 할석을 이용해 쌓았는데 화구부의 규모는 벽면 높이 150cm, 하부 두께 100cm, 상부 두께 50cm이고 내부지름은 170~180cm이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지표를 얇게 파고 화구부와 이어 양쪽에 돌을 쌓아 교통로처럼 시설한 것으로 내부 너비는 100cm이다. 이 석축 통로는 320cm 길

이로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Y'자 모양으로 갈라져 1×2m 크기 개인호 형태의 방형 석축구조물에서 끝난다. 봉수대는 할석만을 이용하여 쌓았으나 그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화구부는 북쪽 바다를 향하는데 북쪽으로 강화도와 남쪽으로 영종도가 가깝게 보인다.

3) 장봉도 목장과 마성

북도면 장봉1리 응암 일대는 1265년(고려 원종 5) 삼별초의 난으로 장봉도에 신궁을 건립한 뒤 왕이 신궁에 환어하여 현재 절골 터로 불리는 지명이 남아있다. 장봉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강화도와 서울을 방어하는 전방기지로 군사시설의 용도로서의 역할과 함께 군마 양성의 적지로 말을 사육하여 육지의 군영에 군마를 제공하는 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장봉도 목장이 처음부터 말목장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강화부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서 이미 조선초기부터 장봉도에 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지만, 말이 아닌 소를 키우는 목장이었다.

남쪽 30리에 장봉도(長烽島)가 있고 길이 40리, 너비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이는데, 통진현(通津縣)에서 관장한다.

『세종실록지리지』 강화부

이처럼 설치 초기에 소를 기르던 장봉도 목장은 다음의 『세조실록』 1457년(세조 3) 9월 7일의 기록을 통해 조정에 긴요한 준마를 번식하여 공급하는 말 목장으로 기능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경기 강화(江華)의 장봉도 목장(長峯島牧場)에 일찍부터 호마(胡馬)를 방목(放牧)하여 따로 번식(蕃息)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건장한 아마(兒馬)와 수말(雄馬)이 아울러 46필(匹) 있사온데, 청컨대 5세(歲) 이하의 양마(良馬) 10필을 가려내어 서울로 보내고, 그 나머지 수말 36필 속에서 북일(北一)·진강(鎭江) 두 목장에 각각 8필 씩 보내어, 감목관(監牧官)으로 하여금 그 방목을 감독하게 하고, 모치(毛齒)를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마적(馬籍)에 등록하게 하소서.

- 『세조실록』 9권, 1457년(세조 3) 9월 7일

이후 장봉도 목장은 강화의 진강목장 등과 함께 중요한 군마 공급지로 경영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중에 다수의 군마를 잃게 됨에 따라 군마의 적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급처로 언급될 만큼 장봉도 목장은 중요한 군마의 방목지였다. 장봉도 목장은 조선시대 내내 서해 도서의 주요 목장으로 운영되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전국의 말목장을 폐지함에 따라 1896년 무렵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말을 방목하던 목장구역은 국사봉 동쪽 말문고개를 경계로 한 섬의

동쪽 전역으로, 말문고개가 그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목장 안에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말들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선 숙종 때에 말문고개를 중심으로 산 중턱과 골짜기, 남북해변까지 돌로 성을 쌓았다. 그리고 문을 만들어 관리하는 사람들만 드나들게 하였다. 그 말문이 지금의 말문고개이다.

당시의 석축으로 사용된 돌은 도로확장 때 석재로 사용되거나 산을 깎아내리면서 남쪽 흙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유적이 사라지고, 북쪽의 일부 성지가 남아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두터운 낙엽층과 수풀에 가려 확인이 어렵다.

5. 신도

조선시대 말목장이 있었던 신도는 북도면에 속하며, 면적은 6.92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16.1km이다. 신도에는 조선전기부터 말목장이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이 순박·성실하다 하여 그 명칭을 신도(信島)라 불렀다고 한다. 구한말까지 신동[평촌=염촌]에 국한되었던 취락은 일제시기에 고남리와 구로지까지 확산되었고, 1970년대에는 신도마을과 신촌을 비롯하여 북동, 남동, 남서 해안의 구릉지로 확대되었다.

인천의 작은 섬과는 달리 신도의 산은 면적에 비해 고도가 높지 않고 경사도 완만한 편이다. 이에 지금은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되지만, 조선전기부터 목장이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다. 가장 높은 구봉산도 높이가 178m에 불과하고 그 북쪽의 구릉지 사이에 펼쳐진 간석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금이 생산되었다. 조선후기 이곳에서 만든 소금이 품질이 좋아 진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진염(眞鹽)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별말 또는 염촌(鹽村)마을 역시 전오염(煎熬鹽) 생산과 관련된 이름이다.

1) 신도 목장과 마성

북도면 신도 3리에 조성되었던 신도 목장(信島牧場)의 설치 연대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1434년(세종 16)의 『세

『종실록』 기록을 통해 신도에 이미 말들이 방목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선초기부터 신도에 목장이 설치되었고, 흑오명(黑五明)과 눈·불이 검고 굽이 검고 결백한 암·수 말이 방목 사육되고 있었다.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올려 인근의 섬인 볼음도에서 방목하게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신도는 볼음도와 함께 국가에서 중요시하던 군마를 사육하였던 목장이다.

강화부(江華府) 신도(信島)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는 흑오명(黑五明) 자웅마(雌雄馬)와 주둥이가 검고, 눈이 검고, 불[賢]이 검고, 굽[蹄]이 검고 결백(潔白)한 자웅마는 그 수요가 적어서 번식이 많지 못하니 두 빛깔의 말을 각 도 목장에서 골라 내고, 또 경상도·전라도로 하여금 암·수 아울러 15필씩을, 충청도·경기도·평안도·함길도로 하여금 각각 5필씩을 찾아서 올려 보내게 하여 경기도·볼음도에 방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평안도는 바치지 말게 하였다.

- 『세종실록』 66권, 1434년(세종 16) 10월 14일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신도 목장에는 국마 36필이 방목되고 있었고, 선조때 기록인 『목장도(牧場圖)』에는 90필이 방목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숙종~정조 연간에 강화 일대의 목장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1785년(정조 9) 강화의 길상목장을 폐장하고 그 목마



신도 마장들

를 신도 목장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아 신도 목장은 조선후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목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도 목장은 강화군이 민간기지결(民間基址結) 등을 원총(元總) 예산에서 감해 달라는 『각사등록』 1896년(건양 1) 3월 27일 문서에도 보인다.

새롭게 올린 총결(總結) 내에 소속한 여러 섬 중 신도(信島)의 옛 목마장의 결
총은 7결 80부 2속.

이 자료에서 옛 목마장이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신도 목장은 1896년까지 유지되다 이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도 목장의 관리는 사복사에서 직접 담당하였다. 당시 목장의 위치는 구봉산(九峰山) 북쪽으로 황새부리, 동쪽인 선창구미 쪽으로부터 숙개지역과 마장(馬場)지역 일대, 그리고 수천내 마골재, 배주개 북쪽

으로부터 왕봉산(王峰山) 북록을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이었다. 현재의 ‘마장’이라는 지역은 이러한 목마장의 출입구 부분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마장에는 마성이 수축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구봉산 중턱부터 왕봉산 북록에 걸쳐 쌓았던 마성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어 과거의 모습을 추측하게 해주고 있다. 남아있는 마성의 석축은 주로 구봉산 북서쪽의 신시도 연육교 인접 구릉에서 확인되는데, 대개는 기저부의 석축만 남아 있다. 원래 마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석재들이 주변 과수원과 경작지, 주택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다.

6. 자월도·대이작도·소이작도

자월도·대이작도·소이작도 세 섬은 본래 남양부 영흥면 지역으로 자월도는 중앙부에 산지가 동서방향으로 연이어 뻗어 있고, 그 남북해안에 사빈과 갯벌이 소규모로 발달해 있는 섬이다. 자월도의 면적은 7.1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20.4km이다. 대이작도는 면적 2.57km², 해안선 길이는 11.8km이고, 소이작도는 면적 1.36km² 해안선 길이는 10km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합친 지명이 이즉(伊則)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양읍지(南陽邑誌)』에는 이작(伊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고려사』 「변광수전(邊光秀傳)」에는 고려 말과 조선초기 왜구들이 이 섬을 점거하고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선을 약탈하던 근거지라 하여 이적(夷賊) 또는 이적(二賊)이라 불렀다고 한다.

소이작도는 자월도의 남쪽 10km 거리에 위치하며 산봉이 높고 험준하여 농경지가 별로 없다. 섬 주위가 대부분 암벽과 급경사로 선착장 외에는 배를 닿만한 곳이 없는 지형이다. 대이작도와는 갯골을 사이로 지척지간이며 동서간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소야도와 마주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대이작도와 함께 이즉(伊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도 소이작도 북쪽해안에 ‘취청골’이라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해적들이 살던 집터와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적도(夷賊島)라고 하였다. 자월도(紫月島)는 고려시대부터 남양부에 소속되었는데 소물도(召勿島), 조월도(祖月島), 조홀도(祖忽島), 소홀도(召忽島) 등으로 불렸다.

『고려사』에 자월도는 조홀도(祖忽島), 조월도(祖月島), 소홀도(召忽島), 소물도(召物島) 등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왕이 원나라에서 귀국하자 김주정 등이 내시를 시켜서 왕에게 풍간(諷諫)하였으므로, 왕은 김방경을 불러 은밀하게 토의하고 이분희를 백령도(白翎島)로, 이습을 조홀도(祖忽島)로 귀양 보내고 그 집을 몰수했는데.

『고려사』 제123권, 열전 제36, 폐행 1, 이분희

한희유는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끝내 어떤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월도(祖月島)에 귀양가게 되었다.

『고려사』 제104권, 열전 제17, 한희유

자월도가 조홀도 또는 조월도로 이름된 고려시대에는 서해의 여러 섬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귀족들과 원 왕족의 귀양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말 왜구가 창궐했을 때 자월도는 그들의 침입을 당했다.

지금도 소이작도 북쪽 해안에 ‘휘청골’이라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해적들이 살던 집터와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이적도(夷賊島)라 부르기도 한다.

소홀도(召忽島) : 예전에는 소물도(召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20리이며, 밭[田地]이나 사는 사람이 없다.

이즉도(伊則島)는 독감도 동쪽에 있으며 주위가 35리 목장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남양도호부

조선시대에 자월도는 남양부에 속하면서 소홀도·소물도로 이작도는 이즉도로 기록되었다.

1429년(세종 11)에는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를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면서 ‘소물도(召物島)’를 추천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³⁾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자월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인 듯하다.

또한 1767년~17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의 「남양부」를 살펴보면, 승황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자월도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지도가 제작될 당시까지 자월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3) 『세종실록』 세종 11년 11월 11일(계축).

『해동지도』, 『지승』 등의 고지도에서도 자월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광여도』 『경기지도』에는 ‘소홀도(小忽島)’라고 표기된 섬이 보인다. 하지만 같은 지도 ‘남양부’에는 ‘소홀도’가 빠져 있다. 이는 승황도, 대이작도, 소이작도가 두 지도 모두에 나오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1861년 김정호가 편찬 간행한 『대동여지도』를 보면, ‘소홀(召忽)’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황(昇黃)’에는 ‘훈국둔(訓局屯)’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도감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홀과 승황 등은 화량진(花梁鎭)에 속하였고, 대이작과 소이작은 덕적진(德積鎭)에 소속되어 있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자월면의 섬들이 남양부에 함께 표기되어 나타난다.



『1872년 지방지도』 「남양부」

자월도는 조선개국 직후 남양도호부 소속이었으나, 1486년(성종 17) 남양부에서 안산군으로 그 소속을 옮기면서 목장이 설치되었고, 주위가 32리가 되었다.⁴⁾

1519년(중종 14)에 다시 남양부로 편입⁵⁾되었는데, 기우제를 지낼 장소로 거론⁶⁾되었다. 이후 자월면 지역은 여전히 남양부에 속했으며, 숙종 초에 대부도면으로 편입시켜 소홀동(召忽洞)으로 변경하고, 대·소이작도를 이작동(伊作洞)과 승황동(昇荒洞)으로 개편하였다.

1895년(고종 32) 이른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자월면 지역 중 조홀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는 남양군 영흥면으로 편입되었다. 일제는 1909년과 1910년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자월면 지역은 인천부 덕적면에 편입된 지역을 승봉리로, 남양군 영흥면에 편입된 지역을 자월동, 대이작동, 소이작동으로 편제하였다. 이때의 개편으로 고려시대 이래 사용하여 온 조물, 조홀도 대신에 자월도란 지명이 사용되었다.

구한말부터 남안의 소물동 또는 큰말에 중심 취락이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슴개[녹포], 울곡, 요곡, 한리포 등지로 취락이 확산되었다. 1914년에는 소물도와 노차도를 병합하여 자월리가 되어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73년에는 옹진군에 속하였고, 1995년 인천이 광역시로 확대되면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이 되었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안산군.

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남양도호부.

6) 『중종실록』 중종 22년 5월 28일(갑진).

1) 자월도 목장

인천 연안의 섬에 국영 목장이 설치되면서 자월도에도 목장이 설치되었다. 자월도는 산지가 적고 평탄한 지역이 많으며, 덕적도 방면으로 통하는 대중국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대내외적 안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영목장이 설치되면서 자월도에 주민의 이주도 이루어졌다. 1436년(세종 18) 병조에서 각 목장의 감목관을 혁파하고, 그 지방 수령으로 겸하게 하자는 내용에서 지금의 자월도인 소홀도의 목장 기록이 보인다.

경기도의 자연도(紫燕島)·용유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목장은 지인천군사(知仁川郡事)로, 대부도(大阜島)·여흥도(呂興島) 목장은 남양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덕적도(德積島)·사야곶(士也串)·이작도(伊作島)·소홀도(召忽島) 목장은 좌도첨절제사(左道僉節制使)로, 매도(煤島)·장봉도(長峯島)·위도(位島) 목장은 정포만호(井浦萬戶)로, 주문도(注文島)·보음도(南音島) 목장은 우도첨절제사(右道僉節制使)로 겸해 임명하고, 감목관(監牧官)은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제74권, 1436년(세종 18) 7월 25일



『세종실록』 제74권 1436년(세종 18) 7월 25일

이와 비슷한 기록이 1477년(성종 8)에도 나타났다. 병조에서 경기관
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소홀도(召忽島)·이작도(伊作島)·독갑도(禿甲島)·사야곶이도[士也串島]·풍도(楓島)·승황도(昇荒島)의 6목장(牧場)은 모두 영종포(永宗浦)에 소속되었는데 초지량(草芝梁)만은 하나도 관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6목장은 모두 목자(牧子)가 없는데 영종포만이 홀로 지켜보는 폐단을 받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소홀도·이작도의 두 섬을 초지량에 소속시키고, 풍도·승황도·사야곶이도·독갑도의 네 섬을 영종포에 소속시켜서 노고하고 편안함을 고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1권, 1477년(성종 8), 6월 12일

이를 통해 소홀도(召忽島)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종포에서 목자(牧子)도 없이 여섯 목장을 관리하다보니 폐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홀도와 이작도의 목장은 초지량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다.⁷⁾

1486년(성종 17)에는 남양부에서 안산군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지금도 고사리골[古寺谷]에는 마성(馬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안산군.

2) 자월도 국사봉봉수

자월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국사봉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자월도 봉수터는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다가 산 정상 부근에 이르면 조금은 급한 경사를 보이는 곳에 있다. 국사봉 정상 부근에는 산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화강암 바위가 보이는데, 이 화강암을 이용하여 봉수대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는 장축 1,050cm, 단축 830cm의 타원형 기단석 위에 장축 280cm, 단축 250cm의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봉수대 벽면에는 높이 90cm 정도에 50×50cm의 ‘총안’으로 보이는 구멍이 세 군데 있으며, 봉수 입구에서 남서벽은 240×240cm 정도 방형으로 돌을 쌓아 원형에 방형을 붙여 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방형으로 돌을 쌓은 곳에서 북서쪽으로 200(북서방향)×330cm의 기단을 한 단 더 쌓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봉수의 형태는 아니며, 봉수 이외에 다른 기능까지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대이작도 부아산봉수

대이작도의 주봉인 부아산에 있는 봉수터이다. 부아산 정상은 같은 높이의 바위 봉우리 셋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데 봉수터는 현재 팔각정이 있는 곳에 있다. 평평한 지역에는 일부 지형을 돋우어 약간 봉긋한 곳에 할석을 서로 엮물려 둥글게 쌓아 불을 피우는 화구를 만들었다. 이곳 봉수는 다른 시설이 없이 화구만 설치하였는데, 화구 주위 바닥

에 묻혀 있는 돌로 보아
돌을 깔아 기초를 삼고
흙을 덮은 다음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크
기는 직경 120cm, 최대
높이 30cm로서 최고 3



대이작도 부아산봉수터

단까지 쌓았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후대에 새로 쌓거나 보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형태이며, 광복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이곳 봉수는 내륙에서 조사되는 장거리 연락체계로서의 봉수와는 다른 듯하다. 주민들의 설명처럼 어선의 출입과 해적선의 감시 및 출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대이작도 소리산봉수

대이작도 부아산봉수와 마주보는 소리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터이다. 이곳은 부아산 봉수터와 달리 아무런 시설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가운데가 얇게 파여 있고 둘레에 주먹크기의 산돌을 둥글게 돌렸던 흔적만 남아 있다. 이곳은 부아산봉수보다 바다를 살피기에 더욱 적합하다. 현재 확인되는 크기는 부아산 봉수터와 마찬가지로 직경이 120cm이다. 그러나 부아산봉수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간단한 불을 피울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영흥도

인천의 남서부 앞바다에 위치한 영흥군도는 유인도인 선재도·측도·부도와 1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 26.04㎢, 해안선 길이 42.2km이다. 2016년 7월 현재 영흥면 전체 3,097세대, 6,145명(남 3,385명, 여 2,7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29.6km 해상에 위치한다. 최고봉은 중앙에 솟은 국사봉(國思峰: 127.7m)이며, 동쪽에 대부도(大阜島), 북쪽에 무의도(舞衣島), 서쪽에 자월도가 있다.

영흥도란 지명은 ‘고려말 왕족으로 익령군(翼靈君) 왕기(王琦)라는 사람이 입도하여 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익령군의 영(靈)과 흥할 흥(興)을 합하여 영흥도란 지명이 탄생하였다고 전한다. 즉 왕기가 고려 왕가의 기운이 다해 곧 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가족과 함께 수도인 개성을 떠나 이 섬에 미리 피한 덕분에 이씨 왕조에 의한 죽음을 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흥도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國思峰·167m)과 관련해서, 이곳으로 피난을 온 고려의 왕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 ‘멸망해 가는 나라(國)를 생각했다(思)고 해서 산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삼국시대 영흥도와 선재도는 한강 하류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해상 교통로상의 요충인 덕물도와 남양만의 당항성을 차지하려는 삼국 간의 쟁패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시기



『고려사』 「지리지」, 당성군

는 남양만의 당항성이 덕적도를 거쳐 산둥반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시작지점이었으므로 영흥도와 엽별 인근 해역은 중요 항로상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에 번성했던 해상무역의 교통로였던 인천 앞 바다의 영흥도는 고려 왕족과 정치범의 유배지로 유명했다. 그리고 영흥도는 1231년 (고종 18) 몽고의 침입에서 1259년 강화가 맺어질 때까지 삼별초가 대몽항전을 한 곳이기도 하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길 때까지 영흥도에서 70여 일을 주둔하면서 전투를 하였고, 삼별초의 주력이 진도 다시 제주로 옮겼을 때도 영흥도는 항쟁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이는 영흥도가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섬 내에서 직접 군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흥도는 대몽항쟁기에 본격적으로 민간

집단의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흥도는 남양도호부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섬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쇄환(공도) 정책을 실시하여 공식적으로는 주민이 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서해도서지역에 국영 말목장이 운영⁸⁾되면서 국가적 관심과 함께 주민이 거주하였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선재도는 염부 2호, 영흥도는 염부 5호가 살고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남양도호부의 영흥도에 말목장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조선후기에는 영흥도 일대가 해양의 요충으로 기능하면서 거주 호수도 늘어났다. 1750년 제작된 해동지도의 영흥도에는 ‘인가(人家) 178호’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18세기 중엽의 『해서경기해로도』에도 연흥진(延興津)으로 표시된 영흥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거(人居)’가 표시되어 있다. 남양부에서 불도진(佛島津)-대부진(大埠津)-연흥진(延興津)-소야도진(蘇爺島津)을 거쳐 덕적진(德積鎭)에 이르는 해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대부진도에는 영흥수로로 이양선이 지나간 해로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등의 읍지류와 지도류에서 영흥도에 사람이 거주한

8) 영흥도와 선재도의 목장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678년 『목창지도』,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서경기해로도』 (18세기 중엽)

사실과 남양도호부 대부도면 소속의 포내동(浦內洞), 포내외동(浦内外洞), 소우동(小牛洞)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71년(고종 8) 5월에는 대부도(大阜島)의 진(鎭)에서 영흥도와 선재도의 토지와 호구를 관리하게 하였고, 1872년 5월에는 화랑의 수군진을 영흥도 업벌로 이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는 해상교통에서 영흥도의 중요성이 강조된 조치이며, 이로 인해 업벌의 약 30여 호는 모두 산 너머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흥도의 수군진 또한 다른 수군진과 마찬가지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군·면의 통폐합으로, 영흥면 지역은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66년 8월 24



『1872년 지방지도』 대부도의 영흥도

일 '부천시 조례 제137호'에 의해 영흥면 자월리(紫月里)에 자월출장소(紫月出張所)가 설치되었다. 이어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영흥면은 영종·북도·용유·덕적·대부면과 함께 옹진군으로 편입되었다. 영흥면의 자월출장소는 1983년 2월 25일 자월면으로 승격하여 영흥면에서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확대 개편되면서 옹진군 전체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1) 영흥진(靈興鎭)

영흥면 외2리 업별마을은 조선후기 수군진(水軍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업별마을은 남쪽으로 천연의 호안이 형성되어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영흥도(1919년)

있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수군의 군영이 자리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와 간략한 문헌기록 외에는 영흥진 터로 추정되는 업벌에 과거 진(鎭)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흥진 터를 비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진(鎭)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표에서 자기편 몇 점을 수습하고 교란층에서 몇 점의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을 수습하는 외에 직접적으로 영흥진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영흥진 설치에 관한 자세한 기록 또한 남아 있지 않다. 영흥도는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도호부에 속해 있던 섬으로 산은 낮고 평지가 많아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또한 웅진지역의 다른 섬들처럼 목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대동여지도』의 영흥도

영흥도에 대한 국방차원에서의 관심은 조선 고종조에 서양세력의 침략이 가시화되면서부터이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이후 조선정부는 강력한 쇄국정책을 내세우면서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였다.

계속된 서양의 외침은 연안 방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해 도서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수원유수인 신석희(申錫禧)는 연안의 도서지역에 수군진을 증설하여 강력한 방어태세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영흥도 방면의 방어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수군진을 설치하여 영흥도 인근을 요새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남양부에 위치한 화랑진을 영흥도로 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화랑진이 그 위치상 해안 방

어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졌다. 즉 1872년(고종 9) 5월 4일 화랑의 수군진을 영흥도 업별로 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설된 진의 진장은 기존의 화랑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종3품의 수군첨절제사가 맡았다.

한편 화랑진이 영흥도로 이전한 뒤에도 한 동안은 그대로 화랑진이라 불렸다. 이에 대해

신석희는 계속 화랑진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흥도 첨사로 바꿀 것을 건의함에 따라 화랑진은 영흥진 그리고 영흥도 첨사라 변경되었다. 영흥도로 진이 이설되기 전까지 이곳에는 약 30여 호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의 이설로 주민들은 모두 산 너머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흥도의 수군진 또한 다른 수군진과 마찬가지로 1894년 갑오개혁때 폐지되었다.



『고종실록』의 화랑진 영흥도 이설 기사

2) 영흥도 목장과 마성

웅진군 영흥면 외2리 일대는 영흥도 목장의 마성이 있던 곳이다. 영흥도 목장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중종 때부터는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때의 기록인 『목장도(牧場圖)』에는 영흥도에 “국마(國馬) 119필을 281명의 목자가 방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흥도의 목장은 1872년(고종 9) 화랑진을 영흥도로 옮기면서 폐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흥도 목장의 시설로는 외2리 뒷산인 ‘큰 산’ 정상에 동서로 마성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고, 엽별 큰 산 북쪽지역으로부터 양로봉(養老峯) 너머 신노루, 마경리(馬耕里)쪽과 가두리, 메부리, 화랑골 등지에도 마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영흥면 외2리의 야산 일대에도 영흥도 목장의 경계석으로 보이는 석축(石築)이 일부 남아 있다.

마성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석축은 1996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영흥진 추정지 시굴조사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한양대학교의 조사 당시 대부분 붕괴되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폭과 높이가 각각 50~60cm에 달하는 1열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어 조선시대 영흥도 목장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그간 보고되었던 외2리 일대 마성의 뚜렷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마성 추정지 부근에서 석축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들만이 일부 확인되었다. 전언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직원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잔존해 있던 마성의 석축들도 대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8.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응진 관방

1) 백령진지(白翎鎭誌)⁹⁾

【서(序)】

有邑必有誌，凡邑中大小規模莫不該載，又必有謄錄，批舉■牒並皆抄錄，事無經權。開卷瞭然，官長無新■茫昧之歎，吏胥有遵守考據之地。然則邑誌與謄錄固一邑之掌故，而並行不悖，闕一不可者。

蓋邑鎭一也，本鎭建置殆近二百年，而尙無一字記誌，所謂謄錄亦百不存一，所存者率多錄其汗漫，而遺其緊要，或以印署，或以白文，而誤字落書荒雜弊汚，殆無可觀。凡上司舉行鎭中注措，只憑吏胥之口。其循例酬應，猶可據其習熟見聞。而至若事異常規，必待考古證今，然後乃可了當者，則到茫昧無據，莫知所措。蓋以絕海僻島，一無聞人達士，俗尙儉嗇，而初無文獻故耳。本鎭官廁邊圉職，是節制兼監太僕之馬牛，其爲責任不輕且重矣。噫，十室之邑，必有忠信，炎風朔雪，莫非天王之地，況此距京師密邇關防，則烏可視之以荒服，而一任其憤憤貿貿，不成官府體段。遂忽地處之重，而爲列邑所輕侮哉。爲是慨惜，茲會收拾一二古蹟及因襲規模，寫成鎭誌，亦爲申明抄載謄錄之法。謹藏遵守之意，俾有者，據期以一洒貿貿之恥焉。記其顛末于卷首，旣爲島中吏胥勸誡，抑又用規後來涖鎭云爾。

9) 백령진지는 1802년(순조 2)에 발간된 저자미상의 필사본으로 31면에 걸쳐 백령진의 연혁과 운영상황, 백령도와 대청도의 형세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謹稽光海二年己酉，月沙李公建議設鎮，有奉承傳，施行節目八條。再次謄書印署小冊，此固爲實蹟，政堂又有板刻并小識，則今李公仁秀泣鎮時丁酉所揭也。取者所謂崔吏家冊子，則乃一片古紙而左右補綴，貼于休紙小冊上者也。始自高麗顯宗，止於我世宗大王十年戊申，則是必己酉以前有心人之所爲。而年代序事諒非杜撰，且其筆力西勁，字劃宛然，決非近世人所能。而流傳至今，誠是崑崗片玉也。得于破牒之中，且奇古人筆跡尚存，而留于小吏之家。李公好古揭板之意，亦有相感者。並記節目八條，及板上小刻于建置沿革之下，庸備古蹟。然蓋開高麗恭讓王時革，屬長澤縣，至我世宗大王十年戊申，還置鎮于本島云，則其間廢棄可驗，而自戊申至光海己酉，又爲設鎮，二百年間若鎮若牧，宜有沿革，而不可考矣。

己酉設鎮初，月沙奉承傳，施行節目。一近因海賊之出沒尤爲頻數，自上年春初，黃海兵營船相替留屯於本島，以迄于冬，果無一賊。妄相驚耗我國者，必潛泊此島，樵於斯，汲於斯，候風於斯後，始入內洋，則此島爲賊入我國門闕之限。而自前年留船屯戍之後，海防無虞，蓋知前議之可驗。蓋此島自東而西，延可五十餘里，自南而北，袤可四十餘里，周走而廻三日乃盡。東連江華，西對椒島，西北與長山申政對。巨木蔽天，嘉草不盛，正夏葉長，馬齧木皮，艱於豐草，不宜馬場，宜於置鎮。越此早春，先入設柵，且耕且守，資塩儲糧，甚合事宜。謹條便宜八事于左。

읍(邑)이 있으면 반드시 지(誌)가 있어야 읍(邑) 안의 크고 작은 규모(規模)가 모두 실리고, 또 반드시 등록(謄錄)이 있어야 견주어 볼 부첩(簿

牒)이 모두 초록(抄錄)되어 일에 경법(經法)과 권도(權道)¹⁰⁾가 없어진다. 책을 펴면 분명하여, 관장(官長)은 새로이 자신의 견문이 좁다거나 세상 물정에 아주 어두웠다고 탄식할 일이 없고, 아전은 준수(遵守)하고 참고하여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읍지(邑誌)와 등록(謄錄)은 진실로 한 읍의 관례(慣例)가 되니 모두 어그러뜨릴 수도 없고 하나라도 숨기거나 뺄 수도 없는 것이다.

대개 읍(邑)과 진(鎭)은 하나이니, 본 진(鎭)을 설치한 지가 200년 가까이 되었어도 아직 지(誌)를 기록한 것은 한 글자도 없고, 소위 등록(謄錄)이란 것도 백 가운데 하나도 없고, 남아 있는 것도 거친 것만 많아 그 기록이 한만하고 긴요한 것이 빠졌으며, 인서(印署)나 발갈[白文]¹¹⁾도 오자(誤字)와 낙서(落書)¹²⁾로 거칠고 잡스러우며 해지고 더러워져 대부분 볼만한 것이 없다. 상부기관에서 진중(鎭中)의 처분을 거행하는데 있어서도 다만 아전의 입에만 의지한다. 수응(酬應)의 예를 따르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보고 들어 익숙한 것에 의거한다. 만약 일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일에 닥치게 되면 반드시 고금(古今)의 일을 살펴본 연 후에 일을 마치는 것이 옳은데, 사정에 어둡고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어서 조치해야 할 바를 모른다. 대개 절해벽도(絶海僻島)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과 현달(顯達)한 선비가 없고 풍속이 검박(儉嗇)하

10) 경법(經法)은 고치지 못할 근본(根本) 되는 법이고, 권도(權道)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는 처리(處理)를 말한다.

11) 인서(印署)는 인장과 서명을 뜻하고, 백문(白文)은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이다.

12) 글을 베낄 때에 잘못하여 글자를 빠뜨리고 쓰는 경우를 말한다.

여 애초부터 문헌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진관(鎭官)의 또다른 직(職)이 어직(圍職)인데 절제사(節制使)와 태복시(太僕寺)의 우마(牛馬)를 감독하는 일까지 겸하게 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 슬프도다! 열 가구 정도의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고, 무더운 곳이나 매섭게 추운 곳도 천왕(天王)의 땅이 아닌 곳이 없는데, 하물며 서울과 가까운 관방(關防)을 어찌 황복(荒服)¹³⁾으로 보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식한 사람에게 맡겨 관부(官府)의 체면을 차리지 못하는가? 그 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여 여러 고을에게 경멸당하게 되었고다. 이것이 안타까워 여기에 한 두 개의 고적(古蹟)과 인습(因襲), 규모(規模)를 모아 진지(鎭誌)를 만들어, 등록(謄錄)을 기록하는 방법을 밝혀 둔다. 삼가 이를 준수할 뜻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은 무식하다는 수치를 씻기 바란다. 책머리에 그 전말을 기록한 것은 섬의 아전들에게는 권계(勸誡)가 되고 아울러 또한 이후에 진(鎭)으로 부임하는 사람에게는 규범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삼가 살펴보니, 광해군 2년 기유(己酉)¹⁴⁾에 월사(月沙) 이공(李公)¹⁵⁾이 진(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전지(傳旨)¹⁶⁾를 받들어 절목(節

13) 왕도(王都)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거리(距離)에 따라 가른 다섯 등급(等級)의 지역(地域)을 일컫는 오복(五服) 중에서 마지막 등급의 지역으로 천자(天子)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를 이른다. 오복(五服)은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이다.

14) 기유년은 광해군 1년(1609)으로, 광해군 2년은 오기이다.

15)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을 말한다. 월사(月沙)는 백사(白沙)의 오기로 보인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4월 1일 4도 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에 임명된 이항복은 백령도에 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이듬해 1609년(광해군 1) 1월 18일 윤허를 받는다(『백사집』 별집 2권, 계사 기해일).

16) 유지(有旨)를 말하며,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目) 8조(條)¹⁷⁾를 시행하였다. 인서(印署)의 원본을 재차 베낀 작은 책자가 있으니 이것이 진실로 실제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또한 정당(政堂)에는 나무판에 새긴 소지[小識]가 있는데 이인수(李仁秀)¹⁸⁾가 진(鎭)에 부임했던 정유년(1777년)에 곁은 것이다. 최리(崔吏)¹⁹⁾ 집안의 책자라는 것을 취하여 살펴보니 곧 한 조각의 낡은 종이에 좌우로 보철(補綴)하고 빈 책 위에 붙인 것이다. 고려 현종(顯宗)부터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 10년(1428년) 무신(戊申)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있으니, 이것은 기유년(己酉年) 이전에 관심있는 사람이 한 것이다. 연대별로 사건을 기록한 일은 진실로 두찬(杜撰)²⁰⁾이 아니며, 필력(筆力)이 유경(酉勁)하고, 자획(字劃)이 완연하니 결코 근세인(近世人)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세상에 널리 퍼져 전해져 내려왔으니 참으로 곤강편옥(崑崗片玉)²¹⁾이라 할 것이다. 부서진 첩(牒) 중에서 기이한 옛 사람의 필적을 얻었고 그 것이 소리(小吏)의 집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이공(李公)이 옛 게판(揭板)을 좋아했던 뜻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절목(節目) 8조를 기록하는데 널빤지에 있는 건치연혁(建置沿革) 밑에 작게 새겨서 항상 고

17) 『백사별집』 2권 기해일'에 나온 이항복이 제안한 절목들을 말한다.

18) 이인수(1737~1813)는 조선 후기 무신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다. 정조 1년(1777)에 백령첨사로 있다가 이듬해 영종첨사가 되고 정조 8년(1784)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순조대에 들어서도 총융사·금위대장·훈련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19) '정당판각'에 보이는 서리 최기형을 말한다.

20) 전거가 불확실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시문을 가리키는 말.

21) 진(晉) 나라 극선(郤詵)이 현량(賢良) 대책(對策)에 급제하여 관원이 되었는데,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무제(武帝)의 말에 "대책(對策)으로 천하 제일이니, 비유컨대 계수나무 숲속의 높이 솟은 한 가지요[桂林一枝] 곤륜산의 편옥(片玉)과 같다 하겠다."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본래는 글 잘하는 선비를 지칭한 것이나, 여기서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말한다.

적(古蹟)을 갖추었다. 그러나 대개 고려 공양왕(恭讓王)때부터 헐파하여 장택현(長澤縣)²²⁾에 예속하였던 것을 우리 세종대왕 10년 무신년에 이르러 다시 본 섬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폐기했던 것을 징험할 수 있으나, 무신년에서 광해 기유년까지 [시간이 지난후] 다시 진(鎭)을 설치하였으니, 이백년간 진(鎭)이든지 목(牧)이든지 그 연혁이 있었을 것이지만 알 수 없다.

기유년에 진(鎭)을 설치한 초기에 월사(月沙)가 전교(傳敎)를 받들어 절목(節目)을 시행하였다. 최근에 해적의 출몰이 더욱 빈번해지므로 지난해 초봄부터 황해병영선(黃海兵營船)이 서로 번갈아가며 이 섬에 주둔하니 겨울이 되자 과연 해적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망령되게도 우리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는 반드시 몰래 이 섬에 정박하여 나무를 하고 물을 길으며 바람이 알맞은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내양(內洋)에 들어갈 것이니, 이 섬은 도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병선(兵船)이 머물면서 수비한 후에는 바다를 방어하는 일에 근심이 없어졌으니, 지난번에 의논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대체로 이 섬은 동서(東西)로 50여리이고, 남북(南北)으로 40여리이니 주위를 돌아보는데 3일이 걸린다.

22) 장연현(長淵縣)의 오기로 보인다. 백령진은 공민왕 6년(1357) 문화현 동촌에 임시 우거하다가 1390년(공양왕 2) 진이 헐파되고 문화현 직촌이 되었다.

동쪽으로는 강화(江華)에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초도(楸島)²³⁾와 마주하며, 서북쪽으로는 장산곶(長山串)²⁴⁾과 마주하고 있다. 거목(巨木)이 하늘을 가리고 쓸만한 풀이 무성하지 못하여 음력 5월에 잎이 자라더라도 말이 나무껍질을 씹으니, 풍성한 풀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말을 기르는 장소로는 알맞지 않지만 진(鎭)을 두기에는 알맞다. 이른 봄에 먼저 들어와 목책(木柵)을 치고 밭을 갈고 지키면서 소금을 마련하고 양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합당하다. 삼가 조항을 편의대로 8가지를 뽑으면 아래와 같다.²⁵⁾

一. 廣巖水軍見存三百二十四戶，阿郎浦二百八十八戶，分作三番，屯戍之數，甚是單弱，必須係助客軍。亂前，本道黃州豐川海州康翎甕津長淵等邑留鎭，騎步兵頗多，亂後，不復留鎭，無所屬處，兵營占入五鎭軍，監營占入一鎭軍，以爲使令雇立之用，或捧價布及軍糧，屑越無常，然兵營若全去，此軍難以成形，宜令今往救暴御史，割監營入番一鎭軍，割兵營入番一鎭軍，合此兩鎭軍係助白翎之戍，而鎭軍入豐川海州者，頗優其數，道里且近，割此二鎭之軍，尤爲便當。

一. 長淵吾叉浦，甕津蘇江等處，在本島最近，宜托此一處設烽，相準以備非常。

一. 前因防海，以豐川府使爲舟師大將，管轄沿海以西，如阿郎浦長淵許沙廣巖等

23)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 속하는 섬. 황해도 3대도서의 하나이다. 육지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고, 육지와 초도 사이의 해협을 초도수도(楸島水道)라 한다.

24) 황해도 장연군 서해안에 돌출한 반도. 도(道)의 중앙을 횡단하는 산맥이 서쪽으로 길게 뻗어 황해연안에 돌출한 첨단부이다.

25) 아래의 조항은 『백사집』 별집 2권, 계사 기해일'의 내용과 거의 같고 일부는 『백령진지』의 저자가 편집하여 넣은 부분이 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전체 조항은 8조항이 아니라 7조항이다.

官, 蘇江僉使爲舟師大將, 管轄沿海以東, 如茄乙浦龍媒海州等官, 以備海賊. 今白翎爲僉使大鎮, 又在賊來初面, 最爲防衝. 秩居所江之上, 宜以所江白翎爲東西管轄獨陣之將, 遞領豐川舊所管之鎮, 與所江爲對. 且島在長淵之地, 居民賦役當屬長淵, 限措置間, 新入民戶勿令長淵官侵擾.

一. 本島土沃閒曠, 民必湊集, 凡島田只許新入之民, 隨所開墾便許立案, 勿得豪民遙爲冒占. 仍令新入之民一依山城例存恤, 所墾之田限三年勿稅, 限十年家戶田結并復勿役. 凡島中新入之民, 新造船船許令, 各填字號, 往來興利, 令本鎮責入船稅, 以補本鎮軍糧, 如諸島搜討時, 及不時警急, 皆聽本鎮節制, 以助公戰, 則雖不別募軍官, 而一島新入之民舉皆爲公戰之兵.

一. 火器諸具, 令軍器寺題給, 烏銃則軍器寺元無所儲, 令訓練都監題給.

一. 僉使所帶軍官, 無過五員.

一. 且令島中之民, 結箭煮鹽, 本鎮收其地稅, 以爲本鎮軍需, 如各衙門差人, 結箭煮鹽等事, 切勿許入事, 捧承傳施行.

- 광암진(廣巖鎭)의 수군(水軍)은 현존(現存)하는 것이 324호(戶)이고, 아랑포(阿郎浦)의 수군은 288호인데, 이를 삼번(三番)으로 나누어서 둔수(屯戍)의 숫자에 충당시키자면 숫자가 매우 단약(單弱)하니, 반드시 객군(客軍)을 더 보조해야 한다. 난리 이전에는 본 섬의 황주(黃州), 풍천(豐川), 해주(海州), 강령(康翎), 웅진(瓮津), 장연(長淵) 등의 고을에 진(鎭)을 유치한 관계로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이 꽤 많았었

는데, 난리 이후로는 다시 진을 유치하지 않아서 소속된 곳이 없게 되었으므로, 병영(兵營)에서 5진의 군사를 차지하고 감영(監營)에서 1진의 군사를 차지하여 이들을 사령(使令)이나 고립(雇立)의 용도로 삼았고 혹은 그들에게 가포(價布) 및 군량(軍糧)을 바치게 하기도 하여 방만(放漫)하기가 무상하다. 그러나 병영에는 만일 이 군사를 전부 빼내 버리면 모양을 이루기 어려우니, 의당 지금 나가는 구황어사(救荒御史)로 하여금 감영에 입번(入番)한 일진(一鎭)의 군사와 병영에 입번한 일진의 군사를 떼내어 이 양진(兩鎭)의 군사를 합쳐서 백령진(白翎鎭)의 방수군(防戍軍)을 더 보조해 주고, 풍천과 해주로 들어간 진군(鎭軍)은 그 숫자가 꽤 많고 도리(道里) 또한 가까우니, 이 두진의 군사도 떼내 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편당(便當)하다.

- 장연(長淵)의 오차포(吾叉浦)와 웅진(瓮津)의 소강(蘇江) 등지는 본 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니, 의당 이 중 한 곳에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서로 준거해서 비상(非常)에 대비하도록 해야겠다.

전에는 해상 방어의 일로 인하여 풍천부사(豐川府使)를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 삼아 연해(沿海)의 서쪽으로 아랑포, 장연, 허사(許沙), 광암 등의 관(官)을 관할하게 하였고, 소강첨사(所江僉使)를 주사대장으로 삼아 연해의 동쪽으로 가을포, 용매, 해주(海州) 등의 관을 관할하게 하여 해적을 방비하게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백령(白翎)이 첨사(僉使)의 대진(大鎭)이 되었고 또 적(賊)이 들어오는 첫머리에 있어

해상 방어의 가장 요충지이기도 하며, 관질(官秩)도 소강첨사의 위에 있으니, 의당 소강과 백령의 첨사를 동쪽 서쪽에서 독진(獨陣)을 관할하는 장수로 삼아 옛날 풍천에서 관할하던 진을 백령 첨사에게 이관시켜서 백령이 소강과 상대가 되게 해야겠다. 또 이 섬은 장연의 땅에 있으므로, 거민(居民)들의 부역(賦役)이 의당 장연에 소속되었을 것이니, 조치(措置)하는 기간까지는 새로 들어온 민호(民戶)에 대하여 장연의 관(官)으로 하여금 침요(侵擾)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 섬은 토지가 비옥하고 광활하여 백성들이 반드시 모여들 것이니, 모든 도전(島田)을 새로 들어간 백성들에게만 허락하고 개간(開墾)한 바에 따라서 입안(立案)하도록 허락하여 호강한 백성들이 멀리 가서 함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이 산성(山城)의 예(例)에 따라서 구휼하되, 그들이 개간한 전지(田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조세를 받지 말고, 10년쯤 된 가호(家戶)의 전결(田結)에 대해서도 아울러 부역(賦役)을 면제해 주어야겠다. 모든 섬 안에 새로 들어간 백성들이 새로 건조한 배들에 대해서는 각각 배에 자호(字號)를 새겨서 왕래하며 상업(商業)을 하도록 허락하여 본진으로 하여금 그 선세(船稅)를 받아들여서 본진의 군량에 보충하도록 하고, 제도(諸島)를 수토(搜討)할 때나 불시(不時)의 경급(警急)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본진의 절제(節制)를 받아서 공전(公戰)을 돕도록 한다면 설령 별도로 관군(官軍)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새로

들어간 온 섬 안의 백성들이 모두 공전(公戰)²⁶⁾의 군사가 될 것이다.

- 화기(火器)의 여러 가지 기구는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
되, 조총(鳥銃)은 군기시에 원래부터 저장된 것이 없으니, 훈련도감
(訓練都監)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해야겠다.
- 첨사(僉使)가 대동하는 군관(軍官)은 5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겠다.
- 또한 섬의 백성들이 살대[箭]를 엮어 고기를 잡거나 염분(鹽盆)을 안
치하여 소금을 굽게 하여 본진(本鎭)에서 그 지세(地稅)를 징수해서
본진의 군량(軍糧)으로 삼도록 하고, 각 아문에서 사람을 보내어 고
기를 잡거나 소금을 굽게 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할 일로 전교를 받들어 시행해야 한다.

【정당판각(政堂板刻)】

本高句麗鵠島。宋眞宗大中三年庚戌，卽高麗顯宗元年也。智察文建置鎭將兼判縣事，改號白翎。遣武兼文職金處禮以撫之。越五年甲寅，李世華首剗鄉校，集子弟教文學，至有應學者。過三百四十一年，至元順帝至正十二年壬辰，卽高麗恭愍王之元年也。以水路艱險，出陸僑寓文化東村加乙山，過四十一年，至恭讓王時，以地窘廢白翎，屬文化關口縣，本島仍屬長澤縣。大明宣宗宣德三年戊申，卽我朝世宗大王十年也，革永康縣，取永康之康白翎之翎，合爲康翎，割海州牛岬以南，置縣治于蛇川，古永康卽金洞驛西。越四年還置鎭于本島，因名舊號。是書逸而不傳，人莫知

26) 국가(國家)의 의사(意思)에 의(依)한 전쟁(戰爭)을 말한다.

白翎之舊號鵠島也。有一過客，得之於鎮吏崔己亨家袖，致於余，余嘉得古跡，即入棹而并刊鵠島舊城四字，揭之東閣云爾。

본래 고구려의 곡도(鵠島)이다. 송(宋) 진종(眞宗) 대중(大中) 3년(1010) 경술(庚戌) 즉 고려 현종(顯宗) 원년에, 지찰문(智察文)이 진장겸판현사(鎭將兼判縣事)를 두고 이름을 백령(白翎)이라 고쳤으며, 문무(文武)관직을 겸직한 김처례(金處禮)²⁷⁾를 보내어 안무(按撫)하게 하였다. 5년이 지난 갑인년(1014)에 이세화(李世華)²⁸⁾가 처음 향교(鄕校)를 세우고 자제를 모아 문학을 가르쳐서 과거에 응한 이도 있었다. 341년이 지난 원(元) 순제(順帝) 지정(至正) 12년(1352) 임진(壬辰)년 즉 고려 공민왕(恭愍王) 원년에 길이 험난하므로 육지로 나와서 문화현(文化縣) 동촌(東村) 갈산(加乙山)에 임시로 머물게 하였으며, 41년이 지난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땅이 좁다 하여 백령(白翎)을 폐지하고 문화궐구현(文化關口

27) 이 이름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려열조등과록(高麗列朝登科錄)》에서 김처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제시기가 1202년인 것으로 보아 본 읍지와는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이고 백령도에서 역임했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黃海道) 「강령현(康翎縣)」조에는 '본조(本朝)' 부분에 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 『백령진지』의 저자가 오해하여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시대 사람인지 조선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단지 동명이인으로 생각된다.

28) 이 글에서는 이세화(李世華)가 백령도에 향교를 만든 것을 고려 현종때라고 하였지만 이세화(李世華)의 비문이 실려있는 『동국이상국후집 제12권』 「잡저(雜著)」 '고(故) 조의대부 사재경 우간의대부 보문각직학사지제고 사지금어대(朝議大夫司宰卿右諫議大夫實文閣直學士知制誥賜紫金魚袋) 이군(李君)의 묘지명 병서(并序)'에 의하면 "경진년 봄에 나아가서 백령진장(白翎鎭將)이 되었는데, 청렴하고 공평하게 고을을 다스렸다. 그 고을에는 옛부터 향교(鄕校)가 없었는데 이군이 처음으로 창건하고 아전들의 자제를 모아 글을 가르치니, 몇 해 안 가서 모두 인재를 이루었으며, 공거(貢擧)에 응시한 자가지 있게 되매, 온 고을이 그를 사모하였으며, 여러 번 글을 올려서 그의 아름다움을 포장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경진년'은 고려 고종 7년(1220년)이므로 이세화(李世華)가 백령도에 진장으로 와서 향교를 만든 것은 고려 현종때가 아니라 고려 고종 때이다.

縣)에 예속시켰으며, 본 섬은 계속 장택현(長澤縣)에 속했다. 명(明) 선종(宣宗) 선덕(宣德) 3년 무신(戊申)은 곧 우리 왕조의 세종대왕(世宗大王) 10년(1428)으로, 영강현(永康縣)을 혁파하고 영강의 강(康)과 백령의 령(翎)을 따서 강령(康翎)이라 하였으며, 해주(海州)와 우현(牛峴)의 남쪽 땅을 분할하여 현치(縣治)를 사천(蛇川)에 두었으니, 옛날의 영강(永康)은 즉 금동역(金洞驛)의 서쪽이다.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본 섬에 진(鎭)을 설치하였고 이름도 옛 이름으로 하였다. 이 문서가 유실되어 전해지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백령(白翎)의 옛 이름이 곡도(鵠島)인지 몰랐을 것이다. 한 나그네가 진(鎭)의 서리였던 최기형(崔己亨) 집에서 수진본(袖珍本)²⁹⁾을 얻어 나에게 주었다. 나는 고적(古蹟) 얻은 것이 기뻐서 이를 즉시 판목(板木)을 가지고 와서 “곡도구성(鵠島舊城)” 사자(四字)를 새겨 동각(東閣)에 걸었다.

【관직(官職)】

堂上三品僉使. 設鎭之初, 移屬豐川府使所管阿郎浦長淵廣岩等官, 與蘇江僉使, 爲東西管轄獨鎭之將, 而秩居蘇江之上矣. 中年陞爲履歷參操, 則爲前司把摠. 前司把摠白翎戰船, 前哨官龍媒防船, 左哨官龍媒二防船, 中哨官白翎防船, 左哨官白翎兵船, 後哨官本營一防船, 左司把總登山防船, 前哨官海州一防船, 左哨官

29) 소매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책. 본문에는 ‘袖’라고만 나와 있지만 문맥상 ‘수진본(袖珍本)’으로 보는 것이 옳다.

海州二防船, 中哨官康翎防船, 右哨官登山二防船, 後哨官登山兵船, 中司把總吾
又防船, 前哨官白川防船, 左哨官本營二防船, 中哨官延安防船, 右哨官本營三防
船, 後哨官吾又二防船.

당상삼품첨사(堂上三品僉使)³⁰⁾ 진을 설치한 초기에 풍천부사(豐川府使)가 관할하던 아랑포(阿郎浦), 장연(長淵), 광암(廣岩) 등의 관(官)을 이속(移屬)하였고 소강첨사(蘇江僉使)와 함께 동쪽과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독진(獨鎭)의 장(將)으로 삼았으며, 관질은 소강(蘇江)의 위에 두었다. 중간에 올린 벼슬한 이력(履歷)을 참조하여 전사파총(前司把總)³¹⁾으로 삼는다.

전사파총백령전선(前司把總白翎戰船), 전초관용매방선(前哨官龍媒防船), 좌초관용매이방선(左哨官龍媒二防船), 중초관백령방선(中哨官白翎防船), 좌초관백령병선(左哨官白翎兵船), 후초관본영일방선(後哨官本營一防船), 좌사파총등산방선(左司把總登山防船), 전초관해주일방선(前哨官海州一防船), 좌초관해주이방선(左哨官海州二防船), 중초관강령방선(中哨官康翎防船), 우초관등산이방선(右哨官登山二防船), 후

30) 처음에 설진(設鎭)할 때 백사 이항복은 당상관을 두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백사별집』 제2권 「계사(啓辭) 기해일」에 “새 첨사(僉使)를 처음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차송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당상관 중에는 가당한 인원이 전혀 없고, 오직 훈련도감 천총(訓練都監千摠) 김입신(金立信)이 일찍이 풍천(豐川)의 수(守)가 되어 이 섬을 지켜보아서 이 섬의 형세를 자세히 알고 또 일을 처리하는 국량도 있으니, 이 사람을 차송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우선 수첨사(守僉使)로 보내서 오직 재기(才器)를 관찰하여 성과가 있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1) 1594년(선조 27)에 각 군영에 둔 종사품 무관 벼슬을 말한다.

초관등산병선(後哨官登山兵船), 중사파총오차방선(中司把總吾叉防船), 전초관배천방선(前哨官白川防船), 좌초관본영이방선(左哨官本營二防船), 중초관연안방선(中哨官延安防船), 우초관본영삼방선(右哨官本營三防船), 후초관오차이방선(後哨官吾叉二防船).

【월름(月廩)】

每年四月, 劃來長淵小米四十九石, 僉使軍官二員奴子四名, 每月各六斗式, 駱耳馬四匹. 料并合正四十六石三刀一合, 在二石十四斗六升九合, 留付詳定, 或有官舍修舉, 則請報補用.

매년 4월 장연(長淵)에서 소미(小米:좁쌀) 49석(石)을 떼어와서 첨사군관(僉使軍官) 2명, 노복 4명에게 [나누어 주고] 매월 각 6말씩은 녹이마(駱耳馬)³²⁾ 4필에게 [나누어 준다]. 료(料)는 모두 46석(石) 3도(刀) 1합(合)인데, [이 중] 2석(石) 14두(斗) 6승(升) 9합(合)은 가지고 있다가 혹은 관사에서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부족한 곳에 보충하여 쓰겠다고 알리기를 청하였다.

32) 천리마, 혹은 명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녹이(駱耳)’는 ‘(駱耳霜蹄)’와 같은 말로서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사랑했던 준마의 이름이다.

【배삭(排朔)】

長淵收布別抄三十名內二名, 則以別抄領將官船所主人除之, 實二十八名. 番錢五十六兩, 十二朔排用.

장연(長淵)에서 수포(收布)³³⁾하는 별초군(別抄軍)³⁴⁾ 30명 중에 2명은 별초영장(別抄領將)과 관선소(官船所) 주인으로 이들을 빼면 실제로는 28명이다. 번전(番錢)³⁵⁾ 56냥은 12개월로 나누어 사용한다.

【급대원액(給代元額)】

饌軍一名, 軍官三員, 防船將一人, 把房鎮撫六名, 特印一名, 吸唱一名, 軍官鎮撫廳炊飯軍一名, 使令二名, 軍牢二名, 吹手二名, 軍餉直兼軍器直一名, 菜漢一名, 汲水軍一名, 過涉軍七名, 大小靑搜討軍十名, 戰防船守直軍二名, 弓矢匠一名, 三處瞭望軍三名, 紙軍一名, 巡營主人一名, 水營主人一名, 別西江館直一名, 都沙工一名, 合五十一名, 每名每朔三兩式.

찬군(饌軍) 1명, 군관(軍官) 3명, 방선장(防船將) 1명, 파방진무(把房鎮撫) 6명, 지인(持印) 1명, 흡창(吸唱) 1명, 군관진무청취반군(軍官鎮撫廳炊飯軍) 1명, 사령(使令) 2명, 군뢰(軍牢) 2명, 취수(吹手) 2명, 군향직

33)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따위를 징수하던 일을 말한다.

34) 조선시대 어떤 지점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군대를 말한다.

35) 조선시대 군포 대신에 바치던 돈. 다른 사람을 고용(雇用)하여 수직(守直)을 대신(代身)시키고 주는 값을 말한다.

검군기직(軍餉直兼軍器直) 1명, 채한(菜漢) 1명, 급수군(汲水軍) 1명, 과섭군(過涉軍) 7명, 대소청수토군(大小靑搜討軍) 10명, 전방선수직군(戰防船守直軍) 2명, 궁시장(弓矢匠) 1명, 삼처요망군(三處瞭望軍) 3명, 지군(紙軍) 1명, 순영주인(巡營主人) 1명, 수영주인(水營主人) 1명, 별서강관직(別西江館直) 1명, 도사공(都沙工) 1명, 모두 51명으로 각 1명당 매월 3냥(兩)씩이다.

【산천(山川)】

鎮之西北五里許海邊曰土仇浦. 小山崛起, 山脈自長淵之長山從海底過來之, 逶迤東來爲頭龍山, 卽小阜也. 左旋爲北山鎮山也. 東止大龍機院. 未到頭龍, 南出兩支, 一支東南爲南山案山也, 止小龍機院, 大龍機院相對爲鎮基水口. 一支南起西折, 至沙項, 右支陡入洋中爲頭毛, 與長山串對峙, 而爲牧場爲松田, 左支至南山之南, 與南麓對爲海門, 卽所謂內浦也. 浦北西入十數里, 浦之盡處, 有塩盆浦之中間左右入宛然爲十字形, 潮漲則數十里平湖, 洋洋可觀. 浦之陰有船倉, 戰船所繫也. 乃一島之腰腹, 然言山則頭龍也, 言川則內浦而已.

진(鎭)의 서북쪽으로 5리(里)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海邊)을 토구포(土仇浦)³⁶⁾라고 한다. 작은 산이 우뚝 솟았으며, 산맥은 장연의 장산(長山)에서 바다 밑을 따라 이곳에 이르러서, 구불구불 동쪽에서 내려와 두

36) 진촌으로부터의 거리와 지형 등의 기록으로 보아 오늘날의 고봉포의 옛 지명으로 생각된다.

룡산(頭龍山)³⁷⁾이 되었으니 즉 작은 등성이다. 왼쪽으로 둘러서 북산(北山)이 되니 진산(鎭山)이다. 동쪽으로 대룡기원(大龍機院)³⁸⁾에 이른다. 두룡산(頭龍山)에 못 미쳐 남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갈래는 동남쪽으로 가서 남산(南山)³⁹⁾이 되니 안산(案山)이 되며 소룡기원(小龍機院)⁴⁰⁾에 이르러, 대룡기원과 서로 마주하며 진(鎭)의 터에서 수구(水口)가 된다.⁴¹⁾ 다른 한 갈래는 남쪽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꺾여 사항(沙項: 沙串, 沙濱)에 이르는데, 오른쪽 갈래는 갑자기 바다 속으로 들어가 두모(頭毛)가 되어 장산곶에 마주 솟아서 목장(牧場)과 송전(松田)이 되며, 왼쪽 갈래는 남산의 남쪽에 이르러 남쪽 산기슭과 마주하며 바다로 나가는 문이 되니 이른바 내포(內浦)이다. 포구에서 북서쪽으로 10여리를 들어가면 포구가 끝나는데, 염분포(鹽盆浦)⁴²⁾의 중간에 좌우로 들어가 완전히 십자형이 된 것이 있어, 조수가 차면 수 십리의 평평한 호수가 되니 넓고 볼만하다. 포구의 남쪽에는 선창(船倉)이 있어 전선(戰船)을 묶어두는 곳이다. 즉 이 섬의 허리로 산으로 말하면 두룡(頭龍)이요 내

37) 진촌 서쪽 월내도촌으로부터 서북쪽 잿등 높은 지대를 두룡산 또는 두롱산 등으로 부른다. 한자 그대로 용의 머리형이라는 뜻이다.

38) 대룡기원산(大龍機院山)을 말한다. 백령도 진촌 동쪽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길게 돌출하여 묘한 산봉을 이루고 있는 곳 중에서 말등바위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 끝에 해발 136m의 큰 산봉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39) 망산(望山)을 말한다. 백령면 진촌리 북쪽에 있는 해발 145m의 산으로 옛날에 백령도 동남쪽바다를 경계하던 요망대가 있던 산이다.

40) 소룡기원산(小龍機院山)을 말한다. 백령도 진촌 동쪽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길게 돌출하여 묘한 산봉을 이루고 있는 곳 중에서 용등재(용기현)쪽에서 약간 짧고 낮게 뻗어나가 산봉을 이룬 곳이다.

41) 용기포(龍機浦)를 말한다. 용기포는 소룡기원산(小龍機院山) 서쪽 기슭에 형성된 마을이며 많은 각종 대소선박들이 출입하는 주요 포구로서 백령도의 관문이기도 하다.

42) 관창동 서쪽 해안에 있었던 염수개[鹽水浦]로 생각된다. 염수개[鹽水浦]는 옛날 화염(火鹽)을 만들던 염밭이었다.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육답이 되었으나 갯물에 들어오던 옛 갯밭이었다.

(川)로 말하면 내포(內浦)이다.

【지리관방부(地理關防附)】

本島東西亘三十里. 北對長湍之長山, 盖海西山勢之盡處, 而內洋門戶也. 西南大洋, 東指蘇江百有餘里, 南有大小島. 盖自豐川以南, 東至于喬桐, 諸島碁置, 無非內外洋之際. 而從古以來, 漁採唐船非漂風, 則未嘗有不留本島之頭毛津者, 海路之捷經, 船泊之便利, 可以推知. 設鎮節目謂海賊出入門關之限者是已. 一入內洋, 候風來潮, 直指喬桐, 數日可達. 若論海路關防, 本島最爲要重.

본 섬은 동서로 30리(里) 뻗어있다. 북쪽으로 장연의 장산곶과 마주하는데, 대개 바다 서쪽으로 산세(山勢)가 끝나는 곳이며, 내양(內洋)의 문호(門戶)이다. 서남쪽으로 큰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 소강(蘇江)⁴³⁾까지 100여리(里)가 되며, 남쪽으로 크고 작은 섬이 있다. 풍천(豐川)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교동(喬桐)에 이르기까지 여러 섬이 바둑알처럼 놓여있고, 안팎 바다의 경계가 아닌 곳이 없다. 옛날부터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배가 바람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서도 본섬의 두모진(頭毛津)⁴⁴⁾에 머물지 않는 적이 없으니, 해로(海路)의 지름길이며 배를 정박하기에 편하다는 것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다. 진을 설치하는 절목(節目)에 해적(海

43) 소강진(所江鎭)을 말한다. 조선시대 소강진에 수군첨절제사의 진영을 두고 서해 해안의 광암랑, 아랑포, 오차포, 허사포, 가을포, 용매랑 등 여러 수군 진포를 관할하였다.

44) 현재의 두무진이다. 백령도 최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불빠진 고장으로 섬 안에서는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다.

賊)이 출입하는 문간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번 내양(內洋)에 들어가면 바람과 물때를 기다려 곧바로 교동(喬桐)까지 수일이면 닿을 수 있다. 해로(海路)를 방어하는 데에 말하자면 본 섬이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다.

【폭원(幅圓)】

周回七十里, 長東自龍機院, 西至頭毛津三十里, 廣北自北津, 南至馬永九味三十里.

주위가 70리(里)이고, 길이는 동쪽 용기원(龍機院)에서 서쪽 두모진(頭毛津)까지 30리이고, 넓이는 북쪽 북진(北津)에서 남쪽 마영구미(馬永九味)까지 30리이다.

【도리(道里)】

自官門東距龍機院五里, 西距頭毛津二十五里, 南距馬永九味二十七里, 北距北津三里. 津渡頭毛津通長淵長山, 海路五十里, 吾叉鎮七十里. 北津通吾叉鎮七十里, 靑石浦百里, 舞袖龍浦百餘里, 龍機院東北通舞袖龍浦, 南通大小靑島, 中和津南通大小靑島. 水路自北津南距大靑三十里, 南距小靑四十里, 北距長淵靑石浦一百里. 自龍機院東距所江一百五十里, 陸路自靑石至長淵五十里, 至海州一百八十里, 至甕津一百二十里, 至所江一百四十里, 至黃州二百八十里, 至京城五百八十里.

관문(官門)에서 동쪽으로 용기원(龍機院)까지 거리는 5리, 서쪽으로 두모진(頭毛津)까지 거리는 25리, 남쪽으로 마영구미(馬永九味)까지 거리는 27리, 북쪽으로 북진(北津)까지 거리는 3리이다. 나루에서 두모진을 건너면 장연 장산곶에 통하는데 바닷길로 50리이고, 오차진(吾叉鎭)⁴⁵⁾이 70리이며, 북진에서 오차진까지 통하는데는 70리이고, 청석포(靑石浦)까지는 100리이고, 무수용포(舞袖龍浦)까지는 100여리이다. 용기원에서 동북쪽으로는 무수용포에 통하고, 남쪽으로 대소청도(大小靑島)에 통하며, 중화진(中和津)⁴⁶⁾에서 남쪽으로는 대소청도에 통한다. 물길로는 북진(北津)에서 남쪽으로 대청도까지의 거리는 30리이고, 남쪽으로 소청도까지의 거리는 40리이며, 북쪽으로 장연 청석포(靑石浦)까지의 거리는 100리이다. 용기원에서 동쪽으로 소강(所江)까지 거리는 150리이며, 육로로는 청석포에서 장연까지는 50리이고, 해주(海州)까지는 180리이고, 웅진(甕津)까지 120리이고, 소강까지는 140리이고, 황주(黃州)까지는 280리이고, 서울까지는 580리이다.

【방리(坊里)】

鎭內面, 沙乙串地, 麻斤淡味, 村面, 車踰, 大架塩, 小架塩, 蓮池洞, 西沙洞, 驛垵村, 長洞, 中和津.

45) 현재의 황해도 용연군(옛 장연군) 오차진리를 말한다.

46) 현재의 중화동(中和洞)으로 부처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산기슭에서 해안까지 내려가면서 길게 형성된 마을이다. 3면이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포구인 남쪽만 바다에 임하고 있다.

진내면(鎭內面)⁴⁷⁾, 샅곶지[沙乙串地]⁴⁸⁾, 망근대미[麻斤淡味]⁴⁹⁾, 촌면(村面), 차유(車踰: 수레넘이)⁵⁰⁾, 대갈염(大芻鹽)⁵¹⁾, 소갈염(小芻鹽)⁵²⁾, 연지동(蓮池洞)⁵³⁾, 서사동(西沙洞), 역대촌(驛垞村)⁵⁴⁾, 장동(長洞)⁵⁵⁾, 중화진(中和津)

【토산(土產)】

鷹連, 海衣, 石花, 甘藷, 海艾, 黃角, 生鰓.

매[鷹連], 김[海衣], 굴[石花], 미역[甘藷], 해애(海艾),⁵⁶⁾ 황각(黃角),⁵⁷⁾ 전복[生鰓].

【추포무사(追捕武士)】

三十名. 自古荒唐船之偷入漁採者, 沿海之民隨遇隨逐, 既無紀律, 追捕不一. 又廢農業流亡相續, 沿海一帶, 幾至空虛之境矣. 英廟乙卯, 水使李某, 名字無傳. 楊前

47) 지금의 진촌면(鎭村面).

48) 지금의 진촌3리인 사곶마을을 말한다. 사곶마을은 예부터 살쿠지, 사을곶 등으로 불리워 왔으며 한자로는 沙乙串地, 沙串地洞, 沙串洞 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49) 망근대미[麻斤淡味]는 옛날 옷감을 만들던 베(삼)과 연관이 되는 한자지명이다.

50) 지금의 신화동(북포2리).

51) 지금의 대갈동(大芻洞: 加乙1리).

52) 지금의 소갈동(小芻洞: 加乙2리).

53) 지금의 연화1리로 백령도 서쪽 끝부위의 중앙지점에 해당한다.

54) 지금의 화동(化洞: 남포2리).

55) 지금의 장촌(長村: 남포1리).

56) 바다 가운데 섬에서 나는 쑥을 말한다.

57) 청각의 일종인 황각채의 준말.

承命下來，丙辰設置武士於甕津康翎長淵豐川白翎吾又助泥椒島等地，建設捕幕。每遇風和，自四月至七月，各給料米，率追捕軍，輪番防守追逐，沿民少得消息。各邑鎮武士，合爲六百九十人。然彼乃海隅才頑，自爲生理汗漫而來漁，我則每以軍興，費財罷民，奔走而防守，無歲不然，勞逸懸殊，吁可痛矣。追捕軍一百三十五名，輪番追捕，與武士，同無料米，亦不知何年設置。

30명이다. 예부터 황당선(荒唐船)⁵⁸⁾이 몰래 들어와 고기잡이하는 것을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만나는 대로 쫓아냈지만 기울이 없어 추포(追捕)하는 일이 한결같지 않고, 또한 농업을 그만두고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 연해일대가 거의 빌 지경이다. 영조(英祖) 을묘년(영조 11년, 1735)에 수사(水使) 이모(李某)가 있었는데 이름과 자(子)는 전하지 않는다. 임금에게 명(命)을 받고 내려와 병진년(1736)에 무사(武士)를 웅진(甕津), 강령(康翎), 장연(長淵), 풍천(豐川), 백령(白翎), 오차(吾叉), 조니(助尼), 초도(椒島) 등지에 배치하여 포막(捕幕)⁵⁹⁾을 쳤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질 때마다 4월에서 7월까지 요미(料米)를 지급하고 추포군(追捕軍)을 거느리고 번갈아가며 지키고 쫓아서 연해 백성이 조금은 편안하게 되었다. 각 읍과 진(鎭)의 무사(武士)가 모두 690인이다. 그런데 저들은 해변 구석에서 욕심을 부려 생계[농사]를 등

58) 우리나라 연해에 출몰하던 소속 불명의 외국배를 일컫는다. 뒤에는 이양선(異樣船) 또는 이국선으로 불렸다.

59) 추포군(追捕軍)이 일을 보던 조그마한 집으로 지금의 파출소와 같다.

한시하고 고기잡으러 오고, 우리는 매번 군사를 일으켜 물자를 소비하며 백성을 피로케 하며 분주히 지키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때가 없어, 수고롭고 편한 것이 현격하게 다르니 근심스럽고 힘들다. 추포군 135명이 번갈아가며 쫓아내고 있지만, 무사(武士)와 마찬가지로 요미(料米)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해에 설치했는지도 모르겠다.

【대년무사(待年武士)】

本有別抄旗牌官一百九十名, 每歲收番錢壯二兩兒一兩五錢矣. 丁酉年革罷, 仍設待年武士一百名, 每各一兩式收捧, 爲軍修補及司僕情債所用.

본래 별초기패관(別抄旗牌官)이 190명이 있어서 매년 번전(番錢)⁶⁰⁾을 장정(壯丁)에게는 2냥 씩을, 아동(兒童)에게는 1냥 5전 씩을 거두었다. 정유년(1777년)에 이를 혁파하고 이어 대년무사(待年武士)⁶¹⁾ 100명을 두고 한 사람당 각 1냥 씩 거두어 군의 보수와 사복(司僕)⁶²⁾의 정채(情債)⁶³⁾에 사용하였다.

60) 조선시대 군포 대신에 바치던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수직(守直)을 대신시키고 주는 삿을 말한다.

61) 군역(軍役) 중인 사람이 죽거나 어떤 사정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인 남자를 말한다. 아들이나 아우가 없을 때는 16세 미만인 다른 사람이 대년군이 되었다가, 16세가 되면 비로소 군역에 복무하게 하였다.

62) 조선시대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63) 지방 관원이 서울에 있는 중앙 관아의 서리에게 아쉬운 청을 하고 정례(情禮)로 주던 돈을 말한다.

【요망(瞭望)】

頭毛津中和津南山三處, 風和則邑風約及村約正瞭望, 風高則官廳庫子房子二名, 收代一兩五錢, 而只南山瞭望寮.

두모진(頭毛津), 중화진(中和津), 남산(南山) 세 곳에서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읍의 풍약(風約)⁶⁴⁾과 촌의 약정(約正)이 망을 보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면 관청의 고자(庫子)와 방자(房子) 두 명이 대가(代價) 1냥 5전 씩을 받고 남산(南山)에서 망을 보고 살폈다.

【목마(牧馬)】

牧馬案在雄馬三十五匹, 雌馬三十三匹. 勿論雌雄無有年限, 老斃病斃俱爲故失. 雌馬則每年三雌一息者, 三歲一乳也. 然自四禾以後, 亦無限節, 或老而斷乳, 或病馬不乳, 而息法自如, 輒爲虛錄, 每匹虛錄價爲九兩五錢, 故失之價爲三兩. 故失之弊無年無之, 而數或夥然, 虛錄之弊亦或頻數, 而并徵於牧民, 以爲上納, 勢不獲已, 而弊實最痛.

목마안(牧馬案)에는 수말 35필, 암말 33필이 기재되어 있다.⁶⁵⁾ 암수를 논할 것 없이 연한이 없어 늙거나 병들어 죽은 것은 모두 고실(故失)로

64)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을 말한다. 풍헌은 향소(鄕所)의 임원으로 면·리의 일을 맡아 보았고, 약정은 향약의 임원으로 향리(鄕里)의 자치를 담당하였다.

65) 1678년(숙종 4)에 제작된 『목장지도』에는 46마리로, 18세기 중엽(1757~1765년 경)에 제작된 『여지도서』의 황해도 장연 목장에는 총 마필수가 78마리로 기재되어 있다.

처리한다. 매년 암말 3마리 당 새끼 1마리를 바치는 것은 3년에 1마리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 이후부터 또한 한도가 없어 혹 늘어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혹 병들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허록(虛錄)하니, 매필 당 허록가는 9냥 5전이며 고실(故失)의 가는 3냥이다. 고실의 폐해가 없는 해가 없고 수가 많고 허록의 폐해도 늘어나는데 모두 기르는 백성에게 징수하여 상납하니 형세가 어쩔 수 없을 따름이어서 폐해는 실로 고질이다.

【봉진마(封進馬)】

二匹每歲九月擇執喂養，翌年四月上納，而馬種駑孱，挽近以來，點退居多，爲弊無窮。在前分養於道內各邑，而隨區劃無定數，封眞則每年一匹而喂養之價爲九十八兩八分矣。今去戊午罷分養，而加定一匹，二匹喂價減定四十兩。牧場自小廟江洞至東車長洞，二千八百五十把。

2필을 매년 9월 택하여 키워서 다음해 4월에 상납하는데, 마종(馬種)이 노잔(駑孱)해져서 최근에는 점퇴(點退)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폐해가 무수히 생겨났다. 전에는 도내의 각 읍에서 나누어 기르도록 하였는데 구획에 따른 정수가 없었고, 봉진은 매년 한 필인데 기르는 값이 98냥 8푼이었다. 지금은 지난 무오년(1798)에 나누어 기르는 것을 폐지하여 1필을 더하여 정하였고, 2필의 외양의 값을 40냥으로 감하여 정하였다.

목장은 소묘강동에서 동쪽의 거장동에 이르기까지 2,850파(把)이다.

【성지(城池)】

有土城舊址，長廣俱可二百步許，環小丘爲築若山城。然城內之有公廨無泉井。己酉設鎮節目曰，結柵入防云，則疑是高麗舊城遺址，而不復修築也。城外四面有井，古有大池在舊牧場內矣，今丙辰移牧起壘，民蒙甚。

토성(土城)의 옛터가 있는데 가로 세로 모두 200보(步) 가량으로, 작은 언덕을 둘러싸고 쌓은 것이 산성(山城) 같다. 성 안에는 다만 관아 건물[公廨]만 있고 샘이나 우물은 없다. 기유년(1609) 설진절목(設鎮節目)에 목책(木柵)을 매어 방비했다 했으니, 아마 고려(高麗) 때 세운 옛 성의 유지(遺址)인 듯한데 다시 수축(修築)을 아니한 것이다. 성 밖의 사방에 우물이 있고 예전에 큰 연못이 목장(牧場) 안에 있었는데, 이번 병진년에 목장을 옮기고 개간하여 주민이 그 혜택을 얻었다.

【전선(戰船)】

海字戰船一隻，呂字防牌船一隻，快子兵船一隻，地字兵船一隻，居刀船四隻。

해자 전선(海字戰船) 1척, 여자 방패선(呂字防牌船) 1척, 쾌자 병선(快子兵船) 1척, 지자 병선(地字兵船) 1척, 거도선(居刀船) 4척이다.

2) 『대청도진장선생안창설서(大靑島鎭將先生案牘設序)』⁶⁶⁾

서쪽 바다 200리에 탄환(彈丸)만한 작은 섬이 있으니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이다. 북으로는 백령도(白翎島)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해(大海)와 서로 접해있다. 중국(中國)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예(四裔)를 굽어보고 있는 형상이다. 깎아 세운듯한 험준한 산세(山勢)는 백두(白頭)·묘향(妙香)으로부터 뿜어나온 낙맥(落脈)이며 암초(岩礁)에 부딪치는 급격한 물결은 황하(黃河)의 끝을 통해 온 호수(湖水)이다.

폭원(幅員)은 길지 않고 땅에 꽃과 열매가 있다. 험준한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절벽은 마치 하늘이 세운 방벽과 같다. 그러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孤島)로서 이 두 섬만 대치해 있어서 당선(唐船)이 왕래하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니 실로 우리 동해문(東海門)의 중추라 하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래 이곳은 황무지로서 산은 신령스럽고, 바다는 아름다우나 향신사귀(享神祀鬼)하는 풍습이 없었다. 우리 성조(聖朝) 계축(癸丑; 179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방수(防守)의 책(策)을 써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인민을 모집(募入)해서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습지(濕地)를 개척하여 전답을 만들고 그물

66) 1861년(철종 12) 64대 대청도 진장으로 부임한 첨정(僉正) 임지형(林芝馨)이 도서방비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 백일운(白日暉) 등의 협조를 얻어 대청도진의 연혁을 기록한 자료이다.

과 어구 등을 준비하여 성라운포(星羅雲布)⁶⁷⁾ 한 곳에서 어업에 종사케 하였다. 이제와서 산영(山靈)과 호해(護海)의 방신(方神)을 제향(祭享) 하고난 후로부터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파도가 일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성덕(聖德)의 혜택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백성들의 기풍이 쇠신되어 유유도식(儒遊徒食)하는 폐풍(弊風)이 일소되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별장(別將)을 두어 제방(堤防)의 임무를 다하게 하여 기강을 창립하였다.

조종(祖宗)의 경방(經邦)하는 도(道)가 어찌 정밀하지 않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정조대왕께서는 불궤(不匱)의 효자로서 현릉원(顯隆園)⁶⁸⁾을 수원부(水原府)에 천봉(遷奉)하시고 부(府)로 승격하여 총리영(摠理營)⁶⁹⁾으로 하셨다. 그리고 영(營)의 관할을 진념하시어 특히 이 섬을 본영(本營)에 소속시켜서 중요 거점으로 삼게 하셨다. 다시 도백(道伯)에게 하명하시어 진(鎭)을 설치하는 방책을 수립하도록 하셨다. 대개 이 섬은 주로 외국선(外國船)의 출몰이 빈번한 곳으로 서남해로(西南海路)의 병폐(屏蔽)와 같이 대양(大洋) 가운데 우뚝 서서 가히 국방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만약 진(鎭)을 설치하지 않고 방임하여 두었다면 호서와 호남의 안온을 기할 수 없어서 평시에 도내의 치안을 바랄 수 없

67) 별처럼 펼쳐져 있고, 구름처럼 퍼져 있다는 뜻으로, 사물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68)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에 있는 사도세자 장조(莊祖)와 그의 비 헌경왕후(獻敬王后)의 능인 용릉(隆陵)을 말한다.

69) 조선후기에 설치된 군영의 하나이다. 1802년(순조2) 장용외영(壯勇外營)을 개편한 것으로 수원부(水原府)에 설치되었고 수원유수가 총리사(摠理使)를 겸임했다.

으며 유사시에 당선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념(聖念)의 우근(憂勤)하심이 만기(萬機)를 통찰하고 계시니 감명할 따름이다.

비록 평시에 도내의 치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창졸간에 일어난 지난 경신(庚申)년에 방검(方劍)의 불상사는 유감천만이다. 이와 같은 일을 등한히 생각하고 지난 세월 60년 동안이나 부질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훈형(訓刑)의 의논조차 없었음은 통탄할 일이었다.

내가 신유년(辛酉年; 1861년) 여름에 우림(羽林)⁷⁰⁾으로부터 이곳에 부임하였을때 신병(身病)으로 다소 건강이 불량하였으나 도민들로 하여금 전토(田土)를 새로이 개간케 하여 뽕나무와 마(麻)를 권장하고 어업을 장려하여 미역[藷]·전복[鰓] 등을 채취하게 하고 삼합(參蛤)·목재(木材)와 과실류를 생산케 하였다. 이와 같이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힘을 기울인 결과 차츰 성은(聖恩)에 감화(感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진내(鎭內)에는 안으로 무기(武器)가 없었고 밖으로는 배의 비축도 없음으로 유사시의 방비가 별로 없는 실정에 있었다. 비록 북쪽으로 백령도가 있다고 하지만 파도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구원의 손길이 적시에 미치지 못해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것은 선왕께서 일찍이 근심하시던 일이며 도민들이 항상 통탄해 하는 바였다.

나는 본시 재주가 변변치 못하고 학식이 보잘 것 없어 보필(輔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전래의 유품(遺品)과 부첩(簿牒)을

70) 국왕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

상고해 보아도 영조(營造)에 대한 섬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초창의 배포(排布)⁷¹⁾ 등에 대한 경험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옛 사실은 멀어졌고 문헌 또한 증빙할 수 없음으로 후인이 비록 진(鎭)을 설치하시려는 성상(聖上)의 거룩한 뜻을 추앙하고자 한들 누구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으랴.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도민(島民)을 방문하였는데 백일운(白日暉)란 사람이 모민(募民)하는 초기에 이곳에 이접(移接)해서 문자를 다소알고 또한 기적(記蹟)이 있다고 들었으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취하여 본 즉 영송(迎送)한 별장(別將)의 성명과 직함 정도뿐이고 그 이상 상고할 만한 증빙은 없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승(結繩)의 곳에서 이 섬의 유래가 적힌 유품을 발견하였는데 참으로 우연이라기보다 나를 기다렸다는 감이 든다. 그래서 이 성첩(成帖)을 진완(珍翫)히 여기고 경장(敬藏)하였는데 이에 나의 소회를 진술하고 풍토(風土)의 간험(艱險)함과 관계의 중대함을 분별할 수 있었다. 편수(篇首)에서 가히 설진(設鎭)할만한 곳을 발견하였는데 성상(聖上)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경성(警省)해야 할 것이다.

승정기원후 4년 신유(辛酉)중추(仲秋)상순(上旬)

진천후인선략장군행훈원침정(鎭川後人宣略將軍行訓鍊院僉正)

임지형(林芝馨) 근서(謹序)

71) 마음을 써서 이리저리 세운 계획.

3) 『대동지지(大東地志)』 「덕적도진(德積島鎭)」

孝宗三年, 設屯于德勿島, 尋置萬戶. 肅宗三十四年, 陞僉使.

1652년(효종 3) 덕물도(德勿島)⁷²⁾에 설둔(設屯)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호를 두었다. 1708년(숙종 34) 첨사로 올랐다.

[관원(官員)]

水軍僉節制使一員.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1명.

德物島[一云仁物島. 東距仁川一百二十里, 周三十里. 南控安興, 北際海州, 爲海路要衝, 故置鎭於此. 中有雲島山三石峯, 峻聳插天. 支麓環衛, 內有汊港, 可藏舟船. 飛泉自高瀉下逶迤平川, 層岩盤石曲曲清奇, 杜鵑躑躅蒲山, 遍開洞壑之間, 爛若錦繡. 海邊皆白沙汀, 而海棠往往透沙爛開. 居民并以漁採舟楫富厚, 又田甚肥沃, 有耕稼之利.] 土也串島[三國史云史治島, 一云蘇爺. 東距仁川一百一十里. 右二島, 本朝成宗十七年, 自南陽來屬] 仙接島[文甲之西] 文甲島[周二十五里] 屈鴨島[土也串之西. 右三島自南陽來屬] 拜謁島 鬱島[右五島, 德積之南] ○各樣戰船九艘 ○牧場.

72) 덕물도(德勿島, 德物島)는 덕적도의 옛 지명이다. 득물도(得物島), 인물도(仁勿島), 수심도(水深島) 등으로 전하기도 한다.

덕물도(德物島) [또는 인물도(仁物島)라고 한다. 동쪽으로 인천과 120리 떨어져 있으며 주위는 30리이다. 남쪽으로 안흥(安興)을 연결하고 북쪽으로 해주(海州)를 연결하는 해로의 요충이므로 이곳에 진을 두었다. 중앙에 운오산(雲鳥山)⁷³⁾과 삼석봉(三石峯)이 있는데 험하게 솟아 있어 하늘을 찌른다. 지록(支麓)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안에는 만입되어 있는 포구가 있어 배를 숨길만 하다. 비천(飛泉)이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로 구불구불하고 비스듬하게 흐르는데 층암(層巖)과 반석(盤石)이 굽이굽이 청기(淸奇)하다. 진달래와 철쭉이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 사이에 두루 피어서 금수(錦繡)를 놓은 것 같다. 해변은 모두 백사장이고 해당화가 이따금 모래를 뚫고 나와 피어있다. 사는 백성들은 모두 배타고 나가 고기잡이 하는 것으로 부(富)를 쌓는다. 또한 밭이 매우 비옥하여 농사짓는데 이로움이 있다. 사야곶도(士也串島) [삼국사(三國史)에서는 사야도(史冶島)라고 하였고 또는 소야(蘇爺)라고도 하였다. 동쪽으로 인천과 110리 떨어져 있다. 위의 2개의 섬은 본조 성종 17년(1486년)에 남양(南陽)에 이속(移屬)되었다.] 선접도(仙接島) [문갑도(文甲島)의 서쪽에 있다.] 문갑도(文甲島) [둘레가 25리이다.] 굴압도(屈鴨島) [사야곶도(士也串島)의 서쪽에 있다. 위의 3섬은 남양(南陽)에 이속(移屬)되었다.] 배알도(拜謁島) 울도(鬱島) [위의 5개 섬은 덕적(德積)의 남쪽에 있다.] ○다양한 전선(戰船)이 9척이다. ○목장(牧場)이 있다.

73) 『대동여지도』에서는 본 읍지와 마찬가지로 운오산(雲鳥山)이라 표기되어 있고, 그 위치는 현재의 국수봉(國壽峰)이다.

4) 『장봉진지(長峯鎮誌)』

【인호(人戶)】

人戶四十九戶內[男七十七口女五十八口]

인호(人戶)는 49호(戶) [남자 77명, 여자 58명이다.]

鎮屬喬江兩營, 物膳石花秀魚蘇魚絡蹄眞魚.

진(鎭)은 교동과 강화 두 영에 속해 있고, 물膳(物膳)으로는 굴[石花], 숭어[秀魚], 뱀댕이[蘇魚], 낙지[絡蹄], 준치[眞魚]가 있다.

土係司僕寺, 民關江華府.

땅은 사복시(司僕寺)와 관계가 있고 백성은 강화부(江華府)와 관계가 있다.

【사례대개(事例大槩)】

糴糴軍餉米十八石二斗二升五合. 水軍[軍兵六十二名本鎭, 四百七十名外邑] 戰船 大小并七隻. 糧防錢一千四百十兩, 畿海兩道來其中排廩. 田稅 屯納司僕寺.

畚稅 屯納司僕寺. 軍器[島銃六十柄內, 三柄鐵身折傷, 十二柄粧飾破傷. 庚午六月日, 三軍府關及沁營關據試放時折傷. 勝字銃筒十九柄, 三穴銃二柄, 鉛丸三千一百二十七箇, 火藥筒六十箇, 耳藥筒六十箇, 還刀三十柄, 火繩六沙里, 長鎗二十柄, 月刀二柄, 鑽穴鐵杖二箇, 囉叭一雙, 鎗錘一坐, 呼笛一雙, 朱杖一雙, 大懸鈴一箇, 令旗一雙, 軍器鼎三坐, 加乃一箇, 斧子一箇, 角九錯各一箇.]

환곡에 쓰이는 군량미는 18석2두2승5합이다. 수군(水軍) [군병(軍兵) 중의 62명은 본진(本鎭)에 있고 470명은 외읍(外邑)에 있다.] 전선(戰船)은 큰 것 작은 것을 합쳐 7척이다. 양방전(糧防錢)은 1410냥이고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와서 그 안에서 배름(排廩)한다. 전세(田稅)은 사복시(司僕寺)에 둔납(屯納)한다. 답세(畓稅)은 사복시(司僕寺)에 둔납(屯納)한다. 군기(軍器) [조총 60자루 중에서 3자루는 총신이 부러졌고 12자루는 장식이 부서졌다. 경오년 6월일에 삼군부(三軍府) 및沁營에서 시험삼아 쏠 때 부러졌다. 승자총통(勝字銃筒) 19자루, 3혈총(三穴銃) 2자루, 납탄환 3127개, 화약통 60개, 귀약통 60개, 환도 30자루, 화약 심지 6사리, 긴 삽 20자루, 월도(月刀) 2자루, 찬혈철장(鑽穴鐵杖) 2개, 나팔 1쌍, 호적(呼笛) 1쌍, 주장(朱杖) 1쌍, 대현령(大懸鈴) 1개, 영기(令旗) 1쌍, 군기정(軍器鼎) 3개, 가래 1개, 도끼 1개, 각구착(角九錯) 각기 1개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화군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도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대전통편』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대동지지』
『여도비지』
『강화부지』
『경기지』
『경기읍지』
『기전읍지』
『강도지』
『강화부읍지』
『속수증보강도지』

『휴옹집』

『최항묘지명』

『강화부전도』

『해동지도』

『지승』

『광여도』

『여지도』

『증보문헌비고』

『연려실기술』

『국조보감』

『만기요람』

『식암유고(息庵遺稿)』

『지호집(芝湖集)』

구범진, 「병자호란 시기 청군의 강화도 작전 - 목격담과 조석조류 추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전황의 재구성」, 『한국문화』, 80, 2017.

김재원·윤무병, 「삼거리유적」 『한국지석묘연구』, 1967.

김주홍·현남주, 「고려~조선시대 강화도의 봉수·요망 - 현황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강화외성지표조사보고서』, 2006.

김주홍, 「인천지역의 봉수(1)현황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인천문화연구』 창간호, 2003.

김창현, 「고려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2004.

박남수, 「통일신라와 후삼국시대의 강화」, 『신편 강화사』, 2003.

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백종오,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007.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朝鮮時代史學報』53, 朝鮮時代史學會, 2010.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7, 2007.

송종현, 「지형경관으로 본 강화의 풍토」, 『畿甸文化研究』 制29·30合輯, 2002.

신안식, 「강도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위상」,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 학술발표회 자료집』, 강화문화원, 2009.

유창호, 「고지도와 지리지로 본 교동」, 『교동향교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2012.

윤명철,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 - 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58, 59 합집호, 1999.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연구」 『국사관논총』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이근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이근호,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역사적 맥락」, 『2015년 제2차 학술회의 〈강화 해양관방 유적의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방안〉 자료집』, 강화고려역사재단, 2015.

이민웅,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韓國史論』, 34, 서울대국사학과, 1995.

이영호, 「교동도의 역사적 특징」, 『교동도』, 민속원, 2015.

이희인, 『고려 강화도성』, 해안, 2016.

임용한,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인천학연구』 3, 2004.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모』, 한국연구원, 1985.

이형구, 「광개토대왕릉비 연구」, 『국사관논총』4집, 1993.

이희인,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 강화도, 광주 신남성, 파주 장산진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차인배, 「조선 중기 捕盜大將 인사 특성과 정치적 의미」, 『大丘史學』 112, 2013.

허태구,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진단학보』113, 진단학회, 2011.

남도영, 『한국마정사』, 마사박물관, 1996.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강화고려역사재단, 『강화역사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2015년 제1차 학술회의 자료집』, 2005.

강화고려역사재단, 『강화역사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2015년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2005.

강화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상권, 2003.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강화군·인하대학교박물관 『교동 역사문화유적 학술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18.

경인문화재연구원, 『강화 덕성리 페르퀀트 조성사업 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의 국방유적 -초루돈대·손돌목포대 발굴조사 보고서-』,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 월곶진지』, 2010.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강화의 문화유적』, 인천광역시, 2002.

불교문화재연구소, 『강화도 통제영학당지 및 진해루지 유적』, 200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교동군읍지』, 189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강도지』상, 하, 201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속수증보강도지』, 2016.

육군박물관, 『강화의 국방유적』, 200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화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돈대편-』, 199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의 마장』, 2007.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천광역시 강화군, 『江華山城 -지표조사 보고서-』, 200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 창후리 청소년유스호스텔 부지내 발굴조사』, 200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의 국방유적』, 20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6집, 강화의 국방유적』, 2011.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 중성유적』, 2011.

중원문화재연구원,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구간내 I 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II』, 2009.

중원문화재연구원, 강화 옥림리 유적』, 한문문화재보호재단, 2012.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미루지·선수돈대 -강화 미루지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17.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미루지·선수돈대 -강화 선수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17.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보고서』, 2010.

한울문화재연구원·강화군, 『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 -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 발굴조사-』, 2010.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 복일곶돈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강화외성지표조사보고서』, 강화군, 2006.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산성남장대지유적』, 강화군, 2011.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외성 내 강화전성(塹城)』, 강화군, 2016.

웅진군

『웅진군향리지』, 웅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1996.

『웅진군지』, 웅진군지편찬위원회, 1998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인천시사』, 인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2.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Ⅲ, 경기도박물관, 2002.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서해도서종합학술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서해도서종합학술조사보고서』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영흥도 외1리 패총』, 한양대학교, 2005.

『웅진군지』, 웅진군지편찬위원회, 2010.

『역주 인천도서지역의 지지자료』, 인천광역시, 2010.

『백령·대청도 대중국 등 관광객 유치 역사 발굴 고증 연구』, 인천광역시 웅진군·인하대학교박물관, 2013.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

『2018 군정백서』, 웅진군, 2019.

『인천의 지명』,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의 地誌와 地圖』,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웅진군청 홈페이지, www.ongjin.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kyujanggak.snu.ac.kr/

종로도서관 고문헌검색시스템 <http://jnliboldbook.sen.go.kr/web.do>

| 인천의 관방유적 |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대모성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대모산 정상
	진강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진강산 정상
	별립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별립산 정상
	송악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복산(송악산) 정상
	남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남산 정상
	하음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봉천산 정상
	길상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길상산
	동검도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말도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 소재 산 정상
	볼음도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봉화산
	어류정요망대	요망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황산도요망대	요망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주문도요망대	요망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봉구산 정상
	진강장	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진강산, 덕정산 일대
	길상장	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초지리 일대
	북일장	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소재 상봉에 위치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매음장	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주문도 마장	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갑창성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0번지 일대
	정창성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금위영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82-1 일대 추정
	북파루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82-1 일대 추정
	광화문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고려궁지 인근 추정
	중영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51 인근
	진무영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23 인근
	연무당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83-1 인근
	훈련도감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도감말 인근
	덕진별관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제물진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0 갑곶돈대 역사공원 일대
	월곶진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번지 일대
	승천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97번지 일대
	철곶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 19-1번지 일대
	인화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 504번지 일대
	정포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28번지 일대
	장곶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696번지 일대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선두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460번지 일대
	화도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54번지 일대
	초지진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일대
	덕진진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번지 일대
	광성보	군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3번지
	용진진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438-1번지 일대 추정
	망해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 17
	제송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 79
	염주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2
	갑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5번지
	가리산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43-2번지
	좌강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215번지
	용당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1번지
	화도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54번지 일대
	오두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산1
	광성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
	손돌목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용두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산125
	덕진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번지
	초지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장자평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074번지 일대
	선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271번지
	택지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81번지
	동검북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산70
	후애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번지
	양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40번지
	갈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47-3
	분오리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85-1번지
	송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182번지
	미루지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대
	북일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장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2리 113번지
	선수(검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송강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03
	굴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487
	건평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망양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
	삼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석각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산171
	계룡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망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무태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4
	인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991
	광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32
	구등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복성리 996
	작성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복성리 산633
	초루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복성리 산47
	불장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복성리 산42
	의두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1
	철북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35
	천진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203
	석우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2-1
	빙현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278
	소우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송리리
	숙룡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534
	낙성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249
	적북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산1
	휴암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11
	월곶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옥창돈대	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25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강화군 교동면	화개산성	산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고구리 고읍성	읍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교동읍성	읍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화개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화개산 정상
	수정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수정산 정상
	삼도수군통어영지	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남산포 일대
	백령진	군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04-24, 807-1번지 일대 백령도 천주교회 일대
옹진군	대청도진	군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덕적진	군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장봉진	군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3리 (진촌)
	장봉도 봉화산봉수	봉수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4리 산237 봉화산 정상
	장봉도 목장과 마성	목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독바위(옹암)일대
	신도 목장과 마성	목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3리
	자월도 국사봉봉수	봉수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2리
	대이작도 부아산봉수	봉수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1리 부아산
	대이작도 소리산봉수	봉수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영흥진	군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2리 엽별마을
	영흥도 목장과 마성	목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영흥면 외리2리

인천광역시사 ⑩

『인천의 관방유적』 (상·하) 집필자

상권

총설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중구/동구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황은수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주무관

부평구/계양구/서구

견수찬 계양구청 학예연구사

이윤혜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하권

강화군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차인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남달우 (사)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옹진군

김춘식 소래역사관 학예연구사

김정훈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촬영

홍승훈 스튜디오 씨 대표

인천광역시사 ⑩

인천의 관방유적 하

발 행 일 2019. 12.
발 행 행 인천광역시
발 행 처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032) 440-8383
인 쇄 (주)동양인쇄사 (032-432-9480)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427-10

ISBN 979-11-87854-23-4